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05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충북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보고서

- 총북 -

2005년 12월 1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보고서

- 충북 -

제출일: 2005년 12월 10일

연구참가자

책임연구원: 허석렬(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이항우(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최영훈(충북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홍청숙(충북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일러두기

1. 여기에 수집한 자료는 1952년부터 1992년까지의 충북지역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건 및 단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분류한 것이다.
2. 민주화 과정에서 실제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여기에 빠져 있는 사건·단체 항목이 있을 수 있다.
3. 따라서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본 조사팀이 발견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 및 단체가 갖는 중요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 사건명은 신문기사 제목 또는 공안당국의 명명 수준에서 벗어나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사전 등재 항목으로 적합한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여하였다.
5. 사건과 단체에 대한 기술은 가능한 한 관련 원자료(1차·2차 자료)를 그대로 옮겨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문의 의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도의 글자를 첨삭하였다.

* 입력 형식은 다음과 같다

<사건>

일련번호. 사건명
사건발생일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관련 사건

<단체>

일련번호. 단체명
약칭
소속 단체
존속 기간
주요 활동 지역
법적 상태
조직 체계
강령
결성 과정
주요 활동
주요 활동가
관계 단체
관계 자료

목 차

일러두기.....	1
목차.....	2
Ⅰ. 작업 진행 경과.....	3
Ⅱ. 충북 지역 사건·단체항목 목록.....	4
1. 연도별	4
1) 사건항목 목록	4
2) 단체항목 목록.....	7
2. 분야별	8
1) 사건항목 목록	8
2) 단체항목 목록	13
Ⅲ. 사건항목 기초조사.....	15
<1960년대>	15
<1970년대>	22
<1980년대>	35
<1990년대>	129
Ⅳ. 단체항목 기초조사.....	154
<1960년대>	154
<1970년대>	156
<1980년대>	164
<1990년대>.....	263
Ⅴ. 충북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단체 일지.....	291
Ⅵ. 참고 자료.....	312

1. 작업 진행 경과

1. 연구 참가자

- 책임연구원: 허석렬(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이항우(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 연구보조원: 최영훈(충북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홍청숙(충북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2. 작업 진행 과정

- 계약체결: 2005년 5월 30일
- 충북대학교 사회조사실습실에 작업 공간 마련
- 2005년 6월 1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조사팀 회의 개최
 - 과제 성격과 방향에 대한 연구팀 구성원들 간의 인식들 공유
 - 사건·단체의 일지 및 목록 작성
 - 각종 기초 자료 수집
- 중간보고회: 2005년 10월
 - 중간보고 이후 총 5차례의 정기·비정기 조사팀 회의를 개최함
 - 기 발간된 관련 문헌, 신문 자료를 토대로 사건·단체 내용 작성
 - 민주화운동 관련단체 및 관련자 면담
 - 사건·단체 일지 및 목록 작성
- 최종 보고회: 2005년 12월 2일
 -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보완 및 내용 완성
- 보고서 납품: 2005년 12월 10일

II. 충북 지역 사건·단체항목 목록

1. 연도별

1) 사건항목 목록

1. 충주고등학교 학생데모
2. 충북지역 4·19 시위
3. 충주비료 간부진 5명 사퇴
4. 충주수리조합 분규
5. 충주비료 공장·직장 노동조합 파업
6. 청주공업고등학교 학생 데모
7. 청주시 소속 청소부들의 임금인상 요구투쟁
8. 충북 용강 지구 농지공사장 노동자 체불 임금 청구투쟁
9. 청주신흥제분 노동개선 요구 투쟁
10. 청주연초제조창 박석화 양 부당해고 철회 및 산재보상 투쟁
11. 청주신흥제분주식회사 노조 분회장 이완우 부당해고 항소 및 복직요구 투쟁
12. 몰수된 토지 반환 청구의 건
13. 삼화물산 노동자 집단해고
14. 삼립식품 주식회사 청주공장 노동자 집단 해고
15. 운천동 강제철거 및 성추행 사건
16. 1984년, 청주토지강매 사건
17. 한음파 임금투쟁
18. 1979년에서 1984년까지의 충북지역 학생운동
19. 1985년부터 1987년 6월항쟁까지의 학생운동
20. 농민 서형석 씨 소값 폭락 비관자살
21. 충북기독교 농민회 회원들의 미국대사관 내 시위
22. 대성연마 부당해고 철회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발투쟁
23. 광주민중항쟁 영령추모예배 및 사진전
24. 진천여자고등학교 학원 내 부정사실 폭로
25. 故 서형석 씨 추도식 및 외국농산물 수입 규탄대회
26.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총무 오상근 씨 집단구타 사건
27. 충북 민정당 제1지구당사 농성 사건
28. 충북지역 인권협회의 학원안정법, 단군신전, 교회선교타종에 관한 성명 발표
29. 청주 대화운수 김태웅 기사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분신 기도

30. 청주지역 법인택시 기사들의 부당해고 철회투쟁
31. 충북대 교수 32명 시국선언문 발표
32. 4.27 군사독재타도 및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충북도민 실천대회
33. 신신택시, 중원택시 조합장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철회 투쟁
34. 교도소 폭력의 후유증으로 인한 유윤식 군의 정신분열 증세 발생
35. “너를 범인으로 만들테다”(청주대 유수남 군의 경우)
36. 청주경찰서 내 집단폭행 사건
37. 고문폭력의 장 내덕파출소(청주대 황규훈 군의 경우)
38. 8.13 경찰 폭력 및 민중, 민주화운동 탄압 저지대회
39. 성신양회 주식회사 경비원 노동조건개선 및 원청 복직 요구 투쟁
40. 농가부채에 대한 충북 농민의 주장
41. 민중교통 김교성 씨 부당노동행위 고발 및 해고자 복직 요구투쟁
42. 청원군 옥산면 호죽지 해평들 농민들 ‘농지정리 부실 공사 완전보수’를 요구투쟁
43. 천주교청주교구사제단,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4·13 호헌 철폐와 군부독재 퇴진을 위한 단식기도’ 돌입
44. 충북대 교수 36명 시국성명 발표
45. 청주택시주식회사 노동조합 총무부장 박노영 해고
46. 6.10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충북 실천대회
47. 원일교통 노동조합 조합원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탄압중지 요구투쟁
48. 제일관광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철회투쟁
49. 동원교통주식회사 어용노동조합의 조합원 진정서 위·변조
50. 충청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백만학도 통일대행진을 떠나며 청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을 발표
51. 1987년 총대협 출범기부터 1989년 충북대 전대협 탈퇴기까지의 충북지역 학생운동
52. 공군헌병대에 의한 충북민주운동협의회 회원 납치, 감금, 폭행사건
53. 평화택시 임금체불과 노동조합 탄압 중지를 위한 농성투쟁
54. 동양교통 노동조합장과 운영위원 등 노동자 4명 집단해고 철회 요구투쟁
55. 1987년 청주공단 노동자들의 투쟁
56. 삼우교통 노조위원장 해고 및 구속 철회 요구 투쟁
57. 청원군 호죽 2구 농민 구속 철회와 밤나무 보상 요구투쟁
58. 농지정리 보수공사 및 수세거부 투쟁
59. 청주법인택시 노동자 파업 및 단식 농성
60. 양심수 석방 및 수배자 해제 애국시민 결의대회

61.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성대회 및 통일문제 강연회
62. '공동올림픽 쟁취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 국토종단순례대행진 및 8·15학생회담 성사를 위한 시민결의대회' 개최
63. 제5공화국 비리 척결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결의대회
64. 고추·담배 생산비 보장 제천지역 농민대회
65. '농축산물 제값받기 괴산군농민대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 발표
66. 제3차 농산물 제값받기 제천지역 농민대회
67. 농축산물 제값받기 청원군 농민대회
68. 충북농민연합 '충북지역 100만 농민은 처절한 함성으로 외친다!'는 제목의 성명 발표
69. 강성호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70. 관제 학부모조직을 동원한 좌경의식화 조작 규탄 성명
71. 참교육을 위한 국민걷기대회
72. 1989년에서 1992년까지의 충북지역 학생운동
73. 1990-91년 청주지역 노동조합 운동
74. 민주화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 기도회 및 걷기대회
75. 충북민련 사무실 방화 사건
76. 괴청년 충북대학교 난입 사건
77. 한민족대학생연합 출범을 통한 운동권 와해공작 의혹
78. 청주지역 노동운동 탄압규탄대회
79.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7·20 민족대교류 선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 발표
80. 옥산 휴게소, 노조의 단체행동 빌미로 위원장 해고
81. 범민련 탄압 및 통일인사 구속 규탄농성
82. AMK 노동조합원 부당해고 철회투쟁
83. 불량 종묘로 인한 폐농에 대한 보상 요구 투쟁
84. 청주대 이적단체 구성조작 음모 사건
85. 한국야금 92년 임금투쟁
86. 고 강경대 열사 1주기 추도식 및 5월 투쟁 선포식
87. 평곡산업 주식회사 파업

2) 단체항목 목록

1. 청주 여자기독교청년회
2. 청주도시산업선교회
3. 충북기독교청년협의회(E.Y.C)
4. 충북기독교 농민회
5. 충북민주운동협의회
6. 민주쟁취 국민운동 충북본부
7. 충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8. 충북문화운동연합
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10. 사람사랑
11. 청주노동문제상담소
12.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13. 충북민주화교수협의회
14. 충북시민회
15. 충북여성민우회
16. 국민연합 임투대책반
17. 국민연합 임투공동대책위원회
18.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 충북협의회
19. 민주주의 민족통일 충북연합
20. 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21. 민중의당
22. 민중당
23. 진보정당추진위원회
24. 사회당추진위원회

2. 분야별

1) 사건항목 목록

<노동운동>

발생일	사건명	발생 지역	기타
1960. 3. 10	총주비료 간부진 5명 사퇴	충주	
1960. 6. 15	총주수리조합 분규	충주	
1960. 10. 22	총주비료 공장·직장 노동조합 파업	충주	
1973. 8. 8	청주시 소속 청소부들의 임금인상 요구투쟁	청주	
1974. 9. 1	충북 용강 지구 농지공사장 노동자 체불 임금 청구투쟁	괴산	
1975. 3	청주신흥제분 노동개선 요구 투쟁	청주	
1975. 12.	청주연초제조창 박석화양 부당해고 철회 및 산재보상 투쟁	청주	
1976. 7. 18	청주신흥제분주식회사 노조 분회장 이완우 부당해고 항소 및 복직요구 투쟁	청주	
1978. 11. 23	삼화물산 노동자 집단해고	청주	
1982. 7. 19	삼립식품 주식회사 청주공장 노동자 집단 해고	청주	
1983. 9. 30	한음파 임금투쟁	청주	
1985. 5. 6	대성연마 부당해고 철회와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발투쟁	청주	
1986. 3. 23	청주 대화운수 김태웅 기사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분신 기도	청주	
1986. 4	청주지역 법인택시 기사들의 부당해고 철회투쟁	청주	
1986. 6. 23	신신택시, 중원택시 조합장 부당 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철회 투쟁	청주	
1986. 12. 29	성신양회 주식회사 경비원 노동조건개선 및 원청복직 요구 투쟁	단양	
1987. 1. 27	민중교통 김교성씨 부당노동행위 고발 및 해고자 복직 요구투쟁	청주	
1987. 5. 27	청주택시주식회사 노동조합 총무부장 박노영 해고 철회 요구투쟁	청주	

1987. 7.	원일교통 노동조합 조합원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탄압중지 요구투쟁	청주	
1987. 8. 10	제일관광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철회투쟁	청주	
1987. 8. 12	동원교통주식회사 어용노동조합의 조합원 진정서 위·변조	청주	
1987. 9. 23	평화택시 임금체불과 노동조합 탄압 중지를 위한 농성투쟁	청주	
1987. 10.	동양교통 노동조합장과 운영위원 등 노동자4명 집단해고 철회 요구투쟁	청주	
1987. 7.	1987년 청주공단 노동자들의 투쟁	청주	
1988. 1. 29	삼우교통 노조위원장 해고 및 구속 철회요구 투쟁	청주	
1988. 6. 2	청주법인택시 노동자 파업 및 단식 농성	청주	
1990. 1.	1990-91년 청주지역 노동조합 운동	청주	
1990. 6. 8	청주지역 노동운동 탄압규탄 대회	청주	
1990. 9. 7	옥산 휴게소, 노조의 단체행동 빌미로 위원장 해고	옥산	
1991. 4. 26	AMK 노동조합원 부당해고 철회투쟁	청주	
1992. 3. 2	한국야금 92년 임금투쟁	청주	
1992. 6. 23	평곡산업 주식회사 파업	청주	

<농민운동>

발생일	사건명	발생 지역	기타
1985. 4. 21	농민 서형석씨 소값 폭락 비관자살	청원	
1985. 4. 23	충북기독교 농민회 회원들의 미국대사관 내 시위		
1985. 7. 17	故서형석씨 추도식 및 외국농산물 수입 규탄대회	청주	
1985. 7. 19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총무 오상근씨 집단구타 사건	청주	
1986. 12. 30	농가부체에 대한 충북농가부체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청주	

1987. 3. 10	청원군 옥산면 호죽지 해평들 농민들 '농지정리 부실 공사 완전보수'를 요구투쟁	청원	
1988. 3	청원군 호죽 2구 농민구속 철회와 밤나무 보상 요구투쟁	청원	
1988. 4. 29	청원군 농지정리 보수공사 및 수세거부 투쟁	청원	
1988. 10. 10	고추·담배 생산비 보장 제천지역 농민대회	제천	
1988. 10. 28	'농축산물 제값받기 괴산군농민대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 발표	괴산	
1988. 11. 7	제3차 농산물 제값받기 제천지역 농민대회	제천	
1988. 11.	농축산물 제값받기 청원군 농민대회	청원	
	충북농민연합 '충북지역 100만 농민은 처절한 함성으로 외친다!'는 제목의 성명발표	청주	
1991. 5. 4	불량 종묘로 인한 폐농에 대한 보상 요구 투쟁	청주	

<학생운동>

발생일	사건명	발생 지역	기타
1960. 3. 10	충주고등학교 학생데모	충주	
1960. 4. 19	충북지역 4·19 시위	청주	
1964. 4. 20	청주공업고등학교 학생 데모	청주	
1979. 1.	1979년에서 1984년까지의 충북지역 학생운동	청주	
1985. 1.	1985년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의 학생운동	청주	
1985. 6. 1	진천여자고등학교 학원 내 부정사실 폭로	진천	
1986. 9. 10	교도소 폭력의 후유증으로 인한 유윤식 군의 정신분열 증세 발생	청주	
	"너를 범인으로 만들테다"(청주대 유수남군의 경우)	청주	
1986. 8. 31	청주경찰서 내 집단 폭행사건	청주	
1986. 9. 30	고문폭력의 장 내덕파출소(청주대 황규훈군의 경우)	청주	

1987. 8. 17	충청지역 대학생대표자 협의회, '백만학도 통일대행진을 떠나며 청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을 발표	청주	
1987. 1.	1987년 총대협 출범기부터 1989년 총북대 전대협 탈퇴기까지의 충북 지역 학생운동	청주	
1987. 11	민중후보 백기완선생 충청지역대학생 선거대책위원회 발족	청주	
1989. 1.	1989년에서 1992년까지의 충북지역 학생운동	청주	
1990. 5. 23	괴청년 충북대학교 난입 사건	청주	
1990. 5. 25	한민족대학생연합 출범을 통한 운동권 와해공작 의혹	청주	
1991. 4. 16	청주대 이적단체 구성조작 음모 사건	청주	

<연합운동>

발생일	사건명	발생 지역	기타
1985. 5. 18	광주민중항쟁 영령추모예배 및 사진전	청주	
1985. 9. 9	충북 민정당 제1지구당사 농성사건	청주	
1985. 9. 11	충북지역 인권협회의의 학원안정법, 단군신전, 교회선교타종에 관한 성명발표	청주	
1986. 4. 25	충북대 교수 32명 시국선언문 발표	청주	
1986. 4. 27	4.27 군사독재타도 및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충북도민 실천대회	청주	
1986. 8. 13	8.13 경찰 폭력 및 민중, 민주화운동 탄압 저지대회	청주	
1987. 5. 11	천주교청주교구사제단,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4·13 호헌 철폐와 군부독재 퇴진을 위한 단식기도' 돌입	청주	
1987. 5. 12	충북대 교수 36명 시국성명 발표	청주	
1987. 6. 10	6.10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충북 실천대회	청주	
1987. 8. 18	공군헌병대에 의한 충북민주운동협의회 회원 납치, 감금, 폭행사건	청주	
1988. 6. 2	양심수 석방 및 수배자 해제 애국시민 결의대회	청주	
1988. 6. 17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성대회 및 통일문제 강연회	청주	

	'공동올림픽 쟁취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 국토종단순례대행진 및 8·15학생회담 성사를 위한 시민결의 대회' 개최	청주	
1988. 9. 19	제5공화국 비리척결 및 양심수석방을 위한 결의대회	청주	
1990. 3. 1	민주화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 기도회 및 걷기대회	청주	
1990. 3. 16	충북민련 사무실 방화사건	청주	
1990. 7. 20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7·20 민족대교류 선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 발표	청주	
1991. 1. 28	범민련 탄압 및 통일인사 구속 규탄농성	청주	
1992. 4. 25	'고 강경대 열사 1주기 추도식 및 5월 투쟁 선포식'	청주	
1992. 11. 9	민중대통령후보 청주발대식 및 백기완 후보 초청강연회	청주	

<교육운동>

발생일	사건명	발생 지역	기타
1989. 5. 24	강성호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제천	
1989. 5. 25	관제 학부모조직을 동원한 좌경의식화 조작 규탄 성명	청주	
1989. 10. 28	참교육을 위한 국민걷기대회	청주	

<주민운동>

발생일	사건명	발생 지역	기타
1976. 7.	청원군 내 몰수된 토지 반환 청구의 건	청원	
1983. 6. 25	운천동 강제철거 및 성추행 사건	청주	
1983. 7. 11.	1984년, 청주토지강매사건	청주	

2) 단체항목 목록

<연합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 지역	기타
1985. 4. 15	총북민주운동협의회	청주	
1986. 6	민주쟁취 국민운동 총북본부	청주	
1987. 5. 11	총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청주	
1989. 3. 19	총북민족민주운동연합	청주	
1989. 6. 24	총북시민회	청주	
1991. 1. 17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 총북협의회	청주	
1991. 12. 14	민주주의 민족통일 총북연합	청주	
1988. 4.	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청주	
1988. 2.	민중의당	청주	
1992. 2.	민중당	청주	
1992. 7.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청주	
1992. 10.	사회당추진위원회	청주	

<종교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 지역	기타
1972. 4.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청주	
1981. 11.	총북기독교청년협의회(E.Y.C)	청주	
	총북기독교 농민회	청주	

<여성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 지역	기타
1965. 7.	청주 여자기독교 청년회	청주	
1989	충북여성민우회	청주	

<문화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 지역	기타
1987. 12. 4	충북문화운동연합	청주	

<교육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 지역	기타
1987. 11. 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청주	
1987. 7	사람사랑	청주	
1989. 6. 13	충북민주화교수협의회	청주	

<노동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 지역	기타
1989. 2	청주노동문제상담소	청주	
1990.	국민연합 임투대책반	청주	
1990.	국민연합 임투공동대책위원회	청주	

III. 사건항목 기초조사

<1960년대>

1. 사건명 : 충주고등학교 학생데모

사건 발생일: 1960. 3. 10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하오 1시반경 충주고등학교 1,2학년생 약 5백 명은 이날 아침 시험을 마치고 하오부터 강당에서 당지출신 자유당 소속 홍병각 의원의 선거강연을 듣기 시작함. 강연도중 학생들이 '집어치우라'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홍의원의 강연은 중단되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뛰쳐나와 약 3백 여 명이 성서동에 있는 민주당 충주시당 앞으로 몰려가서 '민주주의 만세' '학원에 자유를 달라' '학원을 정치도구로 삼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그곳에서부터 버스정류장을 거쳐 한일양조장 앞까지 약 1킬로 반의 코스를 데모한 후 경찰대와 마주쳐 3시반경 해산되었으나, 그 중 약 25여명이 경찰에 연행된 다음 주모자로 알려진 4명만 남고 나머지는 석방되었다 (『조선일보』 1960. 3. 10)

관계 인물: 홍병각

관계 단체: 자유당

관계 자료: 『조선일보』 1960. 3. 10

관련 사건: 4·19 혁명

2. 사건명 : 충북지역 4·19 시위

사건 발생일: 1960. 4. 19 ~ 1960. 4. 28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 선거

사건 내용:

1960. 4. 18: 정오무렵 청주공고, 청주상고, 청주고등학교 약 1,000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학생들이

호국단의 노래를 부르며 ‘마산사건에 경찰은 책임져라’를 외치며 시위.

이날 시위로 약

1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연행됨. (『충북신보』 1960. 4. 19)

1960. 4. 19 : 오후 2시 세광고 학생 약 300여명이 수업도중 교문을 박차고 시위를 시작함.

‘학원의 자유를 간섭 말라’는 등 구호를 외치면서 세고를 출발, 공원뒷산을 넘어 도지사

관사 앞을 경유하여 북문로 3가를 경유하여 상고에 이르렀을 때 경찰 출동. 오전 9시

조회를 마친 충북 농고 학생 약 400여명은 팽이 삼 등 농기계 자루에 ‘학원에 자유를 주

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시위 시작. 도청을 향하여 대성중학교 앞 도로를 통

과. 사복경찰관 약 100여명과 학생들은 청주여고 앞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여 투석전이 벌

어짐. 정오경부터 청주대학생 350여명은 시위를 위하여 머리띠를 동여매고, 상의를 벗은

학생 또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학생 약 350명은 스크럼을 짜고 교문을 나섰다. ‘구속된

고교생을 즉각 석방하라’ ‘마산사건의 고문경찰관을 즉시 처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의 제지 없이 내덕동 파출소를 거쳐 청주역을 향해 전진하여 미곡창고 앞에 이르

자, 경찰 백차가 달려와 제지하였으나 학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전진. 소방차가

뿌리는 물을 뚫고 전진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완강한 저지에 오정목 다리 100m 지점에서

좌절. (『충북신보』 1960. 4. 20)

1960. 4. 24 : 4.19 학생데모 사건 희생자를 위문하고자 충주고등학교 학생회에서 4월 24일

부터 시내 중앙동 로타리에서 위문금을 모집. (『충북신보』 1960. 4. 25)

1960. 4. 24 : 4.19의거에 희생된 학생들을 위한 위문금을 충북신보충주지사에 성금으로 기탁.

(『충북신보』 1960. 4. 26)

1960. 4. 26. :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제천에서 발생. 약 100여 명의 제천고등학교

학생들은 4.19 희생자에 대한 모금운동을 하면서 오전9시 25분 제천연초경작조합

앞을 출발하여 4거리를 경유하여 약 30분 동안 시위를 하고 귀교. 그들은 '선거 다시하

자', '악질경찰 물러가라', '평화데모를 방해하지 말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시

위대를 저지하지 않고, 일반 시민의 합세만을 저지하는데 주력함.

(『충북신보』 1960. 4. 27)

1960. 4. 26: 4.19에 희생된 민주투사를 위문하기위해 청주시내에서도 청주대학을 비롯한 대학생 및 각

고등학교 학생들은 가두모금에 착수하여 마이크를 통하여 오고가는 행인들의 자선성금을

호소. 시민들의 성금은 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답지를 거듭하고 있는데 4월 26일 7

시 현재 967615환을 모금. 청주학생모금반은 27일에 선전차를 동원하여 마이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자진성금기탁을 강력히 호소함. (『충북신보』 1960. 4. 27)

1960. 4. 27: 하오 2시 청주고등학교 학생 약 100여 명이 시내 중앙공원에 집합, 4.19에 희생된

학생동지들의 원혼에 보답하기 위한 데모를 감행. 부패공무원 및 부정을 한 공무원을 수

정함과 동시에 한희석, 최인규등을 즉시 처단하라고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시장과 남문

로등을 거쳐 도청현관 앞에서 정인택 도지사의 사퇴를 요구. 정지사가 학생들의 요구

에 대하여 '이미 마음에 다짐했다'는 요지의 말을 하자 시발점인 중앙공원에 돌아와 자진

해산함. (『충북신보』 1960. 4. 28)

1960. 4. 28 : 4.19사상자 위문금이 연일 충청일보에 답지. 26일에 한국운수청주지점에서 5만환, 세광

고등학교 교직원 일동이 24000환, 청주시의사회에서 4만 4천5백환, 사주면 의회 의원

일동이 1500환, 보은 민주당 가두 모금분 2만6천환, 친목통일계원5만환을 기탁.

(『충북신보』 1960. 4. 28)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조선일보』 『충북신보』

관련 사건: 4·19 혁명

3. 사건명 : 충주비료 간부진 5명 사퇴

사건 발생일: 1960. 6. 15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6월 15일 오 상공부장관은 충주비료공장현장 종업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요구조건을 전부 수용할 예정이니 동요치 말고 생산에 이바지 하라고 통고 하였다. 충주비료 노동자들은 앞서 사면된 4명의 종업원의 복직과 현 사장이하 상무 등 5인의 간부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오장관은 장하승사장과 정상무등 5인의 사표를 이미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종업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통고하였다(『조선일보』 1960. 6. 16)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조선일보』 1960. 6. 16

관련 사건: 충주비료 공장·직장 노동조합 파업(1960. 10.22), 사건 번호 5. p. 4.

4. 사건명 : 충주수리조합 분규

사건 발생일: 1960년 10월 18일

사건 배경:

사건 내용: 조합원 부담 경감 및 조합평의원과 전 직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데모 등으로 분규 중이던 충북수리조합은 13일 조합 각 부락대표 58명이 연명으로 청원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함으로써 재연되었다. 청원서 내용은 1. 결원 중인 조합장의 즉시 임명, 2. 조합직원의 전원해임, 3. 조합평의원의 재선 등 5개 항목으로 되어있음 (『조선일보』 1960. 10. 18).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조선일보』 1960 10. 18

관련 사건:

5. 사건명 : 충주비료 공장·직장 노동조합 파업

사건 발생일: 1960년 10월 22일

사건 배경:

사건 내용: 충북비료 공장·직장 노동조합원 7백30명이 단체협약 체결, 임금인상, 그리고 부정불법인사 조치철회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22일 아침 8시를 기해 일제히 쟁의에 돌입함. 조합원들은 앞으로 3주일간의 냉각기를 두고 쟁의 대책위원회를 구성·설치하여 회사 측과 교섭을 할 것이며, 만일 이 냉각기간 중에도 목적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11월 12일 상오 8시부터 무기한 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함.

(『충북신보』 1960. 12. 23)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충북신보』 1960.12.23

관련 사건: 충주비료 간부진 5명 사퇴(1960. 6. 15), 사건번호 3, p. 3.

6. 사건명 : 청주공업고등학교 학생 데모

사건 발생일: 1964. 4. 20

사건 배경:

사건 내용: 청주공업고등학교 학생 1,100여명은 당일 오전 9시 15분부터 “5월 혁명의 자랑은 4월혁명의 모독이다”, “한·일 회담을 백지화하라”, “형식적인 위정자는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거리로 나와 시위했다. 학생들은 9시 50분 경 도청동쪽 중앙초등학교 네거리에서 제지하려는 교사들과 대치, 옥신각신하는 동안 경찰관들은 도청 정문을 닫고 정사복 경찰관 100여명이 경비태세를 취했다. (『조선일보』 1964. 4. 21)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조선일보』 1964. 4. 21

관련 사건:

<1970년대>

7. 사건명 : 청주시 소속 청소부들의 임금인상 요구투쟁

사건 발생일: 1973. 8. 8 ~ 1974. 2. 23

사건 배경:

사건 내용:

1. 청소부들 임금인상 건의 - 청주시 소속 청소부(임시고용원)들이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 이들은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앞으로 낸 건의서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주거나, 이의 실시가 사실상 어려우면 통상임금의 1백분의 50을 휴가비로 지급해주고, 현재 받고 있는 하루임금 4백 80원~5백 50원으로는 생계유지조차 어려우므로, 최소한 일당 7백 원 선으로 임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함. 또 퇴직금 제도도 아울러 실시하여 퇴직 후의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해 달라고 호소. 이에 대해 한 실무자는 시 재정상 임금인상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퇴직금 제도도 이들이 임시고용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성이 없다고 말하고 가제도 문제는 검토 중이라고 말함.

(『충청일보』 1973. 8. 9.)

2. 노동조건 개선 요구 - 충북 청주시에 고용되어 있는 1백 70여명의 청소부는 1973년 10월 13일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자신들의 처신을 밝히면서,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의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10월 30일까지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관철될 때까지 작업을 거부하기로 함.

그들은 지난 6월 도시산업선교자로 청주에 파견된 정진동 목사(42)의 도움으로 수차에 걸쳐 “청소부 노임 인상, 퇴직금지급, 유급휴가제 실시, 무단해고 금지” 등을 진정한 바 있다고 하였음. 그러나 그 때마다 시는 법적 문제이므로 도지사와 논의 중이라 했고, 도지사는 “금후 업무수행에 참고 하겠다”고 답변해 왔을 뿐이라고 함. 또 8월 21일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했더니 감독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라”고 시에 독촉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케 되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28·34·45·46조를 실시하는 동시 우선 현재 일일 4백80원의 임금을 7백 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한 이들의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참고=서울청소부 7백 20원, 대전 6백 89원이라고 한다). ① 1년 이상 26년을 승급도 없이 청주청소관인

임시공무원으로서 일하면서 480원~530원선에서 일하면서 바른말 한마디 하면 즉석에서 해고시킨다. ② 연중무휴 유급휴일이 없다. ③ 새벽 4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 시간외 일할 때가 많으나 수당도 없다. ④ 평생을 보내도 상여금제도 하나 없다. 이성우씨(8년간) 정운탁씨(19년간)는 퇴직금도 못 받았다. 작업 중 부상을 입어도 보상 없다. ⑤ 16만 청주시민에게 우리의 처지를 호소하여 협조를 바라는 바이다.

<결의문>

- ① 우리는 유신정신에 입각하여 새 청주 꾸미는데 총성할 것을 다짐한다.
- ② 우리는 반공과 사회정화운동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 ③ 우리는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결성을 할 것을 결의한다.
- ④ 우리가 근로개선요구는 일보도 양보할 수 없음을 다짐한다.
- ⑤ 10월 30일까지 우리가 요구한 근로개선이 관철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작업을 거부기로 결의한다.
- ⑥ 단체 행동할 것을 우리 스스로 결의했으니 1백 70여명은 행도에서 낙오되거나 후퇴하지 않기를 결의한다. (『기독교공보』 1973. 10. 27)

3. 청소부 임금인상 - 청소부 임금이 내년부터 오르게 됐다. 5일 청주시가 밝힌 청소부 근로조건개선책을 보면 현행 청소부임금(일당) 4백 80원을 1백 20원(25%)을 인상해 6백 원으로, 인분수거청소부 임금은 현행 일당 5백 30원에서 1백 원(19%)을 올려 6백 30원으로, 감독자 일당은 5백 50원에서 1백 원(18%)을 올려 6백 50원으로 책정키로 했다.

이 같은 청소부임금인상계획에 따라 73년도에 주민부담금 1천 1백만 원, 시부담 3천 8백만 원 등 4천 9백만 원의 청소비가 소요되던 것이 내년부터 1천여만 원의 청소비 증액이 불가피하나 현행 월가구당 15~70원이던 오물수거수수료는 인상치 않고 시에서 부담키로 했다. 또한 청소부들의 요구조건의 하나인 퇴직금, 상여금지급 문제는 시청측이 재정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시해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청주시 1백 70여명의 청소부들은 1년 전부터 시청 측과 임금인상을 놓고 입씨름을 벌여왔는데 이번 시청측의 임금인상조치로 일단락됐다. (『한국일보』 1973. 12. 7.)

4. 해고된 청소부 복직운동 전개 - 청주 교회연합회 회원들은 지난 12월 8일 청주시장을 방문하고 해고된 청소부 유재향씨(50세)와 최명식씨(50세)에 대한 복직을 건의하고 복직이 안 될 경우 퇴직금(29년 근무)을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청주시장은 이에 대해 “현재 그러한 퇴직금제도가 없다”고 하여 면담결과는 결렬되었으며, 이에 대해 청주 근로감독관은 “이것은 청주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부터 임금인상, 유급휴가제도와 상여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실시 등 근로개선을 요구하고 파업을 일으켰던 청소부들을 시청에서 지난 11월 30일자로 해고함으로 시작됐다. 해고된 유재향, 최명식씨 가족들 17명(70세 노인과 4세 유아까지 포함)은 지난 12월 5일 “우리는 근로개선하다가 해고당한 유재향, 최명식이다. 우리를 복직시켜 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남문로1~3가와 북문로1~2가를 거쳐 가두시위를 벌여왔다. 한편 지난 5일 청주시는 청소부근로개선책을 발표했는데, 현행 청소부임금(일당) 4백 80원에서 1백 20원(25%)을 인상해 6백 원으로 인분수거청소부임금은 5백 30원에서 1백 원(19%)을 올려 6백 30원으로, 감독자 일당은 5백 50원에서 1백 원(18%)을 올려 6백 50원으로 책정하고, 1년 50일간씩 유급휴일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퇴직금과 상여금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크리스찬신문』 1973. 12. 15)

5. 부당 해고된 청소부 복직 - 청주시 청소부들의 근로조건개선을 주장하다 부당 해고되었던 유재향 씨와 최명식 씨가 지난 1월 10일자로 복직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31일자로 부당해고 되었는데 동료청소부들과 청주도시산업선교회 및 청주기독교 연합회는 그동안 이들의 복직운동을 계속 전개했었다.

한편 작년 초에 해고됐던 이정우 씨와 정운택 씨는 복직대신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퇴직금청구문제는 권무태 노동청근로감독관이 작년 12월 19일 청주시장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함으로 본격화되었다. 이 고소사건은 지난 1월 14일 첫 사실심리를 했는데 이들이 재판에서 승소하면 20여만 원씩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 한편 예장 총북노회는 지난 1월 6일 담당법관 앞으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그동안 청주시 청소부들의 근로조건개선 요구는 현재로 일일임금 4백 80원에서 6백 50원으로 인상, 1년에 50일 동안 유급휴가제도 실시 등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퇴직금제도가 없고, 노동조합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찬신문』 1974. 1. 19)

6. 청소부 복직·처우개선 - 근로개선운동에 앞장섰다가 부당해고되었던 청주시 청소부 유재향, 최명식 씨가 1월 10일자로 청주시장명의로 복직되었다. 또한 8년간 일하다 부당 해고된 정운택 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건은 지난 12월 19일 노동청청주근로감독관에게서 청주지방검찰청 이기태 검사에게 넘어가 지난 1월 14일 1차 사실심리를 마쳤다.

예장 총북노회 교역자 70여명은 동 건이 공정하게 판결지어 달라는 진정서에

서명 날인하여 검찰청에 보냈다. 본건에서 원고인 이정우, 정운탁 씨가 승소하게 되면 1백 70여명 퇴직자가 3천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 청주시는 근로조건을 일당 4백 80원에서 6백~6백 50원으로 인상해주고 1년에 유급휴일 50일을 책정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계산하면 1백 70여명의 청소부가 연간 5백여만 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정진동 목사는 “이만큼이라도 임금이 인상되고 유급휴일제가 실시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부여하는 인권이 최소한 회복된 것이며 우리는 인간의 기본권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7. 청주청소부 문제 모두 해결 - 청주시 청소부 정운탁, 이정우 씨가 지난 2월 23일자로 퇴직금 30여만 원을 받았다. 근로조건 개선과 19년간 일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 8개월간 주장해 온 문제가 청주시의 퇴직금제도 신설 등으로 원만히 해결을 본 것이다.

청주시 1백 70여명 청소부들은 그들이 주장해 온 ①4백 50원에서 7백 원 임금의 인상 ②근로기준법 28조에 명시된 퇴직금 요구 ④근로기준법 42조에 명시된 유급휴일제도 실시요구 등에 1백% 관철되었다고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정진동목사가 전해왔다. 이번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청주시의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퇴직금을 받은 유재향, 최명식씨는 청주 검찰청과 채동환 청주시장과 사회각계에 감사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수고해준 정진동목사의 손을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왔다. (『크리스찬신문』 1974. 3. 2)

관계 인물: 정진동 목사

관계 단체 :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 『충청일보』, 『크리스찬신문』, 『한국일보』, 『기독교공보』

관련 사건:

8. 사건명 : 충북 용강 지구 농지공사장 노동자 체불 임금 청구투쟁

사건 발생일: 1974. 9. 1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충북 괴산군 용강 지구 농지공사장 인부 31명은 1974년 9월 1일 청주 도시산업선교회관에 모여 회의를 가진 후, 9월 5일 체불 노임과 식대, 기타의 비용으로 1백93만3천4백20원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체불 노임 받기 운동은 청주도시산업선교회의 후원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서원실업이 하청한 농지정리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1974년 6월 28일 공사가 중단되고 노임 1백93만3천4백20원이 체불되어 2개월 동안 회사를 찾아다니며 호소했으나, 회사 측 무성의로 아무 효력이 없어 31명의 가족 2백여 명의 생활대책이 어렵게 되자, 이러한 운동을 전개. 진정서를 통해 그동안의 과정을 밝히면서 서원실업대표 민영식 사장의 무성의를 지적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찾아갔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고 말했다.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6개월 동안 진행해왔던 “서원실업근로자들의 지불요청”이 완결되었다. 이것은 지난 10일 서원실업이 그동안 체불된 노임 2백 여 만원을 전액 지불하여 해결된 것으로,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진정서, 구제신청, 성명서를 1백 여 차례 냈었다.

관계 인물: 연재각, 연영희, 김후식, 김덕영, 김무웅, 김송연, 연충운, 임홍근, 연맹흠

관계 단체 :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관련 사건:

9. 사건명 : 청주신흥제분 노동개선 요구 투쟁

사건 발생일: 1975. 3. ~ 1975. 11.

사건 배경:

사건 내용 :

1. 퇴직금 안준 기업고발 - 노동청 청주사무소는 1974년 12월 12일 퇴직금 지급명령을 하달받고도 이를 이해하지 않은 신흥기업 대표 장기현씨(61)를 고발했다. 노동청 청주

사무소에 따르면 장씨는 창설 당시(58년 2월 10일)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원군 북일면 원통리 민병권씨(42), 이복렬씨, 한오란씨 등에게 지급할 퇴직금 57만 8천 여 원을 지난 30일 노동청의 지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씨는 65년 8월 1일부터 신흥제분과 양곡하역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1백 6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음. 한편 퇴직금을 받지 못한 민병권씨는 지난 5월 30일 퇴직당시 신흥기업의 김평직씨로부터 4만원씩 받았으면서, 나중에 보니 “이후부터는 절대로 퇴직금 관계를 얘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임의로 작성, 본인도 모르게 날인해 있었다고 말하였다. (『충청일보』 1974. 12. 14.)

2. 신흥제분 인권유린 - 청주 신흥제분에서 10년 내지 20년간 일해오다 퇴사한 한월한, 이복렬, 민병권 3가족은 퇴직금 청구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신흥제분의 금력황포에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으며 협박과 공갈로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을 위해 청주시내 성직자들과 충북도내 교역자들이 1개월 전에 진정서를 낸 바 있는데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이들 3가족이 청구한 퇴직금과 휴일제도 못 받은 금액은 총 3백 30여 만 원에 달한다고 진정서에서 밝히고 있다. (『기독교보』 1975. 1. 11.)

3. 청주신흥제분주식회사(사장 민철기씨)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1백 20여명은 노동기준법 혜택을 받지 못함을 항의하고 노동개선 대책위원회(회장 이완우씨, 총무 이재우씨)를 지난 3월 27일 청주 내덕동에 있는 이완우씨 집에서 조직하고 7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에 따르면 동사에서 20여 년 간을 무법지대와 야만적인 노동조건 속에서 작업을 하루 13시간 이상씩 중노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서정쇄신 등 각계에서 부르짖는 부정부패일소와 노동조건개선에 눈을 떠 노동개선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다음과 같다.

- 1) 퇴직금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
 - 2) 노동기준법 45조에 있는 유급휴일 제도를 실시하라
 - 3) 노동기준법 47조에 있는 월차휴가제도를 실시하라
 - 4) 년차 휴가 제도를 실시하라
 - 5) 현재 하루 13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는 것을 10시간으로 줄이고 일일 임금을 1천 5백원씩 지급하라
 - 6) 작업수당은 봉급에서 1백 5십%를 지급하라
 - 7) 산재보상 제도를 실시하라
- (『크리스찬신문』 1975. 4. 19)

4. 노동조건개선 요구 - 종업원 12명 파면

신흥제분 주식회사는 1975년 4월 3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 12명을 무더기 파면했다. 신흥제분 노동자 1백 20여명은 1975년 3월 28일 노동조건개선대책위원회를 결성, 사장 민철기씨에게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이들은 건의서에서 노동자들이 노동기준법상의 혜택을 22년간이나 적용받지 못한 채 혹사당해 왔다고 주장, ①퇴직금을 53년도부터 소급지급해 줄 것 ②8시간 노동이외의 잔업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것 ③유급휴가 유급 휴일제를 실시할 것 ④상해 보상제도를 적용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동아일보』 1975. 4. 3.)

5. 해고 종업원 복직 진정

신흥제분에서 종업원들의 노동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4월 3일자로 해고당한 이완수씨 등 12명은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복직시켜 줄 것을 진정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8일 노동조건개선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회사 측에 ① 노동기준법 28조를 소급 실시해 줄 것 ② 하루 8시간 이상의 작업은 수당을 지급해 줄 것 ③ 10시간노동에 일당 1천 5백 원을 지급해 줄 것 ④ 노동기준법에 따라 8시간마다 1시간씩 휴식시간을 줄 것 ⑤ 유급휴일 및 휴가 제도를 실시해 줄 것 ⑥ 상해보상 제도를 실시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4월 2일 노동조건개선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 12명의 종업원을 “국가 비상태인 혼란기를 틈타 불의와 야합하여 무허가 집회 및 선동을 야기했고 유신체제질서를 혼란케 했으며 신흥제분 기업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파면했다. (『한국일보』 1975. 4. 4.)

6. 신흥제분직할분회 19일 노조결성 발기

전국화학노조 청주신흥제분 직할분회가 1975년 3월 19일 오후 8시 사직동 평화여인숙에서 30여명의 발기인이 모인 가운데 조직됐다. 이호승 화학노조 교육선전부장 등이 입호한 가운데 가진 이날 회의에서는 이완우씨를 분회장예, 총무부장에는 이재국씨를 각각 선출했다. 그런데 이 직할분회는 지난 2일 12명의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자 3일자로 12명 전원을 파면 조치했다가 노동청 청주사무소의 조정으로 철회한 바 있는 신흥기업 노동자들이 조직한 노조이다.

7. 부당해고 복직 진정

전국화학노조 삼진기업분회(분회장 이완우)가 1975년 11월 8일 충북도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조간부 부당해고자 구제신청에 의하면 동 노조는 1백 20명의 구성으로 합법적인가를 받았으나 회사 측에서는 단체교섭이나 노동조건개선요구에 응해주지 않고 있

어 1975년 10월 30일 총회를 열고 ① 5월부터 25% 인상된 임금을 소급해서 지불해 줄 것 ② 규칙 없이 노동하는 것을 오전 8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 해 줄 것 ③ 현 기준금 5백 원을 1천원으로 인상할 것 등을 요구, 10월 31일부터 실시해오자 회사측에서는 분회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12명을 무더기로 해고시켰다는 것인데, 노조 측은 이러한 처사는 회사 측의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해고된 간부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이들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진기업은 해고이유에서 동 기업은 신흥제분과 1975년 4월 16일부터 1년간의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아침 7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으로 정하여 하역작업에 임하고 있는 기업인데 노조 측이 사전협의나 통고 없이 일방적으로 오전 8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하고 일요일은 휴무로 정함으로써 계획된 작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구제신청을 접수받은 道노동위원회는 회사 측인 삼진기업에 대해 답변서를 11일까지 제출토록 지시하고 답변서가 오는 대로 전원위원회의와 공익위원회를 열어 부당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분회장-이완우, 부회장-김병모 이인우, 총무-이재규, 위원-김태안, 김성배, 강일희, 조종록, 이영한, 박희근, 권영두, 임복규>(『충청일보』 1975. 11. 13.)

관계 인물: 이완우, 김병모 이인우, 이재규, 김태안, 김성배, 강일희, 조종록, 이영한, 박희근, 권영두,
임복규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충청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기독교공보』

관련 사건:

10. 사건명 : 청주연초제조창 박석화 양 부당해고 철회 및 산재보상 투쟁

사건 발생일: 1975. 12.

사건 배경:

사건 내용 :

1. 예장(통합) 충북노회 교역자 46명이 1974년 12월 유린된 근로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 청주연체제조창에서 20여 년간 일하다 두 눈이 실명된 박석화양을 위해 ① 박양이 살아갈 경제적 보상을 전매청에서 책임지고 해줄 것과 ② 위의 사항이 어려울 경우 박양이 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처를 마련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청주제일교회 교인 1백여 명도 지난 16일 박석화양의 앞날을 위해 진정서를 관계요로에 보냈다. 박석화양은 1953년 3월, 19세의 어린 나이로 청주연초제조창에 입창하여 20년간 근무 중에 과로와 영양실조로 양안이 3년 전에 실명, 공무원법 71조 1호 규정에 의해 강제요양 중이다. 박 양은 20년간 봉직 중에 모범공무원표창을 수차례 받았고, 양안이 실명된 후에도 3년간 불구의 몸으로 개근하여 1973년 12월 표창을 받았었다. 현재는 단칸방에서 팔순노모를 모시고 요양 중이며, 1975년 3월 5일이 되면 강제 퇴직된다.

(『크리스찬신문』 1975. 1. 4.)

2. 박석화양은 지난 10일, 20년간 근무 중에 두 눈을 잃은 것에 대해 재해보상을 해줄 것을 각계에 진정하고 있다. 박양은 1954년, 18세의 어린 나이로 청주연초제조창에 입창하여 20년간 일하는 동안 두 눈을 잃어 74년 3월 5일 국가공무원 71조 1항에 의거 강제요양 중에 있다가 지난 3월 4일자로 이유 없이 복직하라는 공문을 전달받았다. 박양은 이에 대해 “눈이 나(아)야 복직이 되는 것이지요, 두 눈이 없어 더욱 캄캄한데 어찌 복직명령을 내리는지요.”하며 두 눈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시급해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충북도내 8개 종교단체(산업선교회, 청주시 성직자회, 충북노회교역자회, 청주제일교회, 제일교회 여선교회, 청주YWCA, 청주YMCA, 청주CCC, 기장충북노회성직자) 등에서는 박 양의 실명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년 9월부터 관계요로에 제출한 바 있다. (『크리스찬신문』 1975. 3. 15.)

3. 박석화 양 실명보상청구부결 - 박석화양의 실명보상 청구가 총무처에서 부결되었다고 청주연초제조창을 통해 알려졌다. 그런데 4월 8일 동 창장실에서 창장, 관리과장, 계장, 정진동 목사, 박석화양 등이 합석한 자리에서 김윤철 창장은 박 양의 실명원인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박 양은 다시 공상임을 확약받고도 요양승인 신청을 거부하자 계장은 최선의 수단과 방법으로 혜택을 받게 해 줄 것을 약속받고 승인한 것이다. 박석화양의 말에 따르면 진단서의 원본을 분실하여 충북의료원에서 진단한 진단서를 총무처에 제출했는데 원본의 진단서와는 발병원인이 다르다고 한다. 박석화양은 전 근로자를 위해 이 문제가 절차를 통해 영원히 해결이 안 된다면 법정투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며, 이 문제를 주관해온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정진동 목사는 부결 경위를 밝히면서 문제의 해결에 더욱 문제의 해결에 더욱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찬신문』 1975. 4.

19.)

관계 인물: 정진동 목사

관계 단체 : 예장(통합) 충북노회,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크리스찬 신문

관련 사건:

11. 사건명 : 청주신흥제분주식회사 노조 분회장 이완우 부당해고 항소 및 복직요구 투쟁

사건 발생일: 1976. 7. 18 ~ 1977. 4

관련사건 일자:

1976. 7.18 신흥제분에 부당하게 해고된 전국화학노조 신흥제분 직할 분회장 이완우씨의 복직을 위한 할빈교 및 산업선교 교우일동의 진정서 제출/7.23 분회장 복직 대책위원회 구성(97명 서명)/9.20 신흥제분에서 부당 해고된 이완우 분회장 가족일동의 호소문 제출 / 9.30 청주시 내덕동 168번지에 소재한 신흥제분주식회사에 부당이득에 대한 고발건과 부당 해고된 이완우 구제에 대한 고발 건 제출 / 00. 노동기준법에 대한 질의서 제출(노동청 청주지방사무소) / 11.1 청주신흥제분에서 부당 해고된 분회장 이완우 복직 진정서 제출 / 11.17 노동청 청주지방사무소의 질의 회신 / 12.15 대한예수교 장로의 도시산업선교 연합회의 이완우 분회장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을 위한 진정서 제출(사측에 제출) / 12.24 고법 특별부(화학노조 신흥제분) 1976. 1. 20일자 76-595호로 접수된 행정 소송 건 조속히 판정해 줄 것을 위한 진정서 제출(서울 고등 법원장) / 1977.1.1 신흥제분에서 부당 해고된 노조 분회장 이완우 복직을 위한 진정서 제출(청주지방검찰청) / 1.14 청주도시산업선교 위원회 성명서 발표(1. 산업사회의 정의를 위해 투쟁하다 부당 해고된 이완우 분회장을 즉각 복직시킬 것 2. 비윤리적 기업경영을 통해 수억 원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미지급퇴직금의 즉각 지불할 것 3. 신흥제분은 12년간 부당이득으로 축재한 모든 재산을 노동자의 복지사회를 위하여 반환할 것 4. 신흥제분의 공식적인 사과할 것 5. 이완우 분회장의 복직투쟁에 무관심한 본부 노조에 대한 해명할 것 6. 국가 행정기관은 금력의 횡포로 권리 침해를 받는 가난한 노동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 7. 노동행정기관은 노동자의 보호기관이 되어야 할 것 8. 수사기관은 민중의 보호목이 되어야 할 것) / 1.20 청주신흥제분을 위하여 부정을 시정하려다 명예훼손죄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정진동 목사의 진정서 제출 / 1.23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주선으로 이완우씨 복직 / 4. 청주 신흥제분주식회사 노조 분회장 이완우 부당해고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 사건 취하 /

사건 배경:

사건 내용: 이완우씨는 1974년 4월에 신흥제분주식회사(사장 민현석, 회장 민철기)에 하청도급인 신흥기업에서 120여명의 노동자들과 전국화학노조 신흥기업직할분회로 노조를 조직하고 노동자들의 복지 및 권익을 위함과 동시에 산업개발을 위하여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되었다.

신흥제분에서는 노조 측의 권익을 위하여 계속 활동한다는 이유로 신흥기업인 도급업을 폐쇄해 버리고 다시 삼진기업이라는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을 흡사시켜 왔다. 노조 측에서는 반사회적인 하청아래서는 일할 수 없어 노동자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노력해오자 신흥제분에서 또 다시 하청업체인 삼진기업을 해체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75년 4월 23일 노조명칭변경신고를 충청북도에 제출했다. 이완우씨는 전국화학노조 신흥제분 직할 분회장으로 활동하던 노동자로 작업 중 4층에서 떨어져 손에 공상을 입는 산재를 당하였으나,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당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다가 회사 측으로부터 조합원과 협의 없는 취업규칙 60조 1, 2호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사건이다.

관계 인물: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정진동 목사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분회장 복직 대책위원회

관계 자료: 성명서, 질의서, 진정서, 질의서회신 공문(문서번호. 청주1455-4580)

관련 사건: <정진동목사가 청주신흥제분의 부정을 시정하려다가 명예훼손죄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 1. 청주 신흥제분대표 민형석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돼 재판중인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정진동 목사는 지난 8월 12일 청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구형공판(담당판사 유호봉, 담당검사 문종수, 이재술)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변호사 없이 진행된 이날의 재판에서 정진동 목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우리

인간이 우리가 사는 현실재판관에게 재판을 받는 것과 같이 인간 모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죽저음편위에서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재판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이 재판을 통해 “의를 위한 삶에 핍박이 오는 진리의 원칙을 다시 깨닫는 원리를 배우게 돼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피부에 느껴가면서 체험케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고 마지막 진술을 했다(기독교공보, 1977. 8. 20).

2. 청주도시산업선교회의 정진동목사가 청주 지방법원에서 8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항소제기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제기 준비 중에 있다. 정목사가 76년 6월에 발표한 성명서 내용 가운데 신흥제분주식회사 민형석 대표가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것이 검찰에 입건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12. 사건명 : 몰수된 토지 반환 청구의 건

사건 발생일 : 1976. 7.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1. 최영길씨가 1976년 7월 15일에 청원군청에서 본인의 소유인 청원군 오창면 각산리 2번지의 6에 소재한 토지 7,785m² 중 6,129m²를 본인의 의사나 승인 없이 군 공동묘지로 편입시켜 버리고 4년이 지나도록 손해배상도 하지 않고 있어 1980년 2월 1일로부터 3회의 건의서를 충북 청원군청에 제출하였으나 묵살당해 공개건의서를 제출했다. 요구사항은 1)6,129m²의 토지를 같은 조건의 위치에도 환지할 것, 2)환지를 대금으로 지불할 경우 평당 2,000원의 대금으로 지급할 것, 3)3년간 경작하지 못한 손해배상을 매년 백미 7가마로 3년간의 손해배상을 할 것 등이었다.

2. 1976년 남일면 지북리 하천제방공사에 김교영씨의 소유인 청원군 남일면 지북리 131-1번지 전답 1,132m² 중 제방공사로 약 800m²이 하천과 제방으로 흡수되었다. 이에 김교영 씨가 대토를 요구하였으나 공사가 끝난 후 대토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같은 위치에 약 800m²의 대토를 등기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관계 인물: 정진동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관련 사건:

13. 사건명 : 삼화물산 노동자 집단해고

사건 발생일: 1978. 11. 23

관련사건 일지 :

사건 배경:

사건 내용: 1978년 8월 4일 한일합작 삼화물산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상하차반 노동자 강성용씨를 비롯한 25명의 노동자가 근로조건개선(유급휴일제도, 월차휴가제도, 연차휴가제도, 잔업수당, 산재보상제도 실시), 향토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시 임금을 지불할 것과 체불임금 청구, 임금인상, 임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내용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서를 제출하자 78년 11월 23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되었다. 이에 동사업장 노동자25명의 이름으로 78년 11월 24일부터 강성용 씨의 복직과 동일한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다가 이후 집단해고 되었다. 회사는 79년 1월 1일부로 도급제를 해제하고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재입사할 것을 통보하고 입사서류 미제출자에 대해 해고 통보하였다.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관련 사건:

<1980년대>

14. 사건명 : 삼립식품 주식회사 청주공장 노동자 집단 해고

사건 발생일: 1982. 7. 19.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삼립식품 주식회사 청주공장은 식품업계로서 삼립 빵과 아이차를 제조하며 약500명의 노동자들이 3교대로 일하고 있으며 서울에 본사를 둔 공장이다.

사건 내용: 1982년 4월 2일 입사한 김경자 씨는 하루 10~11시간의 노동을 하였고 공장이 바쁠 때는 일요일도 쉬지 않고 1개월에 야간 80시간까지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당시 김경자 씨를 비롯한 몇 명의 노동자는 노동교회에서 신앙생활과 노동법을 학습하고 있었는데 회사는 노동교회를 불순단체로 규정하고 교회에 나가지 말 것을 종용하고 해고위협까지 가했다. 1982년 7월 4일부터 18일까지 휴가를 주고 19일 복귀하는 날을 기점으로 14명의 노동교회에 다니고 있던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였다. 노동사무소에 복직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경기불황 및 판매부진을 이유로 감원하였다는 회사의 의견에 동조하여 복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관련 사건: 삼립식품에서 부당 해고된 김경자 씨는 3개월 후인 1982년 10월 4일 서흥산업에 입사했다. 서흥산업은 청주공단 송정동 66-29에 소재하고 있으며 230명의 노동자가 12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의료용 수술 장갑, 콘돔, 지샤크(손가락에 상처가 날 경우 씌우는 주부), 손표가정용 고무장갑을 생산하는 회사였다. 그러나 김경자 씨는 1982년 12월 27일 다시 부당해고 되었다. 해고사유는 서흥산업의 266명의 노동자들이 김경자 씨와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진정서가 청주노동사무소에 접수되었고 회사는 취업규칙 제10조 4항 및 제38조 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조치 한 것이므로 합법적인 해고라고 주장했다. 김경자 씨는 서흥산업에 입사 후 20여일이 지나고 일상적인 활동에 늘

감시를 받고 있었고 간접적으로 사표를 종용받기도 했다. 해고 후 김경자 씨는 약 2개월간 홀로 출근투쟁을 벌였고 각 교회를 다니며 생존권을 위해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 굴 장사를 하며 싸웠다.

15. 사건명 : 운천동 강제철거 및 성추행 사건

사건 발생일 : 1983. 6. 25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1983년 6월 25일 청주시 운천동 3통은 건설부 고지에 의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시청과 토지개발공사에 항의와 건의를 수차례 하였다.

사건 내용: 토지개발공사는 협박, 회유 등으로 일관해 오다가 생활대책 및 보상금을 해결하지도 않은 채 4월 29일 한길녀씨 집을 강제 철거하였다. 아이들은 학교, 남편은 일터로 나간 오전 10시, 6명의 폭력배가 잠긴 방문을 부수고 난입하여 강제철거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한길녀씨를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가슴을 주무르면서 '그래도 유방하나 는 쓸만하다', '토실토실하다' 등의 희롱과 온 몸에 똥칠을 한 후 40m 집 밖으로 끌어냈다. 한씨는 분신자살을 기도했으나 형사에게 팔이 뒤틀려 저지당한 채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현상을 목격해야만 했다. 폭력배는 다름 아닌 토지개발공사의 하청을 맡은 임광토건(주)의 직원이었으며 폭력경찰은 이 광경을 보고 뒤에서 웃으면서 비호했다. 더욱이 철거·추행소식을 접한 조순형(도시산업선교회 전도사), 이유근(도시산업선교회 집사)씨가 현장에 도착하여 임광토건에 항의하자 경찰은 한길녀씨와 두 사람을 구속해 버렸다.

관계 인물 : 한길녀, 조순형, 이유근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기관지 『함성』 제6호

관련 사건:

16. 사건명 : 1984년, 청주토지강매 사건

사건 발생일 : 1983. 7. 11 ~ 1984. 10. 18.

관련사건 일지 : 청주대학 시설부지의 편입사실을 확인. 청주도시산업선교회를 방문하여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구하고, 5인 대책위원회의 제1차 탄원서 발송 / 7.21 주민 80여명이 도지사, 시장, 교육위원회, 학교 측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자 충청북도 도청에서 농성하였으며, 시설부지로 설정된 토지, 가옥, 전답 등을 즉각 해제하겠다는 도지사, 시장의 각서를 받고 해산 / 8.1 청주시는 시설부지 21만평(주거지역 8만평) 중에서 가옥 밀집지역 70세대 1만평의 해제 / 8.5 지역주민대표와 학교측 보상위원회 결성 / 8.17 보상위원회 결렬. 평당 11만원 정도의 토지를 학교측 5~6만원으로 주장, 협상결렬 이후 주민 모임 시 경찰의 감시 강화. 기청협 안터벌 토지문제에 대한 호소문 발표 / 10.9 인권위원회에서 시설부지 답사 / 1984. 5. 10. 주민 20여명이 시청과 청주대학에서 농성, 현시가 보상을 구두로 약속받고 해산 / 5.22 청주대학 500여명 항의 시위. “안터벌 토지의 정당한 방법으로 보상하라! 땅의 관권과 결탁하여 강제로 매입하는 것이 과연 대학인가!”의 유인물 배포 / 7.26 청주대학과 시청이 결탁하여 부당하게 토지를 매입하려는 음모에 대해 18개 단체의(기청협, 도시산업선교회, 충북인권위원회 등) 추천을 얻어 주민대회 개최. 학생, 주민 400여명 노동교회에서 사건해결을 위해 “내 토지를 돌려 달라”며 구호를 외치며 가두 진출. 이때 8명 연행 / 7.29 안터벌, 송정동, 정사관 주민 30여명 시위, 4명 구류. 이후 ①주민호소문, 진정서, 탄원서 등 유인물 배포 ②김준철 청주대 이사장 방문 및 야간 소란, 농성 ③시장자택, 민정·민한당사 등을 방문하여 호소 및 농성 ④시위 및 보상문제 협상 / 10.18 개별 행동에 의한 계약, 체결 사과문 발표 / 11.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정진동 목사 명예훼손죄로 고발/1984년 10월 18일까지 15회의 탄원서를 각계(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충북도지사, 민정당지구위원장, 충북도경국장, 건설부, 문교부방, 감사원장, 내무부, 정부종합민원실과 인권단체, 선교단체)에 보내고 100여회의 기도회를 가졌다. 또 단식, 시위, 농성 등을 통해 사건 해결에 노력했다.

<주민들의 요구>

- 1)대학시설부지의 해제
- 2)현 시가에 의한 보상
- 3) 1), 2)항이 불가능할 경우 현 지역과 같은 조건의 지역에 이주 보장

<관계당국의 입장>

1)건설부: 청주시에 이첩하고 토지매입이 곤란할 경우 시설부지의 면적을 축소 조정하
라고 지시

2)청주시: 도시계획변경은 불가능하고 대학측과 협의하겠다.

3)청주대학: 보상문제는 보상위원회를 활용하고 개별접촉을 통해 토지 매입을 추진한
다

<반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과제>

1)행정당국의 문제: ①사유재산에 대한 규제가 도시계획법, 대학설치 기준법, 토지 수
용령 등 복잡한 법령에 따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청주시가 남용했다. ②토지 수용령의
발동이 도시빈민층이나 영세농 등의 빈민층의 건물이나 토지를 수탈하기 용이하게 하
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③주민들의 생업을 고려하지 않고 외관상 아름다움
이나 취하고 있다. ④권력을 이용하여 주민의 요구나 협상에서 회유, 폭력 등이 난무하
다. ⑤사건을 사회 문제화하는 과정에서 언론기관의(충청일보, 청주MBC, KBS) 공정성
에 아쉬움이 있다. 2)주민조직의 문제: ①건물 및 토지소유의 다소 및 위치에 따라 주
민 상호간에 이해가 직접적이지 못해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대처가 어려웠다. ②지나
친 장기적 싸움에서 노약자, 여성들의 건강 및 각 가정 내의 생활이 어려움에 직면했
으며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없었다. ③EYC, 산업선교회, 지원단체는 주민의 투쟁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방법(시위, 점거농성)에 많은 제동을 거는 경우가 발생했다.
즉, 주민의 투쟁력을 다소 감소시킨 결과를 나왔다. ④주민조직화의 강화방안, 주민교
육 등이 강구되지 않았다. 대책위원회, 부문운동단체에 의한 체계적 지도 및 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았음은 문제로 남고 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문제는 안터벌 토지문제에서
새롭게 도시빈민층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 주었다. 이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과 연대에
의한 투쟁을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송정동, 운천동, 사직동 등의 토지문제에 새로운 전
략, 전술이 필요로 하겠다.

사건 배경: 60, 70년대 독점자본은 중화학 공업정책과 도시의 기형적 성장에 부응하여
부지에 따르는 빈부 차이를 증대시켰다. 토지로부터 소외된 영세농은 도시빈민층을 형
성하였고 재벌은 생산과정보다 토지 소유에 의한 자본증식을 꾀하였다. 광대한 토지는
지대와 이윤을 소유케 함으로 재벌의 척도로 가늠된다. 이를 위하여 독점자본은 권력
층과 결탁하여 도시근교 및 농촌에서 유언비어와 기만으로 낮은 가격에 의해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했다. 또한 개간, 간척지로 빈민층을 이주시켰으며 부동산 붐을 조성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80년 이후 부동산 투기의 상대적 침체는 법적 보
호 하에서 간접적인 토지 수탈 방법이 시행되었다. 도시영세빈민층 영세농의 토지를
도시개발 또는 공단 조성, 공항 개발, 도로확장 등으로 이용하고 주변토지의 상대적 가
치를 증대시킴으로서 특권층의 재산을 비대화시키거나 자본의 증식에 기여하고 있다.

청원군 내수면에 건설되는 공항이 롯데 시설부지 부근에까지 확장되어 있고 송정동, 운천동의 부지에 원풍산업이 시설부지로 유용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되는 것이 그 일례이다. 또한 각급 학교 시설부지도 개인의 토지나 건물이 편입되어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곳은 충북대, 청주전문대, 충북상고(설립예정) 지역 등 23개 학원지역, 1,404. 262m²(42만 4천 789평)으로 주변의 토지 소유주에 따라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다. 더욱이 73년 12월 운천동, 신봉동 154m²가 체육공원 개발지구로 묶여 있어 지역주민들은 건물의 증·개축이 어렵고 생활상 어려움이 크다. 사유재산제도는 이제 더 이상 행정당국이나 기업에 보호되지 않고 있으며 당국이 원하는 지역이라면 개발지구로 편입되고 낮은 가격(감정가)에 의해 도시빈민층 토지는 강제 매입된다. 이러한 토지의 강제 매입은 토지 수용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건 내용: <안터벌 토지문제> 1983년 7월 11일 1차 탄원서를 시작으로 하여 1984년 10월 18일 “그간 주민들이 과중한 욕심을 부려 산업선교회와 손을 잡고 주민과 학생을 선동시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과한다.”는 주민대표의 사과문이 발표됨으로써 1년 반 동안 청주대학과 청주시에 대항하여 싸운 주민들의 투쟁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낳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충북민주운동협의회

관계 자료: 충북민주운동협의회 발행 『민주충북』 창간호(1987. 7. 1),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2001. pp. 35-37

관련 사건:

17. 사건명 : 한음파 임금투쟁

사건 발생일 : 1983. 9. 30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주식회사 한음파에 근무하던 노동자 3인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본노동

시간인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음에도 그 어떠한 명목의 수당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사건 내용: 차용성(1981. 8. 10~1983. 9. 30), 이봉수(1979. 3. 1~1983. 9.30), 김홍래(1981. 7. 21~1983. 9. 30)씨는 청주 공단 내 주식회사 한음파에 입사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주당 노동시간 48시간을 초과해 주당 84시간, 월 360시간을 노동하였으나 연장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는 회사에 인원을 총원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어 문서화된 진정서를 제출해서야 상무 김갑영씨는 1월에 10만원씩 3년간을 소급해 360만원을 주고 월10만원씩을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했으니 수차례의 걸친 회사의 속임에 법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1983년 9월 30일 노동부에 그간 체불된 임금청구 의뢰서를 제출함에 따라 노동부는 회사 측에 미지급된 임금(연장 혹은 잔업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수차례 내렸으나 한음파 이석훈 사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1983년 12월 7일자로 청주지방검찰에 입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검찰은 동일한 사건을 두고 김홍래 사건만을 기소시키고 이봉수, 차용선씨의 사건은 기각시켰다. 회사는 벌금 50만원의 처벌만 내려지고 이후에도 회사로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김홍래씨는 청주지방법원에 재판청구를 하여 1986년 1월 24일 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2심에서 패소하였고, 이봉수씨는 청주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였으며, 차용선씨의 경우 1984. 4월에 청주지방법원에 재판청구를 하여 1986년 3월 현재까지 계류 중에 놓이게 되었다.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관련 사건:

18. 사건명 : 1979년에서 1984년까지의 충북지역 학생운동

사건 발생일: 1979 ~ 1984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70년대 말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이 극에 달했다. YH 여공들의 목숨을 건 투쟁은 박정희 정권을 벼랑 끝으로 몰았고 박정권은 마지막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기였다. 이때까지 충북지역의 민족민주운동은 양심적 지식인, 종교인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제일교회, 기독교 장로회 충북노회 청년회(이하 기청), 도시산업선교회 등의 역할이 가장 컸다.

우리 지역의 학생운동사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제일교회, 기청을 근거지로 활동해오던 선각된 몇몇 의 청년학생들이 79년부터 충북대에서 소그룹을 형성한다. 물론 과학적이고 정교한 커리큘럼은 아닐지라도 한국근대사를 중심으로 학습하며 현실인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이 박 정권의 사망과 함께 시작된 80년 민주화의 봄을 맞이해 공개적인 싸움을 탄생시키고 대중시위를 주도하게 된다.

국제문제연구회, 미래문제연구회, 상록수 등이 당시 주요하게 활동했던 공개된 싸클이었다. 기청에서 활동했던 몇몇의 활동가들에 의해 움직이던 소그룹들이 국제문화연구회, 미래문화연구회를 충북대에서 조직한 것은 79년이다. 10·26이 터지면서 정국은 혼란에 빠지고 학생운동 진영은 이때를 기회로 학생회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된다. 충북대에서 국제문제연구회, 미래문제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학원자율화추진위가 만들어져 학칙개정, 학도호국단 철폐, 총학생회 부활을 주장하며 활동하게 된다. 이 결과로 80년 4월에 이르러 직선에 의한 총학생회를 탄생시킨다. 그러나 총학생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80년 4월, 5월 민주화의 봄을 맞아 연인된 시위와 집회를 주도한 것은 국제문화연구회와 미래문화연구회였다.

청주대, 서원대에서는 싸클의 형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기청에서 활동했던 몇 명이 소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등에서 활동하던 소그룹과 공개 싸클들이 연일 벌어지는 시위를 주도하면서 5월 13일경 상당공원에서 3개대 연합시위를 하게 된다. 인도와 차도를 가득 메운 시위대는 모인 인파에 스스로 감격케 했다. 이것이 충북지역 최초의 3개 대학 연합 가두시위가 된다. 이 일련의 투쟁과 연루되어 청주대 김용명, 충북대 김재수를 비롯한 다수의 지도부가 연행, 구속되기도 한다. 이 당시를 주도했던 활동가들이 충북지역 학생운동의 모태이며 1세대이다. 김용명, 김병일(청주대), 김형근, 김재수, 김성구, 이승원, 민봉규, 정지성(충북대) 등이 바로 그들이다.

1세대의 활동은 대중적인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광주항쟁과 12·12 군사쿠데타를 거치면서 투쟁의 성과를 조직화시켜 내는데 실패하고 심한 패배감

에 빠져든다.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민민운동 세력을 비롯한 국민대중에게 침묵과 굴종을 강요했다. 80년 민주화의 봄을 주도했던 지도부의 다수가 구속되거나 강제징집으로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83년까지는 겉으로 보기에 학내는 마치 진공상태인 것처럼 조용했다. 그러나 남아있던 지도부를 중심으로 소그룹이 운영되면서 좀 더 예전보다는 과학적인 현실인식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노력의 결과물이 대중투쟁이 아닌 개인의 결단에 의한 선도투쟁의 양태로 나타난다.

81년 함석헌 선생 강연장에서 김성구, 이승원(충북대)이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뿌리다 구속되고, 81년 청대 총대 서원대 3개 대학 연합 가두기습 시위를 모의하다 사전에 발각돼 6명이 구속되고, 82년 구자행(충북대)이 충북대 사회대 합동강의실에서 유인물을 뿌리다 구속되었으며, 93년에는 오동균(청주대)이 강의실에서 유인물을 뿌리다 구속된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독재타도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구속되는 시기였던 때문이다. 대중투쟁이 아니라고 해서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이 시기에 1세대의 선도적인 투쟁이 아니었다면 84년도의 유화국면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폭압으로만 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던 전두환은 84년 유화국면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두환 자신을 위해서는 중대한 실수였다. 이때를 계기로 서울의 주요한 대학들은 대중투쟁을 촉발시키며 총학생회를 부활시켰고 충북지역에서는 학원 자율화추진위가 구성된다. 이 활동의 결과물로 전국에 학생회가 부활되기 때문이다. 충북대, 청주대에 조직된 학자추는 각종 공청회를 개최하며 대중을 결집하고 투쟁을 이끄는 중심에 선다. 후생복지, 학칙개정, 총학생회 부활 등의 학내문제를 공청회를 통해 문제제기하고 대중을 결집시켰다. 청주대에서는 학자추의 활동이 재단비리문제와 맞물리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이 때 우리지역에 처음 등장한 것이 대자보이다. 대자보는 온갖 왜곡보도를 일삼는 관제언론에 대항하며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청주대의 경우 대자보에서 더 나아가 반합법 언론매체인 민주언론사를 창립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자추의 활동은 84년 11월 청대, 총대, 서원대 3개대 연합으로 충청일보, 민정당사에 대한 기습타격을 감행하기에 이른다. 학자추는 이후 민주총학생회준비위원회로 전화하며 85년 총학생회 탄생의 산파역을 마지막으로 그 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 시기의 특징은 첫째, 과학적 현실인식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회과학적인 이념성에 바탕했다기보다는 양심, 자유, 진리에 바탕했고 그것이 이념적인 토대를 이루었다. 둘째, 대중적 확보에 인식이 미치지 못해 선도적인 투쟁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이다. 셋째, 어려운 시기임에도 대학간 연대의 끈을 만들고 연계투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대학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기청중심으로 활동했던 활동가들의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근간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류행렬, 「충북지역학생운동사」, 『충북지역 사회운동』 p. 64-66).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류행렬, 「충북지역학생운동사」, 『충북지역 사회운동』

관련 사건:

19. 사건명 : 1985년부터 1987년 6월항쟁까지의 학생운동

사건 발생일 : 1985 ~ 1987. 6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이 시기는 민중의 진출이 두드러지며 전두환 정권과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시기다. 85년 2·12 총선에서 신민당이 압승하고 6월 구로동맹파업 등으로 전두환 정권은 수세에 몰리게 된다. 85년 미문화원 점거투쟁은 미국의 본질과 전두환 정권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큰 계기가 되었다. 86년 개헌 헌판식이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권은 5·3 인천투쟁을 계기로 민민운동을 다시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87년 6월 항쟁을 예고하는 서고에 불과했다

사건 내용 : 이 때 충북지역의 학생운동도 대중운동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몸부림친다. 그 첫 번째 성과물이 1985년 총학생회 건설투쟁이었다. 1985년은 충북지역 학생운동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성과물을 바탕으로 대중운동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다.

1984년부터 꾸준히 대중적 신뢰를 획득한 학자추는 총학생회 준비위로 전환되어 1985년 들어서면서 학생회를 부활시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학칙개정, 학도호국단 철폐, 학생회 건설의 열기로 학교는 봄부터 활기에 넘쳤다. 학도호국단은 학생대중의 요구에 견디지 못하고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학칙개정위원회가 꾸려져 학칙개정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학칙개정작업은 또 하나의 투쟁이었다. 보수 우익세력이 공공연히 준동하며 학칙개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서고 나섰다. 핵심 활동가에 대한 테러의 위협도 가하고 조직적으로 학칙개정을 반대하기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도 학생회 건설에 대한 학생대중의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총학생회장 선거 유세장에는 대중들로 차고 넘쳤고 학생대중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결국, 총대, 청대에서 학생운동진영 혹은 민주적 성향의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대중운동으로의 전환에 시동을 걸게 되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흘러넘치는 대중의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비로소 대중에 근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총학생회 건설투쟁 못지않게 주목할 만한 일은 처음으로 5·18 추모식을 대중적으로 거행했다는 것이다. 수천의 학우들이 운집한 이 집회를 통해 광주항쟁의 본질을 알리고 미국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학생회 건설투쟁의 열기에 놀란 전두환은 학생운동진영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술책을 다 부리게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학원안정화대책방안이었다. 이때가 마침 방학이기도 했고 새롭게 건설된 학생회에서는 이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무기력한 총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 결과 1986년 충북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학생운동진영의 패배로 나타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전두환 정권의 학원안정화대책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더 큰 이유는 학생회를 바라보는 학생운동진영의 관점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단지 학생회를 정치투쟁의 도구로만 봤지, 학생대중의 자주적 조직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주대에서 총학생회장에 학생운동진영이 당선됨으로써 다시 한번 대중적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주대는 그 다음해인 1987년에 총학생회를 비운동권(사실은 보수우익 학생깡패집단)에게 넘겨줘야만 했다.

총학생회를 둘러싸고 운동권이 당선되었다가 다음해엔 비운동권이 또 그 다음해는 운동권이 당선되는 순환이 몇 년에 걸쳐 충북대, 청주대를 비롯한 각 대학에서 반복해서 나타난다. 총학생회를 둘러싼 쟁탈전은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일인데, 이 싸움의 본질은 운동권과 보수우익집단과의 헤게모니 싸움이었다. 5·6년에 걸친 이 싸움을 통해 충북지역의 학생운동 세력은 대중노선을 정립하게 되고 학내에서 보수우익집단을 완전히 제압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86년은 전두환 정권의 탄압을 뚫고 대중의 분출이 폭발하던 시기다. 개헌 현판식투쟁, 건대사건, 서울대 대자보 사건, 부천시 성고문 사건 등 정국의 흐름은 급격하게 6월 항쟁을 향해 치달고 있었다. 충북지역의 학생운동진영도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노태우의 처단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헌 현판식투쟁, 광주항쟁 계승투쟁, 아시안게임 저지투쟁을 통해 반미자주화 반독재 민주화의 기치를 분명히 하게 된다. 이때부터 충북지역 학생운동진영 내에서는 투쟁노선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노선에 입각한 투쟁을 전개하고자 노력한다. 이와 같은 투쟁들이 진행되면서 두드러진 점은 조직되지 않은 학생대중의 자발적인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치투쟁에서뿐만 아니라 총북대 사범대의 졸업정원제 철폐, 교원대 설립 반대 투쟁의 경우처럼 학생자신의 문제를 들고 광범위한 대중들이 시위대에 함께 하고 조직적인 싸움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대중은 변혁운동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임을 각인하고 학생회의 대중노선을 정립하는 밑거름이 되었음은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1987년은 박종철 고문살인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면서 달구어진 투쟁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전두환은 4·13 호헌조치를 발표한다. 그러나 이는 타는 불길에 기름을 쏟아 붓는 결과를 가져왔다. 총북대, 청주대 등의 교수님들의 연이은 시국선언문이 발표되면서 학내는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뜨겁게 달궈지기 시작했다. 우리 지역의 6월 항쟁은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총북대에서 먼저 터지기 시작했다. 각 대학마다 쏟아져 나온 학생대중은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청주 시내를 누볐다. 이때 청주시민들은 박수와 음료수로 화답하며 시위대열을 격려해주었다. 학생대중의 투쟁을 시발로 충북지역의 각 부문운동과 종교인, 지식인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군중시위로 발전하게 된다. 시위 군중에 압도된 경찰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위대가 자신해산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시위대는 경찰서를 습격하고 시위진압용 차량에 불을 질렀다. 결국 6·29 항복 선언을 받아내며 6월 항쟁의 대장정은 많은 성과와 한계를 남긴 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85년 총학생회 부활투쟁에서 87년 6월 항쟁에 이르는 이 시기의 충북지역 학생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 시기는 학생운동 진영에게 대중의 힘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경험들을 얻게 되었다. 화산처럼 폭발한 6월 항쟁조차도 조직된 대중의 힘이 아니라 자발적인 대중의 참여로 가능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경험은 이후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의 구조를 재편하게 하는 힘이 된다. 둘째, 이 시기는 대중의 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노선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지 못함으로써 학생회를 비합조직의 투쟁기구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셋째, 이 시기는 합법, 반합법 조직을 통해 선도투쟁에서 벗어나 대중투쟁을 끊임없이 모색했다는 것이다. 넷째,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사회과학 중심의 체계화된 커리큘럼을 갖추게 된다. 학습을 통해 사상적 바탕을 확보하게 되며 사상에 기초한 투쟁노선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며 87년 후반기에 각 대학의 조직분열로 이어지기도 한다.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류행렬, 「충북지역학생운동사」, 『충북지역 사회운동』, p. 66-68

관련 사건:

20. 사건명 : 농민 서형석 씨 소값 폭락 비관자살

사건 발생일: 1985. 4. 21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소값이 계속 떨어지자 이를 비관한 농부가 극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다. 지난 21일 오후 5시경 충북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2구 서형석씨(35·농업) 집 농기구 창고에서 서씨가 극약을 마시고 신음중인 것을 서씨의 형수 이충희씨(40)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날인 22일 오후 4시경 숨졌다. 서씨의 가족들과 마을사람들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83년 4월 초순 2천6백 평방미터의 논을 3백50만원에 팔아 3백30만원을 주고 6개월 된 '샤르테' 암송아지 1마리와 5개월 된 한우암송아지 2마리 등 모두 3마리의 소를 사들였으나 소를 산지 10여일도 못돼서 소값이 떨어지기 시작해, 2년 만에 1백26만원을 주고 산 '샤르테'는 어미 암소가 됐는데도 70만원, 1백 94만원을 주고 산 한우 2마리는 1백60만원도 못 미쳐 그동안의 노력과 사료구입비 등을 제쳐 놓고도 90여만 원을 고스란히 손해 보자 이를 비관해 왔었다. (『동아일보』 1985년 4월 25일)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동아일보』 1985년 4월 25일

관련 사건: 故서형석씨 추도식 및 외국농산물 수입 규탄대회(1985. 7. 17), 사건번호 24, p. 26. 카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총무 오상근씨 집단구타 사건(1985. 7. 19), 사건 번호 25, p. 27-28.

21. 사건명 : 충북기독교 농민회 회원들의 미국대사관 내 시위

사건 발생일: 1985. 4. 23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 외국농산물 수입중단을 요구하며 미 대사관에 들어가 구호와 함께 농민가를 부르며 시위를 하던 농민회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이들은 이틀 후 각 연고지에서 훈방되었는데, 훈방과정 중 대전 경찰서 안에서 집단구타를 당하였다.(『민주충북』 제1호,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41)

관계 인물: 신언관(충북기독교농민회 총무), 배장환(충북 민협 노동분과장), 이도훈(충북기독교농민회 회원), 박장균(충북기독교농민회 회원)

관계 단체: 충북기독교농민회, 충북민협

관계 자료: 『‘민주충북』 제1호, 『‘충북지역민주화운동자료집』

관련 사건:

22. 사건명 : 대성연마 부당해고 철회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발투쟁

사건 발생일: 1985. 5. 6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1985년 5월 6일 대성연마 주식회사 노동자 김상근, 남부현, 남기선, 박규석, 박균희, 정정길, 최상렬씨는 7가지의 근로조건개선 요구안을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회사측에서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통지도 발행받지 못한 채 부당해고 되었다. 또한 노동부사무실로 2회 찾아가 회사의 부당성을 호소하였으나 사건접수조차 되지 않

았다.

7가지 근로조건개선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외 수당을 소급하여 환불 지급하라!(하루 2시간-16시부터 18시 30분까지- 1개월 평균 26일 근무할 경우 52시간 분을 150/100을 적용하여 소급하여 환불) 2) 현행 임금을 30% 인상 지급하라! 3) 임금을 제 날짜에 지급하라! 4)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일일 8시간만 근무시켜라!(오전 08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근무. 16시 30분 이후의 근무는 시간외 수당-150/100-적용하라! 5) 위험수당을 월 3만원씩 신설하여 지급하라!(독극물, 모래, 먼지, 배기가스로 인한 신체적 장애를 발생시킬 위험으로부터의 보상적 수당) 6) 식사처우를 개선하라!(주 2회이상 육식 제공) 7) 봄·여름·겨울용 작업복 각 2벌씩 지급하라!

관계 인물: 김상근, 남부현, 남기선, 박규석, 박근혜, 정정길, 최상렬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관련 사건:

23. 사건명 : 광주민중항쟁 영령추모예배 및 사진전

사건 발생일 : 1985. 5. 18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 충북기독교청년협의회는 충북민주운동협의회 후원으로 5월 18일 오전 11시 청주노동교회에서 5·18 광주민중항쟁 5주기를 맞아 추모 사진전과 추모예배를 갖으며 2부 행사로 민주열사 고 최종철 묘비까지 행진을 하였다. 이날 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찰병력 3개 중대가 입구마다 정·사복 경찰이 막으며 참석하려는 청년·학생·교역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봉쇄를 하였다. 이로 인해 참석한 70여명이 모여 간소하게 추모예배를 보는데 그쳤다. 참석자들은 광주의 진상을 무조건 은폐시키려는 당국의 정의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참석 못해 돌아간 청년들은 250여명으로 추산하였다.

한편 위 행사의 포스터를 붙이는 과정에서 이기섭(기청총무)외 3명이 청주시내 복판에서 구타를 당하는 고난 속에서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가택 연금되었다(『민주총북』 창간호,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41)

관계 인물: 이기섭

관계 단체: 충북민주운동협의회

관계 자료: 『민주총북』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관련 사건:

24. 사건명 : 진천여자고등학교 학원 내 부정사실 폭로

사건 발생일: 1985. 6. 1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1일 상오 1시 40분경 충북 진천여고 3학년 학생 300여명과 2학년 학생 50여명이 복장·두발 단속에 항의하며 가두시위를 벌임.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한 진천여고생의 글」,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p. 43-44.

-우리들은 더 이상 노리개가 아니다-

6월 1일 오전 7시 40분, 진천군 진천여자고등학교에서 전 황인찬 교장선생님의 학원 내 부정과 학원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버렸다. 구체

적 내용으로는 무용부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면제와 교내 행사가 있을 때 몇몇 학생들을 뽑아서 한복을 입히고, 억지로 술을 따르게 하고 팁이라는 명목으로 2~3만원씩 점심식사로 주는 등 수업료 면제까지 해주었다.

또한 교장선생님께서 부임해 오시면서 개최해 온 봉화제가 수업 도중에 백일장을 하거나 수업이 끝난 오후에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었다. 바자회를 연다고 억지로 수예품을 걷는 등 팔리지 않으면 3,000원 내지 2,500원씩 강제로 내게 하였다. 육성회장도 모르게 걷었다는 이 돈은 300여만 원이나 되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쓴 용도도 모르고 선생님들은 우물쭈물 넘기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였다. 이때 이 돈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감사원의 조사결과 서류는 이상 없다고 하나 의심만 더 퍼졌다. 또 직업반 학생들의 보충수업도 문제이었다. 학원에 가느라고 수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는데도 보충 수업료는 계속 내고 있었다. 모신문사에서는 교복자율화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사소한 이유일 뿐 진짜 이유는 아니다.

전 교장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든지 교칙이 되었다. 고3들에게는 문제집하나 다루지 못하게 하고 유급제도를 두어 시험 분위기가 흐려졌다. 83, 84년도에도 교내에서 건의 사항도 내보고 요구도 해보았지만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이번에 내건 구호는 ①부정부패 몰아내자 ②건전한 학원조성하자 ③교장은 물러나라 이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는 벽보를 붙이고 거리로 나왔지만, 40분만에 진천 경찰서의 전투 경찰들과 경찰들에게 밀려 학교로 돌아오고 말았다.

청주 경찰서의 전투 경찰들도 동원되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모르겠다. 인근 군부대에 비상연락을 취했지만, 출동하지 않았다 한다. 이번 일로 해서 황인찬 교장 선생님은 칠성 중학교로 전근을 가시게 되었고, 학교주임 선생님은 이월 중학교로 가셨다. 후임 교장 선생님은 증평 여중에서 오신 안봉석 교장 선생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아직 모르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신다고 하셨다. 선생님들께서는 아직 불안해하시고 2학기인 9월말 정식 교직원 발령 때에 많은 선생님들이 전근을 가시게 된다고 한다. 우리들은 정든 선생님과 더 오래도록 공부하고 뛰어 놀고 싶은데...

(진천여고생의 글을 원본 그대로 옮김)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충북지역민주화운동 자료집』

관련 사건:

25. 사건명 : 故 서형석 씨 추도식 및 외국농산물 수입 규탄대회

사건 발생일: 1985. 7. 17.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홍수처럼 밀려들어오는 외국농축산물과 품값도 안 되는 추·하곡 수매가로 인해 적자농사와 빚더미 속에 허덕이고 있는 농촌현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도시 품팔이로 전락하거나 부인이 식모살이로, 자식들이 학업을 중단한 채 저임금 노동자로 농촌에서 쫓겨나는 등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짓밟히고 있었다. 이에 충북 청원군의 서형석씨가 소값 폭락에 비판하여 더 이상 살아 갈 의욕을 잃어버려 “우리 농민도 사람이다. 더 이상 가슴속에 감추지 말고 뗏뗏이 주장하면서 살자”는 마지막 유언을 남긴 채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내용: 정부의 반농민적 농업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실에서 충북기독교농민회 주최의 ‘고 서형석씨 추도식 및 외국 농축산물 수입 규탄대회’가 개최되었다. 추도식에서는 고 서형석씨의 죽음은 반농민적 농정이 간접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이 제반 원인에 대한 시정을 주장하였다. 추도식 후 경찰의 참석 방해 기도에도 불구하고 약 70여명의 농민이 청주시대 육거리 시장에서 ‘수입반대’, ‘소값 보상’을 외치며 2시간 동안 시위를 하였고, 동시에 약 30여명의 농민이 청주 우시장에서 ‘농민 생존권 보장하라’는 제목의 글을 배포하다 10여명이 연행되었으나 시위농민이 연행 농민 석방을 주장하며 농성에 들어가자 당국은 오후 1시 30분경 이들을 전원 석방하였다.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충북기독교농민회, 충북민주운동협의회

관계 자료: 충북기독교농민회 성명서

《<성명서>

- 정부 당국에 대한 우리의 주장 -》

1. 외국농축산물수입에 대한 충북 농민의 요구

① 농협·축협에서 나온 소 입식자금을 전액 탕감하고 소 1마리당 50만 원 이상씩 손해 보상할 것이며 영세 축산농가에게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② 필리핀과 바나나 수입을 즉각 중지할 것이며, 수입해서 빚어진 청과물 재배농가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라. ③ 주곡·양념류·과일류 등 350여 가지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④ 무분별한 수입을 일삼는 경제기획원 장관과 농수산부 장관을 수출하고, 잘사는 농촌 만들어 농촌 총각 장가 줌 가자. ⑤ 미국은 농축산물수입개방 압력을 즉각 철회하여 더 이상 한국 농민을 짓밟지 말라.

2. 85년도 쌀 수매에 대한 충북 농민의 요구 - 이번 보리 수매가 55% 인상은 쌀 수매가 인상폭의 예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충북 농민은 85년도 쌀 수매가를 20~25% 인상한 선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일괄 현금으로 수매하길 촉구한다.

3. 농협·농지개량조합·농지세·농업금융·지역행정에 대한 충북농민의 요구 - ① 농협 임시조치법 철폐하여 농협을 농민에게 되돌려 달라 ② 농지개량조합의 잠정조치를 철폐하여 도시 수돗물 값보다 비싼 수세를 즉각 폐지하라 ③ 적자영농과 빚더미에 시달리는 농민에게 부과하는 농지세를 폐지하라 ④ 사채에 시달리는 영세농에게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하고, 농가부채를 탕감하며, 장기저리의 영농자금을 대폭 확대 공급하라 ⑤ 농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실시하라 ⑥ 지방자치제를 읍·면 단위에서부터 전면 실시하여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지역살림을 실시하라

위에서 요구한 것은 도탄에 빠진 민족생존을 구축하고 시름시름 죽어가는 1천만 농민을 되살리는 충북 농민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따라서 위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힘을 합쳐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1985. 7. 17

충북기독교농민회

관련 사건: 농민 서형석씨 소값 폭락 비관자살(1985. 4. 21), 사건번호 20, p. 23. 카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총무 오상근씨 집단구타 사건(1985. 7. 19), 사건 번호 25, p. 27-28.

26. 사건명 :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총무 오상근 씨 집단구타 사건

사건 발생일: 1985. 7. 19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1985년 7월 17일 정부의 반농민적 농업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실에서 충북기독교농민회 주최의 '고 서형석씨 추도식 및 외국 농축산물 수입 규탄대회'가 개최되었다. 추도식에서는 고 서형석씨의 죽음은 반농민적 농정이 간접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이 제반 원인에 대한 시정을 주장하였다. 추도식 후 경찰의 참석 방해 기도에도 불구하고 약 70여명의 농민이 청주시내 육거리 시장에서 '수입반대', '소값 보상'을 외치며 2시간 동안 시위를 하였고, 동시에 약 30여명의 농민이 청주우시장에서 '농민 생존권 보장하라'는 제목의 글을 배포하다 10여명이 연행되었으나 시위농민이 연행 농민 석방을 주장하며 농성에 들어가자 당국은 오후 1시 30분경 이들을 전원 석방하였다.

내용: 시위와는 상관없는 한국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총무 오상근씨가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해 오던 중 무자비한 구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오상근 총무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통해 이유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백주에 많은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구타를 당하고 쓰러진 채 짓밟혀서 한때 실신하기도 하였다.

관계 인물: 오상근

관계 단체: 충북기독교농민회, 충북민주운동협회의

관계 자료:

관련 사건: 농민 서형석씨 소값 폭락 비관자살(1985. 4. 21), 사건번호 20, p. 23. 故서형석씨 추도식 및 외국농산물 수입 규탄대회(1985. 7. 17), 사건번호 24, p. 26.

27. 사건명 : 충북 민정당 제1지구당사 농성 사건

사건 발생일: 1985. 9. 9.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1985년 9월 9일 12시 30분, 충북 민정당 제1지구당사를 4명이 점거하고 유리창을 깨고 동시에 50여명의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민정당의 독재를 폭로하는 플래카드가 내려졌다. 농성자 4명은 메가폰을 통해 “민중생존권 보장하라!”, “민주제 개헌 실시하고 현 정권은 물러가라!”, “학원안정법을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농민가, 내가 선봉에 서서 등을 부르며 시민들에게 절규했다.

그러나 12시 50분 무장한 전경이 몰려오고 사태가 긴박해지자 13시 15분 농성자들은 태극기를 내걸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우리는 왜 민정당사에 들어 왔는가!”의 유인물을 낭독했다. 이어 13시 25분 야만적인 독재정권의 하수인 사복형사들은 무력으로 바리케이트를 부수며 농성장에 들어가 “꽃무늬종이”로 쓴 각목으로 집단 구타한 후 연행했다. 이런 폭력적인 연행과정을 지켜보던 이용규(청주대 4년)군이 “강제로 연행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자 형사들이 달려들어 연행했다. 약 1시간동안의 농성 시간에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 2천 여 명의 관심은 가슴을 찡하게 하는 것이며 “꽃무늬종이”로 쓴 각목은 폭력정권의 비민주성을 느끼게 했다.

청주지법은 16일 민정당 충북 제1지구당 당사 농성사건(9월 9일) 선고 공판에서 김희식씨 등 5명에게 폭행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 유수남씨, 장원덕씨, 최승용씨, 정세영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12월 2일 청주지방법원에서의 부당한 재판과정에 대한 가족들의 항의를 서부경찰서는 폭력으로 대응, 9명의 구속자 가족을 연행하여 익일 12시 30분에 20여명의 기동경찰에 의해 강제 귀가 조치함.

관계 인물 : 김희식, 정세영, 장원덕, 최승영, 이용규

관계 단체 : 충북지역 인권협의회,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청주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 『함성』 제1호(9월 10일자)

《<성명서>》

1. 학원안정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 학원법은 자유와 비판 정신을 모태로 하는 학원 사회의 창의력을 말살하여 학원을 지성의 불모지로 하는 동시에 온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탄압하려는 군사독재정권의 집권 연장 수단이기 때문에 반민주 악법인 학원안정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원문제와 경기침체에서 나오는 사회불안은

현 정권의 무능과 부패, 비민주적 독재정권의 실책에서 나오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하지 않고 소위 문제 학생을 격리하여 선도라는 미명하에 학생 수용소를 설치하여 또 다른 형태의 삼청 교육을 실시하는 군부독재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은 커녕 악화시키는 것이다.

2. 민주제 개헌을 실시하라! - 제5공화국 헌법은 10.26 이후의 민주화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5.17 쿠데타로 제정되었다. 그 주요특징은 억압 장치로서 노동3권을 금지하며 생존권을 제약하고 있다. 특히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각종 악법이 헌법을 뒷받침하고 있음은 독재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이용되고 있다. 대통령 간선제는 국민의 권리가 선거인단에 의해 위탁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제 개헌은 정부, 여당의 입장과 범민중의 요구가 국가 발전에 일치되어야 하며 민중의 경제적 고난과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성명서>》

- 85. 9. 9. 충북 민정당 농성사건을 접하여 -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위임받은 목회자로서 충북지역 인권문제를 협의하는 도중, 85. 9. 9 충북 민정당 제1지구당사 농성사건의 보고를 접하고, 이러한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발하게 된 오늘의 현실을 심히 우려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보고에 의하면 이날 농성학생은 김희식(충북민주운동협의회 문화분과장) 정세영(성균관대 토목과 2년, 청주산업선교회원 노동교회) 장원덕(충북대 물리학과 4년, 가톨릭 대학생회원 천주교 성당) 최승영(청주대 영문과 4년, 노동교회) 이용규(청주대 영문과 4년) 등 5명이라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①학원안정법 철회 ②민주제 개헌 실시 ③민중생존권 보장 등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국민적 의사표현의 통로가 차단된 오늘의 현실에서 이를 알리기 위해 민정당사에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상을 접하면서, 이들의 주장이나 행동과정에서 비록 논리적 무리성이나 미숙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정신은 2. 12 총선 이후의 절대 다수의 국민이 염원하는 민주화의 열망과 같은 맥락에서 있으며, 또 오늘의 현실을 고뇌하는 젊은 지성들의 우국충정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애국심이 그 발로였음을 새삼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이 주장한 내용들은 실로 오늘의 부정적 측면의 반영이며, 이들 대부분이 청주시내 신·구교의 독실한 신도로서 평소부터의 현실에 대한 신앙적 성실과 기도에서 이루어진 신앙적 결단이었음을 의심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우리 목회자 일동은 기성세대가 마치 대변하지 못했던 현실의 질곡과 역사적 사명 앞에 새삼 부끄러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제라도 이들의 주장의 기본적인 정당성이 합리적으로 정부당국에 수렴되어, 이 나라의 앞날이 모두가 염원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여야 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이날 강제연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무자비한 폭행의 진상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정당한 법적절차도 밟기 전에,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화와 몽둥이로 맨손의 어린 학생들을 연행한 경찰이 폭력사태에 관하여 우리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런 사태가 과연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명백한 인권유린, 치안부재 상태는 책임 있는 당국자에 의해 해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에 우리는 목회자적 사명과 시대적 양심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학생들이 주장한 학원안정법 철회, 민주제개헌 실시, 민중생존권 보장 등에 원칙적 정신에 입장을 같이하여 이러한 주장이 합리적으로 정부당국에 의해 반영되어지기를 촉구한다.
2. 도경국장은 연행과정에서 있었던 경찰의 폭력에 대해 해명과 함께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1985. 9. 11.

충북지역 인권협의회 참석자 일동

관련 사건 : 전남 광주 흥기일(25. 건축노동자) 열사 분신(학원안정법 반대 투쟁, 1985년 8월 15일)

28. 사건명 : 충북지역 인권협회의 학원안정법, 단군신전, 교회선교타종에 관한 성명 발표

사건 발생일: 1985. 9. 11

사건 배경:

사건 내용: 충북지역 인권협의회가 당시의 정국과 교회의 현안문제인 학원안정법 제정 문제, 단군신전건립문제, 그리고 교회타종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성명서로 밝힘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충북지역 인권협의회 성명서

《<성명서>》

- 학원안정법, 단군신전, 교회선교타종 등에 관하여 -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 이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 온 국민의 생존권 문제를 위해 기도하여 오던 중 특히 최근의 정국과 교회의 현안문제인 학원안정법 제정문제, 단군신전건립문제, 그리고 교회타종문제 등을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충북지역 인권협의회로 모여,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게 되었다.

1. 학원안정법은 그 발상조차도 영구히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학원안정과 좌경화 방지라는 명분 하에 소위 학원안정법 제정을 시도하였다가, 민주화를 염원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일단 보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① 이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점, ② 법안의 문구의 애매성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농후하다는 점, ③ 대학의 지성과 자율을 반지성적 폭력으로 저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폭력적인 도전이라는 점 등등, 시대를 역행하는 반민주적 악법임을 새삼 확인하였다.

더구나 당국은 이 법안의 제정을 일단 유보보다는 애매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가일층 노력하는 점을 미루어, 그 저의가 학원문제만 아니라 직선제 개헌논의 등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세력에 대한 정치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안은 어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발상조차 영구히 폐지되어야 한다.

2.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단군신전 건립은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당국은 그동안 정책적으로 추진해오던 단군신전 건립사업을 민간주도라는 표면적 수정으로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은밀히 국회의원, 군수, 시장 등을 포함하는 군

단위 건립위원회 조직, 군 단위별 신전건립 등 대규모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원칙적인 면에서 ① 신화속의 인물을 실재 인물로 인격화한 가정 위에서 국민의식이 양양될 수 있다는 발상의 허구성, ② 500억불이 넘는 외채에 시달리며 전 국민적으로 절약과 근검을 강조하는 한편에서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의 비합리성, ③ 물의가 되었던 신전 순례 및 참배는 자칫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연상케 하는 군벌주의의 유산이라는 점, ④ 나아가 혹이라도, 정부당국이 특정 종교의 정책적 배려와 함께 다른 한편의 특정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탄압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⑤ 특히, 이 사업의 추진은 국론통일보다 국론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내면적으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단군신전 건립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3. 교회의 타종은 기본적 선교자유라는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교회의 그동안 예배시간을 알리는 일정한 시간의 타종에 대한 일부의 시비에 대하여 스스로 자제하며 국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청주시 사직동 모교회의 타종사건에서 나타났듯이 가장 기본적 필요의 타종마저 환경공해의 명분 하에 온갖 사회적 제압을 가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차제에 우리는 묻고 싶다. ① 현재 무심천오염, 공단지역공해, 기타소음공해 등 시민의 생명을 서서히 죽이는 무서운 공해들을 방치해 왔던 당국이 유독 교회의 타종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법적 조치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② 결국 교회타종 시비는 환경공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종교탄압의 한 방편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미 교회 스스로 자제되고 있는 최소한의 필요한 타종은 기본적 선교자유라는 측면에서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4. 위와 같은 우리의 입장이 정책적으로 충분히 수렴되어, 혹이라도 원치 아니하는 사태로 비화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당국에 충고하는 바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 평화의 실천, 나아가 진정한 조국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 민주세력과 함께 힘을 다해 일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1985. 9. 11.

충북지역 인권협의회 참가자 일동

관련 사건:

29. 사건명 : 청주 대화운수 김태웅 기사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분신 기도

사건 발생일: 1986. 3. 28

관련사건 일지 :

사건 배경: 대화운수는 1979년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선수들의 교통편의를 보장한다는 구실로 당시 청주경찰서장과 경찰간부들에게 특혜로 설립이 허가된 청주시내 최대의 시내버스회사(차량45대, 운전기사84명, 안내원 64명, 정비 등 30여명). 이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하루 18시간 이상의 장시간, 중노동을 월 17일(만근)시키고 35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필요 이상으로 운전기사를 모집해 두고, 운전기사들에게 만근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각종 수당을 떼어 먹기 때문에 30대 후반에서 50대의 가장인 운전시가들은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또한 회사 측은 입금액이 적으면 배차를 중지함으로써 생계를 위협하고 동료기사들 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기사들 간에 불신과 분열을 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배차담당과 어용조합장(이해성)이 짜고 수입 좋은 노선을 배정해 준다는 조건으로 운전기사와 안내원에게 뇌물을 강요하고 있다. 회사나 어용노조에 밀게 보이거나 뇌물을 바치지 않는 자에게는 일하기 까다롭고 수입이 적은 노선에 배정하는 등 파렴치한 짓을 일삼아 운전기사들과 안내원의 분노를 사왔다.

사건 내용: 노조는 어용화되어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회사 측과 야합하여 정당한 주장을 하는 조합원을 탄압하는 도구가 되어 버렸다. 이리하여 뜻이 있는 운전기사와 안내원들은 노조를 탈퇴하였다. 1985년 10월 14일에는 운전기사와 안내원 42명이 회사 측의 악랄한 탄압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진정하기 위해 노동부를 찾아 집단 상경하였으나, 서울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말았다.

경찰은 회사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운전기사와 안내원들만 문제 삼아 기업주의 입장만을 받아들임. 김태웅씨는 평소 회사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어려운 동료들을 도와주는 등 많은 운전기사와 안내원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었다. 회사 측은 김태웅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을 몰아내기 위해 버스에 암행을 태워 감시하는가 하면, 나이 어린 안내원들을 꼬여 기사들의 '뺨땡'을 조작하여 강제로 자백을 하게 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탄압을 가해왔다. 이 때문에 기

사들이 사표를 쓰고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4명의 핵심적인 기사들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회사 측은 입사한지 1개월밖에 안된 안내원(21, 홍성례)을 꼬여 음모를 꾸며냈다. 홍씨로 하여금 김태웅 동지에게 뺑뺑으로 8,000원을 주었다고 거짓자인서를 쓰게 한 것이다. 김태웅씨는 회사 측의 음모에 걸려 '뺑뺑'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 것이었다. 회사 측은 거짓자인서를 증거로 하여 김태웅씨에게 배차를 중단시켰고, 사표를 강요했다. 김태웅씨가 결백을 주장하며 회사 측에 항의하였으나 회사 측은 막무가내였다. 억울하게 배차중지를 당하고 사표를 강요받은 김태웅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회사간 부들과 싸웠다. 분신을 하겠다고 위협도 했다. 그러나 '너 같은 놈 죽으려면 죽어봐라. 죽도록 내버려 뒀라!'고 폭언을 일삼았다.

김태웅씨는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고 물러설 수는 없었고 이것이 자신의 문제만은 아니라 여겼다. 자신이 이번에 그냥 당하고 물러난다면, 앞으로 동료기사들이 몇 명이나 계속 당해야 할지 몰랐다. 이윤에만 골몰하여 노동자들을 기계와 같이 부러먹으려는 기업주들과 그들은 밀어주는 군사독재정권에 죽음으로써 항거하여 더 이상 이러한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태웅씨의 온 몸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을 보고도 대화운수의 회장, 전무, 상무 등은 이를 방치하였다. 뒤늦게 이 엄청난 광경을 발견한 동료기사들이 간신히 불을 끄고 급히 청주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화상이 너무 커서 서울로 가라며 입원을 거절하였다. 온몸을 까맣게 그을린 김태웅씨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온 회사 측 관리자들과 정보과 형사, 안기부 요원들은 중화상을 입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환자의 목숨보다는 분신소식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만 두려워, 서울의 노동단체인사들을 따돌리기 위해 병원을 다섯 군데나 전전하며 응급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였다. 환자가 누워있는 병실에 부인 등 가족들의 환자면회를 금지시키면서도 형사들만은 파란 가운을 입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감시하게 하는 등 야만적인 행동을 했다. 응급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3월 29일 새벽3시 중환자를 다시 청주로 데려와 도립병원에 입원시킨 경찰은 수백 명의 사복형사와 전경들을 동원하여 병원을 차단하고 가족들을 위협하여 회사 측과 돈으로 합의를 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 죽음을 눈앞에 둔 김태웅씨의 송고한 뜻을 더럽히려 했다.

온 몸을 불태우며 뜨겁게 호소한 김태웅씨의 외침과 참된 뜻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군사독재정권의 더럽고 파렴치한 행동이 서울에서 분신한 고 박영진 열사의 시신을 탈취하여 가족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확장해 버린 경찰의 만행을 무색케 했다. (『운수노동신문, 1986. 4. 3.)

관계 인물: 김태웅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운수노동신문』 1986. 4. 3

관련 사건:

30. 사건명 : 청주지역 법인택시 기사들의 부당해고 철회투쟁

사건 발생일: 1986. 4 - 1987. 4.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1. 신신택시 최만수 조합장 부당해고- 최만수 조합장은 1983년 7월 29일에 신신택시 조합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위험한 작업장에서 모범 노동자로 일을 해 왔으나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회사발전을 위해, 또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다 1986년 6월 12일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2. 중원택시 한구현 조합장 부당해고 - 한구현 조합장은 1984년 12월 17일 청주 중원택시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6년 4월 13일에 노조를 결성하기위해 1986년 4월 27에 도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다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3. 중원택시 정희수 부당해고 - 정희수씨는 1985년 12월 26일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7년 4월 11일 박부장을 만나 그동안 권고 사직된 동료들을 복직시켜줄 것과 노동조합 결성에 협조하여 달라는 말에 4월 12일 징계 통지를 받았다. 13일 항의서를 제출하였으나 14일 자술서를 작성하기를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표를 요구하며 회유와 강요를 하였다. 5월 12일 복직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부당해고는 철회되지 않았다.

4. 중원택시 윤규상 부당해고 - 윤규상은 회사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이미 무혐의로 판정받은 6개월 전의 경미한 사고를 빙자해 6월 15일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중원택시 노동조합 요구사항>

1)부당해고된 정희수, 윤규상 등 모두 복직을 시키기 원한다. 2)기본급 33% 인상을 원한다. 3)교통사고 및 면허 정지자 권고사직 폐지를 원한다. 4)교통사고 발생하여 음성 처리시 및 과징금 기사부담을 중지시킬 것을 원한다. 5)예비군 훈련 및 교육 시 수당 지급을 원한다. 6)24일 근무제 실시를 원한다. 7)단체협약 재조정을 원한다. 8)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기를 원한다.

5. 청주택시 박노영, 김만수 조합원 부당해고 - 청주택시는 단체협약을 운운하며 12년 무사고와 청주택시에 입사한 후 3년 6개월 동안 무사고로 회사를 위해 희생해 온 모범 운전자였던 박노영씨를 해고시켰으며, 박노영씨는 이에 불복하여 노동부에 진정한 바, 노동부 청주지방사무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과 함께 6월 25일까지의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는 노동부의 명령도 무시했다. 김만수씨도 회사의 어용세력인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조합간부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고, 수습기간임을 악용해 입사 3개월이 되는 2일 전에 서둘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고를 시켰다.

6. 대전 한우주식회사 김태평 부당해고 - 김태평씨는 1985년 2월 22일에 대전 한우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친목단체인 한마음회를 조직하여 총무 일을 보던 중 보안대에 의해 3차례 연행당해 심한 폭력과 고문으로 강제사직을 강요당했고 한마음회를 해체하도록 강요당했다.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관련 사건:

31. 사건명 : 충북대 교수 32명 시국선언문 발표

사건 발생일: 1986. 4. 25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충북대 교수 32명은 25일 '오늘의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교수들은 '대학의 위기는 단순히 대학 안에서 극복 될 수 있는 학내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 돼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와 거기에서 파생된 불신과 반목 및 전도된 가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어 '국가의 장래는 국민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최근의 개헌논의는 어떠한 이유로도 봉쇄돼서는 안된다'는 등의 5개항의 견해를 밝혔다. 서명 교수는 다음과 같다

郭忠求, 具然喆, 金性基, 金榮潤, 김승환, 金貞和, 盧暲灝, 文城弘, 閔庚姬, 裴柄均, 裴永*, 徐寬模, 申虎徹, 安相憲, 梁起錫, 吳光鎬, 吳帝明, 柳初夏, 尹九炳, 金東洵, 李承馥, 李永鎭, 이옥향, 전채린, 김청웅, 정동호, 정영수, 최병수, 최세만, 한기선, 한봉래, 허석렬 (『조선일보』 1986.4.26)

관계 인물:

관계 단체: 민교협 충북대지회

관계 자료: 『조선일보』 1986.4.26

관련 사건: 4.27 군사독재타도 및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충북도민 실천대회(1986. 4. 27), 사건번호 32, p. 36.

32. 사건명 : 4.27 군사독재타도 및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충북도민 실천대회

사건 발생일: 1986. 4. 27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민주행진로]① 코스: 13시 20분경, 충북은행본점 앞→상당공원→시청→신민당사→중앙극장. 신민당원 100여명, 일반시민·학생청년 150여명. ② 코스: 14시부터 민중집회와 동시에 행사장 주변 시위. 5~7만 인파 ③ 코스: 16시 30분, 중앙극장→수

아사→상당공원→시청→신민당사. 약5천여 명이 스크럼하고 ‘독재타도’, ‘전두환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④ 코스: 현판식 후 시내중심가로 이동하다 수아사 앞 사거리에서 경찰과 대치

[민중집회] ① 군사독재타도 및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충북도민 실천대회 중 1차 민중집회: ‘대화운수 운전기사 김태웅 동지 분신항거보고 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며 시민에게 흘러송, 농민가 등을 가르침. 수많은 플래카드와 피켓 등장. ② 2차 민중집회: 신민당 현판식 후 신민당 사무실 앞 사거리에서 5만 민중과 함께 신민당의 적극 동참을 촉구한 후 독재헌법 화형식 개최. 성명서 발표, 구호제창, 노래를 한 후 시내중심가로 진입.

[민중과 군사독재와의 싸움] ③ 17:10 2차 민중집회를 거행한 후 장소를 우체국 앞으로 옮기던 중 수아사 앞에서 경찰과 대치. 5,000여 민중의 환호와 열기로 군사독재성토를 한 다음 우체국으로 전지하자 경찰이 최루탄 발사, 시민 학생들 화염병과 투석으로 대치, 다수 연행, 민중들 일단 해산. ④ 18:10 고속터미널 앞에서의 시민·학생 300여명 (동아일보 4.28보도)이 ‘독재타도’를 외치고 ‘농민가’, ‘5월의 노래’를 부르며 가두시위, 경찰 최루탄 발사, 화염병으로 시민·학생 맞서며 격렬한 가두시위, 학생·시민 다수 연행. ⑤ 18:30 고속터미널에서의 싸움이후 50여명이 서울병원 앞에서 다시 집결, 5분간 ‘전두환 퇴진’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시위 후 해산. ⑥ 18:40 다시 중앙공원에 50여명이 모여 ‘독재타도’를 외치며 시위. ⑦ 18:50 경찰 및 사복형사 출동으로 해산

[싸움결과]

1. 폭력경찰이 무자비한 최루탄 발사로 그 파편을 맞은 시민 3명이 부상. 남궁병원과 서울병원에서 분산 치료
2. 총 연행자 42명 : 30명은 훈방하고 12명 조사 후 구속 또는 구류, 다수 수배.

관계 인물: 김두관(민통련 서울지부), 오맥균(충북대 3년), 이창호(충북대 3년), 정낙묵(충북대 졸),
김주연(전북대 3년), 이영진(원광대 졸)

관계 단체: 충북민주운동협의회

관계 자료: 충북민주운동협의회 특보 『함성』 제5호(발행일 : 1986. 5. 1)

《<성명서>》

4.27 청주시민의 장엄한 민주쟁취투쟁을!

-군사독재퇴진투쟁 선포-

조용한 도시 청주! 그러나 그 깊은 가슴속에 자리 잡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끓어 오르는 열정을 그 누가 알랴! 1986년 4월 27일 중앙극장 근처 북문로 3가 일대에서 위대한 민중승리의 외침으로 청주가 포효했던 그날, 전두환 군사독재는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정부는 새롭게 군사독재퇴진투쟁을 선언했다. 4월의 진달래가 청주를 향했고 굳게 움켜진 청주시민의 분노와 투쟁의지는 이미 신민당의 형식적 개헌논의를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의 발전이었다.

아아! 청주여!
노동자여! 농민 학생 청년이여!
다시는 침묵하지 말자!

이젠 4.27의 그 함성으로 독재를 쳐부수고 자유와 신뢰와 민주주의로 가득 찬 평화의 그 날을 쟁취하자. 우리의 단결로 역사를 만들고 4.27의 승리를 재현하자! 우리는 승리하리라! 바로 그날 청주가 다시 한번 일어설 때,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민족통일이 성취될 것이다.

청주여!

금지를 갖고 확신을 갖고 민주주의를 향산 대장정에 동참하자!

단결! 단결!! 또 단결!!!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관련 사건: 충북대 교수 32명 시국선언문 발표(1986. 4. 25), 사건번호 32, p. 35-36.

33. 사건명 : 신신택시, 중원택시 조합장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철회 투쟁

사건 발생일: 1986. 6. 23.

관련사건 일지 :

사건 배경: 중원택시의 부당노동행위 - ① 1986년 4월 14일 오전 11시 조합원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 ② 과징금 부담 : 회사가 당연히 부담해야함에도 전형복씨의 경우 1월 5일, 1월 25일 양일간에 걸쳐 임금에서 205,000원을 부담했고 김충안씨의 경우 12월에 100,000원을 부담한 사실 ③ 박부장은 1986년 3월 11일 13시 30분경 전형복씨에게 세무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자가용 사골 부상을 입었음에도 형사가 조사하면 '아프지 않다'고 시킨 사실 ④ 6월 4일 타코메타를 달고 이태학, 오현천 씨 등 5명에게 '수입금이 적으면 스피야로 내리겠다', 6월 9일 2시 40분 경 30여명의 조합원들이 점호를 받는 중 '메타기에 임금차이가 10원만 생겨도 강력히 조치하겠다', '해고 시키겠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한 사실 ⑤ 노동조합을 1986년 4월 20일에 조직하고 단체교섭을 4회나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묵살한 사실 ⑥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조의 건의나 대화를 모두 회피해 버린 사실 ⑦ 근무 외 교대시간에 비조합원과 식사를 같이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시킨 사실 ⑧ 1986년 3월 이전에는 월차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 금액을 3년간 소급한 액수는 1,000만 원 이상이 될 것임. 또한 잔업수당도 정확히 계산되지 않음.

사건 내용: 신신택시 노조위원장 최만수 부당해고: 단체협약에는 상벌위원을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구성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예고도 없이 해고시켰다. 상벌위원은 조합장과 노동자 2명 등 3명과 회사 대표사원은 자동 상벌위원이 되고 그 외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 상벌위원회에서 면직, 감봉, 시말서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법을 모두 무시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해고는 무효라고 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시킨 것이다.

중원택시 조합장 한구현 및 조합원 부당해고 : 중원택시는 단체협약체결을 4회나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응하지 않고 노조를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조합원과 조합원장을 부당하게 해고 시킨 것이다.

관계 인물: 최만수, 한구현

관계 단체 : 청주도시산업선교회,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관계 자료 : 부당해고에 대한 공개 건의서, 『노동신문』 원고

관련 사건:

34. 사건명 : 교도소 폭력의 후유증으로 인한 유윤식 군의 정신분열 증세 발생

사건 발생일: 1986년 9월 10일 - 12월 31일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86년 9월 10일 공주사대 역사교육과 3학년 유윤식군이 학내 민주화 투쟁의 일환으로 어용교수의 자성을 촉구하다가 공주 교도소에 수감됨.

사건 내용: 유윤식은 교도소에 수감된 후 교도소 측의 인권유린에 항의하여 단식도 불사하였다. 교도소 측은 징벌방인 독방에 감금하고, 방석보로 입을 틀어막고 포승으로 온 몸을 꽁꽁 묶어 구타하였다.

86년 10월 24일 교도관들이 양심수를 집단 폭행하는 과정에서 유군은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자 유군은 단식으로 항의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징벌방에 감금되었다. 구타와 폭언으로 깊이 상처 입은 유군은 캄캄한 징벌방에 방치된 채 정신이상과 착란증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 후 접견 시에도 한쪽 다리를 잘 못쓰고 눈동자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노모의 증언도 있었다. 공주교도소 측에서는 엑스레이 진단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시인하면서도 외부 진료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병세가 악화되자 10월 중순 윤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시키고 11월 중순에는 충남대 부속병원에서 진료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12월 10일경에는 교도소 측도 지창수 신경외과에 재입원시켰다. 유군은 12월 31일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석방된 후 유군은 심한 우울증과 경찰이 자신을 죽이려고 감시하고 노리고 있다는 공포로 정신발작을 일으켜 울량 신경외과와 충북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 다음은 유윤식군의 옥중 서한에서 부분 발췌한 것이다.

“어제 아버님을 뵈고 나서 초췌한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자꾸 솟더군요. 그리고 엄마가 누워 계신 모습이 저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하지만 이 땅의 현실은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아픔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86년 10월 27일자)

“아버님이 다녀가신 후 쓰라진 통증과 괴로움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아픔이면 참고 견디겠지만 제대로 걸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86년 11월 6일자)

“치료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모님을 꼭(편지를 받는 즉시로) 뵙고 싶습니다. 엄마! 사람은 역시 건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공주교도소에서 86년 12월 5일 아들 드림)

관련 사건:

35. 사건명 : “너를 범인으로 만들테다”(청주대 유수남 군의 경우)

사건 발생일 :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아시안 게임 반대와 헌법특위분쇄투쟁을 위한 대학생들의 가두시위 주모자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경찰들에 의해 지목된 학생들을 연행 고문했던 청주경찰서의 고문폭력 사건.

사건 내용: 허위진술과 자백을 강요하며 연행도중 차안에서부터 욕설과 협박으로 “주모자는 너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죽기 전에 순순히 불라고 욕박지르기 시작한 형사들은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구타와 물고문을 삼일 밤낮으로 자행하였다.

“범인은 너야,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네가 범인이 아니라도 좋아. 너를 범인으로 만들면 되니까. 죽기 싫으면 네가 범인이라고 자백해”라고 말하면서 사건을 조작하려 하였는데 유군은 끝까지 완강히 거부하자 주리틀기, 단단한 봉으로 수없이 구타하고 손가락 비틀기, 목 비틀기, 허리찍기 등을 자행하여 공포와 분노로 탈진상태가 되었는데, 끝내는 발가벗긴 채 손목과 발목에 물수건을 감고 고무줄로 묶어 매달듯이 쓰러뜨린 채 얼굴에 거스를 대고 얼음물을 부었다는 것이다.

유군이 실신상태에 이를 때마다 물을 온 몸에 붓고 발로 걷어차고 봉으로 때리며 “이 새끼 죽은 척 하네. 너 같은 새끼 죽어도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울 수 있어, 이 새끼야!”라고 수없이 뇌까렸다고 유군은 전한다.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관련 사건:

36. 사건명 : 청주경찰서 내 집단폭행 사건

사건 발생일: 1986년 8월 31일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 1986년 8월 31일 청주출신으로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다가 80년 5.17 조치로 구속된 후 조사과정에서, 그리고 교도소 수감생활 중에서, 당한 고문과 폭행의 후유증으로 인해 운명한 고 최종철의 5주기 추모식 날이었다.

사건 내용: 추모식을 마치고 해산하던 중 청주시내 구법원에서 식사를 하기위해 소수가 하차하고 거의 동시에 버스 안에서 밖을 향하여 소량의 유인물이 뿌려졌다. 이때 내리던 일행 중의 1인이 읽어보기 위해 주워들었을 때 경찰이 이를 강제로 빼앗으려하자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불어난 200여명의 정·사복 경찰들은 참석자 일행을 구타하며 경찰버스로 연행해갔고 귀가하려고 버스에 있던 참석자 일행은 모두 하차하였다. 뒤에 하차한 총북민협 사무국장 김형근씨가 항의하며 버스 앞에 눕자 전경과 형사들이 몸 위로 달려들어 팔을 비틀고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연행을 하려 하였으나 참석자들의 제지로 겨우 벗어났다. 손을 비트는 만행에 손가락이 부러진 채 기독교농민회 배장환 총무 등 경찰서로 연행된 7명은 불법연행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서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전경들에 의해 팔이 비틀리고 머리채를 잡힌 채 3층 정보과 사무실로 끌려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정승현씨(총민협 여성부)는 안경이 박살나고 한쪽 팔은 심하게 비틀어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기독교농민회 총무 차재근씨는 폭력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유리창을 깨고 투신으로 항거하려 했으나, 경찰이 급히 제지하여 미수로 그쳤다. 정보과장이 들어오며 “1층으로 끌고 가”라고 지시하자 또 다시 1인에 수명의 형사들이 달려들어 팔을 비틀고 머리채를 잡은 채 1층 형사실로 끌어넣었다.

한편, 추모식 참석자 전원은 연행의 해명과 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청주 경찰서 앞으로 갔다. 이때가 오후 8시경, 항의하는 일행을 둘러싸고 있던 수십 명의 정·사복 경찰들은 정보과정의 ‘끌어들여’라는 명령과 함께 달려들어 폭행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넘어진 일행들을 발로 짓밟는가 하면 머리채를 잡아 머리가 뺨히고, 팔을 비틀고 구둣발로 차면서 한 사람에 4명씩 달려들어 경찰서 형사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탈진 상태가 되어버린 18명 앞에 서있던 70여명의 형사들은 연행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부으며 공포분위기로 몰고 갔다. 연행자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구둣발로 가슴과 허벅지 등을 짓밟았다. 조금만 움직이거나 말을 해도 폭행을 가했고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빨갱이 같은 년놈들...” 등과 같은 폭언으로 굴욕을 강요했다. 한구석에서는 서부 경찰서 오명근 형사가 관할 책임 구역도 아닌 타서에서 학생을 잡고 우산대로 내리찍는 폭행을 자행하였다. 연행자들의 온 몸에 피멍이 들고, 손가락이 부어오르며 심한 통증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9월 1일 새벽 2시경 조사 대상자 6명을 강제 분리하는 폭력이 다시 자행되었다.

김성구 기청협 수석의장은 유리창 파편에 찔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이내 실신하였다. 진술을 거부하는 6명에게 경찰은 목을 조르고 팔을 꺾으며 진술을 강요해 그 과정에서 기청협 상임총무 이주형씨는 심하게 목이 졸려 부어오르고 피멍이 들었다. 경찰은 끝내 진술을 거부하자 허위로 진술서를 위조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더욱 경악할 일은 조사대상자들에게 전혀 사실 무근의 집회 및 시위법 위반 등의 구실을 붙여 4명을 구류처분하고(총민협 사무국장 김형근, 기청협 이주형, 황규훈, 농민회 배창환) 1명 구속(기독교농민회 총무 차재근)시켰다.

관계 인물: 김성구, 김형근, 이주형, 황규훈, 배창환, 차재근, 정승현

관계 단체: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충북기독교농민회, 충북기독교청년협의회

관계 자료:

관련 사건: 고 최종철의 5주기 추모식

37. 사건명 : 고문폭력의 장 내덕파출소(청주대 황규훈 군의 경우)

사건 발생일: 1986년 9월 30일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1986년 9월 30일 18시경 청주대학교의 황규훈군이 충북기독교청년협회의 월요 성서연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충북기독교청년협회 회관으로 가던 중 청주경찰서 정보과 소속 김모, 최모 형사에게 강제연행 되어 내덕동 파출소로 끌려갔다.

사건 내용: 황군은 아시안게임 반대 및 헌법특위분쇄투쟁을 위한 가두시위의 주모자를 대라는 강요를 받았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황군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하자 형사들은 황군의 목을 졸라 생명의 위협으로 공포에 떨게 하고 손가락을 찢듯이 비틀어 대면서 자백을 강요해도 황군이 대답이 없자 옷을 벗긴 후 손목과 발목을 묶어 곤봉으로 매달아 놓고 얼굴에 수건을 덮은 후 물을 붓는 물고문을 대어섯차례 자행하여 어쩔 수 없이 황군은 허위자백을 하였다. 경찰은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불면 그 다음은 각오하라고 협박을 거듭한 후 내보냈다고 한다. 황규훈군은 그 후유증으로 두 달 이상을 공포와 호흡곤란과 두통 등으로 고생했다.

관계 인물: 황규훈

관계 단체: 충북기독교청년협회

관계 자료: 『충북지역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p. 79.

관련 사건: 아시안게임 반대 및 헌법특위분쇄투쟁을 위한 가두시위

38. 사건명 : 8.13 경찰 폭력 및 민중, 민주화운동 탄압 저지대회

사건 발생일: 1986. 8. 13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1986년 8월 13일 70여명의 민주운동 세력들은 고인의 가족을 모신 가운데 80년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 과감히 싸우다 구속되어 심한 고문과 구타를 이겨내지 못

하고 출옥 후 사망했던 고 최종철 동지의 추모식이 참석자들의 투쟁 결의와 함께 엄숙히 거행되었다.

추모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일행은 계속 감시 뒤따르던 경찰 전경들의 급습을 받아 닥치는 대로 목과 팔을 비틀리고 머리채를 잡히며 구뚏발로 채이는 폭력을 당하였다. 그중 기청협(기독교 청년협의회) 수석의장을 비롯한 6명은 무자비하게 끌려 경찰버스로 연행되었으며 경찰은 영문도 모르고 연행당한 동지들의 석방을 요구하며서 앞에 모인 참석자 일행을, 병력을 동원하여 머리채를 잡고 구뚏발로 마구 차며, 닥치는 대로 서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경찰서 안으로 끌고 들어간 폭력배 경찰들은 1층과 3층으로 개처침 끌고 다니며 치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서부경찰서 정보과 소속 오명근 형사는 자신의 관내도 아닌 청주서까지 들어와 연행자 1명을 구석에 몰아넣고 우산대로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하면서도 너무 당당해 허가받은 폭력배 집단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연행에 대한 해명자 폭력 형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연행자들에게 경찰 측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6명을 분리 조사해야 한다는 구실로 새벽 2시경 통증과 단식으로 탈진 상태가 되어 있는 연행자들에게 또다시 잔인한 폭력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도 다수가 옷이 찢기고 온 몸에 멍이 들었는가 하면 기청협 수석의장은 유리파편이 가슴과 엉덩이에 박혀 심한 출혈로 졸도까지 하였고 농민회 청원군 총무는 손가락이 부러져 손등이 크게 부어올랐으나 해명은커녕 새벽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분리 조사하기 위해 끌려간 6명은 조사를 거부하다가 또다시 구타를 당하였고 이주형씨는 목을 심하게 졸려 목에 시퍼런 멍 자욱이 생겼다. 이러한 잔인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형근(충북민협 사무국장), 배장환(농민회 청원군 총무), 이주형(기청협 총무), 황규훈(청주대 민주언론사 편집국장)은 구류처분을 받았고, 차재근 씨는 폭력혐의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관계 인물: 김형근, 배장환, 이주형, 황규훈, 차재근

관계 단체: 충북민주화운동 탄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충북기독교 청년협의회, 충북도시산업선교회, 한국가톨릭농민회 충북연합회, 대한 가톨릭 대학생 청주교구연합회)

관계 자료: 충북민주화운동 탄압저지 공동투쟁위원회 성명서

《<성명서>》

1. 민중 생존 짓밟는 ‘86아시안게임’ 저지하자! - 현 정권은 ‘86아시안 게임’을 민족적 대과제로 치룬다는 명분 하에 도시 빈민을 무자비하게 철거, 거리로 내몰고 노동자에게는 저임금 강요와 노동운동 탄압을 일삼고 있다. 또한 폭력과 물리력으로 밖에는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든 전두환 군사독재는 80년 광주 민중학살을 지원한 미국에 아부하기 위하여 미국의 제국주의적 경제침략을 용납, 수입개방이라는 민족 경제 파탄의 매국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더구나 최근, 군사독재의 반민중, 반민족성을 폭로하는 민중, 민주운동 세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최루탄 가스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육탄공격으로 나가겠다.”는 치안본부장의 발언으로 결국 현 정권이 국민을 한낱 소모품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살인정권의 본질을 명백히 노출하였다.

2. 미국사주, 민중기반 ‘헌법특위’ 분쇄하자! - 군사적으로 이미 한국군을 지배하고 수입개방을 강요하여 제국주의적 경제침탈까지 달성한 미국은 한반도의 영구한 예속을 획책하기 위하여 ‘이원집정부제’종용 등의 정치적 사주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넘겨주고라도 무력 탈취한 정권을 놓지 않으려 하는 현 전두환 군사독재는 국회 내 ‘헌법특위’를 통하여 지원세력인 미국에 아부하는 한편 ‘합의 개헌’ 운운하며 파쇼체제를 재편하기 위한 음모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찰을 조직폭력배로 만들어 민중,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민중의 민주화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획책하고 있는 ‘헌법특위’는 이 땅의 주인이 저들, ‘미국에 아부하여 민족의 안위와 민중생존권을 팔아먹는 예속군사독재의 무리’가 아닌 바로 ‘민중’이라는 점에서 민중의 힘으로 분쇄되어야 한다!

관련사건: 8.13 고 최종철 열사 추모식

39. 사건명 : 성신양회 주식회사 경비원 노동조건개선 및 원청 복직 요구 투쟁

사건 발생일: 1986. 12. 29.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1986년 12월 29일 성신양회 단양공장은 ‘기업 전문 분업화’라는 명분아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인 명신방호실업에 하도급 줄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노동조건 및 처우를 원청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약속하고 하도급 용역업체로 전직할 것을 종용하

게 되었다. 이후 회사측에서는 용역 경비 10여명을 동원, 주위의 환경을 강압적인 분위기로 조성하고 용역 경비를 근무지에 배치할 것이니 그때까지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해고처리 한다고 통보했다. 인근 여러 회사(한일, 아세아, 쌍용 시멘트)의 통레나 관례대로라면 노동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원청사 귀속을 원하는 자는 귀속시켜주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유독 성신양회만은 일방적으로 사표를 강요했다.

사건 내용: 1987년 1월 1일 명신으로 소속 변경 절차가 진행되었고 노동조건 및 처우 관계가 원청과 동일하다는 말을 믿고 일을 했다. 그러나 감시직 노동자도 노동자인 만큼 문화적인 생활향상과 육체적 피로회복, 사회활동도 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 월차 및 년차 휴가를 요구하였으나 휴가 시 대체 인력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3월 1/4분기 학자금 지급도 원청에서는 정상적으로 지켜졌으나 이 또한 이행되지 않았다. 1987년 6월에는 원청사는 정기승급 대상자를 승급시키고 소속 변경된 노동자들은 제외되었다. 7월 20일 물가수당도 3월 1일자로 임금에 5.5%로 인상 소급하여 지급하면서 이것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농성에 돌입하게 되고 농성 6일째 18명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관련 사건:

40. 사건명 : 농가부채에 대한 충북 농민의 주장

사건 발생일 : 1986. 12. 30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충북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농가부채에 대한 충북농민의 주장’이라는 성명

발표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충북농가부채대책위원회

관계 자료:

<성명서>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빚, 빚더미에 한숨짓는 농민은 한탄의 나날들이다. 뼈 빠지게 일하고 숨 돌릴 시간조차 없었던 알뜰조차 우리 농민들에겐 빛의 압박뿐이었다.

이 농사 저 농사 다해보아도 타산 맞는 농사는 없고 소값 폭락, 고추·마늘값 폭락으로, 무·배추값 폭락으로 농가 빚은 더욱 늘어만 가는 실정이다. 품값조차 건질 수 없고 다 이상 지어볼 농사가 없는 현실 속에서 농가경제는 파산하고 있다. 이젠 빚 몇 십 만원 때문에 목숨까지 버려야 했던 농민들과 피맺힌 절규가 여기저기 메아리 치고 있다.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쓰여 져야 할 농약을 내 몸 속에 집어넣도록 강요하는 현실은 누구의 잘못이며 이런 사회가 민정당식 복지사회란 말인가. 이제 농민들은 농민의 피땀을 가로채어 농민을 못살게 구는 현 정권의 살인적인 농업 희생정책에 대항하여 죽음으로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농가부채는 무려 4.3배나 증가 하여 86년 6월말 현재 농가호당 평균부채는 347만 1천원, 총 농가부채액은 6조 5,510억원이나 되며, 연간 호당 지불하는 이자만도 52만 8,000원이나 된다. 잘살아 보려고 발버둥치고 새벽부터 뼈 빠지게 일한 댓가를 현 정권은 농민들에게 이렇게 지불한 것이다. 단연코 우리 농민이 게을러서 빚진 것도 아니요, 농사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낭비를 해서 차치를 해서도 아니다. 이는 자기 나라 이익만을 위해 농축산물 수입을 강요하는 미국과 우리 농민을 무시하고 이국에 편만 들어 미국농축산물을 수입개방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저농산물가격 정책, 수입개방 정책으로 농민을 죽이는 현 정권의 잘못이요 책임이다. 소 키우면 잘산다고 복합영농 개방농정 부르짖던 현 정권은 농민의 빚더미는 아랑곳없이 소 수입으로 8천억의 이익을 남겨먹고 그것도 모자라 350여종의 외국농축산물의 수입을 개방하고 있다. 그래놓고도 현 정권은 농가 빚 탕감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재벌 빚 탕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82년 6월 28일 금리 인하조치로 86년 현재 5조 2천억 원, 85년 민정당의 조세 감면법 날치기 통과로 4조억원 이상의 재벌 빚을 탕감해 주고도 농민의 농가 빚은 왜!

왜! 못해 주는가? 이것은 현 정권이 농민의 피땀을 세금으로 거두어 갈망정 농민들의 이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농민들을 상대로 비싼 공산품을 팔아먹는 미국과 재벌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정권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더 이상 속아 살 수 없다.

우리 농민은 이제 농가부채가 해결되고 농님의 땀 흘린 대가가 정당하게 돌아오고 농민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농민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장해주는 정권을 위해 싸워야 함을 분명히 안다. 농가 부채의 해결은 농님의 민주적 제 권리와 생존권이 보장되는 민주헌법이 쟁취되고 이에 의한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농가부채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현장에서 농민 대중들과 함께 더욱 가열찬 투쟁을 광범하고 지속적으로 벌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농가부채 정부잘못! 긴급대책 실시하라!

- 당면 농가 부채문제에 대한 우리의 요구 -

1. 중소농이 지고 있는 조합 빚 원리금 전액을 탕감할 것
2. 중소농에게 특별지원 금융을 실시하여 사채로부터 해방시킬 것
3. 모든 농민 빚에 대해서 앞으로 5년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것
4. 편중 대출을 중지하고 중소농에 대한 영농자금 대출규모를 확대할 것
5. 영농자금 금리를 5%까지 인하하고 연체이자를 없앨 뿐 아니라 상환기간을 늘일 것
6. 융자중심의 농업자금 지원방식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업부문의 지원규모를 국민 총생산에 대한 기여율만큼 확대할 것

관련 사건:

41. 사건명 : 민중교통 김교성 씨 부당노동행위 고발 및 해고자 복직 요구투쟁

사건 발생일: 1987. 1. 27

관련사건 일지 :

사건 배경: 청주시민들의 교통수단을 담당하는 민중교통은 1987년 1월 27일, 회사의

노조결성 방해(조합가입 시 해고할 것이라고 위협, 관리자들의 기사에 대한 폭언 일삼는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노조활동을 해 오던 중 인간적인 대우를 요구하는 조건을 회사 측에 제시하게 되었다.

사건 내용: 교섭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노동행위중지 ② 편파적 차별대우 금지 ③ 노사협의 사항 이행 ④ 부서 이동한 김종명(안전관리부장), 유광열(총무부장) 원상복직 ⑤ 부당 해고된 박천규 복직 ⑥ 노동쟁의 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노사간 민·형사상의 문제를 삼지 말 것 등의 노조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합의각서를 11월 24일 한성운수 노조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조합원 전원에게 대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11월 9일에 전 조합원이 농성에 들어갔다. 11월 24일 다시 합의를 보았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아 전 조합원이 12월 8일까지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청주도시산업선교회의 정진동 목사의 정상운영 권고에 따라 12월 9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였다. 노조 측은 노동부나 노동감독관, 노동위원회나 경찰기관에서 문제해결에 너무나 무성의하다고 판단, 도시산업선교회의 이름으로 청와대 비서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합동민원실에서는 1988년 1월 1일, 부당노동행위시정요구안에 대해 노동부에서 조사·처리하도록 이첩시킴.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관련 사건:

42. 사건명 : 청원군 옥산면 호죽지 해평들 농민들 ‘농지정리 부실 공사 완전보수’를 요구투쟁

사건 발생일: 1987. 3. 10 ~ 1988. 4. 25.

관련사건 일자: 3.4 호죽농민들 도시산업선교회에 방문 / 3.4 전농민의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선 / 3.6 정진동 목사가 해평들 현지답사 / 3.7 80명의 농민 대표 명으로 청원군수에게 진정서 발송 / 3.14 청원군수 및 건설과정, 기업주 측에서 현지답사 후에

해결하겠다는 약속 받음 / 3.15 30여명의 농민이 사무실 방문. 농지계장 / 3.16 군수에게 발송한 공문을 전 농가 농민들에게 발송 / 3.17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군수에게 건의서 발송 / 3.18 가능한 해결하겠다는 회답 받음 / 3.21 2명의 실무자 현장 답사. 군청건설과 직원이 주민들과 대화 / 3.23 군수로부터 회신 도착 / 3.24 농민협회와 산업선교회 실무자 2명이 가서 항의. 군수로부터 회답 도착 / 3.25 서명 농민들에게 복구 대책에 격려문 발송 / 3.26 66명의 서명으로 군수에게 2차 건의서 발송 / 3.28 군수에게 2차 건의서 발송 / 3.29 농민들에게 군수 앞으로 보낸 건의문 77통 발송 / 4.8 공개 탄원서(도지사, 청와대, 농수산부, 문화방송, 연합통신) / 4.14 해평들 불실공사 공개 건의서 제출 / 4.16 3차 건의서 발송(군수, 우신기업, 대명건설) / 4.18 청와대 회신 / 4.22 군수로부터 100% 이행약속 회신 받음 / 4.25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통지 80부 발송

사건 배경: 농촌 현대화 추진 사업으로 정부에서 1985년 10월~1986년 5월까지 농지 정리를 한 바 공사과정에서 감독기관인 청원군청과 공사를 맡아 공사를 한 기업(우신기업주식회사)의 불신 공사로 인해 농민의 원성이 근 2년간 누적되어 불협화가 발생하였다. 농민들이 수차례나 군청 문을 두드리면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농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자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 찾아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해 농민들과 함께 군수에게 2회 건의, 농수산부장관 및 내무부, 건설부, 도지사에게 각 1회의 탄원을 내고 청주산업선교회에서 건의를 함.

사건 내용: 사건 해결 내용 - 1987년 4월 25일자로 청원군수로부터 회신된 답변》 1) 옹구 수명 앞 석축의 水유입 완화, 부락 앞 석축공사는 4월초부터 시공 중에 있음. 2) 옹구 수명 보수는 시공회사에서 보수 중에 있음. 3)수문 조절용 小교량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할 계획. 4)제방 및 제방 석축은 예산에 반영하여 시급한 부분부터 조치할 계획. 5)복토는 현재 여건상 불가능함으로 제방 및 옹수로를 깊이 파서 배수에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음. 6)환지는 부락 추진위원들의 협의에 의해 처리된 것이며 환지 결과 감된 면적은 금전으로 정산토록 조치하였음. 7)배수장 설치는 현재 기본조사 후에 배수장 설치, 수문조절교량, 제방, 수로, 석축 포함시켜 시행할 것을 계획 중임.

관계 인물: 정진동 목사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진정서, 탄원서, 주민에게 배포된 유인물, 공개건의서

관련 사건:

43. 사건명 : 천주교청주교구사제단,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4·13 호헌 철폐와 군부독재 퇴진을 위한 단식기도’ 돌입

사건 발생일: 1987. 5. 11.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 발표

사건 내용: 개헌과 민주화는 전국민적 합의이며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전두환의 4·13 개헌논의 중단조치에 대한 저항으로 충북지역 목회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감.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천주교청주교구사제단, 한국기독교장로회충북노회

관계 자료: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p. 238-239.

<성명서>

- 4·13 호헌 철폐와 군부독재 퇴진을 위한 단식기도를 드리면서 -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우리의 입장을 밝혔듯이, 우리는 개헌과 민주화는 전 국민적 합의요 또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전대통령의 4·13 개헌논의 중단조치는 국민 모두에게 실망과 충격,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 주었다. 4·13 조치는 분명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배신행위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최악이기에 우리는 단식기도로써 하나님께 호소하며 또한 국민 앞에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

1. 국민여망 저버리는 4·13 호헌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이제 우리는 현 정권이 개헌과 평화적 정권교체 등 민주와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개헌 절대불가에서 개헌주도론으로, 다시 내각책임제 개헌으로, 다시 호헌선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과정은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여망을 묵살하고 어떻게든 정권을 유지하고 말겠다는 집권욕일 뿐이다. 지금 각 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의 저항은 현 정권이 얼마나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꿈을 꾸고 있는지를 대변해 준다. 목사 신부들의 끊임없는 단식기도, 식발저항 교수들의 시국성명, 예술인 등 각종 사회단체의 성명, 청년 학생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4·13 호헌선언은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배신 행위이다. 우리는 현정권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열망 저버리는 4·13호헌선언을 즉각 철폐하라.

2. 장기집권 획책하는 현 군부독재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현 정권은 집권과정부터 광주사태의 비극을 거치면서 소수의 정치군인들이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여 권력을 빼앗았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권의 정통성 자체가 불법인 하나의 원죄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 정권이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명예롭게 퇴진함으로써 민주발전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했고 충고도 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원죄를 가리우기 위해 더 끔찍한 범죄를 가중시키고 급기야 성고문 고문치사, 용공조작, 온갖 폭력정치를 일삼아 실로 이땅은 아우성과 비탄으로 가득차 있다. 최소한의 회개와 반성의 빛은커녕 점점 더 포악해지는 현 군부독재 정권에 대해 우리는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저주의 소식이다. 회개하지 않는 범죄정권 위에 정의의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내리치사 그 권세를 꺾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를 그날을 바라보며 전국민과 함께 군부독재 퇴진을 위해 선한 싸움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국민여망 배신하는 4·13호헌선언을 즉각 철폐하라.
2.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1987. 5.13

한국기독교장로회총북노회 단식기도중인 목회자 일동

관련 사건: 총북대 교수 36명 시국성명 발표(1987. 5. 12), 사건번호 44, pp. 49-50.

44. 사건명 : 충북대 교수 36명 시국성명 발표

사건 발생일: 1987. 5. 12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충북대 교수 36명이 국민의 자유, 권리 및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민주헌법과 민주정부의 탄생을 촉구하고 4·13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 성명 발표

관계 인물:

관계 단체: 민교협 충북대 지회

관계 자료: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41

《<성명서>》

- 현시국의 불안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견해 -

지금 우리 국민은 자유, 권리 및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민주헌법, 민주정부의 탄생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인 제반 모순을 첨예화시키고 있는 정국의 불안은 민주적 헌법에 따른 민주적 정부의 수립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민주적 정부의 탄생을 위한 헌법개정은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80년 이후 고조되어 온 민주적 정부에의 열망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모순에 대한 통찰과 인간다운 삶을 향한 연원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이러한 열망과 통찰은 개헌에 대한 요구로 집약되어 드러났다. 현 정부도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이라는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과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순응으로 환영받았다. 4·30에서 4·13에 이르는 동안의 우리 정국은 상대적 안정 속에서 민주화예의 조심스런 기대를 키워왔다. 개헌논의를 돌연히 유보시키고자 한 이른 바 4·13 담화는 역사적 요구와 국민적 합의에 대한 거부이므로 철회되어야 하며,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에 상응하는 민주헌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4·13을 관철하려는 국내외의 각종동향은 민족양심과 인류지성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정치적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은 민주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불안과 혼란의 근원은 민주화에의 열망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의사의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부정하는 권력의 행사에 있다. 국민의 평화적 의사표현을 방해, 왜곡, 억압하는 권력의 행사는 부당하며 중지되어야 한다.

관련 사건: 천주교청주교구사제단,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4·13 호헌 철폐와 군부독재 퇴진을 위한 단식기도' 돌입(1987. 5. 11), 사건번호 43, pp. 48-49.

45. 사건명 : 청주택시주식회사 노동조합 총무부장 박노영 해고

사건 발생일: 1987. 5. 27.

관련사건 일지 :

사건 배경:

사건 내용: 박노영씨는 1984년 1월 7일 청주택시주식회사에 입사, 1987년 5월 27일 부당해고 되었다. 박노영씨는 1985년부터 1986년까지 노조 부지부장 직책을 역임했고 해고당시 노조 총무부장을 수행하고 있었다. 회사는 노조를 해체할 것을 공공연하게 요구하였고 노조 회계감사 김동구씨와 운영위원장에게 노조를 해체하면 박노영씨를 복직시켜 줄 것이라고 종용했다. 노동부청주사무소에 복직 진정서를 제기한 바 1987년 6월 13일자로 6월 25일까지 해고근로자복직 통보를 받았다.

관계 인물: 정진동 목사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부당해고 복직 건의서

관련 사건:

46. 사건명 : 6.10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충북 실천대회

사건 발생일: 1987. 6. 10

관련사건 일자: 6.10 오후 1:00 장소 및 육거리 시장통 완전봉쇄 / 2:00 통일민주당, 집회 장소로 오기 위해 당사 출발. 차단 전경과 몸싸움 시작 / 2:35 중앙시장 입구에서 당시 출발하던 통일민주당원들 전경과 접전 / 2:55 육거리 시장입구에서 청주경찰서장 강제해산 종용하다 시민들 움직이지 않자 최루탄 무차별 발사 / 3:00 청년, 학생들 200여명 최루탄 발사에 미평쪽으로 밀리며 시위하다 시장통 사거리로 들어와 연좌시위. 운동본부(*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충북지역본부) 목회자 60여명 외 재야권, 시민 등 강제해산 종용하는 경찰에 몸싸움으로 맞서자 무차별 최루탄을 난사하였고 운동본부 일행들 노래를 부르며 간선도로로 평화행진. 시민들 박수로 환호 / 3:25 시장통 사거리에서 연좌 시위하던 대열과 평화 행진하던 대열이 국민은행 쪽으로 이동하며 집결함 / 3:50 운동본부 목회자 및 재야권 중앙공원에 재집결. 시민들 참여 수백에 이름 / 3:55 국민은행 앞 400여명, 상업은행 앞 300여명이 각각 모여 시위.

1)국민은행그룹 : 간선도로 - 남궁병원 앞 사거리에서 연좌시위(700여명) - 본정(현 성안길)진입-우체국 앞 강제해산(약 1500여명)

2)상업은행그룹 : 중앙로 행진(300여명) - 제일은행 앞에서 강제해산 / 4:20 국민은행그룹이 분열하여 한 팀은 중앙공원으로, 한 팀은 청주극장으로 재집결. 4:30 기도회를 하려는 목회자들을 향해 두 차례의 무차별 최루탄 난사(중앙공원). 시민들 야유. 청주극장에서 집결했던 시위대열이 사직동 쪽으로 이동-시외터미널 사거리에서 전경과 접전(400여명) - 체육관 쪽으로 이동-체육관 앞에서 전경과 접전 후 강제해산. 연행자 다수 발생. 중앙공원에 있던 청년, 학생들 200여명 사직동으로 이동-분수대 앞에서 전경과 접전, 투석전 벌이다 체육공원에서 강제해산 / 5:00 사직동에서 강제해산 후 사직동 천주교회 앞에서 집결-상업은행 쪽으로 이동(200여명) / 5:20 오정목에서 300여명 집결, 전경과 접전 - 시청으로 이동하다 강제 해산. 연행자 다수 발생, 정사복 전경 린치 당함 / 6:20 상업은행 앞에서 200여명 집결하여 시위 - 간선도로로 이동 - 육거리에서 강제해산 / 7:00 시청에서 강제해산당한 150여명 - 구도로 - 우암파출소 - 청대교문으로 들어감 - 접전 후 해산(11:30) / 7:20 병력 공백기를 틈타 중앙로에 집결 - 수아사

쪽으로 시위하며 이동(200여명) - 전경과 접전 후 강제해산. 8:00 남궁병원 앞에 집결 - 육거리 쪽으로 시위하며 이동하다 해산.

3)중앙공원에 집결했던 국민운동본부그룹 : 3:50 실천대회를 벌이려던 국민운동 목회자 및 재야인사들을 향해 4-5차례의 무차별 최루탄 난사. 그러나 해산하지 않고 의연하게 연좌시위 벌임 / 5:30 기동대 투입하여 무차별 연행. 축도하고 마치려는 목회자들을 향해 최루탄을 난사하여 모여 있던 시민들이 크게 분개하였고 공원에 모여 있던 노인들에게까지 무차별 최루탄 난사하여 부상자 다수 발생.

*연행자 : 18명 / 즉결처분 : 4명, 벌금 : 30,000원 / 수배자 : 김상묵(충북대)

관계 인물:

관계 단체: 민주쟁취 국민운동 충북본부

관계 자료: 『충북지역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p. 116.

관련사건:

47. 사건명 : 원일교통 노동조합 조합원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탄압중지 요구투쟁

사건 발생일: 1987. 7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원일교통의 사용자는 원일교통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결성되었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회사측은 7월 9일 합의한 단체 교섭안을 지키지 않으면서 신경국 조합원의 부당해고를 철회하지 않고 광근하 조합원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노동조합원은 회사측에 4개 항목의 요구안이 들어있는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사건 내용: 요구 조건》 1. 신경국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하고 광근하 조합원에 대한 해고 압력을 중지하고 즉각 배차시킬 것 2.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간책동을 중지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 3. 노동조합사무실을 속히 설치하고 단체교섭에

즉각 응할 것 4. 이상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 나갈 것이며, 그 후의 책임은 회사에 있음을 알린다.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원일교통 노동조합원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조합 탄압 중지 건의서, 단체협약안

관련 사건:

48. 사건명 : 제일관광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철회투쟁

사건 발생일: 1987. 8. 10

관련사건 일지: 8.10~11. 농성을 시작하여 9가지의 요구사항을 각 기관의 협조 중재하에 타협(합의 각서 작성). 1)노동조합결성 인정 2)기본급 및 수당인상지급(100% 인상) 3)행사수당 및 숙박수당 지급 4)피로 및 시간외 수당 지급 5)식대인상 지급 (150% 인상) 6)월 만근 23일 기준 및 만근수당 지급 7)승용 및 봉고차 승무 금지 8)정비 및 세차원 보유, 정비 및 세차 강요금지 9)승무원 인격존중 요망 10)부당해고 및 대기철폐, 공정배차 11)나차장 해고 및 소장 해고

[합의안] 1)차량승차 인원이 정원 초과 시에는 운행 거부 2)공정한 배차를 위하여 차고에 월 통계 배차판을 설치, 기재할 수 있게 한다. 3)도로교통법에 준하여 운행한다. 4)안내원이 무승차 시에는 배차거부 5)차량시설물 및 차량에 소비되는 모든 기구 및 소모품을 필히 회사에서 구입할 것 6)기사 차량고정배치를 인정하고 제복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게 회사에서 책임을 질 것 7)손님들에게 기사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것 8)기사 본분 외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것. 이상과 같이 합의된 사항마저도 9월 13일까지 지켜지질 않을 뿐만 아니라 1년 안에 어떠한 해고도 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고서도 사용기간이라는 핑계로 두명을 부당해고 시키고 임금인상안 및 배차관련 사항도 지켜지지 않음/9.13 2차 농성 돌입/9.15 경기현, 권종식, 부조합장 윤경환, 최성용 연행 구속/9.29 해고자 복직 투쟁 시작

사건 배경: [부당노동행위] 1)기사들이 배차가 없을 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무급 노동을 강요 2)기사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해 무급 노동을 강요 3)새벽이나 밤에도 기사들에게 사용자 및 동리 사람들 생수 배달시킴 4)부당한 배차 및 해고 사실 5)세차오염물을 하천에 정수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무단방류 6)노동계약조차 공개하지 않음 7)사고에 대비한 예비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 8)단체교섭에서 합의된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 9)부당해고 및 구속시킴 등. 이에 공개서한을 청와대 및 노동부, 내무부 등 유관기관에 보내 정의롭게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

사건 내용: 이에 공개서한을 청와대 및 노동부, 내무부 등 유관기관에 보내 정의롭게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함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청주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관련사건:

49. 사건명 : 동원교통주식회사 어용노동조합의 조합원 진정서 위·변조

사건 발생일: 1987. 8. 12

관련사건 일자: 1987년 5월 27일 동원교통 노동조합은 본 노조의 연합단체인 전국자동차연맹 충북지부에서 조력을 얻어서 서면을 만들어 동원교통 노동조합 발송번호 15호로써(일자미상) 유급휴가실시에 따른 진정과 특별휴가비 및 법정구속자에 대한 판결 시까지의 기본급지급 등에 따른 진정서를 발송한다.

1987년 5월 28일 노동부 청주지방사무소에서 83-4036호로써 동 서면이 접수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당시 조합장이던 정덕주는 노동 감독관과 회사 등에 매수되어 다수의 조합원이 소청하는 진정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 등 유급휴일의 보상”을 임의로 취하하고 “조합원 후생복지에 대한 진정”으로 조작한 일이 발생한다. 1987년 8

월 21일 04:00부터 11:30까지 동원교통 승무운전기사들은 일제히 쟁의를 벌이고 “어용 노조 물러가라”는 주장과 노사간 단체 협약된 수당의 지급을 회사 측에 요구하기에 이른다.

사건 배경: 당시에 동료 조합원들이 어용 노동조합에 대한 성토는 다음과 같다.

1. 동원교통 노동조합원 배병후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노동부 청주지방사무소에 구조를 청한 사실이 있었는데 노동 감독관의 명에 의하여 1987년 6월에 노동부 청주지방사무소에 출두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 조합장 정덕주는 노동 감독관의 구술에 의하여 장대한 서면을 작성 중에 있었다 하며 목격자 배병후의 시인서에 의하면 “3년간 유·무급 수당 진정서 낸 것은 앞으로는 개인 지급하되 지나간 것은 회사의 휴게실 운동기구 해 주는 조건으로 취하를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또한 연서 날인한 서면은 1987년 8월 21일의 쟁의 시에 어용 조합장 정덕주가 임의진술로써 “자기가 노동부 청주지방사무소에 유급수당에 관하여 고발했다가 취하했으므로 유급수당만은 쟁의의 쟁점이 될 수 없다.”고 스스로 발언함으로써 조합원들은 격분하여 즉석에서 조합장 정덕주를 불신임하는 서면에 첨부하도록 날인하였고 한결같이 조합장의 퇴진을 강요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조합장 정덕주는 조합원의 뜻에 반하여 임의로 진정하고 임의로 취하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 하겠다.

3. 조합원 중 신경호, 김오랑, 이찬희 등은 1987년 9월 11일 노동부 청주지방사무소에 임하여 조합장 정덕주가 어떠한 내용의 진정을 한 것이었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동감독관은 그러한(유급수당에 관한) 진정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원본 또한 없다고 일축하여 버렸다. 익일인 1987년 9월 12일에 조합원 김성원, 김오랑, 신경호, 정지찬, 김기한 등이 또다시 노동부 청주지방사무소에 가서 진정내용을 확인하고자 공문서 접수부를 열람하고자 했더니 의외로도 1987년 5월 28일 접수란의 기재 사항이 변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건명의 란이 면도칼로 지워져 있었고 가필하여 “후생복지에 관한 내용”이 등재되어 있었다. 이는 엄연한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유급수당에 관한 진정사건이 후생복지 사건으로 둔갑된 일임이 틀림 없는 일이다.

4. 익일 1987년 9월 13일에 김성원, 최용철, 송윤범, 김오랑, 당시 시인자 배병후 등이 노동부 청주지방사무소에 가서 노동감독관 박희성과 만나 접수부의 변조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추궁함에 따라 수당을 받아주겠다는 의사를 듣게 되었다.

이상의 사실에 의해 조합원들은 조합장 정덕주와 공문서를 변조하여 어용 조합장과 야합한 노동감독관 및 회사를 의법처리하기를 청주지방검찰청과 노동부장관에게 연서자필서명을 보냈다.

사건 내용: 사건처리-1987년 10월 21일 노동부청주사무소는 동원교통(주) 노동조합장 및 동원교통(주)대표의 무급휴일 및 주휴일에 근무한 휴일노동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동원교통(주)대표 박재순을 노동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치하였다.

관계 인물:

관계 단체: 동원교통주식회사 노동조합

관계 자료: 진정서, 진정서 처리 공문(문서번호 01254-6089)

관련 사건:

50. 사건명 : 충청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백만학도 통일대행진을 떠나며 청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을 발표

사건 발생일: 1987. 8. 17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충청지역 대학생대표자 협의회, '백만학도 통일대행진을 떠나며 청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군부정권에 의한 용공조작으로 모든 민주인사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80년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지휘자에 대한 즉각적인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모든 국민의 집회시위결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군부독재정권의 반민중성, 반민족성에 기인한 민중들의 압박과 굴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충청지역 대학생대표자 협의회

관계 자료: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213.

<성명서>

- 백만학도 통일대행진을 떠나며 청주시민에게 드리는 글 -

1945년 일제의 억압과 수탈의 통한의 역사로부터 종지부를 찍고 민족해방의 감격의 기쁨은 삼천리 금수강산에 메아리쳐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우방으로 여겨왔던 미국의 주둔은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간교한 술책이었으며 미국은 이미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었습니다.

한반도를 대소전진기지화하고 체제수호를 위한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은 분단을 고착심화시키는 요인이며 이런 상황 속에서 외세가 지원하는 독재정권의 통일논의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수단에 불과할 뿐 조국의 민족통일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탈의 일환으로 신식민지로 처하게된 조국의 민중들은 그들의 군사·경제·정치적 억압으로 인한 착취에 허덕여 왔습니다. 또한 외세에 편승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의 사대매판독재 세력으로부터 억압과 굴욕을 당하면서 살아온 분단 43년의 8·15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백만학도들은 민족의 통한의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고, 현단계의 (가장 긴요한) 민족사의 과제는 외세와 독재로부터 짓밟히고 치욕을 당한 역사를 합법칙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외세로부터 자주적이며 국민에 의해 선택되는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은 대역사적 과제인 한반도의 민족통일을 향한 우리 민중들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사적 과제인 민주정부수립을 향한 선행조건 및 실천사항은

첫째, 군부정권에 의한 옹공조작으로 모든 민주인사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둘째, 80년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지휘자에 대한 즉각적인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셋째, 모든 국민의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사상연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넷째, 노동자 농민 빈민 기층 생산자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실현시켜야 하며

다섯째, 그동안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 교사 기자에 대한 복직과 제적 학생에 대한 복학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섯째, 군부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악용되어온 전투경찰 의무경찰제도가 폐

지되어야 하며 살상용 무기인 최루탄 생산과 사용이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일곱째, 미·일 등 외세의 개입이 없이 개헌협상이 진행되어야 하고

여덟째, 군부독재정권의 반민중성, 반민족성에 기인한 민중들의 압박과 굴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우리 백만청년학도와 민주화 세력 민중들은 끊임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이상의 선행조건 및 실천사항이 실현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일체의 정치적 타협과 개헌협상은 현 정권이 민주화를 하겠다는 의도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월 투쟁을 통한 대중들의 잠재된 변혁의 열기를 우리는 뜨겁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6·29 허구적 민주화 조치를 하고 민주화를 위해 선심쓰는 것처럼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노동현장에서는 6·29가 허울좋은 기층 민중생존권을 무시한 민주화 조치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해 주듯이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9일 충북민협에서 주최한 “민주정부 수립과 민족통일을 위한 한마당”이 경찰의 원천 봉쇄로 저지되자 평화적 집회와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하는 도중 고 조환동(충주 남한강국교6년) 학생이 폭력경찰의 자에 치어 남궁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군부독재정권은 이 사건을 왜곡보도하여 사건을 축소 왜곡시키려 하고 있으며 남궁병원 내에 최루탄 투척 및 무자비한 폭력을 써서 일반 시민과 장례 참석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 정권의 폭력성, 반민중성, 반민족성으로 현 사회 곳곳에서 이땅의 민중들은 통탄의 역사를 직시하고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투쟁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았지 않은가?

6월의 혁명적인 대중의 변혁의지를.....

대동의 힘에 의거하여 우리는 식민지 역사에서 최초로 승리라는 성과물을 획득하였으며 이 승리는 단지 시작일 뿐이며 청년학도와 민주세력은 선봉대로서의 헌신적인 역할을 수행해 내야하며 따라서 청년학도와 민주세력들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민중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의식화 및 조직화하여 권력의 지를 갖도록 헌신적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6월 혁명적인 투쟁을 바탕으로 한 백만학도 통일대장정의 의의는

첫째, 8·15 해방절이라는 계기 속에서 통일대장정은 애국의식을 고취시키고 대중적인 민족통일 의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투쟁의 동력을 대중 속에서 창출하고 합법적 정치공간의 확보를 통한 대국민 선전작업의 전개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국민 백만학도가 통일단결할 수 있는 정치적 구심점을 대중적인 공간과

기반 속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의미 속에서 전국의 백만청년학도는 백만학도 통일 대장정에 참가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한반도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외세와 독재를 배격 한 이땅 민중들의 자주적 민중정부 수립을 위한 투쟁대열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단 43. 8. 17

충청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관련 사건: 백만학도 통일대행진

51. 사건명 : 1987년 총대협 출범기부터 1989년 총북대 전대협 탈퇴기까지의 충북 지역 학생운동

사건 발생일 : 1987. 8. 15 - 1989. 4. 28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6월 항쟁의 성과물은 대단히 컸다. 정치사상 공간의 확대는 물론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비롯한 각 부문운동의 대중적 진출이 눈부시게 이루어졌다. 학생운동 진영에서는 그 동안의 대중적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혹은 지역 단위의 대학간 연대의 틀을 만들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와 충청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총대협)였다.

우리 지역에서도 충남북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각 대학 대표자와 실무대표들의 모임이 꾸러지면서 총대협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1987년 8월 15일 충북 지역 5개 대학, 충남지역 7개 대학이 참여하는 총대협이 결성되고 8월 19일 전국 16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대협이 결성된다. 전대협과 총대협은 대중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관점을 명확히 했다. 총대협 출범식과 전대협 출범식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대중투쟁이었고 대중노선을 확립하는 일이었다. 예전 소수의 음모적인 사업작품을 떨쳐버리고 공개적인 방식에 의해 준비하고 학생대중의 의견을 학생회를 통해 수렴하는 방식으로 출범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대중의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렇지만 총대협은 많은 한계가 있었다. 충남과 충북의 지역적 차이가 첫 번째

한계였다. 이 점은 뒤늦게 지적되면서 충북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충북대협)로 조직을 발전적으로 분화하게 된다. 두 번째는 대표자협의회를 꾸리면서 대학별 특성에 따라서는 총학생회장을 배제하고 동아리 연합회장이나 단과대 회장을 참여시키는 등의 편법을 부린다. 이 점은 충북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충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성향이 강해 보수우익 깡패학생집단이 판을 쳤다. 소위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비권의 실체는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었다. 이들과 운동진영 간의 대립은 각목을 들고 충돌할 정도로 첨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대협에 비권 학생회장을 참여시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했다. 당시 청대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총학생회를 비권이 장악하고 있어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대표성을 띠고 총대협에 참여했다. 운동진영의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총대협과 전대협의 출범이후 우리 지역의 학생운동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자주·민주·동일을 총대협의 노선으로 채택하고 정치투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학원자주화투쟁에도 눈을 돌리게 된다. 이전의 학원자주화투쟁이 정치투쟁을 촉발시키려는 목적이 강했다면 이때부터는 실질적인 학생대중의 이익에 복무하는 학원자주화투쟁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 각 대학에 꾸려진 학생복지위원회는 학원자주화투쟁을 상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하게 된다.

총대협의 출범이 이와 같은 긍정성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대협과 총대협의 출범을 계기로 86년말부터 잠복해있던 조직노선에 대한 논의가 운동진영 내에서 불이 붙으며 사상논쟁의 회오리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논쟁의 핵심은 학생대중을 보는 관점과 학생회를 보는 관점의 문제였다. 이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각각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운동진영의 분열이 시작된다. NLPDR(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CA(제한의회소집파), PD(민중민주) 등 정파의 난립이 이때부터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역학생운동의 발전에 복무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중의 자주적 진출을 막는 폐해를 더 많이 낳게 한다.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지역 학생운동 진영은 총대협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지지와 백선분을 중심으로 한 독자후보론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87년 대선에서의 패배는 운동진영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많은 상처를 남긴다. 대선패배로 인한 학생운동진영의 침체를 딛고 충북대협 산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통일투쟁은 전국을 통일의 물결로 넘치게 했다. 88년은 또한 충북지역 학자투의 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청주대의 경우 대규모의 학자투가 135일간 대중적 기반을 토대로 끈질기게 진행되어 우리지역 학생운동사에 진기록을 남기며, 88년을 학자투로 저물게 한다.

89년 4월 28일은 충북대협뿐만 아니라 전대협의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박철용과 총대의원회 의장 이철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대협을 탈퇴하는 선언을 한 것이다. 비운동권 총학생회장이면서도 그 동안 충북대협과 전대협에 가입하여 꾸준히 활동하다 느닷없이 발표한 전대협 탈퇴선언은 중앙메스컴을 연일 장식하며 전체 학생운동 진영에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탈퇴선언이 발표된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인문대학생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날 오후 비상학생총회가 열렸다. 5천여 학우가 모인 그날의 비상총회에서 전대협 탈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박철용, 이철용의 전대협 탈퇴는 노태우 정권의 전대협을 와해시키려는 음모라고 규정하고 일주일간 지속된 비상학생총회를 통해 총학생회장 박철용과 총대의원회 이철용을 탄핵하게 된다.

이로써 87년, 88년을 통해 급성장한 전대협을 와해시키려는 음모는 충북대 학우들에 의해 여지없이 저지당하고 만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90년들어 청주대에서도 발생한다. 당시 비운동권인 청주대 총학생회장을 중심으로 전국의 비운동권 학생회장 일부가 순수학생운동을 표방한 한국대학생연합을 결성하게 된다. 그해 4월 청주대에서 대규모의 발대식을 준비하는데 청주대 3천여 학우가 모여 발대식을 저지시키며 다시 한 번 노태우의 전대협 와해음모에 쐈기를 박았다.(류행렬, 「충북지역학생운동사」, 『충북지역 사회운동』, pp. 68-71)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충북지역학생운동사」, 『충북지역 사회운동』

관련 사건:

52. 사건명 : 공군헌병대에 의한 충북민주운동협의회 회원 납치, 감금, 폭행사건

사건 발생일: 1987. 8. 18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1987년 8월 9일 6시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주최의 “민주정부 수립과 민족통

일을 향한 한마당”이라는 평화적 대중 집회가 폭력경찰의 사전 원천봉쇄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경찰의 무차별 최루탄 난사와 집단폭행을 당하며 강제 연행되었다. 또한 시위진압에 동원됐던 경찰기동대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조환동 어린이를 앞뒤바퀴로 깔아뭉개고 그대로 도주하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조군의 사망 직후 진상규명과 사후대책을 위해 국민운동총북분부를 중심으로 대책위가 구성되어 사건발생의 경위와 진상규명 및 경찰뺑소니에 대한 책임규명, 과잉진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벽보를 병원입구(조군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남궁병원)에 게시하였다. 11일 오후 2시경, 30대 중반의 남자가 게시판 벽보를 갑자기 찢어버리자, 유가족과 학생들이 달려들어 실랑이가 벌어졌다. 유가족들은 기관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병원으로 들어왔다가 후에 공군○○○○부대 중령이라는 신분이 확인되자 사과를 받은 후에 돌려보냈다. 이것이 공군부대가 민간인을 납치, 감금, 폭행, 고문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1987년 8월 18일 새벽 5시 30분경 짧은 머리의 괴 청년 6명이 장현동씨(29세 총북민주운동협의회 회원) 부부의 가정집에 난입하여 장현동씨를 강제로 끌고 갔다. 그 후 3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 가족들과 동료들이 애타게 찾고 있던 그 시간에 내수(충북 청원군 내수면) 공군헌병대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장현동씨가 집단구타를 당하고 있었다. 8월 11일 고 조환동 어린이(시위진압 경찰기동대에 치어 숨짐) 장례당시 공군중령을(고 조환동 어린이 사망경위서를 찢던) 병원에 가두고 집단폭행한 주동자라는 자백과 총북민주화운동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민주운동의 활동에 대해서 진술할 것을 강요당하던 장현동씨는 형언하기 어려운 수모를 당하였다. 공군헌병대는 눈을 가리고 40분가량 차를 타고 야산에 가서 땅을 파며 생매장하겠다고 위협했고 전투복을 입은 헌병대원에 의해 양 무릎에 붕을 끼우고 양쪽에서 밟는 등의 고문과 집단폭행을 자행하였다. 공군헌병대는 어처구니없게도 공군사병들을 동원하여 남궁병원을 둘러싸고 현장검증이라는 쇼를 벌인 후 수갑을 채운 채 공군헌병대 감옥에 집어넣었다. 장현동씨는 경찰서로 넘어오기 전 여기서 있었던 일을 밖에 나가서 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문답식의 이행연습조차 강요받았으며, 사실인양 가장하기 위해 녹음을 하는 치밀한 공작에 강제로 허위진술을 당하였다. 위와 같은 일이 있는 며칠 후에야 청주경찰서에 넘겨진 장현동씨에게 달려간 가족들은 탈진상태에 멍투성이의 몸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장현동씨를 만난 후 군부대가 어떻게 민간인을 납치, 감금하고 고문을 할 수 있느냐며 철저한 진상규명 활동에 들어갔다.

청주경찰서는 장현동씨를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이 공군장교의 실수로 야기된 우발적인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집단린치인양 조작하여 장현동씨를 구속하고 11명을 불법 수배하는

보복행위는 민주운동에 대한 경찰과 군부말단의 탄압행위이다. 민간인에 대한 군부대의 불법납치, 감금, 고문사건은 민주화를 위해 군의 중립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을 경악케 하고 민주화의 길은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었다. 또한 청주공군헌병대가 민간인을 불법으로 납치, 감금, 집단폭행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군사독재의 본질인 폭력성이 그 근거이며, 국민에 대한 우월감의 표출이며, 더욱 중요한 문제는 사건의 발생을 조작하여 민중민주화운동에 대탄압을 가하려는 군부독재정권과 그 하수인 폭력경찰의 음모인 것이다(『함성』 제14호, 1987. 9. 10).

관계 인물: 장현동(충북민주화운동협의회 회원)

관계 단체: 충북민주화운동협의회, 청주공군헌병대

관계 자료: 『함성』 제14호(1987. 9. 10), 『충북지역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pp. 78-79.

관련 사건: 민주정부 수립과 민족통일을 향한 한마당

53. 사건명 : 평화택시 임금체불과 노동조합 탄압 중지를 위한 농성투쟁

사건 발생일: 1987. 9. 23.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평화택시는 청주시 어느 택시회사보다도 노동조건이 열악한데 그 예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만 보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어도 그 피해보상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근무일수도 결근처리, 예비기사로 떨어뜨리고 과징금의 경우 100~50%씩을 기사에게 부담시켰다. 피해액을 부담하지 못할 경우 입사 시 재정보증인에게 민사 소송하여 처리하고 계속 근무한 것도 사표처리로 하여 재입사를 시킴으로써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3년 동안 200여명의 기사들이 이동을 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이지만 해고에 대한 두려움에 불평 한마디 하지 못하고 회사가 시키는 대로, 살기위해 노예처럼 노동을 강요당했다.

사건 내용: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전국 각 노동현장에서 노사분규로 수많은 업체들이 농성에 들어가면서 청주시의 택시업체들도 예외일 수 없이 8월초 파업농성으로 돌입하였으나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화로써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동맹파업 요구를 거절하였다.

타사 파업 농성자들에 의한 차량파손으로 운행이 중단되었고 이때 노동조합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9월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전차량에 타코메타기를 부착하면서 6일간 시험운행을 해보고 문제점을 함께 협의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회사는 9월이 지나도록 8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차문제의 불평등, 근무시간 중 식사 미제공, 출퇴근 시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엄청난 교통비를 지출해야 했으며 타회사와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는 약속도 불이행하며 노동조합해산을 종용하고 탄압하였다.

9월 23일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위협을 받자 대책을 강구하던 중 택시의 열쇠를 모두 회수해 감에 따라 18시경부터 8월분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과 출퇴근 시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 배차문제를 불평등하게 하지 말 것, 차량사고 시 경제적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지 말 것, 노동조합을 탄압하지 말 것, 재형저축통장과 일일적금통장을 본인에게 돌려 줄 것을 요구하면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회사측은 이 과정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내세워 체불된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인격과 인권을 짓밟는 상황을 민주시민과 양심단체에게 알리면서 협력을 요청(1987. 10. 2)하게 이른다.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관련 사건:

54. 사건명 : 동양교통 노동조합장과 운영위원 등 노동자 4명 집단해고 철회 요구 투쟁

사건 발생일: 1987.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노사분규 이후 사업주가 임금을 인상하여 준다고 약속을 하고서도 이행치 않아 노동자 대표인 운영위원 조일현, 김학복이 사용자에게 항의하자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시켜 충북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바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조일현의 진술서를 심사관이 임의변경 조작하여 사용자를 유리하게 한 사실과 본건 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과 공익위원 판사가 심사 후 복직을 판결이 나왔음에도 노동위원회의 판결이 기각되었다.

사건 내용: 1987년 노사분규이후 해고된 송호섭 조합원이 청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사건번호 87가합 272호)하고, 어용노조 불신으로 노동조합장에 출마할 것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하여 2개월이 지난 경미한 사고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이재봉 조합원이 노동조합 총회에서 노동조합장에 출마하여 조합원 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됨에 따라 1987년 12월 21일 해당관청인 청주시장으로부터 동양교통 노동조합 노동자 대표로 인증을 받았음에도 회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못한다고 모든 단체협약을 기피했다. 이에 대한 복권을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청주지방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소송(사건번호87 가단633호)도 제기하였고 관계기관에 진정 및 고발조치하였으나 7개월이 되도록 법에서는 판결이 없고 시간을 지연 처리하므로 탄원서를 제출

관계 인물: 이재봉, 송호섭, 조일현, 김학복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관련 사건:

55. 사건명 : 1987년 청주공단 노동자들의 투쟁

사건 발생일 : 1987년 7월 ~ 9월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맞이하여 청주공단에서 드디어 침묵으로 일관하던 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했다. 금성사, 금성계전, 대농 등에서 '노동조건향상', '어용노조퇴진'의 요구조건을 내건 투쟁을 비롯하여 조광피혁, 영태전자 등에서 어용노조 퇴진투쟁이, 그리고 삼영화학, 여러 택시노조에서 임금인상 및 노조민주화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8월 한 달 동안 청주청원 30개 사업장, 기타 도내 30개 사업장 등 60여개 사업장에서 쟁의가 발생하였고, 87년 7월 이후 90년까지 89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충북지역사회운동』, p. 16)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충북지역사회운동』

관련 사건:

56. 사건명 : 삼우교통 노조위원장 해고 및 구속 철회 요구 투쟁

사건 발생일: 1988. 1. 29~

관련사건 일자: 1.29 조합장 출장 중 승무가 끝난 조태환, 권성재, 이성우 등 조합원 3명과 비조합원 정복수, 근무시간이던 비조합원 김용의는 사직동 소재 안양 등심해장국집에서 일명 고스톱, 100원짜리 도박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임의로 승무정지 / 1.31 도박 건으로 인한 조합원 배차 중지여 관하여 사장과 명담, 사표 종용 / 2.1 사장실에 들어가 면담 요청(나가버림), 전무와 대화(모른다). 사장과 전무의 무성의로 단체협약 위반으로 1차 고발문 작성 / 2.2 긴급총회 공고와 동시에 간부회의. 부당노동행위 고발과 동시에(16시경 노동부 제출) 준법 운행 결정 / 2.3 긴급총회결과 당일 야간 업무부터 준법운행 결의. 15시 출고(수입금 관계로 상무와 조합원 이호성 다툼) / 2.6 사장의 조합원 전원에게 대한 교육. 교육 중 공갈협박. 조합장과 다툼(노동조합 탄압) 14:00 노사협의회 개최. 지난 징계를 원만히 타결(정상운

행 전달) / 3.1 휴가기사 식사에 대한 제공 중지(전무의 일방적 행동) / 3.2 휴가기사
 식사문제를 상무와 대화, 해결이 안됨(식당 아주머니와 상의 해결)
 / 3.16 정복수 조합원에 장학금 문제로 사장과 면담(비조합원일 때는 장학금 지급, 조
 합 가입 후 지급금지) / 4.7 3월 2일 식당 아주머니와 상의해 해결한 식당문제가 회사
 측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미궁에 빠져 있다가 금일 1번 휴차부터 서울버스공업사 식당
 식권을 배부 / 4.10 상무와 식사문제 논의(결과 없음) / 4.11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학
 자금, 감봉, 식사문제) / 4.18 단체교섭요청 1차 내용 통보 / 4.21 노사협의회 요청(회
 사측에서 연기) / 4.22 임금협약과 1차 단체교섭요청. 회사측 거부. 17:00경 비조합원기
 사들이 모식당에서 모인 자리에서 사장이 조합을 비난
 / 4.27 택시분실 임금협정. 사장이 삼우조합하고는 죽어도 협정에 응해주지 않는다고
 선언 / 4.28 2차 임금교섭을 하던 중 사장이 나가버려 결렬됨 / 4. 29. 회사측 전무,
 상무와 조합 간부집 방문, 회유책 강요. 운행 중 17:30분전에 저녁식사를 강요(쫓기사
 들) / 5.2 3일로 예정된 임금협약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기함 / 5.3 검찰청 1호
 검사실에서 호출, 출타하니 고발내용이 회사측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짐
 / 5.6 임시총회(쟁의에 관한 건). 임금협정 심의. 쟁의신고투표결과 66명 참석 중 66명
 찬성 / 5.7 임금교섭. 사장, 시종일관 공동으로 할 것을 강요(조합장 쟁의행위 선언) /
 5.9 쟁의행위 신고 서류 완성. 15:30분경 노동위원회 제출 통과 / 5.11 회사측 노사협
 의회 요청과 동시에 근로자 교양. 사장, 폭언과 폭설로 공갈 협박함(노사협의 결렬) /
 5.23 14:00 쟁의행위가부투표결과 66명 참석 중 66명 찬성으로 만장일치 통과, 강행할
 것을 결의 / 5.24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를 접수하고 14:00에 쟁의에 돌입 / 5.25
 노동위원회에서 알선조정(16:00). 진실한 대화를 요구했지만 사장의 일방적인 대화 /
 5.26 알선조정이 현행에 7% 인상안이 나와 거부. 사장, 조합원 회유 / 5.27 이부장이
 사무실 점거했다고 거짓 신고 / 5.28 관리직인 차과장이 전화로 운우회원들을 회사로
 나오라고 해 공갈과 회유책을 씀 / 5.31 임금교섭에 들어 간 조합 간부들의 손을 일일
 이 꼭 잡으며 그 동안의 모든 것을 사과하더니 끝내 공갈과 협박으로 결렬됨
 / 6.1 청주시내 공동임금타결(4.5%). 세부내용은 없고 교섭위원은 나타나지도 않음 /
 6.2 임금협정 내용을 입수, 근로자와 검토. 터무니없어 공동으로 맺은 16개사 제2의 노
 사분규 발생 / 6.3 회사는 휴지 신고를 내고 전부 퇴근. 공고문에는 휴업이라고 공고함
 / 6.23 공동위원회 정복수씨 학자금 고발건 때문에 14:00에 노동위원회 방문 중 서부
 서 조사계에서 조사할 게 있다며 연행. 서부서에서 전화를 하려고 하니 '조금있다 하
 라'며 지연시킴. 잠시 후 행선지를 밝히고 노동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들과 노동
 위원회로 감. 심의를 마치고 서부서로 다시 들어 감

사건 배경: 1987년 임금협정 기간이 88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8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88년 4월 18일 1차 협의를 회사측에 요구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청주시 택시업체 공동으로 임금교섭하기를 내세워 결렬되었다.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충북도지부에서 청주시내 16개 택시 사업 조합장들이 비인가 단체를 만들어 택시사업 조합측과 88임금협정을 시도하려고 시도했으나 당 노조 및 조합장은 회사측과 단독협상을 요구하였다. 5월 24일 충북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를 내고 당일 14:00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던 중 택시사업조합과 비인가 단체 대표 5명과 몇 차례의 협상도 하지 않고 87년 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타결을 보았다. 이에 16개사 노동조합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량운행거부와 농성을 시작하였고 협상에 참석한 5명은 곧바로 종적을 감추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내용: 6월 13일 회사 앞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몇 명의 노동자들이 대화도중 한상호와 박영수 간에 사소한 감정대립으로 박영수가 한상호를 구타한 사건에 조합장이 옆에서 싸움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한상호가 회사와 결탁하여 조합장도 자신을 구타했다고 경찰에 고소하여 구속되었다. 조합장 조사과정에서도 경찰에 의해 일방적인 조서가 꾸며지고 증인 진술도 받지 않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등 사측의 금권력 행위에 대한 의아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조합장이 구속되기 전 한상호를 구타한 박영수에게 회사측 이부장이 비조합원 김홍문, 김인희, 이성식과 모여 일금 180,000원을 줄테니 몇일만 피해 있으면 해결된다고 말한 사실에서 심증을 갖게 했다.

삼우교통은 입사과정에서 운우회에 가입할 것을 종용했다. 운우회는 회사측 관리직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이기에 운우회 회비 일 만원을 미납할 시, 배차중지 및 관리직으로부터 폭언, 폭설을 받아 왔다. 건강문제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강제로 승무를 강요시키고 승무를 거부할 경우 사납금을 가불처리할 것을 강요했다. 불의의 사고와 해고로 인해 타 회사에 이직해야 할 경우 1년이 경과해야만 입사할 수 있는 악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사장은 노사간 합의 서명한 단체협약 내용은 무시한 채 회사가 적자를 본다는 이유로 사납금을 올리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KBS, MBC 등 언론에서도 편파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장이 직장폐쇄 철회를 신고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정상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법적제재도 하지 않았다.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탄원서(조합장 가족, 노동조합원 일동), 조합장 직무대리 통보 공문, 단체교섭요청 공문, 진정서, 노동위원회의 임금협상에 대한 교섭 촉구 공문, 인천택시파업투쟁개괄평가서 '88임금협정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민주당재건추진위 충북지부)

관련 사건: 청주시내 16개 택시노동조합 총파업

57. 사건명: 청원군 호족 2구 농민 구속 철회와 밤나무 보상 요구투쟁

사건 발생일: 1988. 3

관련사건 일자: 2.29 청주개발측에 건의서 제출 / 3.13 플래카드를 들고 청주시내에서 가두시위 / 3.16 골프장 건설 현장사무실 방문, 보상요구.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장실무자들과 실랑이 중 석유난로가 쓰러져 현장 사무실 두 동이 전소하게 됨. 농민 1명 화상을 입음. 17일 새벽 경찰 난입하여 연행, 구속됨.

사건 배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족리 2구 50여 가구, 2백여 주민들은 청주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청주개발이 학교림인 이 마을 뒷산을 연고권자인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임대해 묘지로 사용함에 따라 20여 년 동안 활용해오던 생활터전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책을 각계에 호소하고 있다.

12일 이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청주개발이 청원군 오창면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토지매입과정에서 4개 문종의 묘지를 이전하기 위해 이 마을 뒷산 7만4천여 평을 청원군 교육청으로부터 연간 3백 50만원을 주고 2년 계약으로 임대, 묘지를 이전했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지난 72년부터 청원군과 청원군 교육청과의 합의 아래 마을뒷산 6천여 평을 개간, 연간 1천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7백여 그루의 밤나무에 대한 지상권을 잃게 되었다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개발은 1그루당 5천원의 보상비를 주겠다고 제시했으나 마을주민은 밤나무 1그루당 1만 5천원을 보상하고 14년 동안의 인건비 6백여만 원, 앞으로 4년 동안의 예상수입액 4천여 만 원 등 모두 6천 6백여만 원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마을 이장은 “지난 62년 이후 정부의 산림 녹화정책의 일환으로 마을주민이 동원되어 녹화사업을 벌였는데 이제 와서 나무까지 베어 내고 묘지로 임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대계약이 끝나는 2년 후에 묘지 주인들에게 분양되는 경우 이 마을의 생활터전을 완전히 잃게 되므로 연고권자인 자신들에게 마을뒷산을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이에 대해 청주개발은 밤나무가 있는 6천여 평은 마을주민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마을에 통보했다(『경향신문, 1988. 3. 14.』)

사건 내용: 호족주민들이 밤나무 보상 문제로 기업과 투쟁을 하던 구속된 박상철, 최영복씨 석방요구와 보상협의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경향신문 1988. 3. 14』

관련사건 :

58. 사건명 : 농지정리 보수공사 및 수세거부 투쟁

사건 발생일: 1988. 4. 29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궁들 농민들은 1984년도에 기관에서 현대식으로 농지정리를 하면 농사짓기에 편하다기에 땅을 감보하면서도 밭고 말긴 결과, 농지정리하기 전보다 정리 후 오히려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부실공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궁들에서 4Km 떨어진 상수에 수리조합에서 저수지를 만들었으나 단 한번도 농수를 공급받지 못하였음에도 3~4년간 수세를 강요받아 지불하였다. 당시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농지개량조합은 꾸준히 수세를 받아 간 것이다.

<농민들의 주장>

- 1)부실한 농지정리를 즉각 완공할 것(완전보수 보장할 것)
- 2)4년간 부당하게 징수된 수세를 전액 반환할 것

<건의서에 대한 회답-청원농지개량조합>

1)미원면 궁들보 구역의 용배수를 위한 시설물공사는 조합원들과 협의하여 공사를 89년 봄에 착수키로 협의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시행 단계에 와 있으며 조합원들께서는 '88년 조합비도 납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2) 3~4년치 조합비를 반환하여 달라고 하신 것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9조 및 조합정관 제27조 및 28조에 의거 부과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여 드릴 수 없는 것이기에 회신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 자료:

관련 사건:

59. 사건명 : 청주법인택시 노동자 파업 및 단식 농성

사건 발생일: 1988. 6. 2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4.10~5.10 8차에 걸친 임금협상 결렬 / 5.11~14 19개사 노동쟁의 발생 신고(충북지노위, 청주시). 3개 업체(삼우, 삼보, 화성)는 개별교섭. 16개 업체는 공동임금 교섭(노사 각 5명의 대표자 선출) / 5.11~28 충북지노위의 5차에 걸친 협상 중재를 통해 6. 1. 공동교섭업체 16개소가 임금협정 체결(기본급 4.5% 인상, 월급제를 일급제로 전환, 휴차수당 삭제하고 정근수당에 포함. 1일 결근시 임금 총액에서 2만 원 이상씩 삭제, 징계 처분 시 3개월분의 상여금 공제, 타코미터기에 의한 수익관리 강화 등) / 6.2 청주법인택시 노동조합 전면파업 돌입 / 6.4 파업동참을 호소하던 영진교통 유한규, 김덕수, 박호영 기사를 동양택시 사장 임방순, 전무 임천수 등 7명이 집단 구타해 각각 전치 6주, 4주, 4주의 상처를 입혔다. 기다렸다는 듯 경찰은 병원에 입원중인 피해자를 즉시 구속함

/ 6.8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집결 / 6.10 16시경 청주시내 법인택시 14개 회사 조합원 300여명이 택시조합 사무실 앞에서 대표의 행방을 밝힐 것과 재협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결의 집회를 가짐 / 6.11 14시경 조합원 400여명이 택시조합 사무실 앞에 모여 “구속 노동자 석방, 재교섭 실시”등을 힘차게 외치며 가두행진 / 6.12 15시 충북체육관 앞에서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400여명의 기사가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 분수대-상당공원-남궁병원-육교-상당공원-시청. 21시 시청에서 해산 / 6.13 옥산 금강유원지에서 비공개 밀실협상, 3차 협상 결렬. 20시 시청 앞에서 연좌농성/ 6.14 17시 시청 앞 집회가 경찰의 무더기 연행으로 무산 / 6.15 충북대 우리 마당에서 ‘청주지역 택시 총파업 승리를 위한 애국 시민 지지대회’가 열림. 집회를 마친 500여명은 “구속자 석방, 월급제 쟁취” 등을 외치며 행진한 후 88협정안을 화형하여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민주세력이 동참할 것을 결의

/ 6.16 각 사업장 내 경찰 동원,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산 시도 / 6.17 3차 임금협상결렬과 사용자측의 해고 압박, 경찰측의 집회에 대한 원천봉쇄 속에서 노동자들 단식농성을 결의 / 6.18 영진, 원일, 삼보교통 등 3개 회사 노동자 40여명이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단식투쟁 돌입 / 6.21 농성자 가족 25명이 남편이 단식으로 죽어나갈 판에 두려울 게 없다며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하라고 외치며 시장면담을 주장한 뒤 시청 위민실에서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 6.22 단식농성자, 성명서 발표 / 6.23. 청주대학에서 “민중생존권과 6월 항쟁 계승 실천대회”에서 단식노동자 농성투쟁 경과 보고 및 성명서 발표. 초청연사로 전 민중후보 백기완씨 초청연설. 연설 후 시청 철야농성 부녀자 방문과 단식농성장 방문, 지지 / 6.24 원일교통의 박유식, 윤근수, 이성희, 홍종두씨와 영진교통 이광우씨 등 단식농성자 5명 탈진, 청주병원에 후송. 시장 청주병원을 들러 면담. 문익환씨 단식농성장에 방문 지지, 격려

/ 6.25 평화, 공민 택시기사부인들 시청철야 농성에 지원. 단식농성자 원일교통의 고성용씨 탈진 / 6.26 원일교통의 이상영씨 탈진. 전원풍모방 노조위원장 방용석씨 지지연설 / 6.27 영진교통 김태공씨 탈진 / 6.29 중원택시 노동자 단식 동참 / 6.30 17시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150여명의 단식기사 및 이를 지지하는 동료기사와 시민들이 한데 모여 택시파업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 7.7 18시, 대책회의를 앞두고 60여명의 부녀자와 단식농성 지지 운수노동자들은 “노동자 5천 가족 굶주린다, 생계비를 보장하라!”는 팻말을 앞세우고 시청에서 산업선교회까지 평화적 가두행진을 벌임. 가두행렬은 처음 단식농성 지지기사들의 시위로 시작되어 중앙로 우체국 앞에서 남궁외과 쪽으로 빠져 뒤따르던 부녀자 농성팀과 합류하여 육거리-남궁병원-중앙로-청주경찰서-주

차장-단식농성장(도시산업선교회)까지 이어짐

/ 7.8 민통련, 청주민주노동자연합, 민중의 당 재건축위 등 31개 재야 민주단체 대표 37명이 시장과 담판하기 위해 시청으로 향했다. 대표단의 뒤에는 200여명의 기사들의 행렬이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다. 약속된 시장면담 시간인 15시 “국회위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면담할 수 없다”고 시청직원이 말했다. 300여명의 시청직원과 사복경찰이 시청 주변에 떼 지어 있었다. 현관문은 잠겨진 채로 지렛대가 가로 놓여 있었다. 몸싸움이 시작됐다. 17시 30분쯤 문화택시 기사 한복룡씨가 시청 수납계장 이세영이 던진 돌에 맞아 쓰러지자 성명불상의 옆 직원이 각목으로 내리쳐 뇌에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시쯤 나타난 시장은 “해결할 수 없다. 자리정도 마련해 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사라졌다. 대표단은 이러한 시장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며 강력히 항의했다. 대표단이 철수한 후에 시청 위민실과 마당에는 여느때와 같이 18일째 농성중인 가족 30여명이 남아 있었다.

/22시, 전체 건물에 갑자기 불이 꺼졌다. “박살내라, 모든 문을 봉쇄하라”는 시장의 고함과 함께 얼굴을 모포로 가린 시청직원들과 사복경찰이 2층 위민실로 들이 닥쳤다. 부녀자들은 난타하기 시작했다. 반항하는 가족들의 옷을 찢고 머리채를 닦아쳤다. 어제 대기시켜 놓았는지 시 보건소 앰블런스는 사이렌을 울리고 있었다. 옷이 벗겨진 부녀자를 모포에 감싸 계단에서 굴렀다. 심지어 용변 보던 아주머니조차도 이들의 사냥에 예외일 수는 없었다. 팔이 부러진 사람, 머리가 깨진 사람, 실신한 사람 등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계단 밑에 포개지고 접혀진 가운데 “야? 저 미친년 봐라” 등의 욕설과 박수와 환호를 질렀다. 그들의 눈은 광기로 번득였으며 아픔을 호소하는 가족들은 그들의 노리갯감으로 보였다. 2시간여 동안 방치된 후 심하게 다친 10여명이 청주, 성모, 세광병원 등에 분산 입원했다. 이제 노동자의 어떠한 행동도 정당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처했다. 다음날부터 “시장 및 사장 구속” 등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전개했고 사실을 알리는 전단을 시민에게 배포했다. 여론이 비등해지자 다급해진 시장은 “증평, 대구 등지에서 몸 파는 여자를 돈으로 사서 데리고 온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늘어놓더니 이틀 후 “가족들이 옷을 벗고 스스로 자해했다”는 반박 성명서 발표

/ 7.9 21시경 '88임금협정철회와 시청만행 규탄을 위해 150여명의 운수노동자들이 모여 시청-수아사-청주경찰서-산업선교회로 가두 행진 / 7.10 11:00에 평민당 인권위원장 조순형씨 단식농성장을 방문. 시청직원의 부녀자 폭행에 대해서, 국회상임위 차원에서 다룰 것임을 밝힘 / 7.13 평민당 박영록 부총재, 내무분과 조세형의원, 노동분과 이해찬의원이 시장, 경찰서장, 노동부소장과 면담. 이 과정에서 사측의 국회의원들에게 폭

언과 폭력행위 행사 / 7.14 오전 10시경, 15명의 사장들과 80여명의 관리자들이 도시산업선교회로 난입, 폭언과 폭력행사 / 7.17 인천에서 열린 “노동운동 탄압분쇄 및 노동악법 개정촉구와 노동부장관 퇴진 수도권 노동자 결의 대회”에 원일교통 박종민씨가 참석하여 청주택시 파업투쟁의 지지를 호소 / 7.18 약 250여명의 가두행렬, 도시산업선교회에서 간략한 집회를 연후 평화적 가두행진 진행 / 7.19 ‘88년 임금인상을 위한 청주지역 택시노동자 30일 단식 및 농성투쟁 승리를 위한 제3차 대책협의회 개최 <참가단체 및 개인> 한국교회 사회선교협의회/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인천 도시산업선교회/한국 산업선교회/기독교 도시빈민선교협의회/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한국기독교 청년협의회/충북기도 청년협의회/충북 가톨릭농민회/충북기독교 농민회/옥화대 하나의 집 조지송 목사/대전민중교회 유영소목사/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청주 민주노동자연합/충북 민주화운동협의회/충남 민주노동자협의회/한국기독교 노동자총연맹/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노동위원회/충북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충청지역 대학생총연합 건설추진위원회/민중의당 재건 충북추진위원회/울산사회선교 실천협의회/충북지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 7.20 가두행진 중 경찰과 대치, 18시 10분경 200여명이 경찰의 방어망을 뚫고 충청일보를 거쳐 사창동 네거리에서 ‘진상조사, 시장구속’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 농성을 벌임.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전투가 21시가 넘도록 이어짐 / 7.22~23 사용주와 관리자 40여명이 정진동 목사 자택 습격 파괴 / 7.25 17시경 노동부 청주지방 사무소를 일시 점거하고 노동부 직원들에게, 허위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 / 7.26 “청주지역 총파업 지지 및 구사대의 정진동 목사 사택 습격만행 규탄대회”가 청주지역 택시공대위 주최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림. 시청에 집결한 참석자들은 “폭력배 처단”, “폭력배를 고용한 기업주를 처벌하라”, “폭력을 방조한 경찰은 자폭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19시까지 가두시위 진행. 청주지역 법인택시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위한 공동대책위 결성 / 8.2 노동자와 부녀자 50여명이 평민당 중앙당사로 상경 농성에 돌입 / 9.12 평민당 국회조사단이 시청을 방문 강력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 / 9.15 민통련 민주단체의장 문익환 목사, 대검찰청에 청주시 영업용택시 17개회사 원득제(동남택시) 외 34명을 고발 조치함 / 10.3 파업 127일차, 구속자 석방과 노동자 요구 관철 및 정진동 목사 자택 침입자 구속 촉구를 위해 전국지역 성직자 72명 성명서 발표 및 서명운동 전개 / 12.20 제40주년 기념인권집회

관계 인물: <단식자 명단> 원일교통: 김종우, 김기환 외 21명, 신안교통: 박천규 외 4명, 삼보교통: 광기열, 박봉갑 외 15명, 영진교통: 조병완, 윤경호 외 20명, 무기명 농성자: 10명, <단식지지 농성자> 원일교통: 박종대 외 8명, 신안교통: 김증묵 외 5명, 영진교통: 이상락, 조용한 외 25명, <구속자 명단> 영진교통: 유한규, 박호영, 김덕수, 신안

교통: 남동욱, 상당교통: 김홍래, 삼우교통: 김태철 조합장, 박영수 조합원, <해고자 명단> 원일교통: 전삼현 외 31명, 영진교통: 조병완 외 19명, 삼우교통: 김태철 외 1명, 삼보교통: 곽기열 외 7명, 중원택시: 정은섭 외 7명, 신안교통: 박천규 외 4명

관계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노동위원회, 충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정당 재건 충북추진위원회, 청주 민주노동자연합, 충북문화운동연합, 충북지역 대학생총연합 건설추진위원회

관계 인물:

관계 자료:

《<결의문>》

청주 법인 택시 16개 회사는 1988년 6월 1일 사용자들의 간교한 회유와 술책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각 5명이 새벽에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날치기 조인함으로 인하여 88년 임금협정과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도록 하여 6월 2일 전체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파업 5일째가 되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게 되자 각 회사별 파업 노동자들이 청주 도시산업 선교회로 갈 것을 결정하고 6월 8일 선교회로 집결했으며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전 시민에게 알리고 88년 기만적 임금협정 무효선언과 동시에 재 협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1,700여명의 노동자들이 평화적 시가행진하였고 13일에는 평화적 행진이 원천봉쇄 당하면서 시청 앞에서, 사직동 청주가스 앞에서 150여명이 전투경찰에 의해 무차별 연행 당해 끌려갔으나 해산시키지 못하자 16일 각 사업장에서는 기업주들이 노동자가 난동을 부린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40~50여명의 경찰이 동원되어 집단으로 노동자를 연행, 구속 위협하였다.

파업기간 중 몇 차례에 걸쳐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들이 회의를 가졌으나 아무런 진전 없이 조합장들의 무능함만 발견되어 이를 보다 못해 초조함을 참지 못한 기사들은 자신들이 구속당할 수 있는 줄 알면서도 회사에서 제시한 노예문서인 각서를 쓰고 물러났다. 그러나 분노를 참지 못한 원일, 영진, 신안, 삼보교통 4개 회사 조합장과 150여명의 조합원들은 88년 임금협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6월 18일부터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하고 70여명이 단식투쟁을 하던 중 24일부터 홍종두 외 7명이 탈진하여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 링거를 꽂은 채 단식 장소로 돌아와 많은 동료기사들이 함께 부둥켜안고 울면서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다짐을 새로이 하며 13일째 투쟁을 하고 있다. 또한 부인들도 50여명이 어린 젖먹이 애기를

안고, 업고 시장면담과 해결을 위해 시청 시장실 복도에서 12일째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또한 파업사건으로 인해 기업의 관리자(동양택시 임방순 사장 외 5명)이 직접 구사대가 되어 노동자들을 폭행,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중상을 입혔는데도 경찰은 오히려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폭력배인 사장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운행하는 많은 기사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간접으로 참여와 지지를 하고 있으며, 6월 29일 중원택시 기사들이 다시 단식에 동참하였다.

1. 기만적 88년 임금협정을 완전 무효화한다!

1. 87년도 근로조건 하에서 8시간 노동에 기본급 5,666원을 6,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고수한다.

1. 임금개선을 하다 구속된 노동자 박호영, 김덕수, 유한규, 김홍대, 김태철, 남동욱의 석방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한다.

1.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목숨 걸고 단식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구속운전기사를 즉각 석방하라

1.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예문서를 즉각 폐지하라

1. 파업 중에 기사를 채용하는 것을 회사는 즉각 중단하라

1. 모든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신속히 보도하라

1988년 6월 30일

단식투쟁택시노동자일동

관련사건 : 정진동 목사,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구속. 정진동 목사 자택 테러 사건

60. 사건명 : 양심수 석방 및 수배자 해제 애국시민 결의대회

사건 발생일: 1988. 6. 2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민주화실천 가족운동 협의회 주최의 ‘양심수 석방 및 수배자 해제 애국시민 결의대회’가 충북대학교 우리마당에서 열림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충북지역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충북민주운동협의회, 민주교육추진충북교사협의회

관계 자료: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253.

《<성명서>》

간혀있는 애국자를 투쟁으로 구출하자! 지긋지긋한 일제치하에서의 해방은 광복이었다. 외세의 침탈도 삼천리가 두동강 나는 것도 독재의 장기집권도 아니었다. 자주독립의 터전위에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건설하여 자손만대 복락을 누리는 조국의 미래에 대한 원대한 포부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일본놈들 대신하여 미국놈들이 들이닥치고 친일 매국노를 대신하여 친미군사독재가 권력을 잡았으며 반도의 허리를 끊기고 말았다. 이 땅 어버이들의 가슴 찢기는 고통과 피눈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조국의 아들딸들을 훌륭히 길러내어 민족의 간성으로 삼고자 했던 반도어머니들의 모든 수고가 가슴에 못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4·19 혁명과 함께 자유의 기폭을 가슴에 안고 거리에서 쓰러져간 아들·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던 어버이들! 부산에서, 마산에서, 80년 광주에서 독재를 불사르던 아들·딸의 가슴에 박힌 독재총알을 녹이던 어버이들의 피눈물! 전태일에서 조성만 열사에 이르기까지 자식을 먼저 보낸 어버이들의 통한의 세월들은 결코 눈물로만 끝낼 수 없었다. 어버이들이 이루지 못한 나라의 일, 겨레의 일을 하려다가 투옥되고 쫓기는 몸이 되고, 시체 되어 돌아왔을 때 어버이들은 일어섰고 힘차게 싸웠다. 우리는 또다시 싸움터로 나간다. 애국자가 된 아들·딸을 투쟁으로 구출하기 위하여 출정하는 것이다.

더러운 자들로부터 애국자를 구출하자!

국민의 심판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 처벌받아 마땅한 학살원흉들과 악덕재벌들에 의해 감금되어 있는 애국자를 투쟁으로 구출하자! 살인고문 민주탄압 안기부 해체하라! 우리 아들, 딸들은 한결같이 살인고문으로 병이 든 채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가 하면 안기부의 철통같은 감시로 햇빛조차 보지 못하고 있다.

독재유지를 위한 국민탄압기구인 안기부의 즉각 해체를 통해 민주탄압 끝장내

자!

애국민주운동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집회시위법 철폐하라!

독재정권의 유일한 뒷받침이요, 지원자인 미제국주의의 경제침탈과 분단고착화에 항거하는 애국세력은 국가보안법으로, 노동자, 농민의 권리쟁취를 위한 정당한 행동과 민주사회의 기본조건인 집회, 시위, 결사, 사상의 자유를 외치는 민주세력은 집시법으로 투옥하는 반민족, 반민중, 반민주적 국가보안법과 집회 시위법 철폐투쟁을 가열차게 벌려나가자! 군부독재 타도하여 양심수라는 말조차 없게 하자! 폭력과 폭압기구와 악법에 의해서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반민족, 반민중, 반민주적 군부독재가 타도되지 않는 한 나라사랑, 겨레사랑은 죄가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이 국가의 중심에 서는 나라! 통일된 삼천리에 민족자주·민중·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애국민주세력의 승리를 위해 군부독재 타도투쟁에 뜨겁게 일어서자.

우리의 주장

1. 양심수 전원석방, 전면 수배해제 실시하라!
2. 갇혀있는 애국자를 투쟁으로 구출하자!
3. 살인고문 민주탄압 안기부·보안사 해체하라!
4. 애국민주운동 탄압하는 국보법·집시법 철폐하라!
5. 부정부패 투옥고문 독재정권 타도하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관련 사건:

61. 사건명 :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성대회 및 통일문제 강연회

사건 발생일: 1988. 6. 17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민주쟁취 국민운동 총북본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988. 6. 17(금) 5시에 청주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지선스님(민통련 부의장)을 초빙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성대회 및 통일문제 강연회를 개최함.

관계 인물: 지선스님

관계 단체: 총북민주운동협의회(7개 가맹단체), 총북문화운동연합, 총북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총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청주지역노동자연합준비위원회

관계 자료: 『총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215.

《<성명서>》

이 땅이 누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느냐!

지난 6월 10일! 민족분단을 빌미로 반공과 안보를 내세워 민주화도 안된다, 민중의 생계보장도 안된다, 통일논의도 안된다면서 휴전선의 군대를 빼돌려 무고한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새마을사업을 한다면서 국고를 탕진하며, 흥청망청 해온 군부독재가 수십겁의 반통일 폭력 경찰을 내세워 애국학생들이 억눌리고 또 억눌려온 혈육의 정을 나누고자 판문점에서 만나겠다는 그 넓은 화해의 가슴에 최루탄을 쏘아대고 무더기로 철창에 가둔 것은 현 노태우 독재집단이 분명 반통일 세력임을 스스로 선언한 매국적 행위였다.

분단된 조국에서 정권을 잡고 악덕재벌이 된 무리들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끊어진 조국의 허리를 잇고 통일 조국에서 민족중흥을 이루어 보려는 6천만 민중의 가슴만이 6천만 민중의 총진군만이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다.

공동올림픽으로 민족화해 민족교류 민족대단결로 나가자!

인류의 평화제전 올림픽에서 미국과 군부독재는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가?

미국의 88올림픽을 분단올림픽으로 성공시킴으로써 군부독재 지원에 대한 세계적 비난을 무마하고,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광주학살의 주범, 부정선거의 주범 노태우 일당은 올림픽을 통하여 정통성을 만회해 보려고 꿈꾸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화시대라는 허울 좋은 의식을 국민속에 확산하여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민적 반감과 저항을 무마시켜 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전 인류의 화해와 교류 그리고 대단결을 위해 열리는 올림픽이 정작 개최국에

서는 대립, 단절, 대결을 강요받고 있다. 민족화해, 미족교류, 민족대단결의 계기가 되어야 할 올림픽이 서민대중의 생계를 위협하고 외채를 가중시키고, 민족분당을 더욱 고착시킨다면 올림픽은 오히려 한국민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공동올림픽 쟁취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

1988. 6. 17

민주쟁취 국민운동 총북본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사건:

62. 사건명 : '공동올림픽 쟁취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 국토종단 순례대행진 및 8·15학생회담 성사를 위한 시민결의대회' 개최

사건 발생일: 1988. 8. 11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충북대학교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1988년 8월 11일 오후 4시에 상당공원에서 '공동올림픽 쟁취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 국토종단순례대행진 및 8·15학생회담 성사를 위한 시민결의 대회'를 개최함.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충북대학교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민주쟁취 국민운동 총북본부

관계 자료: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205. p. 214.

<성명서>

- 150만 충북도민에게 드리는 글 -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애국 충북도민 여러분!!!

민족분열주의자들에게 의해 두동강이가 된 이 국토는, 이땅 우리 민족에 있어 엄청난 고통이었으며 조국의 자주적 민주적 발전을 막는 통한의 장벽이었습니다. 분단 44년의 공백 속에서 우리 민족은 상호 비방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며, 불신의 색안경을 끼고 대립과 대결의식만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단으로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이산가족의 고통이 있고 다가오는 88올림픽의 내면에는 분단고착화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에 “인류화해의 대제전”을 향하는 길목에서 7천만 겨레의 염원이자 숙원인 민족통일의 과업을 수행하고자 저희 백만 청년학도는 “공동올림픽 쟁위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토순례 대행진 및 8·15 학생회담”을 추진하여, 통일의 장에 기여하고자 거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족분열, 분단원흉 미제국주의 몰아내자!!

우리 민족의 분단은 전적으로 내외분열주의자들의 두 개의 한국고착화 책동때문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한국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남과 북의 반목과 대립을 더욱더 조성시키는 한편, 교차승인, 유엔 동시가입 등을 역설하면서 분단의 고착화, 합법화 책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학도들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오해와 불신 반목과 대립의 장벽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수려했던 조국강산이 핵무기의 무덤으로 정변되고, 미제국주의자들의 도발적 침략전쟁 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의 무력 시위 속에서 격하되는 조국의 현실은 우리청년학도들에게 민족화해의 기수가 되고, 통일구국의 주역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춤추는 연속적인 독재정권에게 더 이상 조국통일의 과업을 맡길 수 없고 통일위업은 7천만 겨레의 전 민족적 과제인 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7천만 민중의 단합된 힘과 주인된 성사노력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조국통일 가로막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현 정권의 “대북접촉 창구단일화”라는 7·15선언은 민간차원의 자주적 교류를 억압하는 반통일적 처사인 것입니다. 회담의 의제 중 현 정권이 문제로 삼고 있는, 공동올림픽 개최와 남북이산가족찾기 등의 8·15회담안건은 조국통일 노력에 관련된 중요성과 미국과 노태우일당이 분단고착화를 위한 단독올림픽 강행음모와 자주적 교류의 출발점이요, 이를 확대시키기 위한 8·15회담은 7천만 민족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굴함이 없이 강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올림픽 쟁취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

올림픽의 주인은 남북한 7천만 동포이며 올림픽 형태의 결정권도 I.O.C나 현 정부가 아니라 7천만 우리 겨레인 것입니다. 현재, 미제국주의와 친미 주구들에 의해

강행되는 단독올림픽은 두 개의 한국정책에 악용하려는 반민족적 본질을 내포하고 있으며 결국 한반도를 여구분단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민족의 대단결과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서의 공동올림픽은 분단고착화를 저지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현 정권은 공동올림픽 개최문제에 대해 “I.O.C 헌장 위배” “시기적 불가능” “북한의 준비부족” 등의 이유를 내세워 단독올림픽을 기정 사실화하지만, 북한은 지난 해에 경기장을 비롯한 제반 기술적 실무적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시기 촉박의 문제도 올림픽 직전까지 남북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거쳐 공동올림픽 주최안을 상정하면 그 실현이 가능합니다. 또 I.O.C 헌장 위배도 특별총회를 거쳐 그 타당성 유무를 묻고, 우편 투표로 결의가 가능하다는 18조 규정을 볼 때 사실무근으로 일축되는 것입니다.

휴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남북의 화해를 가로막고 불신만을 조장하는 휴전협정으로써 우리 민족은 한 가 구당 2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군사비 부담과 언제나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기만을 강요당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화해의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반도만이 화해가 아닌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세계의 평화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또 통일을 갈망하는 7천만 겨레의 가슴에 커다란 멍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남북간의 문화, 경제적 교류로부터 시작하여, 나아가간다면 통일의 길은 환해질 것입니다.

5공화국 비리 비호하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지금 각계 각층 민중들은 제5공화국의 부정비리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단호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말로만 부정비리 척결 운운하면서도 실제적 조치를 직접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제5공화국의 권력형비리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으며 전두환과 함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사기협작으로 거부가 된 부정부패의 원흉인 것입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5공화국 부정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이들의 부정부패 행위는 한국사회와 우리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각계 각층 애국민중들은 사기협작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노태우 집단을 타도하고 이 땅의 부정부패가 없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국가 건설과 민주적인 새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야 할 것입니다.

휴전협정 분단원흉 미국놈들 몰아내자!!!

조국통일 방해책동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공동올림픽 쟁취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

휴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5공화국 비리, 비호하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통일염원 44년 8월 10일
충북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성명서>

- 8·15 남북한 청년학생회담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참여를 호소합니다 -

공동올림픽 쟁취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토순례 대행진 및 8·15 남북한 청년 학생회담이 애국학생들의 대표기구인 전대협에 의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는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옛 그제까지만 해도 분단된 현실을 당연시하고 분단의 비극을 애써 외면하던 우리가 이제 분단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일이란 말만 꺼내면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두기 바쁘던 독재정권이 비록 기만적이긴 하지만 민족 공동체 형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한반도의 통일은 급격하게 진전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엔 청년학생들의 6·10 학생회담 추진 등의 노력이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뒷짐지고 방관할 때 청년학생들은 정국을 뒤흔들고, 통일의 문을 힘껏 열어 제쳤습니다.

현 정권은 이번에도 학생회담 추진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나섭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교류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일논의는 개방하되 교섭창구는 정부로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마음대로 지껄여라. 칼자루는 우리가 휘두를테니”하는 독재의 본성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에 이용당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한다면 언제까지나 교류를 늦추자는 말입니까? 단순한 학생회담을 큰 소란이라도 나는 것처럼 올림픽 방해책동 운운하는 것은 자신없는 정권의 강변에 불과합니다. 이번의 학생회담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올림픽 추진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박수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1988. 8. 11

민주쟁취 국민운동 충북본부

관련 사건: 공동올림픽 쟁취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 국토종단순례대행진 및 8·15학생회담

63. 사건명 : 제5공화국 비리 척결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결의대회

사건 발생일: 1988. 9. 19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제5공화국 비리척결 및 양심수석방을 위한 결의대회'가 충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주최로 오충일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상임집행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당일 오후 7시 청주제일교회에서 개최됨.

관계 인물: 오충일

관계 단체: 충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민주쟁취국민운동충북본부

관계 자료: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p. 255-256.

《<성명서>》

- 제5공화국 비리 척결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충북목회자 단식기도회를 지지하며 -

분단 44년에 접어들어 갈라진 반도를 잇고자 하는 청년학생의 통일에 대한 염원은 4월의 만개하는 꽃 봉우리처럼 봄기운이 만연한 삼천리강토에 조국통일운동의 불꽃을 지펴 올렸다. “가자! 한라에서, 오라! 백두에서, 남북은 통일로! 양키는 아메리카로!” 조국의 하늘아래 한입의 아우성으로, 한 몸 같은 대열로 전진해 나갔던 청년학생들의 기개는 조국통일의 신기원을 여는데 아무런 모자람도 없었다. 이처럼 한반도 전역에 메아리쳤던 애국청년학생들과 민중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6·10, 8·15 두 차례의 남북학생회담과 국토순례대행진은 미국의 사주를 받은 현 정권의 야수적인 탄압으로 말미암아 무산되어 졌으며, 총칼로써 민중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송두리째 짓밟고 애국적 청년학생들을 좌경용공으로 몰아 차가운 쇠창살 안으로 몰아넣는 현 정권의 작태는 88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외세와 그에 결탁한 독점재벌들은 올림픽을 통해서 군사독재체제를 강화하고 민족의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 현 노태우정권은 민주화를 요구하던 광주 민중을 학살함으로써 권력을 탈취한 뒤 정경유착, 국고낭비, 재산도피,

인사부정 등으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금강산댐 등 허황한 사건을 조작하여 민족 민주운동을 탄압하면서 온갖 특권을 누린 한국판 마르코스-이멜다 격인 전두환-이순자를 비호하기 위해 여념이 없으며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자 올림픽을 구실로 야당을 회유하여 정치유전을 운운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참된 주인다운 삶을 가로막는 집시법, 노동법,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 반민주 악법들과 제도가 개폐되지 않은 채 버젓이 유지되고 있으며 양심수를 계속 가둬두고 있다.

지난 8월 29일 2시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소속 목회자 40여명은 기독교회관 NCC 인권위원회에서 1. 제5공화국 비리의 단호한 척결과 전두환-이순자 구속. 2. 군부독재 세력의 극우적 책동 즉각 청산. 3. 올림픽을 빙자한 민중생존권 탄압중지. 4. 민족통일에 대한 탄압중지를 내걸고 단식기도회를 시작하였다. 이에 뜻을 같이한 충북지역 목회자분들은 7월 19일 저녁 7시 제일교회에서 단식기도회를 선포하고 7월 21일까지 명암교회에서 단식기도회를 하고 있다. 충북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는 제5공화국 비리척결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충북목회자 단식기도회를 적극 지지하며 공동투쟁의 대열에 나서 이땅의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 혼신을 다 할 것이다.

5공비리 비호하는 노태우일당 몰아내자!
민주운동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사회안정법 철폐하라!
양심수를 가둬놓고 올림픽이 웬말이나 양심수를 석방하라!
민중운동 탄압하는 평화구역 철폐하라!

통일염원 44년 9월 20일
충북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관련 사건:

64. 사건명 : 고추·담배 생산비 보장 제천시 농민대회

사건 발생일: 1988. 10. 10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제천시 농협 의림동 분소에서 일천여명의 제천시지역 농민들은 “정부가 고추 근당 생산비 2,500원, 담배 키로당 5,700원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고추·담배 생

산비 보장 제천지역 농민대회'를 가졌다. 농민 살 길 농민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보기 위해 바쁜 농사일을 뒤로 하고 모여든 농민들의 열화같은 투지 속에 농민대회 1부가 장문식씨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 후 대회는 김기정씨의 경과보고, 대회장 최영탁씨의 인사말, 제천·제원·단양 지역 감리교 농촌선교 목회자 협의회 대표의 지지성명 낭독, 이정찬(전국농민협회 교육 홍보부장)의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산물 생산비 보장투쟁 사례에 대한 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 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정부는 고추 근당 2,500원, 담배 키로당 5,700원을 보장하라” “전씨 일가 재산 몰수하여 농가부채 탕감하라”고 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수입개방 결사반대” “수입강요 미국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에 들어갔다. 시가행진은 서부시장, 명동 로타리를 거쳐 제원군 농협에 도착하여 지금까지 농민 위에 군림하고 독점재벌의 대리점 노릇을 해온 관제농협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농민들은 “관제 농협 철폐하고 민주 농협 쟁취하자”고 외치며 농협의 동참을 촉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대표 몇 명이 농협 옥상에 올라가 농민들의 환호 속에 “정부는 고추 근당 2,500원에 전량 구매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위 행렬은 명동 로타리에 다시 돌아와 제3부 농민 대토론회를 가졌다.

3부 토론회는 이해선씨의 수해·수세문제에 대한 발언과 행정 책임자에 대한 질문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군수에게 고추값, 농지세, 수해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을 요약하면 “고추수매는 2,500원 책임질 수 없고, 고추에 대한 농지세는 1,700원 인상에서만 부과할 수 있으며 수해복구 사업은 내년까지 완공하고 수해조사에서 빠진 농가는 새로 신청할 경우 수해복구를 지원한다” 등이다.

이러한 군수의 답변에 대해 보다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의 책임자로서 농민들의 고추·담배 생산비 보장운동에 동참하는 뜻에서 고추수매 몇 가지 내용을 서면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여 농민들을 분노케 했다.

사실 그 동안 속고 살아온 우리가 행정 책임자들에게 많은 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너무도 무성의한 발언에 심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질의응답 후 농민들의 뜨거운 함성 속에 “농축산물 수입을 강요하는 미국” “농민잡는 농업정책” “수입으로 이익보는 재벌”이라고 쓴 허수아비와 고추값 폭락에 대한 항의로 고추를 불살랐다.

화형식이 끝난 후 농민들은 다시금 군수와 서면 약속, 공개 면담을 촉구하며 군수가 있는 군청으로 갔다. 그런데 군청 안 대문과 담장에는 무장한 전경들이 배치되어 있어 경운기와 트럭을 앞세우고 평화적이고 정당하게 군청을 향해 들어가려는 농민들을 제지하며 최루탄을 난사하였다. 이에 성난 농민들은 돌로 맞서며 세차례 군청 진출을 시도했으나 무차별 최루탄 난사로 좌절되었다. 그 후 농민들은 평화적으로 연좌하고 면담을 계속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했고, 시위 도중 4명의 농민이 최루탄 파편에

부상당했다.

오후 5시경, 농민들은 다시 명동 로타리로 와서 10월 16일 다시 모이기로 하고 결의문 채택과 함께 오후 6시 경 자진 해산하였다.

<서면약속 요구사항>

고추 근당 2,500원 수매를 위해 노력한다.

농지세는 본 대책위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수해복구는 올해 안에 끝나치고 누락된 농가는 새로 신청할 경우 복구를 적극 지원한다.

(농산물 제값받기 제천시지역 대책위원회, '농민의 함성' 제1호)

관계 인물: 장문식, 김기정, 최영탁, 이정찬

관계 단체: 제원·제천 농민협회

관계 자료: 『농민의 함성』 제1호(1988. 10. 12),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89

관련 사건: 농산물 제값받기 제천시지역 농민대회(1988. 11. 7), 사건번호 66, pp. 79-80.
농축산물 제값받기 청원군 농민대회(1988. 11. 11), 사건번호 67, pp. 80-81.

65. 사건명 : '농축산물 제값받기 괴산군농민대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 발표

사건 발생일: 1988. 10. 28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괴산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괴산 목회자정의 평화실천협의회 단식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농축산물 제값받기 괴산군농민대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이 성명서에서 '실천협의회'는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라',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일원화하고 보험료를 인하하

라', '부당한 수세는 즉각 감면 폐지하고, 농지개량조합은 농민이 운영하도록 민주화하라', '800만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지하고, 사료부가세를 철폐하라', '부정축재 환수하여 농가부채 탕감하라', '농민이 주인 되는 민주화 실현하라', '농촌 자녀교육 보장하라' 등을 요구함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관련 사건:

66. 사건명 : 제3차 농산물 제값받기 제천지역 농민대회

사건 발생일: 1988. 11. 7

관련사건 일자: 10월 10일 1차 농민대회, 10월 16일 2차 농민대회

사건 배경:

사건 내용: 농산물 제값받기 제천지역 대책위원회가 제3차 농산물 제값받기 제천지역 농민대회를 1988년 11월 7일 제천 명동 로타리에서 가짐. 이 대회에서 대책위원회는 “정부는 고추생산비 1근당 2,500원 보장하고 전량 수매하라” “담배 수매가 키로당 5,700원 보장하라” “쌀 수매가 80kg 가마당 107,778원 보장하라” “소 입식 자금 부채는 전액 탕감하라” “전씨 일가 재산 몰수하여 농가부채 탕감하라” “농축산물 생산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는 등의 요구를 함.

관계 인물:

관계 단체: 농산물 제값받기 제천지역 대책위원회

관계 자료: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91.

<성명서>

11월 7일 3차 대회에 제천지역 농민은 모두 다 참여합니다. 우리 제천지역 농민들은 지난 10월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농민대회를 갖고 농산물 생산비를 보장해 줄 것을 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농민들이 살겠다고 외치는 아우성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커녕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고 틀어 막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민을 포함한 온 국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미국이나 독점재벌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농민은 못살게 하고 미국농민을 살려주는 외국농축산물 수입개방정책은 어찌된 것입니까?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주기 위한 저농산물가격 정책은 독점재벌을 위한 정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농민 여러분 농민이 무시당해온 것은 지금까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1월 7일 다시 한 번 모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농민들은 늘 이렇게 당하고만 살 것입니다. 된다고 생각하고 전부가 모여 봅시다.

2차 대회를 반성하여 승리의 3차 대회를 위해 노력합니다. 집행부의 미숙과 농민들의 참여부족으로 2차 대회는 1차 대회에 비해 많은 점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반성하여 열심히 노력하신 많은 분들께 사과드리며 3차 대회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 여러분들께서 수수로 집행부라 생각하시고 노력하여 주십시오. 나하나 빠지면 일이 안된다고 누구나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없이 부채상환 거부합니다.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까닭은 정부의 농업정책 때문이며 따라서 부채상환은 정부가 하도록 우리 농민은 일제히 거부합니다. 요새 국정감사에서 나타나듯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소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전경환은 7천억 원을 챙기고 농민은 2조원을 손해 봤습니다. 손해 본 것이 아니라 도적질 당했습니다. 손해 본 사람이 있으면 이익 본 사람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 입식 구입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외국농축산물 수입으로 인해 농민들이 손해 본 것도 정부가 책임짐이 마땅한 것입니다. 정부가 실로 공²병정대하다면 농민들로부터 강탈해간 돈은 하루빨리 찾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산비 보장없이 부채상환 거부합니다.

관련 사건: 고추·담배 생산비 보장 제천지역 농민대회(1988, 10. 10), 사건번호 64, pp. 77-78. 농축산물 제값받기 청원군 농민대회(1988. 11. 11), 사건번호 67, pp. 80-81.

67. 사건명 : 농축산물 제값받기 청원군 농민대회

사건 발생일: 1988. 11. 11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농축산물 제값받기 청원군대책위원회 주최의 '농축산물 제값받기 청원군 농민대회'가 1988년 11월 11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림. 집회에서 농민들은 "독점재벌만을 위한 농업정책 물리치고 농민위한 농업정책 수립하자!"고 주장함.

관계 인물:

관계 단체: 농축산물 제값받기 청원군대책위원회

관계 자료: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92.

<성명서>

피땀흘려 지은 농사 제값받고 팔아보자!

청원군 농민 여러분! 농민의 단결된 힘으로 농축산물 생산비를 우리 손으로 쟁취합시다. 우리 모두 상당공원 앞으로 모입시다.

청원군 농민 여러분! 11월 11일 오전 11시 우리 농민들이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큰 목소리를 외치는 날입니다. 죽어라 농사지으면 뭐합니까? 농산물값 제값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농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읍시다.

독점재벌만을 위한 농업정책 물리치고 농민위한 농업정책 수립하자!

<이렇게 행동합시다>

각 마을별로 '농축산물 제값받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마을마다 농산물 제값 보장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읍시다.

농산물값이 보장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고추: 생산비 근당 2,500원 보장. 전량수매

참깨: 생산비 400,000원 보장(60kg당)

담배: 생산비 보장. 폐작반대. 양담배 수입철폐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조합주의 반대. 의료보험 인하

교육: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시

쌀: 생산비 107,778원 보장(2등급 가마당 80kg)

우유: 원유가 20% 인상. 유제품 수입반대

쇠고기: 수입반대. 사료부가세 철폐

수세: 수세철폐. 농조해체. 수리청 신설

농협축협: 농민이 주인되는 농축협 실현

부채: 부정축재환수 농가부채탕감

농축산물 제값받기 청원군 대책위원회

관련 사건: 고추·담배 생산비 보장 제천지역 농민대회(1988, 10. 10), 사건번호 64, pp. 77-78. 제3차 농산물 제값받기 제천지역 농민대회(1988. 11. 7), 사건번호 66, pp. 79-80

68. 사건명 : 충북농민연합 ‘충북지역 100만 농민은 처절한 함성으로 외친다!’는 제목의 성명 발표

사건 발생일: 1988. 11. 17

관련사건 일지: 10. 10 제천 농협 앞에서 제1차 제원·제천 농민대회. 제천·제원지역 농민 1,500여명 시위/10. 16 제천 농협 앞에서 제2차 제원·제천 농민대회. 제천·제원 농민 500여명 시위/10. 22 음성읍 공설운동장에서 음성군 농민대회. 음성지역 농민 1,200여명 시위/10. 25 충주시 MBC 앞 광장에서 충주·중원 농민대회. 충주·중원지역 농민 1,500여명 시위/10. 28 괴산읍 역말다리에서 괴산군 농민대회. 괴산지역 농민 1,000여명 시위/11. 7 제천시 명동 로타리에서 제3차 제원·제천 농민대회. 제원·제천 농민 1,000여명 시위한 후 300여명의 농민이 농협제원군지부에서 2일간 철여농성/11. 11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청원군 농민대회. 농민 1,000여명 시위/11. 11 보은읍 사거리에서 보은군 농민대회. 600여 농민 시위.

사건 배경:

사건 내용: 충북농민연합 ‘충북지역 100만 농민은 처절한 함성으로 외친다!’는 제목의 성명발표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충북농민연합

관계 자료: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93.

<성명서>

충북지역 100만 농민은 처절한 함성으로 외친다!

지난 1달 동안 충북도내 6개군에서 83,000여명의 농민이 농축산물 제값받기 투쟁을 전개했다.

그동안 독점재벌만을 위한 농업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은 엄청난 희생을 받아왔다. 얼마나 많은 농민이 자살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농민이 고향을 떠나 이농을 해야 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했으며, 또 그 얼마나 많은 농민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가!

이것은 모두가 그동안 우리 농민이 적자농사를 강요받았기 때문이며, 그동안 우리 농민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농민들의 살 길이란 눈곱만큼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암흑 바로 그것임이 확실하다. 더 이상 어떻게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여기 충북지역 100만 농민들은 여름내 피땀흘려 생산한 농산물 제값을 받기 위해 그동안 줄기차게 싸워왔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1달 동안 충북지역에서는 제천, 음성, 충주, 괴산, 청원, 보은에서 농민들의 투쟁이 그야말로 들불처럼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농민들의 이러한 거센 요구에 대해 현 정권의 태도는 어떠한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시정하고, 생산비를 보장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라도 보여야 마땅하거늘, 저들은 농민들의 이 간절한 외침이 단지 몇줄의 글씨로 읽어보는 보고서에 그치고 말았는가? 도대체 이 나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기에 오늘날과 같은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다. 이제 우리 농민도 사람답게 살아야 하겠다.

그리하여 충북지역 100만 농민은 그동안 적자농사를 강요한 독점재벌과 군부독재정권 그리고 엄청난 농축산물 수입을 강요하는 미국에 대항하여 굳굳한 의지를 갖고 줄기차게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우리의 주장 -

고추 1 근당 2,500원 생산비를 보장하고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하라!

엽연초 1kg당 5,700원 생산비 보장하고 연초폐작을 중단하라!
쌀생산비 80kg 한가마당 107,778원 보장하여 추곡수매가 47% 인상하라!
농축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전씨일가 재산 몰수하여 농가부채 탕감하라!

1988. 11. 17.

충북농민연합

관련 사건: 고추·담배 생산비 보장 제천지역 농민대회(1988, 10. 10), 사건번호 64, pp. 77-78. 제3차 농산물 제값받기 제천지역 농민대회(1988. 11. 7), 사건번호 66, pp. 79-80

69. 사건명 : 강성호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건 발생일: 1989. 5. 24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89.3.1 제천 제원고(현 제천공고) 일어교사로 초임발령/5.1 노태우정부, 교원 노조 결성에 댕 공안차원 대응.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의식화 교사로 규정, 관련 교사 내사 착수/ 5.22 조태훈 교사(서울 인덕공고), 강성호 교사(충북 제원고), 이수찬 교사(경북 동산여중) 각각 북침설 교육, 북한 찬양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전교조 결성 직전에 발생한 이들 사건으로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5.24 이른바 공안정국과 맞물린 의식화교육 파동 속에 <북침설 교육> 혐의를 받고 학교장의 고발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수감 후 직위해제 / 10.7 청주지법 제천지원 1심 선고, 89년 고단 209판결(징역 1년, 자격정지 1년)/1.25 청주지법 제1형사부 2심 선고, 89노 45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속·수감된 지 8개월 만에 석방됨.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충북교사협의회

관계 자료: 「두 눈 뜨고 도둑맞은 ‘참교육의 꿈」, 『충북지역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pp. 32-37.

관련 사건: 관제 학부모조직을 동원한 좌경의식화 조작 규탄 성명(1989. 5. 25), 사건번호 70, pp. 83-84. 참교육을 위한 국민걷기대회(1989. 10. 28), 사건번호 71, p. 84-85.

70. 사건명 : 관제 학부모조직을 동원한 좌경의식화 조작 규탄 성명

사건 발생일: 1989. 5. 25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제원고 교장은 강교사가 “북한도 잘 살고 있다”는 등 북한 찬양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학부모들은 강성호, 김성장, 정옥수 등 3명의 교사가 “좌경의식화 교사”이므로 자식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으니,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등교 거부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교사들이 줄곧 교육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온 교사들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당국에 의해 작금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관계 학부모조직을 동원한 교육민주화 말살 음모’ 혹은 ‘좌경의식화조장 공세’의 일환이라는 점에 혐의를 두면서, 특히 학부모 조직에서 나왔다고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교사들이 매도되고 있는 점에 있어서, 그 배후와 모함의 출처 및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충북교사 협의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강교사의 경우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북한사진을 보여준 것이 와전된 것이며, 정교사의 경우는 어이없게도 석탄일에 학급학생 20여명이 야유회를 간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유일한 꼬투리가 되었다.

김교사의 경우는 ‘특활 문예반 활동에서 나누어준 지도자료 중 그 학교 학생들이 쓴 <죽음의 학교><돈> 등 학교생활과 교육현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담긴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야간자율학습비와 선풍기·방충망·교사용 의자 등을 구입하기 위한 학부모회비 거출문제에 있어, 교사에 의한 거출을 반대하며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배척 사유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좌경의식화”로까지 매도되는 사실과 이것이 용공조작 음모에 편승한 교육민주화운동 탄압 및 분별없는 교권침해라는 점이다.

사건 내용: 1989년 5월 24일 충북교육계에서 제원고(충청북도 제천 소재) 교장 최순길에 의해 그 학교 강성호 교사가 검찰에 “빨갱이 교사”로 고발되고, 40여명의 학부모들

이 제천시 교육청에서 강교사 등 그 학교 3명의 교사를 “좌경의식화 교사”로 배척하는 농성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안은 당일 MBC 채널 및 다음날 각 일간지를 통해 전국에 보도되었고, 이로써 악의적으로 조작·유포된 “의식화교육” 사례들에 더하여, 진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터무니없는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우리의 주장》

1. 제원고 최순길 교장은 강성호 교사에 대한 근거 없는 용공조작과 패륜적인 고발을 즉각

취하하고, 도교육위는 분별없는 직위해제를 취소하라

2. 김성장, 정옥수 교사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함을 중단하고 사과하라

3. 도교육위는 근거 없는 의식화교육사례 조작·유포로 학부모들에게 위기의식을 불어넣는

비열한 책동과, 관제 학무모 조직을 동원한 탄압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관계 인물: 최순길 교장, 강성호 교사, 김성장 교사, 정옥수 교사

관계 단체: 충북교사협의회

관계 자료:

관련 사건: 강성호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1989. 5. 24), 사건번호 69, p. 83. 참교육을 위한 국민걷기대회(1989. 10. 28), 사건번호 71, p. 84-85.

71. 사건명 : 참교육을 위한 국민걷기대회

사건 발생일: 1989. 10. 28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전교조 충북지부와 전교조 탄압저지와 합법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참교육 실현과 전교조 수호를 위하여 충북체육관 앞에서 출발하여 수아사, 상당 공

원에 이르는 걷기 대회를 개최 함.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 자료: 『충북지역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p. 104.

관련 사건: 강성호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1989. 5. 24), 관제 학부모조직을 동원한 좌경의식화 조작 규탄 성명(1989. 5. 25), 사건번호 70, pp. 83-84.

<1990년대>

72. 사건명 : 1989년에서 1992년까지의 충북지역 학생운동

사건 발생일: 1989 ~ 1992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1987년, 1988년 대중적인 성장을 거듭한 충북지역 학생운동 진영은 1989년부터 학생운동의 전성기를 구가한다. 그 동안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면서 많은 활동가들을 발굴, 육성하게 되고 확대된 풍부한 인적 자원을 자연스럽게 대중 조직을 확대, 강화하게 만든다.

충북대협과 각 대학 총학생회에 편성한 사무국, 선전국, 투쟁국, 조통특위 등의 상시적 기구와 개별 사안에 따른 특별위원회 등은 축적된 역량이 풍부했음을 말해준다. 확보된 역량은 곧바로 지역운동과 상시적으로 연대하며 지역의 각 부문운동을 지원하고 지역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 것도 이 시기 학생운동의 특징 중 하나이다. 전교조 지원투쟁, 전농, 전노협 지원투쟁, 충북연합과의 연대투쟁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시기는 학생운동의 독자적인 내용을 갖는 투쟁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많은 지원투쟁과 연대투쟁이 있었다. 그 많은 투쟁으로 학생운동의 역량이 강화되는 측면보다는 그 동안 축적된 역량을 소모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 또한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1989년 조통투쟁으로 시작한다. 충북지역에 2개 전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을 포괄한 충북대협 3기가 출발하면서 평축참가 준비위 산하 통일선봉대의 투쟁과 평축 참가투쟁이 대중적으로 전개된다. 우리 지역에서는 평축 모의 축전을 하는 등 제13차 평양축전 참가투쟁이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대중적 열기 확산에 자신감을 얻은 전대협은 13차 평양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임수경을 파견하는데 성공한다. 이로써 남한 청년학생의 통일의 열망을 세계만방에 천명하며 통일의 꽃을 활짝 피운다.

1987년 통일대장정으로 시작된 통일운동이 1989년 평양축전 참가투쟁으로 꽃을 피우며 그 동안의 성과를 모아 각 부문운동이 함께 하는 조국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8·15 범민족대회로 발전한다. 1990년부터 1993년에 이르는 범민족대회 때마다 통일선봉대의 역할은 컸다. 충북의 각 시군 단위를 돌며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참가를 촉구하는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는 헌신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1989년에서 1992년은 연대투쟁과 타부문 운동에 대한 지원투쟁이 많았던 시기이다. 1990년 전교조 지원투쟁

은 범시민적인 힘을 얻게 하며 그 해 9월 21일 학생을 중심으로 청주시민 1만 여명이 모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조 합법성 쟁취를 위한 정태춘 노래공연'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1990년 전두환 이순자 구속처벌투쟁 때는 충북대협도 전두환 이순자 체포결사대에 체포조를 파견하는 등 반민자당 투쟁과 전두환 이순자 구속투쟁을 벌여나갔다.

총대 사범대, 교원대, 교육대 등은 교원 임용고시 폐지투쟁, 전교조 합법화 쟁취투쟁에 전체 학생대중이 궐기하는 한 해이기도 했다. 1991년은 시위대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강경대 타살사건으로 반민자당투쟁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다. 지역 각 부문운동과 함께 벌인 연대투쟁은 상당공원에 1만 여명의 학생과 시민이 결집하여 어느 때보다 연대투쟁의 큰 성공을 거둔다. 반민자당 투쟁은 1992년에는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선으로 이어진다.

우리 지역 학생운동 진영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 총선과 대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총선에서의 민주후보 지원, 대선에서의 범민주단일 후보 지원투쟁이고 또 하나가 총선에서의 독자후보 지원, 대선에서의 백기완선거운동본부 산하 학생특별위원회의 활동이다. 이와는 별도로 1992년 청주대의 학자투는 우리 지역 학자투의 또 하나의 성과를 남긴다. 김준철 재단 이사장의 총장연임을 반대하며 촉발된 1992년 말의 학자투는 교수와 학생의 강한 연대투쟁으로 결국 1993년 초 김준철의 총장퇴임을 성사시키고야 말았다. (류행렬, '충북지역 학생운동사', 충북지역 사회운동, pp. 71-73)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충북지역 학생운동사」, 『충북지역 사회운동』

관련 사건:

73. 사건명 : 1990~91년 청주지역 노동조합운동

사건 발생일: 1990 ~ 1991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시기에 보여 주었던 청주지역 노동자들의 엄청난 에네르지를 조직하는데 실패한 청주지역의 노조운동은 88년 들어 그나마 87년의 열기가 단위사업장별 노조건설로 이어졌을 뿐 비교적 소강국면에 들어갔다.

89년이 되면서 한주전자를 비롯한 단위노조의 내용성-자주, 민주, 연대-이 변하기 시작하자 자본은 총공세로 공단 내의 파급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조의 뿌리를 내리는 힘찬 실천은 90년 한주전자노조의 파업-구속을 비롯, AMK의 노조민주화투쟁, 코리안마이트의 노조건설투쟁, 91년의 충북전자 노조건설과 사수투쟁, 그리고 현대정밀 및 뉴맥스의 노민추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 10여명이 해고되었으며, 충북전자의 경우 공권력의 침탈 속에서 공장옥상에 올라가 끝까지 노조를 지키는 투쟁을 전개하였고, 뉴맥스의 노조민주화투쟁과 복직투쟁은 오랜 기간동안 계속되었다. 한편 택시 업종에서는 88년 임금협정의 불법성을 반대하는 총파업 속에서 무려 100여명의 해고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충북지역사회운동』, p. 16).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충북지역사회운동』

관련 사건:

74. 사건명 : 민주화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 기도회 및 걷기대회

사건 발생일: 1990. 3. 1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충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와 충북기독교청년협의회가 당일 오후 2시 청주제일교회에서 성균관대 장을병 교수를 초빙하여 비상시국 기도회와 강연회 그리고 걷기대회를 가짐.

관계 인물: 장을병

관계 단체: 충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충북기독교청년협의회

관계 자료: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246.

<성명서>

-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을 행복합니다(마태복음 5장 6절) -

1. 야합정치가 판치는 이 땅의 정치풍토가 쇠신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민정, 민주, 공화 3당합당을 통해 이 땅의 정치인들의 정치윤리가 얼마나 썩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약속도, 자신들이 이제까지 내걸어왔던 정치적 견해도 모두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또다시 해괴한 논리를 앞세우는 가증스런 모습을 뻔뻔스럽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풍토를 냉소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 이땅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정치, 국민이 주인으로 되는 정치가 이룩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2. 선거를 통한 국민주권 행사를 유린한 민정, 민주, 공화 3당에 대한 항의와 규탄운동을 전개합니다.

각 당의 중앙당사와 지구당, 국회의원,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항의 방문과 항의 서신 및 항의 전화를 광범위하게 합니다. 특히 전통야당을 자임하면서 '군정종식'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김영삼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합니다.

3. 국민주권 유린한 야합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 소환운동을 벌입니다.

개헌선언 2/3을 넘는 거대여당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이 배제되는 1당 장기독재, 파벌정치를 하자는 이번 3당합당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원 총 사퇴 후 조기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유권자들이 여당이 아닌 야당을 뽑아준 민주, 공화당 의원들은 유권자 동의없이 여당으로 변절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국민소환운동을 전개합니다.

국민소환권은 국민투표권, 국민발의권과 함께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국민의 선출한 의원이나 관료들이 유권자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 비록 임기 중일지라도 국민이 직접 그 직책에서 소환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헌법에는 이 규정이 없으나, 국민의사와 상식을 무시하고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야합 정치판에 대해 직접 국민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적극 주장하면서 앞으로서의 헌법 개정에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민의를 무시하는 야합 정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대동단결반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이 사회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한 세력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합심하여 선을 이루라”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모든 민주세력과 손을 맞잡고 야합정치를 분쇄하기 위해 기도하며 실천합시다.

기독인이 앞장서서 야합정치 척결하고 민주화 실현 앞당기자.

1990. 3. 1

총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북기독교청년협의회

75. 사건명 : 총북민련 사무실 방화 사건

사건 발생일: 1990년 3월 16일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당시 총북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총북민련)의 주요사업은 4·3 진천·음성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허탁 후보를 지원하는 일이었다. 카톨릭 신자로 알려진 허 후보에 대해 카톨릭농민회가 적극 지원에 나섰다. 기독교농민회, 전국농민운동연합도 민자당의 3당 합당에 대한 심판을 내세워 야당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특히 총북민련은 선거운동의 기획을 총괄하며 백곡저수지 상류지역의 중앙골프장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나섰다. 당시 노태우 정권의 무더기 골프장 사업 승인으로 인해 맹독성 농약살포에 따른 농업용수 오염이 농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시점이었다. 총북민련은 문제의 중앙골프장이 민자당 민태구 후보가 도지사 재임시절 사업승인을 내주었다는 사실을 홍보하며 농민들의 반민자당 여론에 불을 지폈다. 골프장 문제가 선거쟁점으로 불거지자 민후보측에서는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 시점에 총북민련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괴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왜, 사회단체에서 남의 선거에 끼어드느냐, 자꾸 이러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식의 시비내용이었다.

사건 내용: 1990년 3월 16일 밤 청주지역 재야의 지휘본부라고 할 수 있는 충북민련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했다. 이튿날 아침 9시 30분께 충북민련 유수남 정책실장이 청주시 석교동 육거리 시장입구 건물의 3층 사무실 계단을 올라서자, 현관문이 새까맣게 그을린 채 열려있었다.

사무실 내부에는 회의실 등 4개 방문이 모두 열려진 채 캐비닛·책상서랍 안의 내용물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서류·벽보 등 20여점이 불에 탔고 대형거울, 벽시계, 전자타자기도 부서진 채 흩어져 있었다. 민청련 사무실에 있던 사진기와 녹음기는 아예 없어졌다. 재야단체 사무실에 대한 방화사건은 언론에 집중 보도됐고 경찰도 현장감식과 지문 채취 등 초동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용의자 현 명 색출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고 말았다. 특히 방화사건 발생 며칠 만에 또다시 외부인의 침입사건이 벌어져 충북민련 관계자들을 긴장케 했다. 결국 충북민련 방화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 종결됐고 연이어 민정당 선거운동원들이 민주당 박찬종 의원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터지면서 4·3 보권선거는 민주당 허탁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충북지역 5·6공 시국 관련 의혹·조작사건 진상조사자료집』)

관계 인물: 유수남

관계 단체: 충북민련, 충북민청련

관계 자료: 한겨레 신문(1990. 3. 18), 『충북지역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사건 진상 조사 자료집』 pp. 75-76.

관련 사건: 4·3 진천·음성 보궐선거

76. 사건명 : 괴청년 충북대학교 난입 사건

사건 발생일: 1990년 5월 23일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1990년 5월 23일 밤 9시쯤 충북대 총학생회 사무실에 괴한이 쇠파이프 각목 등을 들고 난입, 캐비닛과 유리창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

생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노출된 부정 투표문제와 투표지연에 대한 수습대책, 그리고 이날 당선된 것으로 알려진 기호2번 엄형철(당시 정외과 4년)군의 당선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갑자기 15-6명의 청년들이 침입했다. 괴청년들은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생 10여명이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수명이 다쳤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도 24일 오후 1시 50분쯤 괴청년 5-6명이 법과대 학생회사무실과 사회대 학생회사무실에 난입하여 학생회 간부들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90년 21대 총학생회장 유행렬(37)에 따르면 23일 밤 총학생회 사무실에 난입한 괴한들로 보이는 청년들이 법과대, 사회과학대 학생회 사무실을 수차례 난입하여 ‘빨갱이를 색출해내겠다’며 학생회 간부들을 주먹으로 때려 사회대 학생회 간부들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본 학생들이 몰려들자 타고 온 총복 1거6075호 흰색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는 것이다. 같은 날 10시 40분쯤에는 약학대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의선(당시 약대2년)씨가 농대 앞 잔디밭에서 청년 10여명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 (『충북지역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사건 진상조사자료집』)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충청일보』 1990. 5. 25, 『충북지역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pp. 54-55.

관련 사건: 한민족대학생연합 출범을 통한 운동권 와해공작 의혹(1990. 5. 25), 사건번호 77, pp. 90-91.

77. 사건명 : 한민족대학생연합 출범을 통한 운동권 와해공작 의혹

사건 발생일: 1990년 5월 25일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25일 오후 4시 30분 청주대 민주광장에서 한국대학생연합 제1기 출범식이 전국 70여개 대학 대표 및 학생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동안 청주대 전

대협지지 7백여 명의 학생들은 행사장안을 돌며 ‘한대련 해체’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나 큰 충돌을 빚지는 않았다. 시위 학생들은 한대련 출범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클룸 앞에서 ‘한대련은 전대협을 와해시키려는 현 정권에 의해 조종되는 단체’라며 ‘한대련 해체’를 주장하는 집회를 갖다 오후 6시 40분쯤 한대련 행사 제3부 축하공연 행사장에 들어가 ‘전대협가’ 등을 부르며 시위를 벌였다. 이런 와중에서 한대련 행사가 끝나고 시위학생들은 1천여 명으로 늘어나 교문 밖으로 진출,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2시간여 동안 화염병 등을 던지며 극렬시위를 벌였다(『충청일보 1990. 5. 26)

관계 인물:

관계 단체: 한국대학생연합

관계 자료: 『충청일보』 1990. 5. 26, 『충북지역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사건 진상 조사 자료집』 pp. 49-53.

관련 사건: 괴청년 충북대학교 난입 사건(1990. 5. 23), 사건번호 76, pp. 89-90

78. 사건명 : 청주지역 노동운동 탄압규탄대회

사건 발생일: 1990. 6. 8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노동조합의 결성과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여 노동자들을 해고시킨 AMK, 현대정밀, 한국도자기, 코리언 마이트 등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충북대학교 우리마당에서 개최됨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국민연합 충북본부

관계 자료: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80.

《<성명서>》

- 청주공단에 뺏치는 권력과 자본의 음모 -

지금, 우리 청주공단 안에서는 건전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또 용납될 수 없는 만행과 음모가 독재정권과 탐욕스러운 자본가 및 그 하수인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40여일이 넘는 A.M.K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임금인상 요구와 노조 민주화의 염원을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구타와 흑색선전을 해대는가 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4명의 노동자를 부당해고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2명을 구속시켰습니다. 또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건설한 한국도자기 노동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납치, 감금하는가 하면 8명을 부당 해고시키고 10명을 경찰서로 연행하였으나 전혀 꼬투리를 잡지 못하자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구타·폭력·납치·감금 등 자본가와 관리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명백한 불법범죄 행위에 대해서 방관하던 경찰이 아무 죄도 없는 우리 노동자를 연행하고 구속시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건설과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코리언 마이트와 지난 1월 노조를 결성하고 5월에 임금협상까지 마친 상태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노조간부 2명을 해고시킨 현대정밀.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난 자본가들의 음모를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연행·해고·납치...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 이 야만적 탄압은 바로 민주적인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를 파괴함으로써 우리 노동자들을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예를 만들기 위한 음모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밉코트를 입고, 수억 원짜리 여름별장을 사고, 수천억 원의 땅 투기를 하기 위해 저들은 우리에게 노예가 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노예로 살 것인가! 인간으로 살 것인가!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저들의 탄압으로부터 지켜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힘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뜨거운 열망과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입니다. 그 힘은 또한 가장 위대합니다. 그러기에 자본가들은 독재 권력은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분열 책동에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노동자 단결하여 노동운동 탄압 분쇄하자'

1990. 6. 8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와 민중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민연합 충북본부

관련 사건:

79. 사건명 : 총북민족민주운동연합, '7·20 민족대교류 선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 발표

사건 발생일: 1990. 7. 20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노태우 정권의 7·20 민족대교류 발표

사건 내용: 총북민족민주운동연합이 1990년 7월 20일, 노태우 정권의 '7·20 민족대교류 선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총북민족민주운동연합

관계 자료: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218.

<성명서>

- 7·20 민족대교류 선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노태우의 7·20 민족대교류 발표에 대하여 온 국민은 당혹과 충격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먼저 우리는 통일운동의 주체인 국민이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배제되어 피동적으로 당혹감을 느껴야 하는 현상이 올바른 것인지를 반문한다. 이번 발표는 정부주도의 일방적이고도 음모적인 충격요법으로서, 조국통일은 민중의 의사수렴과 참여 속에 전개되어야 한다는 대명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금번 발표가 노정권의 위기의 탈출구로 이용됨을 단호히 배격한다!

집권 민자당은 출범 이래 민생문제의 외면과 민주세력 탄압, 민주개혁 후퇴, 내각제 개헌음모 등 실정을 거듭해 왔으며, 급기야 임시국회에서는 다수당으로서의 일방독주로 군조직법, 방송법, 각종 악법을 양산시켰다. 이러한 작태에 대한 민중의 저항은

필연적이었고, 노태우 정권은 그 때마다 북방외교, 통일정책을 이용하여 위기를 모면해 왔다. 전 국민적인 5월 민자당 해체투쟁 직후의 한소정상회담, 7·18 김대중-이기택 총재회담 당일의 고르바초프 친서공개를 보라. 또한 오늘은 야권통합을 위한 평민-민주-통추위 3자회담이 예정되어 있던 시기였다. 민주질서를 스스로 훼손하고 민생을 억압하며, 일당독재로서의 파행을 일삼는 현정권이 과연 민족문제를 운위할 자격이 있는가.

2. 노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남북교류에 있어서 획기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금번 발표에서 그 법적 장치로서의 국가보안법 철폐가 제외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성국”인 북한의 동포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잠입탈출, 회합통신죄”에 해당되는 국가보안법과 오늘의 전면개방 조치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민중의 자주적 통일운동과 민주화 탄압의 도구인 국가보안법은 지체없이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3. 통일의 대전제로서 평화군축조치가 실행되어야 한다!

전쟁을 잠시 쉬는 의미로서의 휴전협정이 살아 있고, 핵무기와 엄청난 군사력으로 긴장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남북교류란 불완전하고, 통일의 여정에서 지극히 제한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껏 노정권이 군사문제 해결을 계속 외면해왔고, 금번 발표에서도 제외되었다는 것은 발표 동기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사이다.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남북한 상호감군과 주한미군의 철수 및 핵무기철거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모든 통일인사에 대한 석방조치가 즉각 단행되어야 한다!

노태우정권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한 통일인사를 중형으로 가둬놓고, 똑같은 입으로 오늘에는 남북전면개방을 주장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오늘의 발표가 진실한 것이라면, 그 후속조치로서 남북교류와 통일운동을 위해 투쟁하다 감옥에 갇혀있는 문익환목사, 임수경양, 문규현신부 등 모든 통일인사에 대한 석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7·20 민족대교류 선포는 그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배제되었고, 온 국민의 반민자당 의식이 총천해 있는 시점에서 이를 희석화하려는 배경을 담고 있으며, 남북교류의 기본전제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평화군축 조치가 제외되어 있고, 사후조치로서의 통일인사 석방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교류 자체에 대한 진전은 될 수 있어도 주국통일의 진솔한 의지가 담겨있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은 명백히 아님을 밝힌다. 남북교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통일을 위한 것일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금번의 조치가 오히려 민주화탄압과 통일의 장

애로 작용할 것에 대한 경계 속에서 예의주시할 것이며, 위 주장의 실현과 관철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통일염원 46. 7. 20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80. 사건명 : 옥산 휴게소, 노조의 단체행동 빌미로 위원장 해고

사건 발생일: 1990. 9. 7

관련사건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고속도로시설공단(사장 문인갑)은 공단산하 옥산휴게소(소장 박찬홍) 노조(위원장 라영화)의 단체행동을 이유로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하였다. 옥산휴게소 노동자들은 1990년 3월 16일 노조를 결성하고 회사측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8월 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이에 회사측은 단체교섭을 옥산휴게소 소장에게 위임, 10일 노·사 대표의 상견례가 이루어져 8월 17일 단체교섭을 하기로 하고 준법투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단체행동을 이유로 14일 청주시 서부경찰서에 연행돼 3일간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공단측은 8월 21일자로 김철상 충청지검장과 박찬홍 옥산휴게소 소장을 지휘감독 소홀로 각각 경고·견책하고, 라영희 노조위원장을 비롯 김은미, 신선덕씨 등 3명을 해임하는 등 노조원 6명을 사규위반을 이유로 징계조치하였다.

라위원장 등 징계된 노조원 6명은 회사측의 징계를 인사권 남용과 노조탄압행위라고 규정,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출하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 등 복직투쟁을 계속 했다. 노조측은 8월 27일 총무를 위원장대행으로 내세워 회사측과 교섭을 했으나 진전이 없어 끝났으며 ‘해고자 전원복직과 징계노동자 원상회복’, ‘회사측은 단체협약에 성실히 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고속도로시설공단 산하 옥산휴게소 노동조합

관계 자료: 『노동자신문』 (1990. 9. 7), 진정서

관련 사건:

81. 사건명 : 범민련 탄압 및 통일인사 구속 규탄농성

사건 발생일: 1991. 1. 28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1991년 1월 24일 공안당국에 의한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 이창복 상임의장, 김희택 정책실장의 구속과 김희선 집행위원장 대행, 권형택 국장의 수배조치에 대한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각계 각층의 항의 성명과 전민련의 규탄 농성이 진행됨.

사건 내용: 총북민족민주운동연합(총북민련) 회원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준비위원 등 30여명이 1월 28일 오후 5시부터 총북민련 사무실에서 범민련 탄압 및 통일인사 구속 규탄 철야농성에 돌입함.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총북민족민주운동연합,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준비위원회

관계 자료: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219.

<성명서>

- 범민련 탄압 및 구속 규탄 철야농성을 단행하며 -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총북민족민주운동연합은 지난 1월 24일의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간부들에 대한 전격적인 구속 수배 조치에 경악하며, 그에 대한 즉각적인 규탄 농성을 단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미국과 노정권의 사주를 받은 검찰, 경찰은 지난 1월 24일,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 이창복 의장과 김희택 정책실장을 구속하고, 역시 핵심지도부인 김희선 집행위원장 대행과 권형택 국장을 수배하였다. 이들은 전민련의 지도인사임과 동시에 구속되기 하루전날 결성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남한본부 준비위의 간부들이란 점에서 우리는 이들의 구속 수배를 범민련과 통일운동에 대한 폭거로 규정한다. 정권의 하수인들은 구속 사유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 통일운동 기구인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작년 11월 베를린 범민련 결성 합의 3자 회담을 국가보안법 상의 회합통신죄로 뒤집어 씌우는 반통일적 작태를 보였다. 그렇다면, 정주영, 박철언의 방북을 보장하는 국가보안법 이외의 상위법이 존재한단 말인가.

금번의 구속 수배조치는 또한 지자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과 존립기반을 다지고, 다시금 내각제 개헌을 시도하여 장기집권 음모를 꿈꾸고 있는 미국과 현 정권이 그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민주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기 위한 서곡임을 우리는 직시한다. 불법선거 단속을 빌미로 자행되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제약, 한자리수 임금인상 방침, UR협상에 굴복하여 농민생존권을 압살하는 등 현 정권에 의한 공안정국의 연속 음모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현 정권은 민간 차원의 자주적 통일운동을 보장 지원하라.

현정권은 반통일적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의 어떠한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이기에 성과없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증명되듯 정부차원의 통일정책은 진전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의 자발적인 통일염원에서 추진되는 자주적 교류운동과 남북 해외동포의 민중이 통일을 앞당기고자 추진하는 범민련의 결성은 조국통일의 전도를 밝게 하는 역사적 소명이요, 현 정권이 이를 저지할 아무런 권리도, 자격도 없는 것이다. 동시에 민중의 통일운동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현 정권은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대신에 지자체 관련 법규를 민주적으로 개정하고 내각제개헌 포기 공약을 국민들에게 선언하며, 임금통제정책 및 굴욕적인 UR협상과 수입개방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3. 우리는 금번의 구속, 수배 사태를 계기로 통일운동에 대한 순교자적 소명으로 더욱 힘차게 전지할 것을 선언한다. 민중이 주체가 되는 자주교류, 평화군축 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할 것이며, 이의 조직적 결정체인 범민련의 사수와 건설, 강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해서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이를 가로막는 미-노정권의 어떠한 방해책동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중의 힘으로 분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감행할 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통일열사의 정기를 이어받아 철여농성을 시작하며 이상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는 바이다.

통일염원 47년 1월 28일
총북민족민주운동연합

82. 사건명 : AMK 노동조합원 부당해고 철회투쟁

사건 발생일: 1991. 4. 26 ~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AMK 노동자들이 어용 집행부의 임금교섭 결과에 반대하여 기존 위원장 불신임을 의결하고 민주노조 결성. 그러나 회사는 새로운 노동조합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4명의 노조원들을 해고시킴. 그 중 2명은 경찰에 구속 됨. 이에 노동조합은 50여 일이 넘게 부당해고·구속 철회 투쟁을 전개함.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성명서

《<성명서>》

- 노동자·학생·시민 총단결로 민주노조 사수하자 -

그간 50여 일 동안 저희 AMK 사태를 지켜보아 주시고 격려해주신 청주시민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각 방송사 및 신문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청주공단 내에서도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저희 AMK 사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만큼 저희 조합원 및 근로자들은 우리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임금교섭을 함에 있어 실무진도 모르고 교섭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내걸은 7300원에 못 미치는 7000원에 김종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아침저녁으로 집회를 시작했고 집회를 시작한 지 이틀 뒤인

4월 28일 관리자들의 폭행의 의해 크고 작은 부상자가 생김으로써 저희들은 더욱 단단히 뭉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5월 21일 총회에서 위원장 불신임을 걸어 119대 8이라는 큰 차이로 가결시킴으로써 AMK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의 지속적인 탄압과 회유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노동조합에 출근한지 4일째 되던 지난 5월 24일 회사 측에서는 상벌위원회라는 것을 열어 무단집회시위주동 불법유인물 배포 등 8개 항목을 들어 4명을 해고시켰습니다. 저희를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없기에 아침마다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조합사무실까지 가야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29일 위원장 선거를 거쳐 우리 손으로 뽑은 위원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아침마다 출근하는 저희들에게 지속적인 탄압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6월 1일 출근하는 저희 해고자들 2명을 경찰이 신분증도 보이지 않고 강제로 끌고가 이틀 위인 6월 3일 터무니없는 구속 사유로 2명을 구속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분노한 사실은 고소인이 같은 현장에서 일해 왔던 관리자들과 조합원을 대표하고 조합원을 보호해줘야 했을 집행부 어용사무국장 이종구 씨, 전 김종부 위원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청주시민 노동자 여러분! 억울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싸워 온 저희들에게 해고가 웬 말이며 인간답게 살기위한 몸부림이 왜 구속이어야 합니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일해 왔습니다. 민주적으로 싸워온 저희들인데 회사나 시청 노동부에서는 임시총회 및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

83. 사건명 : 불량 종묘로 인한 폐농에 대한 보상 요구 투쟁

사건 발생일: 1991. 5. 4

관련사건 일지 :

사건 배경: 해마다 종자사골 인한 농민들의 피해건수가 늘고 있으나 실제로 배상을 받는 경우는 20~40%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 집계에 따르면 채소 종자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요청한 농민수가 89년 2백 44명(37건)에서 90년 7백 45명(22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으나 원인규명이 제대로 안돼 피해구제처리는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보원에 접수된 종자피해사례를 작목별로 보면 지난 89년의 경우 무가 전체의 59.5%인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참외, 수박, 고추, 배추로 각

각 3건씩 접수됐으며 90년도에는 고추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5건), 딸기(4건)의 순이었다. 또 이같은 채소종자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집단화, 광역화되고 있어 집단소비자피해가 89년 5건 2백 12명에서 90년 14건 7백 37명으로 증가했다.

농민피해유형은 89년 무의 추대발생이 43.2%(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형과(근) 발생피해 21.8%(8건), 기타 석과(씨가 형성되지 않은 열매) 근형성 불량 등의 순이었고 90년도에는 착과불량이 54.5%(12건), 기형과(근) 발생이 22.7%(5건), 추대발생(3건)의 순으로 기상여건에 따라 피해양상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 같은 피해구제 요청건수의 처리결과를 보면 89년에는 피해원인규명이 안되거나 기상이변이 주요원인 이어서 ▲상담·기타로 처리된 것이 전체의 54%인 20건 ▲배상을 해준 경우가 19%인 7건 ▲과실이 소비자에게 있거나 증거보존이 되어있지 않아 처리 불능인 경우가 6건 등이었다. 90년의 경우 배상된 건수는 41%인 6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했거나 당사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27.2%인 6건, 취하·중지 4건 등이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종자관련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묘에 대한 연구·조사·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립해야할 것”으로 지적했다 (『농수산신문』 1991. 6. 26)

사건 내용: 청주시 및 청원군 농민들은 대기업에서 선택해 놓은 흥농 종묘사에서 알타리 무씨를 구입하여 적기에 파종을 하여 농사를 지었으나 추대가 발생하여 꽃이 피자 모두 농사를 폐농하고 1차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흥농에서는 농민이 기후를 잘 맞추지 않고 농사를 지었기에 폐농을 하였으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피해 농민들은 구체적인 파종시기를 들어 이러한 공급자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완식씨는 11월 말과 2월 14일에, 우진원씨는 2월 14일에, 최울락씨는 2월 16일에, 조한일씨는 11월 29일과 11월 30일에, 신영길씨는 12월 25일에, 흥영희씨는 3월 중순에 전년과 다름없이 파종을 하였음에도 모든 밭에서 추대가 발생하여 폐농한 것이라는 것이다.

농촌 진흥원에서도조차 씨를 가져가서도 씨를 시험하지도 않은 채 온도를 맞추지 못해 폐농했다는 구태의연한 답변만 내놓았다. 피해 농민 6인(민완식, 우진원, 최울락, 조한일, 신영길, 흥영희)씨는 불량종묘를 공급한 흥농종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농수산신문』 1991. 6. 26

관련 사건:

84. 사건명 : 청주대 이적단체 구성조작 음모 사건

사건 발생일: 1991. 4. 16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1991년 4월 16일 입대한 청주대 학생 송재봉(86학번 정치외교학과 졸)군이 5월 22일 뚜렷한 이유도 없이 기무사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면서 가택수사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생하고, 5월31일까지 가족의 면회가 불허되는 등 기관에 의한 학생 운동탄압 의도가 우려되던 중, 6월 11일 새벽 5시 30분부터 청주대 재학생, 졸업생 등 12명에 대한 파상적 연행, 구금이 자행되었다. 이 사건은 국군기무사의 개입이 보여지고, 도경 대공분실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정황인 바, 연행자들은 철저히 분리된 채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족의 면회조차 금지되는 상태에서 연행자들의 거취가 묘연하여 청주서와 국군기무사, 도경 대공분실에 분산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부언론에 의하면 검찰과 경찰은 연행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사건조작을 위한 각본을 짜 놓고 있었던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 내용: <청주대 자주대오(NL 주사파 지하조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사건> 주사파를 신봉하는 자주대오가 주체사상이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지도사상이라는 이론으로 무장하고 결성되어 ‘자주언론’을 만들어 의식화를 수행하고, ‘민주전선’이라는 이적 표현물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구성원들은 자주대오가 한민전 이론으로 조직되었음을 알고도 이 조직에 가입하였고, 생활규칙·조직운영·가입자격 규정 등의 체계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또한, 언론이 파악하고 있는 검찰, 경찰의 각본에 의하면 청주대 자주대오는 총책-중앙위원회-연락사무국·조직국·교육국-총학생회-졸업생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체계 내에 20여명의 조직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관계 인물:

관계 단체: 충북지구대학생대표자협의회, 청주대 총학생회,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충북 인권선교협의회

관계 자료: 청주대 조직침탈 사건 제2차 경위보고서, 상기 4단체 보도자료, 『충북지역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pp. 68-72.

상기 4단체(충북지구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청주대 총학생회,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충북인권선교협의회)는 이상과 같은 사태에 접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천명하였다.

1) 청주대생에 대한 연행 수사는 치밀하게 짜여진 사전 각본에 의한 것으로, 전면 날조임을 선언한다. 연행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검찰·경찰의 사전각본이 짜여졌음은 이 사건이 날조극임을 반증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이다.

2) 연행자체의 원인이 무효하기 때문에 연행과 구금 역사 불법이며, 가족의 면회조차 금지되는 일련의 정황은 명백한 위법적 인원탄압이라 단정한다.

3) 이번 사건은 국군기무사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또다시 폭압적 공안통치의 수단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매우 짙다.

4) 검·경의 조직사건 조작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럼에도 공안기관이 조작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면 그것을 전면 부정할 것이다.

5)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강경대 열사 살인 사건 이후 현 정권이 위기에 닥치자 민주운동을 탄압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책동이라 규정한다.

3. 상기 4단체는 이 사건이 원인무효임을 선언하며, 연행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를 개탄하면서 사건의 전면 백지화와 연행자의 즉각 석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강구기로 하였다.

4. 우리는 검·경의 조직사건 조작음모를 재차 강력히 규탄하며, 그럼에도 공안기관이 조작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면 그것을 전면 부정할 것이다. 또한 그 근거가 연행자들에 대한 고문과 폭행을 수단으로 도출된 어쩔 수 없는 허위진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연행자들의 평소의 애국적 삶과 양심을 신뢰할 것이다.

5. 우리는 청주대 학생운동에 가해지고 있는 일련의 탄압상황이 강경대 열사 살인 사건이후 현 정권이 위기에 닥치자 제반 이데올로기 공세와 폭압기구를 이용하여 민주운동을 탄압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책동이라 판단하며, 특히 최근 조작 발표된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사건”이나 전대협에 대한 “정책위 수사”와 맥을 같이하는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단정한다.

우리는 지역 및 전국차원의 민주세력과 광범하게 연대하여 이번 사건의 본질을 끝까지 파헤쳐 애국적인 학생운동을 보위하고 반인륜적 조작사건을 꺾는 노태우정권

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여 공안통치를 종식하기 위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991년 6월

12일

충북지구대학생대표자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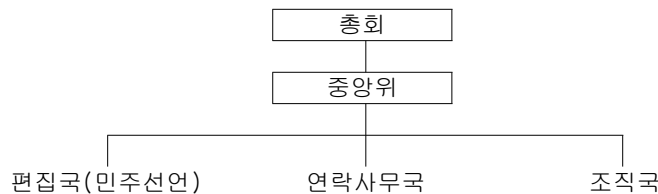
의회

청주대학교총학생회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충북인권선교협의회

[경찰 수사 내용-개인별 진술 종합]

1986년 3월 중순경 이재승(청주대 신문방송학과 85)이 백상진, 원종문 포섭. 『민중과 지식인』으로 학습시작. 이재승의 우암동 자취방에서 『철학에세이』 등 학습 / 1986년 4월부터 집회시작 / 1987년 2월 중순부터 모임 / 1987년 12월 하순 청주대 사회대 5층 강의실에서 조직 결성. 강철(산업공 86), 김혜선(사복 86), 권영환(지개 86), 원종문, 정순배, 백상진, 유정원이 주도하여 ML학습 시작 / 1988년 1월부터 송재봉 참여. 유정원이 주도하여 주사학습 / 1988년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대 강의실에서 학습. 정준태 참여 / 1988년 2월 하순 사회대 4층 강의실에서 이재승, 유정원, 이시형, 추병국, 정순배, 정준태, 원종문, 권영환, 김혜선, 김태영, 유기영(일문 85), 김병기(신방 85) 등 NL조직원 전체모임(총학생회 장악을 논의. 백상진을 후보로 결정. 선거자금으로 85학번 2만원, 86학번 1만원 모으자 논의) / 1988년 6월부터 정준태가 주재하여 주사를 지도이론으로 공부(장소:참교육회 사무실) / 1988년 7월 구성완료. 자주언론, 새세대, 자주민주통일 제작. 한민전 구국의 소리 방송 녹취-교재로 사용 / 1991년 5월 이후 조선학생위원장 최현덕이 김종석에게 보냈던 문건을 소지, 이를 박선영에게 줌(송재봉 주도, 주사학습. 한금남, 이경년, 홍미선, 이승재, 이윤규, 전은숙, 홍지선)

<1988년 NL조직 구성>



*생활규칙 - 1.학습철저 2.비판의 생활화 3.조직비밀사수 4.피검거시 흔적 남기라

5.캠퍼스 내에서 조직원끼리 모른 채 하라 6.미행조심 7.조직원과 약속이행 철저 8. 강의 성실 9.과음삼가 10.겸손, 소박, 성실, 불의에 용감

***규약**

1. 명칭 : 자주대오라 한다.
2. 목적 : 미제와 군부독재 타도 - 민주자주정부수립
3. 자격 : 청대생으로서 투쟁각오, 결의가 되어있고 조직에 복종할 사람
4. 임무 : 정조직원-조직사업수행
준조직원-1, 2학년 학생. 적극 참여
5. 운영 : 민주적 중앙집권제
6. 징계 :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 시 자비서 제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 시 제명.
7. 회비 : 3학년-3,000원, 4학년-5,000원

***학습커리큘럼**

1. 우리사상학습 : 1)주사의 구성체계 파악 『민족자주화운동론』 / 2)주사 창시의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원리, 인간개조론
2. 이론교양 : 1)조통연설모음집 / 2)영도예술 / 3)통전론 : 『코민테른과 세계혁명』, 『주체의 민족해방운동』, 『통혁당』
3. 조직·정책 교양 : 1)당 창건사 2)인생관, 수령관 3)주체철학 4)노급의 영수

관련사건 :

85. 사건명 : 한국야금 92년 임금투쟁

사건 발생일: 1992. 3. 2 ~ 5. 24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3.2~14 교섭요구안에 대한 분임토의 및 선거구별 간담회 / 3.14~20 상집회의 분임토의 및 임시총회 / 3.20~21 간부수련회 / 23일~ 조합원 교육 / 4.1 1차교섭-상견례-회사측 거부. 임금인상 요구안 확정(74,792원) / 4.9 교육부장 이두영, 울산 영업

소로 인사발령. 제1차 확대간부회의 개최(1. 회사측의 구도(의도) 파악 후 대응모색. 2.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의 시작으로 즉각적인 단체행동 등을 모색.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연기) / 4.10 회사측 사원 “한마음 교육” 1박2일(약 50명 참가) / 4.11 점심시간-인사발령 철회 조합원 대회 / 4.13 인사발령건으로 2시 교섭요구. 회사측 무응답. 라인별 간담회 / 4.17 회사측 16,682원 제시 / 4.19 단체협상 등 쟁의발생 신고 / 5.11 부분파업 돌입(4시간 작업, 4시간 파업, 야근자 주간출근)

/ 5.13 전면파업 돌입 / 5.18 회사측 중식, 통근차량 운행중단 / 5.19 전국금속연맹 노사대책부장 방문. 제1차 국민대회에 조합원 30여명 참여 - 대시민 선전물 배포(3500분) / 5.20 공단입구 대시민 선전물 배포. 조합원 40여명 참여(3000부). 회사측 태도 누그러짐. 단체협약합의(근무시간 회계감사 인정. 근무시간내에 단체교섭시간 할애. 근무시간내 총회인정. 토요일 오전 근무 완전실시(5개항 미타결). 임금협상 : 회사측 임금인상안 24,000원 제시) / 5.22 회사측 태도급건(‘시간없다’며 단호한 태도 표명). 10시 교섭결렬. 오후 6시 회사측 직장폐쇄 신고. 노동부, 노총, 회사회의 - 23, 24일 교섭결과를 보며 직장폐쇄 유보 / 5.23 새벽에 규찰대에 의해 직장폐쇄신고에 대한 중부매일 신문기자 확인. 위원장 신문사로 확인 전화(6시 비상연락 - 6시 30분 전조합원 출근. 7시 30분 전원출근 대책논의. 10시 교섭 - 단체협약 완전타결. 위원장 공장장 단독교섭(조합원 인사이동에 대하여 당사자와 합의. 조합간부 인사이동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 / 5.24 10시부터 교섭진행. 임금협상-5만500원(10.6%) 잠정합의 / 5.25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75% 찬성). 노사합의로 타결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관련 사건:

86. 사건명 : 고 강경대 열사 1주기 추도식 및 5월 투쟁 선포식

사건 발생일: 1992. 4. 25.

관련사건 일자:

사건 배경:

사건 내용: 민주주의 민족통일 총북연합 주최로 '고 강경대 열사 1주기 추도식 및 5월 투쟁 선포식'이 당일 오후 3시 청주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열림.

관계 인물:

관계 단체: 민주주의민족통일총북연합

관계 자료: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70.

<성명서>

- 14대 국회에 대한 우리의 요구 -

1. 이번 총선에서 명백히 드러난 공작정치 '안기부' '기무사' 등 폭압기구는 즉각 해체되어야 하고 군부정투표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2. 민자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추곡수매안' '제주도 특별법' 등은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교육악법'과 같이 정권안보를 위한 '반민주악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3. 민자당이 "관권선거"를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연기한 '자치단체장 선거'는 대통령 선거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4. 전노협, 전교조, 업종연맹의 합법화 및 민주적인 교육대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총액임금제 철폐 및 무차별적인 강제철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5. "남북합의서"의 기본 취지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통일인사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6. 소비자물가가 5%이하로 안정될 때까지 공공요금을 동결시키고 통화량을 억제하여 물가를 잡아야 하며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을 즉각 실시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을 육성 민족자립경제의 기틀을 다져야 합니다.

1990. 4. 20

새날을 여는 충북도민의 힘

87. 사건명 : 평곡산업 주식회사 파업

사건 발생일: 1992. 6. 23.

관련사건일지 :

사건 배경: 평곡산업은 근 20여 년간 호황기를 맞이하여 많은 흑자를 본 회사로써 이름이 나있는 굴지의 회사이다. 특히 일본에서 각광을 받는 회사이다. 이 회사의 제품은 석제로써 국내에서 최고의 질을 가진 석제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이름이 나있는 회사이다.

그간 이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6회나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성공을 못하고 1991년 10월 1일자로 노조 설립신고를 하고 노조가 민주적으로 발전을 해오면서 민주적 방법으로 단체협상도 26차나 거치면서 노사가 평화적으로 타협을 했다. 그 후 임금교섭과정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건 내용: 평곡산업 사장은 염병두씨이고 회장은 차주원씨이다. 이들은 모두가 민자당에 중요 당직자들로써 지역에서 유지급에 속하는 거물들이다. 차주원씨는 도의원이고 모든 중요직은 많이 맡으며 지역 유지로써 그간 존경도 받아온 사람이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권오산씨로 노조를 결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동자를 조직하고 150명이라는 조합원을 만들어 단결된 모습으로 단체협약도 26차나 지연되면서도 끈질기게 흐트러지지 않고 단결을 하면서 임금교섭에 임했다. 노조의 교섭 제안내용은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하여 10%인상과 상여금 400%를 요구했고, 조합원 1인당 자녀에 대한 장학금 50%를 지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5차 교섭에서 잠정적 합의를 보았으나 10차에 이르러 회사측은 5.5%의 임금인상안과 이전에 지급되던 상여금보다(노조측 주장-550%, 회사측 주장-650%) 낮은 400%지급에 대해 단지 명문화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노조가 회사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소사장제 형태로 기업을 경영하자라는 안을 내놓으면서 노조의 원칙적인 교섭조건은 들어줄 수 없다고 함에 따라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쟁의 신고를 하게 되었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기다렸으나 이도 이루어지지 않아 6월 23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파업 45일 만에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하게 되고 노조에서는

모든 요구사항을 철회하면서 회사의 정상조업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사측에서는 급기야 7월 10일자로 조합원 전원에게 8월 9일까지 해고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관련 사건:

IV. 단체항목 기초조사

<1960년대>

1. 단체명 : 청주 여자기독교청년회

약칭: 청주 YWCA

소속 단체:

존속기간: 1965년 7월 - 현재

주요활동지역: 청주

법적 상태: 합법

조직체계: 임원(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총무) 간사, 이상, 고문

강령:

결성과정:

1960년대 한국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었다. 수출위주의 산업이 성장하면서 도시화와 공업화가 빠르게 추진되자, 경제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불신풍조와 부정적 현상도 심화되어 갔다. 우리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의식개혁운동과 도시화로 인한 지역운동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태도와 기술을 가르치는 사회교육과 의식개혁을 실천하여 갈 시민단체는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지역운동의 역량은 더욱 미미한 형편이었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적 실천정신으로 사회봉사와 의식개혁운동을 펼쳐가는 여성들의 조직인 YWCA가 청주지역에서도 그 깃발을 올리게 되었다.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나라의 질서를 우리사회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YWCA를 창립한 여성들은 소외된 이웃과 여성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65년 7월 11일 오후 3시 청주 YWCA(당시 청주시 문화동 소재) 강당에서 청주 YWCA 창립총회가 열렸다.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며 온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됨을 인정하게 하고 구세주이신 예수의 교훈을 자기생활에 실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여성운동 기관이 청주지역에 그 역사의 장을 열게 된다. (‘청주 YWCA 30년의 발자취’, pp. 34-35, 182-189)

주요활동:

1965. 7. 11: 청주여자기독교청년회(YWCA) 창립총회

8. 27-28: 여성교양사상강연회(강사: 고헌경)

9. 28: 직장여성클럽조직

10. 4-9: 가정간호법 무료강습회

- 1966. 3. 20: 제2회 정치총회
- 1967. 7. 23: 제3회 정치총회
- 1971. 4. 5-17: YWCA 대집회(강사: 정수길)
- 1972. 3. 4: 파출부사업시작, 미혼여성클럽조직
- 1974. 4. 10: 소비자보호위원회발기대회(고발센터 설치)
- 1975. 7. 3: 가족법 개정 서명운동
- 1977. 4. 1: 여성문제 상담실 개설, 근로여성교육(10회)
- 1978. 4.7: 골목유치원개원(원장: 진안순)
- 1982. 5: 소비자보호캠페인
- 1983. 5: 소비자시민교육
- 1985. 5: 소비자교육 제1회 도배공 훈련생 모집(20명)
- 1987. 11. 25: 아기놀이방 사업 신설
- 1989. 6. 27: 인신매매대책 공청회
- 1991. 1: 바른선거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가입
 - 4: 환경문제시민단체 협의회 구성
- 1992. 5. 1: 교육세 및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토론회

이외 충북 YWCA는 가족법 개정운동 600여명 서명(1974), 가족법개정 강연회(1975), 충북연초공장 박석화 양 복직투쟁을 지원하였고, 86년 공영방송 KBS의 공정보도를 촉구하는 시청료 거부운동, 가정생활 상담실 운영 등 시민생활의 영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생활개혁운동 전개하였다.

주요활동가: 최현자, 이계윤, 신영희
 관계 단체: 청주 YMCA, 충북 여성민우회
 관계 자료: 『청주 YWCA 30년의 발자취』

<1970년대>

2. 단체명 :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약칭: 청주산선

소속 단체:

존속기간: 1972년 4월 - 현재

주요 활동 지역: 충청북도

법적 상태: 합법

조직체계: 총회, 재직회

강령 :

- 근로자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수행
-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
- 교회와 산업사회간에 교량적 역할을 하는 일
-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노사간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하는 일
- 이상의 사업을 목적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일

결성과정: 1972년 4월 대한 예수교장로회 충북노회 산업선교위원회 구성(실무자: 정진동 목사)

주요활동 : 노동자 근로조건 상담사업, 노동자교육사업, 민중생존권투쟁 지원사업, 자료집 발간사업, 조직사업, 연대사업, 치과진료사업, 어린이집운영

197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북노회 산업선교위원회 구성

1974

- 2.23 시청 청소부 근로조건 개선 및 임금인상 투쟁지원
- 4.16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북노회 산업선교위원회 해체
- 5.12 산업선교위원회 노동자(청소부중심) 조직
- 7.8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북노회 50회 임시노회에서 산업선교회 부활 결의
- 9. 1. 충북 용강 지구 농지공사장 노동자 체불 노임 청구 진정
- 9.5 서원실업 체불임금 해결
- 12.청주연초제조창 박석화양 부당해고 철회 및 산재보상 투쟁

1975

- 2.10 청주시 내덕동 연탄공해 대책운동

3. ~ 1975. 11. 청주신흥제분 노동개선 요구 투쟁

1976

- 7. 청원군 최영길씨 몰수된 토지 반환 청구 투쟁 지원
- 7. 산련연합회 퇴직금 해결
- 10. 원예조합퇴직금 해결
- 10.24 청주주물공장 퇴직금 해결
- 12.7 신흥농장 퇴직금
- 12.12 만장광산 퇴직금 과 수당 지급 지원

1977

- 4. 1. 조순형 전도사 실무자 채용
- 4.24. 서울 기독교교회관에서 4.19 기념집회에서 정진동 목사 성명서 낭독사건으로 장녀 결혼식 직후 연행
- 5.14.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정진동 목사 제명
(회가가 장송곡만 부른다는 내용의 성명서 문제로)
- 8.28 정진동 목사 명예훼손죄 (신흥제분 노동자 권익옹호내용의 성명서)고발당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음
- 7. 18 ~ 1977. 4청주신흥제분주식회사 노조 분회장 이완우 부당해고 항소 및 복직요구
- 7. 청주보광금속 퇴직금 지급 해결
- 8.26 대전 성냥공장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해결
- 11.8-11, 조지송, 백형규, 조화순 초청 강연회
- 12.10, 백기완 선생 초청 인권주간 기념 강연 및 집회
- 9-12 근로기준법 교육 4회

1978

- 1-6 노동자 농민교육 6회
- 1.25 대전경동금속 체불임금 지원 지급.
- 3.17 노동절 기념집회(노동자·농민)후 단식투쟁, 문동환 선생 초청 특별집회
- 4.1 신흥제분 하도급 노동자 퇴직금 해결 (대법원에서 패소된 사건임)
- 4.10 조광피혁 노동자 복직
- 4.17 단식투쟁중인 청주노동자, 농민을 위해 함석헌, 성내운, 김광혁, 백기완, 인명진 목사 초청집회
- 6.17 문익환 목사 초청 기도회
- 7.8 정진동 목사 장남 정법영군 의문의 죽음
- 7.12 단식투쟁으로 시작되었던 노동자 농민문제 115일 동안 투쟁 중단
- 7.12 농민 노동자교육 경제문제에 대한 교육 6회

- 9.19 군 입대 중 정신병을 얻은 사병에 대한 원호혜택 수급 투쟁 지원
- 11. 23삼화물산 노동자 집단해고 투쟁지원
- 6-11월 제천주물공장 퇴직금 수급투쟁 지원
- 10.28-12.1 옥천군 옥천읍 동이갈포 새마을 공장 누명 사건 해결
- 10.6 청주방송 노동자 교통사고 보상 해결

1979

- 1.25 대전 신성금속 부당해고 복직투쟁 지원
- 2. 주민돕기 : 내덕동 연구수씨 치료비 모금운동
- 3.16 타일상사 퇴직금 지급 지원
- 4.9 증평고등학교 직원 퇴직금 지급 투쟁 지원
- 4. 경기도 용인 제일판지 산재보상 지원
- 5.2 종묘사 불량 종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투쟁 지원
- 6.17 대성여객 운전사 15명 해고 -8.16 전원복직 휴업수당 지급.
- 7. 삼화물산 부당해고 복직지원
- 7.3 대한통운 퇴직금 지급 투쟁지원
- 7. 농민 수몰지구 피해대책 강구 요구
- 9.9 독립기공 산재보상 10월 해결됨.
- 8.7 대농 노동자 퇴직금, 체불임금 해결
- 9.17 청주시청 청소부 노동자 퇴직금 지급 지원 해결
- 10.9 오성삼유 산재보상과 치료
- 11.27 YWCA위장결혼 사건으로 정진동목사 조순형전도사 포고령위반 구속
- 12.23 조순형 전도사 기소유예로 석방

1980

- 1.23 정진동목사 대전교도소에서 석방
- 2.1 76년에 청원군청공동묘지 건립에 토지를 사용하면서 땅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건 진정서
제출
- 2.17 쌍용시멘트 산재보상 청구서 제출
장자광업소 산재 보상 지원
- 3.3 77년 열차충돌사고로 산재를 입었으나 보상하지 않는 문제 지원
- 7.24 조순형전도사, 이유근, 김창규회원 광주 유인물사건으로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

1981

- 1. 청년회에서 노래집 '험한 십자가' 발간

3.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사창유아원 설립

1982

1. 동기, 하기 연 2회 치과진료 시작 (서울대 치과대학생 봉사활동)
7. 19. 삼립식품 주식회사 청주공장 노동자 집단 해고

1983

내덕공 (안터벌) 5,6,7,8통 80세대 주민농성(청주대학교 종합대 승격, 주민토지 강제편입에 따른 재산권 피해문제)

1984

3. 운천동일대 주택단지 개발 강제 토지수용에 따른 주민투쟁지원
3. 송정동 공장부지로 강제 수용에 따른 주민투쟁 지원
- 7.26 내덕동, 송정동, 운천동 주민 재산권 침해 항의농성, 경찰폭력에 의해 이우(73)할머니

병원입원, 이장근(42)손목뼈 골절 이주형, 김인수(충북대) 중상, 최종진, 추승협, 이용일, 유영길, 민천등 병원입원

- 8.25 운천동, 내덕동, 송정동, 주민농성, 신동식, 이춘하, 한길녀, 이유근, 오재현이 경찰에 의해 폭행 연행 후 청주경찰서에서 5-10일 구류처분

- 9.4 3개 지역주민 청주시장 면담요청 방문(23) 부녀자 시청 공무원이 폭행 이영애 할머니 중상(80) 내덕동 주민 청주대 유인물 배포, 주민들 청주경찰서 연행 (정진예, 박문수, 김정섭) 3일 구류처분

9.29 내덕동, 송정동, 운천동 항의농성집회 한승수, 조순형, 추승협, 차재남 서부경찰서 연행
경찰폭력에 조순형 전도사 고막파열

1985

1. 교통사고로 인한 아들보상을 요구한 윤순덕 구속
- 2.27 내덕동 주민농성관련 정진동 목사 명예훼손 불구속 재판
- 6.13 정진동 목사 주민문제관련 명예훼손 징역 16개월 구형 후 검찰의 재판 취하와 윤순덕

검찰의 재판 취하

9. 9.충북 민정당 제1지구당사 농성사건 정세영, 최승영 회원 구속
- 12.2 민정당사 농성 재판 방청제한으로 가족항의 경찰폭력 및 연행 조춘흥(76), 조정숙, 전인희, 조기형, 최인숙, 조순옥, 강경숙, 조순형

1986

- 4.29 운천동 한길녀 구속(강제철거 항의 현장사무실 집기 파손)

조순형, 이유근 방조죄로 구속

5.23 송정동(정사관)마을 강제철거 (정·사복 경찰 및 전경 1500여명 동원) 항의농성 주민
중

이시영, 이원영 구속

11. 운천동 토지개발 강제수용 항의농성 최연식 구속

12. 29.~성신양회 주식회사 경비원 노동조건개선 및 원청복직 요구 투쟁 지원

1987

1. 27민중교통 김교성씨 부당노동행위 고발 및 해고자 복직 요구

3. 10 ~ 1988. 4. 25.청원군 옥산면 호죽지 해평들 농민들 ‘농지정리 부실 공사 완전보수’
를

위한 농민운동 지원

8. 10 제일관광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관한 건

9.20 김태평회원 (대전 한우 노동자) 제 3자개입 금지법 위반으로 대전교도소에 구속

10.16 조순형전도사 제3자금지법위반 (대전한우관련) 대전교도소에 구속

1988

3. 청원군 호죽 2구 농민구속 문제와 밤나무 보상대책투쟁 지원

3.17 호죽농민 청주골프장건설의 유실수(밤나무) 보상문제로 농성, 현장사무실 방화
(박상철, 최영복 구속)

3.29 봉원하회원 검사비리 폭로로 명예훼손 구속

4. 29 농지정리 보수공사 및 수세거부

6. 2청주법인택시 노동자 파업 및 단식 농성

7.8 택시파업 농성가족 시장면담요구 농성, 한밤중 시청직원(경찰서장 및 시장지휘)에 의
한

부녀자 40여명 폭행 임산부의 유산 및 수 십명 병원입원

7.13 시청직원의 부녀자 폭행관련 국회조사단(이해찬, 박영록, 조세형) 청사 내 시장
집무실에서 기업주들이 국회의원 폭행

7.21 청주골프장 관계 구속농민 박상철, 최영복, 징역 3년 집행유예5년 선고 석방

7.23 법인택시 16개회사 부장, 과장, 관리급으로 구성된 구사대 40여명으로 정진동 목사
자택 파괴 및 테러

8.21 택시파업 농성노동자 이광일(영진교통) 노동부점거 농성으로 구속,
박천규, 김종우 조성한을 기업주의 고발로 수배

10.17 택시파업농성 국회 노동위원회 국정감사

10.19 정진동 목사 자택테러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10 정진동 목사 택시파업 협력 제3자개입금지법위반으로 불구속재판,

조순형 전도사 기소중지

1989

8.14 정진동 목사 택시파업 협력재판 중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 선고보류

10.10 검사비리 폭로로 구속되었던 봉원하 회원 1년 6월 만기석방

1990

1. 정진동목사 3자개입금지법 헌법소원 한정합헌판결

2.17 중소기업 보호촉구 성명

2.24 올바른 지방자치제를 위한 초청강연회 (김상현 민주대학이사장 초청)

6.7 시국성명 발표

7.8 의문사한 고 정법영 묘비제막식

정진동목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2.7 '90 인권선언서 발표

1991

충북 민족민주운동연합주최 강경대사건 집회사건으로 정진동 목사 불구속 재판 계류 중
정진동목사 시론티집 '노동현장에 보내는 편지' 발간

11.25청원옥산빌라 부실공사 해결 공동예배

주요 활동가: 정진동, 조순형, 이유근, 정세영, 최승영,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성명서>

학원안정법, 단군신전, 교회선교타종 등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 이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 온 국민의 생존권 문제를 위해 기도하여 오던 중 특히 최근의 정국과 교회의 현안문제인 학원안정법 제정문제, 단군신전건립문제, 그리고 교회타종문제 등을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충북지역 인권협의회로 모여,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게 되었다.

1. 학원안정법은 그 발상조차도 영구히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학원안정과 좌경화 방지라는 명분 하에 소위 학원안정법 제정을 시도하였다가, 민주화를 염원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일단 보류한다

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①이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점, ②법안의 문구의 애매성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농후하다는 점, ③대학의 지성과 자율을 반지성적 폭력으로 저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폭력적인 도전이라는 점 등등, 시대를 역행하는 반민주적 악법임을 새삼 확인하였다.

더구나 당국은 이 법안의 제정을 일단 유보보다는 애매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가일층 노력하는 점을 미루어, 그 저의가 학원문제만 아니라 직선제 개헌논의 등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세력에 대한 정치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안은 어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발상조차 영구히 폐지되어야 한다.

2.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단군신전 건립은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당국은 그동안 정책적으로 추진해오던 단군신전 건립사업을 민간주도라는 표면적 수정으로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은밀히 국회의원, 군수, 시장 등을 포함하는 군단위 건립위원회 조직, 군단위별 신전건립 등 대규모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원칙적인 면에서 ①신화속의 인물을 실재 인물로 인격화한 가정 위에서 국민의식이 양양될 수 있다는 발상의 허구성, ②500억불이 넘는 외채에 시달리며 전국민적으로 절약과 근검을 강조하는 한편에서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의 비합리성, ③물의를 되었던 신전 순례 및 참배는 자칫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연상케 하는 군벌주의의 유산이라는 점, ④나아가 혹이라도, 정부당국이 특정 종교의 정책적 배려와 함께 다른 한편의 특정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탄압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⑤특히, 이 사업의 추진은 국론통일보다 국론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내면적으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단군신전 건립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3. 교회의 타종은 기본적 선교자유라는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교회의 그동안 예배시간을 알리는 일정한 시간의 타종에 대한 일부의 시비에 대하여 스스로 자제하며 국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청주시 사직동 모교회의 타종사건에서 나타났듯이 가장 기본적 필요의 타종마저 환경공해의 명분 하에 온갖 사회적 제압을 가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차제에 우리는 묻고 싶다. ①현재 무심천오염, 공단지역공해, 기타소음공해 등 시민의 생명을 서서히 죽이는 무서운 공해들을 방치해 왔던 당국이 유독 교회의 타종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법적 조치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②결국 교회타종 시비는 환

경공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종교탄압의 한 방편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미 교회 스스로 자제되고 있는 최소한의 필요한 타종은 기본적 선교자유라는 측면에서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4. 위와 같은 우리의 입장이 정책적으로 충분히 수렴되어, 혹이라도 원치 아니하는 사태로 비화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당국에 충고하는 바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 평화의 실천, 나아가 진정한 조국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 민주세력과 함께 힘을 다해 일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1985. 9. 11.

충북지역 인권협의회 참가자 일동

<1980년대>

3. 단체명 : 총북기독교청년협의회(E.Y.C)

약칭: 총북기청협(EYC)

소속 단체:

존속 기간: 1981년 11월 -

주요 활동지역: 총북

법적 상태: 합법

조직체계: 기청협은 교단 협력과 연대운동, 지역운동을 모색하는 협의와 일치 사회정의 실현을 지향하는 정의와 평화, 교회청년운동 활성화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는 훈련과 조직, 기청운동의 성서 신학적 기초를 확립하고 운동의 확산을 모색하는 연구와 홍보 등 4개 상설위원회가 조직, 여성선교, 노동선교, 농촌선교를 담당하는 각 선교위원회를 운영.

강령:

결성과정: 총북기독교청년협의회는 81년 11월 창립총회를 거쳐 83년 4월 사무실을 마련하고, 총북지역운동의 연대와 활성화, 에쿠메니컬정신에 입각한 사회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고자 노력.

주요활동: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는 정기 월요집회로 모여 성서연구 및 제반 당면과제들을 토의하며 성서 수련회 및 각종 자료의 보급, 기청협회보 발간 등을 통하여 기청운동의 지역 정착과 발전을 모색하고 각 분과별 활동 및 학습을 통하여 제반 실천적 과제를 수행. '민주와 평화를 위한 십자가 행진(1984. 3)', '5·18 광주 희생자 및 강제 징집 사망학생 추모 예배 및 추모 제단 설치 운영', '방일반대 구국 기도회(1984. 9)', '고 최종철 형제 추모예배', '외국 농산물 수입반대를 위해 미국 대사관 내에서 시위(1985. 4)', '광주민중항쟁 영령 추모예배(1985.5)' 등.

주요활동가: 추승엽, 신진수(청북교회), 조택양(제일감리교회), 양향우(명암교회), 김성구(제일교회), 이찬구(구세군), 이주형(오송교회)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성명서>

-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을 행복합니다(마태복음 5장 6절) -

1. 야합정치가 판치는 이 땅의 정치풍토가 쇠신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민정, 민주, 공화 3당합당을 통해 이 땅의 정치인들의 정치윤리가 얼마나 썩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약속도, 자신들이 이제까지 내걸어왔던 정치적 견해도 모두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또다시 해괴한 논리를 앞세우는 가증스런 모습을 뻔뻔스럽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풍토를 냉소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 이땅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정치, 국민이 주인으로 되는 정치가 이룩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2. 선거를 통한 국민주권 행사를 유린한 민정, 민주, 공화 3당에 대한 항의와 규탄운동을 전개합니다.

각 당의 중앙당사와 지구당, 국회의원,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항의 방문과 항의 서신 및 항의 전화를 광범위하게 합니다. 특히 전통야당을 자임하면서 '군정종식'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김영삼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합니다.

3. 국민주권 유린한 야합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 소환운동을 벌입니다.

개헌선언 2/3을 넘는 거대여당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이 배제되는 1당 장기독재, 파벌정치를 하자는 이번 3당합당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원 총 사퇴 후 조기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유권자들이 여당이 아닌 야당을 뽑아준 민주, 공화당 의원들은 유권자 동의없이 여당으로 변절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국민소환운동을 전개합니다.

국민소환권은 국민투표권, 국민발의권과 함께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국민의 선출한 의원이나 관료들이 유권자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 비록 임기 중일지라도 국민이 직접 그 직책에서 소환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헌법에는 이 규정이 없으나, 국민의사와 상식을 무시하고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야합 정치판에 대해 직접 국민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적극 주장하면서 앞으로서의 헌법 개정에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민의를 무시하는 야합 정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대동단결반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이 사회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한 세력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합심하여 선을 이루라”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기독인들이 앞장서서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모든 민주세력과 손을 맞잡고 야합정치를 분쇄하기 위해 기도하며 실천합시다.

기독인이 앞장서서 야합정치 척결하고 민주화 실현 앞당기자.

1990. 3. 1

총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북기독교청년협의회

4. 단체명 : 총북기독교 농민회

약칭: 총북기농

소속 단체:

존속기간:

주요 활동지역: 총북

법적 상태: 합법

조직 체계:

강령:

결성 과정:

주요 활동:

주요 활동가:

관계 단체:

관계 자료: 故 서형석씨 추도식 및 외국농산물 수입 규탄대회 성명서

자료 1 - <성명서>

- 정부당국에 대한 우리의 주장 -

1. 외국농축산물수입에 대한 총북 농민의 요구

① 농협·축협에서 나온 소 입식자금을 전액 탕감하고 소 1마리당 50만 원 이상씩 손해 보상할 것이며 영세 축산농가에게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② 필리핀과 바나나 수입을 즉각 중지할 것이며, 수입해서 빚어진 청과물 재배농가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

라. ③ 주곡·양념류·과일류 등 350여 가지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④ 무분별한 수입을 일삼는 경제기획원 장관과 농수산부 장관을 수출하고, 잘사는 농촌 만들어 농촌 총각 장가 좀 가자. ⑤ 미국은 농축산물수입개방 압력을 즉각 철회하여 더 이상 한국 농민을 짓밟지 말라.

2. 85년도 쌀 수매에 대한 충북 농민의 요구 - 이번 보리수매가 55% 인상은 쌀 수매가 인상폭의 예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충북 농민은 85년도 쌀 수매가를 20~25% 이상한 선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일괄 현금으로 수매하길 촉구한다.

3. 농협·농지개량조합·농지세·농업금융·지역행정에 대한 충북농민의 요구 - ①농협 임시조치법 철폐하여 농협을 농민에게 되돌려 달라 ②농지개량조합의 잠정조치를 철폐하여 도시 수돗물 값보다 비싼 수세를 즉각 폐지하라 ③적자영농과 빚더미에 시달리는 농민에게 부과하는 농지세를 폐지하라 ④사채에 시달리는 영세농에게 특별금융지원을 시시하고, 농가부채를 탕감하며, 장기저리의 영농자금을 대폭 확대 공급하라. ⑤농민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실시하라 ⑥지방자치제를 읍·면 단위에서부터 전면 실시하여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지역살림을 실시하라

위에서 요구한 것은 도탄에 빠진 민족생존을 구축하고 시름시름 죽어가는 1천만 농민을 되살리는 충북 농민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따라서 위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힘을 합쳐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1985. 7. 17
충북기독교농민회

자료 2 - <성명서>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빚, 빚더미에 한숨짓는 농민은 한탄의 나날들이다. 뼈 빠지게 일하고 숨 돌릴 시간조차 없었던 알뜰조차 우리 농민들에게는 빛의 압박뿐이었다.

이 농사 저 농사 다해보아도 타산 맞는 농사는 없고 소값 폭락, 고추·마늘값 폭락으로, 무·배추값 폭락으로 농가 빚은 더욱 늘어만 가는 실정이다. 품값조차 건질 수 없고 다 이상 지어볼 농사가 없는 현실 속에서 농가경제는 파산화고 있다. 이젠 빚 몇 십 만원 때문에 목숨까지 버려야 했던 농민들과 피맺힌 절규가 여기저기 메아리치고 있다.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쓰여 져야 할 농약을 내 몸 속에 집어넣도록 강요하는

현실은 누구의 잘못이며 이런 사회가 민정당식 복지사회란 말인가. 이제 농민들은 농민의 피땀을 가로채어 농민을 못살게 구는 현 정권의 살인적인 농업 희생정책에 대항하여 죽음으로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농가부채는 무려 4.3배나 증가 하여 86년 6월말 현재 농가호당 평균부채는 347만 1천원, 총 농가부채액은 6조 5,510억원이나 되며, 연간 호당 지불하는 이자만도 52만 8,000원이나 된다. 잘살아 보려고 발버둥치고 새벽부터 뼈 빠지게 일한 댓가를 현 정권은 농민들에게 이렇게 지불한 것이다. 단연코 우리 농민이 게을러서 빚진 것도 아니요, 농사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낭비를 해서 차치를 해서도 아니다. 이는 자기 나라 이익만을 위해 농축산물 수입을 강요하는 미국과 우리 농민을 무시하고 이국에 편만 들어 미국농축산물을 수입개방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저농산물가격 정책, 수입개방 정책으로 농민을 죽이는 현 정권의 잘못이요 책임이다. 소 키우면 잘산다고 복합영농 개방농정 부르짖던 현 정권은 농민의 빚더미는 아랑곳없이 소 수입으로 8천억의 이익을 남겨먹고 그것도 모자라 350여종의 외국농축산물의 수입을 개방하고 있다. 그래놓고도 현 정권은 농가 빚 탕감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재벌 빚 탕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82년 6월 28일 금리 인하조치로 86년 현재 5조 2천억 원, 85년 민정당의 조세 감면법 날치기 통과로 4조억원 이상의 재벌 빚을 탕감해 주고도 농민의 농가 빚은 왜! 못해 주는가? 이것은 현 정권이 농민의 피땀을 세금으로 거두어 갈망정 농민들의 이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농민들을 상대로 비싼 공산품을 팔아먹는 미국과 재벌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정권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더 이상 속아 살 수 없다.

우리 농민은 이제 농가부채가 해결되고 농민의 땀 흘린 대가가 정당하게 돌아 오고 농민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농민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장해주는 정권을 위해 싸워야 함을 분명히 안다. 농가 부채의 해결은 농민의 민주적 제 권리와 생존권이 보장되는 민주헌법이 쟁취되고 이에 의한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농가부채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현장에서 농민 대중들과 함께 더욱 가열찬 투쟁을 광범하고 지속적으로 벌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농가부채 정부잘못! 긴급대책 실시하라!

-당면 농가 부채문제에 대한 우리의 요구-

1. 중소농이 지고 있는 조합 빚 원리금 전액을 탕감할 것

2. 중소기업에게 특별지원 금융을 실시하여 사채로부터 해방시킬 것
3. 모든 농민 빚에 대해서 앞으로 5년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것
4. 편중 대출을 중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영농자금 대출규모를 확대할 것
5. 영농자금 금리를 5%까지 인하하고 연체이자를 없앨 뿐 아니라 상환기간을 늘일 것
6. 용자중심의 농업자금 지원방식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업부문의 지원규모를 국민 총생산에 대한 기여율만큼 확대할 것

1986. 12. 30

충북농가부채대책위원회

5. 단체명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약칭: 충북민협

소속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농민운동연합준비위원회, 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카톨릭대학생청주교구연합회, 충북기독교청년협의회, 충북문화운동연합, 충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존속기간: 1985.4.15 - 1989. 3. 18(?)

주요 활동지역: 청주

법적 상태: 반합

조직 체계:

강령: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실현, 민중생활의 향상 및 민중운동의 발전을 지향하며, 조국통일을 성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성과정:

1985년 4월 15일 충북민주운동협의회는 창립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충북지역 민족민주운동이 '충청북도내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의 축적이 총체적인 운동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며, '한반도 민주 민중운동의 일익을 담당하여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전지시킬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반민족 반민주적인 집단의 온존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면적인 투쟁의 선포였다.

충북민협은 지난 시기의 지역 민주화운동을 평가하면서 몇 가지 과제들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운동 인적자원의 재생산 구조 확립이었다. 재생산 구조가 확립된 부문운동은 소수에 불과한 당시의 상황은 일의 개인 집중으로 개

인의 순발력에 의존하는 원시적 운동양식, 각 단위운동 내의 토의 구조의 부재나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었다. 각 부문 운동의 운동론이 정립되지 않아 내부 동질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 운동론의 입장에서 운동을 전개시킨 것이 아니라 인맥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우발적 사태에 의한 지도부의 부재는 일의 혼란과 일시적인 중단 현상을 발생시켰고 운동 경험의 비축적, 운동의 감각적, 단편적 전개라는 부작용으로 운동의 활성화를 저해하였다. 따라서 충북민협은 충북지역 각 운동 단위와 전선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단위가 자체조직의 정비로 재생산 구조를 시급히 확립할 것을 천명하였다.

두 번째 문제로 제기된 것은 지역운동의 자립적 토대 구축을 위한 지역 실태조사였다. 전체 운동과 지역의 특수성(한국사회문제의 전체적 보편성과 기본 모순의 구체적 반영인 지역 특수성)의 통일을 이루는 지역운동론 정립의 필요성은 지역 실태조사를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시켜 놓았다. 한반도 전체 상황뿐만 아니라 지역 직업별 인구 분포 도시빈민 영세민의 집단 주거지역, 공단 지역조사, 노동 현장실태 및 운동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작업과 소농·빈농을 중심으로 한 농촌 현황 및 실생활 조사로 객관적 조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과학적 인식과 대중 의식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을 제기하고, 운동 역량의 축적보다는 소모전으로 그치는 소생산적 사건 위주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기층 민중조직의 차원에서 조직적, 공세적, 능동적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문제로 제기된 것은 운동 지도부의 역량강화였다. 충북민협은 지난 시기(학자추, 5·18 가두투쟁, EYC 광주신상규명대회)의 투쟁을 평가하면서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역량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 인식의 결여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실패요인으로는 다양한 전략, 전술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도부의 운동이론, 실천론 정립의 부재를 꼽았다.

네 번째 문제로 제기된 것은 각 부문운동의 굳건한 연대운동의 부재에 대한 것이었다. 충북민협은 84년 11월 10일 고 최종철 동지 추모비 건립식 후 가두시위와 민정당사, 충청일보사 투석사건을 조직적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모범적인 연대투쟁(충북운동의 새로운 양상으로)으로 평가하고, 11월 17일 카톨릭 행사투쟁을 타방의 분열책과 친구교의 불신에 의한 상호신뢰성 부족으로 연대운동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하였다. 충북민협은 충북지역운동에 아직도 잔재해 있는 부문운동간의 고립성을 하루 하루빨리 청산하고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연대성 실현에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다섯 번째로 제기된 것은 대중기반의 형성이었다. 대중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지나친 정치투쟁 일변도가 아닌 대중의 생존 조건에 맞는 전략, 전술, 문화운동의 활성화, 현장 소모임 조직, 소농빈농 중심의 경제투쟁, 정치투쟁으로 주체적인 노동자, 농

민, 도시빈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고,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민족시 발표, 노래 발표회는 대중의 호응을 받은 좋은 실례로 꼽고 기층 민중에 뿌리를 내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조직이 없어 대중과 밀착된 운동의 활성화가 시급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기된 것은 운동인자의 타 지역 유출문제였다. 충북 지역의 공간적, 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학생운동이나 기타 운동 출신자들이 기층 민중운동을 수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러한 난점만으로 지역 내의 현장운동 발전에 관한 방법론 모색이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포기해온 것에 대한 반성을 제기하였다.

충북민협의 지역운동에 대한 반성과 과제설정은 취약한 연대운동, 각 지역 간의 역량 차이, 보수정당의 한계, 제반 악법으로 인한 현장 활동의 침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운동논리 부재 등 많은 난관 속에서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고 있는 충북지역 운동에 대한 충북지역 운동역량 전체의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충북민협은 12대 총선에서 민정당 득표율 전국 최고라는 기록을 올린 지역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것을 충북 운동권에 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였다. 충북민협은 그 시기를 상대적 침체기로 보고 낙후된 운동에서 탈피하기 위한 자기반성으로 충북 민주화운동의 정체성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각 운동단체의 고립성을 지양한 연대운동으로 충북지역 사회민주화 및 민중, 민생 문제 해결과 자주적인 민족통일에 기여한다는 지역적 합의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충북민협은 서울 중심의 집중적인 민주화운동 만으로는 이 땅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충북지역에 현실화함으로서 운동의 한 획을 긋는 의미를 갖는다. (『충북지역 사회운동: 1985-1999』, pp. 2-4)

1. 대중의 힘에 대한 인식

탄압국면은 물리적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민주화 운동의 표출을 저지하고 민주화운동 세력을 소외집단으로 고립화하였으나 유화국면으로 이어지는 총선과정에서는 고립화된 민주운동 세력이 독립적인 힘의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토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였으며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중의 잠재된 열망과 역량을 보여 주었다. 즉, 대중운동의 기점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민주화운동 발전과정의 일단계 성숙한 모습이며 민주화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고립단계-독립단계-확산단계라는 대중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것이었다.

2. 민주화운동의 지방 확립 필요성

70년대, 80년대 초반을 지나는 숱한 변혁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였다. 그 중 중요한 하나는 서울 중심의 집중적인 민주화운동만으로는 이 땅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이다. 실제로 한국근현대사 변혁발전의 진원지는 지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운동이 서울집중이라는 현실적 모순의 모습이 드러난다(현재 생산력 분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집중의 상대적 비중으로 평가). 운동의 표출은 주체적 역량과 객관적 상황이라는 두 가지 변수의 상호조화에 의한 것인데, 이제까지는 서울중심의 이론과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운동논리 자체가 추상적이 되고 비과학적으로 되어버린 예가 허다하다. 그 한 예로, 대표적인 싸움이 대중인식의 결여로 치열했던 과정과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모전이 되어 버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11월 10일 시내시위 및 민정당·총청일보 투석사건은 7·26싸움에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지방운동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제시하였다. 이상의 예에서 보듯 각 지방의 민주화운동은 지방 나름대로 특수성에서 발전하는 것으로, 앞으로 정치경제 정책입안 시 지방분산 전망은 지방의 비중이 증대해 나가고 특히 청주는 대전과 더불어 중부내륙의 중심지로 발전될 전망이어서 충북지역 민주화운동의 역할도 한반도라는 전체적 차원에서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

주요활동: 현 충북민주화운동은 각 수행단체별로 종교계, 학생, 노동자, 농민, 일반청년 등 5개 단위별 운동으로 대별된다. 분단된 이 땅의 통일과 민주주의는 각 단위운동체의 공통된 추구부분으로 동질성을 형성하고 있으나 각 단위운동체별 고유특성, 인원, 방법, 역량의 차이로 인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민주화운동의 최근 과정을 살펴보면 84년과 총선과정에서 각 단위운동이 어느정도 연합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보다 깊은 원칙적 차원에서가 아닌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고 말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각 단위 운동체별 독자적인 운동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민주화운동에 기여할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한 극복의 시도인 것으로, 각 단위운동이(노동운동, 농민운동, 종교운동, 학생운동, 문화운동 등) 각각 하나로 분산된 형태보다는 통합된 연대운동의 형태로 보여질 때 보다 큰 힘을 발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화운동은 '다양성 속에서 한가닥 굵은선으로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연대운동이 각 단위운동의 발전과 독자적인 활동 분업성을 방해하거나 상호 간섭을 위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에 의한 발전을 의미한다. 연대운동이란 각 단위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각 단위운동체 및 개인의 독자성과 분업성을 인정하고, 각 단위운동체의 상이성을 토대로 동질성을 확보 조화시켜 보다 큰 힘을 발휘하는 발전된 운동양태이다(2개 이상의 단위운동체가 공동의 목표실현을 위해 통일적이고 통합적인 형태로 발전적 조화를 이루는 운동형태).

소식지 '함성' 발간, 기관지 '민주충북' 발간, 제5공화국 고문·폭력사례집 발간. 이후 '국민운동본부'로 전환해 충북지역의 6월 항쟁을 주도함.

주요활동가: 박용래, 이유근(산선), 오상근(카농), 이도형(전도사), 신언관(기농), 이승원(충북민청), 이장섭(카톨릭 대학생 연합회), 김성구(기청협), 고찬재(충주지역), 정성진(경향학우회),

관계 단체: 민주쟁취국민운동충북본부

관련자료: 『충북지역 사회운동: 1985-1999』, 『충북지역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자료 1 - <창립선언문>

일제의 한반도 침탈로 시작되는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질곡은 민족분단이라는 비극의 모태 속에서 점점 심화되어 왔다. 우리 민족은 갑오년 농민전쟁, 3·1운동, 4·19 혁명, 70년대의 민주수호투쟁 광주민중봉기 등 끈질긴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정신으로 자존의 민족정기를 굳건히 결집하여 왔고 새로운 민족사의 장을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려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반도의 상황은 어떠한가? 밖으로는 강대국들의 이권대결장으로 변하여 한일합방시기의 난국을 방불케 하고 안으로는 무자비한 정보무력정치로 민중의 의지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신식민주주의의 표상이 되고 있다. 소수 독점재벌의 경제 집중과 농촌경제의 파탄, 엄청난 외채로 인해 자생력을 잃어버린 국내 경제화, 언론 통폐합과 관료화의 극대화로 빚어지는 권력형 부패 그리고 사치와 우민화로 인한 계층간의 격리감등은 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정치선전화만 난무하게 만들었으며 민족의 장래를 암울하게 하였다.

이러한 내·외적 모순의 첨예화와 이의 발로인 허구적 유화국면에서 우리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황을 인식하여 극복의 힘을 발산하여야 한다. 이의 필요성으로 충청북도내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의 축적이 총체적인 운동형태로 나아가게 되었으니 이는 한반도 민주 민중 운동의 일익을 담당하여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전진할 사명을 부여받음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민족 양심의 왜곡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반민족적 빈민주적 기생집단의 온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족사의 주체는 민중이다. 진정한 민족사의 발전은 그 주체성의 끊임없는 저항 의식과 예리한 상황 비판의 현실개혁 의지를 기저로 하는 전민중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힘의 표출이 있음으로써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아무리 강한 억압이 이미 치켜 올려진 횃불과 함께 통합도니 힘의 발휘로써 충북 지역운동의 기초 확립과 더불어 해방의 징소리로 퍼져 나가리라. 거친 손에 움켜진 횃불이 우리의 몸을 태

울지라도 승리의 그날까지 같은 지표로 전진할 것이다.

- 우리는 한민족의 평화와 통일 자유와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반민족적 외세와 독재정권의 허위적 통일론을 배격하고 민족과 민중의 열망에 의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민족통일을 위하여 노력한다.
- 우리는 인간 존엄성 회복과 민중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위하여 정의, 평등 그리고 언론자유에 의한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생산자인 농민,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으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고 농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외세에 의한 신식민주의적 경제침탈과 소수재벌에 의한 독점경제체제를 배격하고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 우리는 민족의 주체성을 말살하여 한민족을 지배하고자 하는 외세문화의 침략과 독재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하여 지배문화, 관제문화를 통한 민중우민화정책을 배격하고 생산자인 민중의 주체적인 삶에 의한 민중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이기주의, 배금주의, 기회주의에 의한 양심의 왜곡과 부정부패와 불신이 만연하는 사회현실을 우려하면서 인간 상호간의 존중과 사랑, 협력과 믿음에 의한 참된 삶을 누리는 나눔과 섬김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한다.

1985. 4. 15

총북민주운동협의회

자료 2 - <성명서>

- 85. 9. 9. 총북 민정당 농성사건을 접하여 -

우리는 이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위임받은 목회자로서 총북지역 인권문제를 협의하는 도중, 85. 9. 9 총북 민정당 제1지구당사 농성사건의 보고를 접하고, 이러한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발하게 된 오늘의 현실을 심히 우려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보고에 의하면 이날 농성학생은 김희식(총북민주운동협의회 문화분과장) 정세영(성균관대 토목과 2년, 청주산업선교회원 노동교회) 장원덕(총북대 물리학과 4년, 가톨릭 대학생회원 천주교 성당) 최승영(청주대 영문과 4년, 노동교회) 이용규(청주대 영문과 4년) 등 5명이라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①학원안정법 철폐 ②민주제 개헌 실시 ③민중생존권 보장 등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국민적 의사표현의 통로가 차단된 오늘의

현실에서 이를 알리기 위해 민정당사에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상을 접하면서, 이들의 주장이나 행동과정에서 비록 논리적 무리성이나 미숙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정신은 2. 12 총선 이후의 절대 다수의 국민이 염원하는 민주화의 열망과 같은 맥락에 서 있으며, 또 오늘의 현실을 고뇌하는 젊은 지성들의 우국충정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애국심이 그 발로였음을 새삼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이 주장한 내용들은 실로 오늘의 부정적 측면의 반영이며, 이들 대부분이 청주시내 신·구교의 독실한 신도로서 평소부터의 현실에 대한 신앙적 성실과 기도에서 이루어진 신앙적 결단이었음을 의심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우리 목회자 일동은 기성세대가 마치 대변하지 못했던 현실의 질곡과 역사적 사명 앞에 새삼 부끄러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제라도 이들의 주장의 기본적인 정당성이 합리적으로 정부당국에 수렴되어, 이 나라의 앞날이 모두가 염원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여야 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이날 강제연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무자비한 폭행의 진상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정당한 법적절차도 밟기 전에,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화와 몽둥이로 맨손의 어린 학생들을 연행한 경찰이 폭력사태에 관하여 우리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런 사태가 과연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명백한 인권유린, 치안부재 상태는 책임 있는 당국자에 의해 해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에 우리는 목회자적 사명과 시대적 양심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학생들이 주장한 학원안정법 철회, 민주제개헌 실시, 민중생존권 보장 등에 원칙적 정신에 입장을 같이하여 이러한 주장이 합리적으로 정부당국에 의해 반영되어지기를 촉구한다.
2. 도경국장은 연행과정에서 있었던 경찰의 폭력에 대해 해명과 함께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1985. 9. 11.

충북지역 인권협의회 참석자 일동

자료 3 - <성명서>

4.27 청주시민의 장엄한 민주쟁취투쟁을!

-군사독재퇴진투쟁 선포-

조용한 도시 청주! 그러나 그 깊은 가슴속에 자리 잡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끓어 오르는 열정을 그 누가 알랴! 1986년 4월 27일 중앙극장 근처 북문로 3가 일대에서 위대한 민중승리의 외침으로 청주가 포효했던 그날, 전두환 군사독재는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정부는 새롭게 군사독재퇴진투쟁을 선언했다. 4월의 진달래가 청주를 향했고 굳게 움켜진 청주시민의 분노와 투쟁의지는 이미 신민당의 형식적 개헌논의를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의 발전이었다.

아아! 청주여!

노동자여! 농민 학생 청년이여!

다시는 침묵하지 말자!

이젠 4.27의 그 함성으로 독재를 쳐부수고 자유와 신뢰와 민주주의로 가득찬 평화의 그 날을 쟁취하자. 우리의 단결로 역사를 만들고 4.27의 승리를 재현하자! 우리는 승리하리라!

바로 그날 청주가 다시 한번 일어설 때,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민족통일이 성취될 것이다. 청주여! 긍지를 갖고 확신을 갖고 민주주의를 향산 대장정에 동참하자!

단결! 단결!! 또 단결!!!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1986. 4. 27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자료 4 - <함성> 제12호

결국 호언! 전두환군부독재의 장기집권을 위한 예정된 구상에 불과

80년 5월 온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총칼과 군화발로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버젓이 권좌를 차지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은 '평화적 정권교체' '합의 개헌' 운운하며 온국민을 기만하더니 결국 호언으로 선회하며 마침내 장기집권음모의 마감을 노골적으로 현실화하였다. 2.12 총선 이후 현정권 권력유지의 제도적 장치인 현행헌법의 반민주성이 국민에게 폭로되고 새로운 민주헌법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어쩔 수 없이 국회내 헌법 특위를 통한 합의 개헌으로 그들의 재집권 음모의 방법을 바꾸었다. 국회내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본질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민주헌법을 만들기 위해 설치된 것

이 아니라 민중 민주운동세력의 미누헌법 쟁취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신민당을 국회내로 끌어들이 민중민주운동 세력과 분리시키고 형식적 합의 개헌을 통하여 장기 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군사독재의 장기집권 음모에 야합하여 일신의 안일만 꿈꾸는 일부 정치인을 제외한 신민당내의 진보민주세력이 신민당을 탈당하여 선명투쟁을 위치며 통일민주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하는데 이르자 장기집권음모에 방해가 되는 신당 창당을 파괴할 뿐 아니라 내각제 개헌이 민주주의 지름길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던 가면을 뻘뻘스럽게 벗어 버리고 허헌 주장으로 선회하여 예정된 장기집권 음모의 마각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애국도민 여러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은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민중민주운동세력에 대한 용공조작과 대대적 탄압이 정권유지를 위한 술책이었음이 드러나고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 “헌행헌법 하의 정부 이양” 운운하며 민정당내의 총성과 허수아비를 대통령으로 내세워 사실상 군부독재 정권의 연장과 실권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굳히려는 장기집권 음모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80년 이후 계속되온 군부독재의 학정이 200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이제 우리는 장기집권 음모분쇄 투쟁 대열에 하나가 되어 싸워나가야 합니다.

1987. 4. 22.

총북민주운동 협의회

자료 5 - <성명서>

1. 민중 생존 짓밟는 ‘86아시안게임’ 저지하자! - 현 정권은 ‘86아시안 게임’을 민족적 대과제로 치른다는 명분 하에 도시 빈민을 무자비하게 철거, 거리로 내몰고 노동자에게는 저임금 강요와 노동운동 탄압을 일삼고 있다. 또한 폭력과 물리력으로 밖에는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든 전두환 군사독재는 80년 광주 민중학살을 지원한 미국에 아부하기 위하여 미국의 제국주의적 경제침략을 용납, 수입개방이라는 민족 경제 파탄의 매국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더구나 최근, 군사독재의 반민중, 반민족성을 폭로하는 민중, 민주운동 세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최루탄 가스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육탄공격으로 나가겠다.”는 치안본부장의 발언으로 결국 현 정권이 국민을 한낱 소모품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살인정권의 본질을 명백히 노출하였다.

2. 미국사주, 민중기반 ‘헌법특위’ 분쇄하자! - 군사적으로 이미 한국군을 지배하고 수입 개방을 강요하여 제국주의적 경제침탈까지 달성한 미국은 한반도의 영구한 예속을 획책하기 위하여 ‘이원집정부제’종용 등의 정치적 사주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넘겨주고라도 무력 탈취한 정권을 놓지 않으려 하는 현 전두환 군사독재는 국회 내 ‘헌법특위’를 통하여 지원세력인 미국에 아부하는 한편 ‘합의 개헌’ 운운하며 파쇼체제를 재편하기 위한 음모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찰을 조직폭력배로 만들어 민중,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민중의 민주화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획책하고 있는 ‘헌법특위’는 이 땅의 주인이 저들, ‘미국에 아부하여 민족의 안위와 민중생존권을 팔아먹는 예속군사독재의 무리’가 아닌 바로 ‘민중’이라는 점에서 민중의 힘으로 분쇄되어야 한다!

1986. 8. 13
총북민주운동협의회

자료 6 - <일하는 사람의 해방선언 제3호>

금성계전 일천 노동자의 강제잔업·철야·특근 거부투쟁 일치된 단결로 승리로 이끈다.

금성계전(주) 청주공장 노동자 일천여명은 지난 7월 8일 사내 식당에 모여 강제잔업·철야·특근폐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전원 잔업 거부, 승차 거부 등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7월 14일 이들 요구조건을 끝내 관철시켰다.

계속되는 회사의 기만적 태도에 전 노동자들 끝내 분노하다

전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통해 강제적인 잔업, 열악한 노동조건, 복지후생시설 개선 등의 요구조건을 계속 제시해 왔으나 회사측의 일방적인 지연, 묵살로 전혀 해결이 안되어 왔다. 이에 전국적 민주화의 열기에 고양되고, 자주적인 노동자 권리쟁취를 갈망하던 일천여 노동자는 회사의 기만적인 태도에 분노를 터뜨리며 7월 8일 사내 식당에서 임시총회를 가졌다.

군센 단결과 강력한 투쟁으로 회사의 기만적 태도를 분쇄하다

임시총회에서 일천여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강제잔업·철야·특근폐지, 노조활동의 자유보장, 열악한 작업조건 개선, 통근버스 노선변경, 탈의실 및 식당개선 등 제반 작업조건과 부당노동 행위 근절 등의 요구조건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을 결의하고 투쟁 방법으로 7월 13일까지 전원 잔업거부, 승차 거부할 것을 뜨거운 박수 속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1987년 7월 21일
총북민주운동협의회 노동위원회

자료 7 - <속보-청주노동자 투쟁소식>

청주공단에 투쟁의 불길이 치솟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인간임을 선언하는 인간선언!!

노예이기를 거부하고 주인임을 천명하는 해방선언!!

아! 이 얼마나 오래도록 가슴조이며 기다려 온 것인가!!

쾌거! 삼영화학·성진사·한음파 노동자 파업농성 투쟁!! 한도통상·한국도자기 1, 2공장 노동자 연대가두시위투쟁!! 인선선언·해방선언의 봉화 올린다.

삼영화학(3공단) 노동자 100여명은 15일 “인간답게 살자!”, “어용노조 퇴진!”이라는 플랑카드를 내걸고 임금 60%인상, 상여금 400% 지급, 복지시설 개선(식당개선, 운동기구 설치) 등 10가지 요구조건을 내고 전면파업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9월부터 현재의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어 현재의 일당으로는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생활임금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노조에서는 어이없게도 20%인상안을 내놓아 그 어용성을 유감없이 과시하여 우리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의 거센 함성에 놀란 회사는 노동자의 인간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16일 일방적으로 휴업조치를 내렸다.

한음파(1공단) 노동자들은 13일 인간대우를 할 것, 30% 임금인상, 강제잔업 철폐, 석식시간을 잔업시간에 포함시킬 것, 식당개선, 에어로빅 강사를 영양사로 교체할 것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농성에 돌입. 당황한 회사는 학생시위대가 공단으로 몰려와 파괴를 하고 있다고 기만하며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이것이 거짓임을 확인한 노동자들이 항의하자 부랴부랴 16일까지 유급휴가처리로 노동자들의 투쟁의 열기를 무마하려고 하나 우리 한음파 노동자들은 더욱 강철같이 뭉쳐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청주 노동형제 자매들이여 일어서자! 그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힘차게! 힘차게! 나아가자!!

1987. 8. 17.
총북민주운동협의회

자료 8 - <성명서>

민간인을 납치, 감금, 집단폭행, 고문한 공군헌병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월 18일 새벽 5시 30분경 짧은 머리의 괴 청년 6명이 장현동씨(29세 충북민주운동협의회 회원) 부부의 가정집에 난입하여 장현동씨를 강제로 끌고 갔다. 그 후 3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 가족들과 동료들이 애타게 찾고 있던 그 시간에 내수(충북 청원군 내수면) 공군헌병대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장현동씨가 집단구타를 당하고 있었다. 8월 11일 고 조환동 어린이(시위진압 경찰기동대에 치어 숨짐) 장례당시 공군중령을(고 조환동 어린이 사망경위서를 찢던) 병원에 가두고 집단폭행한 주동자라는 자백과 충북민주화운동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민주운동의 활동에 대해서 진술할 것을 강요당하던 장현동씨는 형언하기 어려운 수모를 당하였다. 공군헌병대는 눈을 가리고 40분가량 차를 타고 야산에 가서 땅을 파며 생매장하겠다고 위협했고 전투복을 입은 헌병대원에 의해 양 무릎에 붓을 끼우고 양쪽에서 밟는 등의 고문과 집단폭행을 자행하였다. 공군헌병대는 어처구니없게도 공군사병들을 동원하여 남궁병원을 둘러싸고 현장검증이라는 쇼를 벌인 후 수갑을 채운 채 공군헌병대 감옥에 집어넣었다. 장현동씨는 경찰서로 넘어오기 전 여기서 있었던 일을 밖에 나가서 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문답식의 이행연습조차 강요받았으며, 사실인양 가장하기 위해 녹음을 하는 치밀한 공작에 강제로 허위진술을 당하였다. 위와 같은 일이 있는 며칠 후에야 청주경찰서에 넘겨진 장현동씨에게 달려간 가족들은 탈진상태에 멩투성이의 몸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장현동씨를 만난 후 군부대가 어떻게 민간인을 납치, 감금하고 고문을 할 수 있느냐며 철저한 진상규명 활동에 들어갔다.

장현동씨는 왜 공군헌병대에 끌려갔는가?

1987년 8월 9일 6시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주최의 “민주정부 수립과 민족통일을 향한 한마당”이라는 평화적 대중 집회가 폭력경찰의 사전 원천봉쇄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경찰의 무차별 최루탄 난사와 집단폭행을 당하며 강제 연행되었다. 또한 시위진압에 동원됐던 경찰기동대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조환동 어린이를 앞뒤바퀴로 깔아뭉개고 그대로 도주하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조군의 사망 직후 진상규명과 사후대책을 위해 국민운동충북본부를 중심으로 대책위가 구성되어 사건 발생의 경위와 진상규명 및 경찰뺑소니에 대한 책임규명, 과잉진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벽보를 병원입구(조군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남궁병원)에 게시하였다. 11일 오후 2시경, 30대 중반의 남자가 게시판 벽보를 갑자기 찢어버리자, 유가족과 학생들이 달려들어 실랑이가 벌어졌다. 유가족들은 기관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병원

으로 들어왔다가 후에 공군○○○○부대 중령이라는 신분이 확인되자 사과를 받은 후에 돌려보냈다. 이것이 공군부대가 민간인을 납치, 감금, 폭행, 고문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군부독재 끝장내고 국민기본권 쟁취하자!

장현동씨는 청주경찰서로 이첩되어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이 공군장교의 실수로 야기된 우발적인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집단린치인양 조작하여 장현동씨를 구속하고 11명을 불법 수배하는 보복행위는 민주운동에 대한 경찰과 군부말단의 탄압행위이다.

충북도민 여러분!

동두천에서 발생했던 군의 총기난동사건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7월 9일 '김대중씨가 대통령에 출마하면 모종의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던 박희도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이 직분을 망각한 채 국민을 향해 폭력을 자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군부대의 불법납치, 감금, 고문사건은 민주화를 위해 군의 중립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을 경악케 하고 민주화의 길은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청주공군헌병대가 민간인을 불법으로 납치, 감금, 집단폭행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군사독재의 본질인 폭력성이 그 근거이며, 국민에 대한 우월감의 표출이며, 더욱 중요한 문제는 사건의 발생을 조작하여 민중민주화운동에 대탄압을 가하려는 군부독재정권과 그 하수인 폭력경찰의 음모입니다. 군부독재의 마지막 발악을 물리치고 민주화의 새시대를 열 투쟁의 대열에 동참합시다.

- 우리의 주장 -

군부독재 끝장내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자!

민중·민주운동 탄압하는 군부독재 끝장내자!

민간인에 대한 불법납치, 감금, 폭행사건 책임지고 공군헌병대 지휘책임자를 즉각 파면하라!

공군헌병대는 전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억울하게 구속된 장현동씨를 즉각 석방하라!

11명에 대한 불법 수배를 즉각 중단하라!

1987. 9. 10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자료 9 - <단식투쟁 택시노동자 결의문>

》

청주 법인 택시 16개 회사는 1988년 6월 1일 사용자들의 간교한 회유와 술책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각 5명이 새벽에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날치기 조인함으로 인하여 88년 임금협정과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도록 하여 6월 2일 전체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파업 5일째가 되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게 되자 각 회사별 파업 노동자들이 청주 도시산업 선교회로 갈 것을 결정하고 6월 8일 선교회로 집결했으며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전 시민에게 알리고 88년 기만적 임금협정 무효선언과 동시에 재 협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1,700여명의 노동자들이 평화적 시가행진하였고 13일에는 평화적 행진이 원천봉쇄 당하면서 시청 앞에서, 사직동 청주가스 앞에서 150여명이 전투경찰에 의해 무차별 연행 당해 끌려갔으나 해산시키지 못하자 16일 각 사업장에서는 기업주들이 노동자가 난동을 부린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40~50여명의 경찰이 동원되어 집단으로 노동자를 연행, 구속 위협하였다.

파업기간 중 몇 차례에 걸쳐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들이 회의를 가졌으나 아무런 진전 없이 조합장들의 무능함만 발견되어 이를 보다 못해 초조함을 참지 못한 기사들은 자신들이 구속당할 수 있는 줄 알면서도 회사에서 제시한 노예문서인 각서를 쓰고 물러났다. 그러나 분노를 참지 못한 원일, 영진, 신안, 삼보교통 4개 회사 조합장과 150여명의 조합원들은 88년 임금협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6월 18일부터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하고 70여명이 단식투쟁을 하던 중 24일부터 홍종두 외 7명이 탈진하여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 링거를 꽂은 채 단식 장소로 돌아와 많은 동료기사들이 함께 부둥켜안고 울면서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다짐을 새로이 하며 13일째 투쟁을 하고 있다. 또한 부인들도 50여명이 어린 젖먹이 애기를 안고, 업고 시장면담과 해결을 위해 시청 시장실 복도에서 12일째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또한 파업사건으로 인해 기업의 관리자(동양택시 임방순 사장 외 5명)이 직접 구사대가 되어 노동자들을 폭행,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중상을 입혔는데도 경찰은 오히려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폭력배인 사장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운행하는 많은 기사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간접으로 참여와 지지를 하고 있으며, 6월 29일 중원택시 기사들이 다시 단식에 동참하였다.

1. 기만적 88년 임금협정을 완전 무효화한다!

1. 87년도 근로조건 하에서 8시간 노동에 기본급 5,666원을 6,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고수한다.

1. 임금개선을 하다 구속된 노동자 박호영, 김덕수, 유한규, 김홍대, 김태철, 남동욱의 석방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한다.

1.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목숨 걸고 단식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구속운전기사를 즉각 석방하라

1.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예문서를 즉각 폐지하라

1. 파업 중에 기사를 채용하는 것을 회사는 즉각 중단하라

1. 모든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신속히 보도하라

1988년 6월 30일

단식투쟁택시노동자일동

6. 단체명 : 민주쟁취 국민운동 충북본부

약칭: 국민운동 충북본부

소속 단체: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충북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충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충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충북문화운동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청주지역노동자연합준비위원회

존속 기간: 1986. 6 - 1989. 3. 18(?)

주요 활동지역: 청주

법적 상태: 반합법

조직 체계:

강령:

결성 과정:

주요활동: 충북민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민운동 본부는 그동안 축적되어 온 충북지역 부문운동의 성장과 전선운동의 발전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충북의 민족민주운동은 이를 매개로 하여 6월 항쟁을 감당하게 되었다. 국민운동본부는 연합전선체로서 호헌철폐 및 직선제 쟁취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당면목표는 대중성에 기초하고 있었다. 6월 항

쟁의 과정은 범민주연합전선의 주도와 폭력시위 노선과 제헌의회 슬로건을 고수한 민중민주노선의 부차적 역할에 의해 수행되었다. 6월 항쟁은 4·19이후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도시에서의 동시다발적인 봉기방식을 또다시 보여주었다. 이는 도시 시민의 정치의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과, 선도체로서의 학생운동의 주도, 노동자 및 도시빈민 등 광범한 기층 대중의 존재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 변혁운동의 구체적 상을 현실적인 사례로 보여줌으로써 향후 운동의 과학화와 정파를 넘어선 전민항쟁 전략 함의라는 결과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국민운동본부는 아직 민족민주운동이 정확하게 결합된 기층 대중조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또한, 대중들의(특히 중산층의) 의식이 군부독재에 대한 정치적 염증에만 한계 지워져 있으며, 아울러 현 단계의 운동이 주로 중산층에 의존해 있다는 점, 그리고 지도부(민주연합전선으로서의 국본/재야+야당)의 취약성과 정확한 지도노선의 부재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6·29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을 가져올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기층대중의 확고한 역량 없이는 확실한 보증도 없다는 사실을 국본과 6월 항쟁은 알려주었다. 따라서 국민운동본부는 6월 항쟁이후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선거 패배이후 시군조직 해산과정 없이 와해)하였고 운동세력은 쟁취 가능한 목표였던 거국내각 구성을 제기하지 못한 채 뒤늦게 범국민연립정부론이나, 과도정부수립론이나, 임시혁명정부수립론과 같은 관념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분열되었고, 선거국면(백선본->민중후보/후단/국본->비지)의 실패로 (역량의 결집으로 이루어낸 전선의 약화와 분열로) 새로운 정립의 시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 1985년 4월 지역운동사에 찬연히 기록될 충북민주운동협의회의 창립은 지역운동, 조직운동, 연대운동의 기치를 들고 비록 완벽한 실현은 되지 않았으나 지역 연합운동의 책임있는 실체로서 국민운동본부를 통하여 6월항쟁의 수행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이념과 조직에 있어서 민족민주운동의 전선을 책임지기에는 한계를 보이면서 보다 발전된 전선운동의 시대를 제촉하게 된 것이다(유수남, '충북지역 전선운동의 발전과정', 충북지역 사회운동: 1985-1999, p. 4-5).

주요 활동가: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자료 1 - <성명서>

-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이 한열군이 그의 소생을 위한 온 국민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7월 5일 새벽에 끝내 사망하였다.

우리는 가장 큰 슬픔과 단단한 다짐으로 그의 고귀한 이름을 열사라 부르며, 또

한 이 나라의 민주화라는 그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살아 있는 우리도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고 박종철 군을 고문 살해한데 이어, 이제는 이한열군을 총격 살인한 독재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것만이 우리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행동한다.

- 이 정권은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사인을 호도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 고 이열사와 가족에게 또 한번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확실하게 최루탄에 의한 살인임이 증명되었다. 정부는 이 천인공로할 살인행위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물인간이 된 이한열군의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하는 데만 급급해 왔다. 범인의 색출, 처벌은 물론 최소한 직속 책임자인 치안본부장의 구속 파면, 내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 현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만이 대 화합의 길임을 천명한다.

- 이 열사의 죽음에 대도의 뜻을 표하고 이 땅위에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5일부터 이열사의 삼오제가 끝나는 11일까지를 ‘고 이한열 열사 추도기간’으로 선포하고, 충북지역 국민운동본부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온 도민들은 검은 리본을 달고 추모행사에 참여한다. 또한 공영방송은 추도 분위기를 저해하는 프로를 중단하고, 애도 프로를 방송 방영할 것을 촉구한다.

- 경찰은 지난 5일에도 최루탄으로 숨진 이군을 조문하러 온 학생들에게 또다시 최루탄을 발사했다. 우리는 최루탄의 생산중단과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도민 행동 지침 -

*운동본부(남문로 1가 기독교청년회관내) 사무실에 마련된 분향소에 분향하고 추도기간 중에는 검은 리본을 답시다.

* 최루탄 생산의 중단을 요구하는 운동을 확산하고, 최루탄을 사용하는 경찰서에 (52-7111, 53-7211) 항의 전화 합시다.

1987. 7. 6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충북지역본부

자료 2 - <부정선거 무효화 투쟁 총북본부 결성 선언문>

4천만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나선 부정조작의 원흉 노태우는 즉각 물러나라!

온 국민이 그토록 열망하던 민주정부수립이 관권과 금권을 총 동원한 군사독재 정권의 사상 유래 없는 부정조작으로 무참히 짓밟혀버린 오늘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모아 부정조작의 원흉에 대한 결사투쟁을 결의하는 바이다.

해방이후 이 땅에 국민의 의사에 의한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노력은 항상 잔혹한 탄압 속에서 참담히 좌절되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승만, 4·19혁명을 총칼로 유린하고 18년의 장기집권을 누린 박정희, 80년 민주화의 열기를 12·12 쿠데타와 5·17 광주학살로 짓밟고 들어선 전두환, 이들을 중심으로 한 반민주적 무리들에 의해 우리의 역사는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고 민중의 삶은 고통과 좌절로 얼룩져온 것이다.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인 정권을 갈아엎어 참다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열망은 지난 6월의 빛나는 항쟁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고, 항쟁의 성과인 이번 선거에서는 기필코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새로운 세계를 향한 승리의 축제를 벌이기 위한 희망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중들의 열망에 대한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매표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돌리고,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을 정권유지의 하수인으로 내몰고, 신성한 국민의 주권이 담긴 투표함을 바꿔치고, 투표함의 봉합을 찢어내며, 하수인들에게는 이중, 삼중으로 투표할 수 있는 특권까지 부여하며 민중의 민주정부수립을 향한 열망들을 틀어막고 조작하여 정권을 유지하기에 광분하였다.

그들은 온갖 정부기관과 관제언론을 동원하여 순수한 애향심을 지역감정으로 부추기고, 야권의 분열을 조장하여 단일화 실패를 방패삼아 집권을 위한 자신들의 음모를 공공연히 자행하였다.

이 경악을 금치 못할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번 선거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되어지고 총칼대신 금권과 관권을 무기로 자해된 선거를 빙자한 쿠데타이며 반란이라고 규정한다. 부정조작을 통한 노태우의 당선은 부정과 불의의 승리요 전두환에 이어 다시 광주학살의 원흉이 집권한다는 범죄행위의 연장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사상 최대의 부정선거가 민중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 모든 불의와 부정을 영원히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부정선거 무효화투쟁 총북본부를 결성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

우리의 결의

우리는 이번 선거가 사상 최대의 부정선거임을 밝히며 부정선거 무효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우리는 부정조작의 원흉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노태우를 지원하여 경제침략 자행하는 미국을 반대한다.

1987. 12. 29

민주쟁취 국민운동 부정선거 무효화 투쟁총북본부

자료 3 - <성명서>》

인류의 평화제전 올림픽에서 미국과 군부독재는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가?

미국의 88올림픽을 분단올림픽으로 성공시킴으로써 군부독재 지원에 대한 세계적 비난을 무마하고,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광주학살의 주범, 부정선거의 주범 노태우 일당은 올림픽을 통하여 정통성을 만회해 보려고 꿈꾸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화시대라는 허울 좋은 의식을 국민속에 확산하여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민적 반감과 저항을 무마시켜 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전 인류의 화해와 교류 그리고 대단결을 위해 열리는 올림픽이 정작 개최국에서는 대립, 단절, 대결을 강요받고 있다. 민족화해, 민족교류, 민족대단결의 계기가 되어야 할 올림픽이 서민대중의 생계를 위협하고 외채를 가중시키고, 민족분당을 더욱 고착시킨다면 올림픽은 오히려 한국민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공동올림픽 쟁취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

1988. 6. 17

민주쟁취 국민운동 총북본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자료 4 - <성명서>

양담배 불매하여 민족자존을 회복합시다

전국 전매 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 민중생활 실천협의회, 엽연초 생산조합 연합회, YMCA 농민단체,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등 각계각층에서 전국적으로 미국담배 반대운동이 거세게 불붙고 있다.

미국담배 불매운동을 민족자존의 계기로...

미국 내에서도 담배의 폐해에 대한 절박한 여론으로 금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때에 미국이 자국에서는 건강에 안 좋다고 담배광고를 제한하면서도 한국에는 자유로운 광고를 허용토록 강요하며, 세계에서 가장 싼 담뽕가격으로 우리 국내시장을 위협하는 태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국, 타민족이 어떠한 해를 입어도 무관하다는 침략적 속성으로 제 2의 아편전쟁을 음모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부에서 강구하고 있는 자유경제 체제 안에서의 이길 수 있는 방안모색, 국산담배 판매축소 예상되는, 전업농에게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은 민족의 경제, 문화, 정신을 갉아먹어 들어오는 미국 담배의 폐해성에 근본적 답변을 회피하는 꼴이다.

민족의, 농민의 생존은 관계없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정부의 굴욕적 협상 자세나 협상이후의 정책 부재는 담배경장 농민의 폐농을 불러일으키는 물론, 수입개방 압력 속에 자리 잡아 나가는 곡물수입의 포문을 여는 계기로서 민족경제의 파탄을 재촉하고 있다.

미국담배수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담배판매가 단시기에 수요량을 확보하면 또 무엇을 사달라고 할지 모르는 일이다. 민족자존의 절박한 위협 앞에서, 미국담배 불매운동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전 국민의 대처로 민족의 긍지를 드높이자.

농민팔고 나라파는 양담배 수입을 애국 불매운동으로 퇴치하자!!

1988년 7월 9일

민주쟁취 국민운동 총북본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자료 5 - <성명서>

- 8·15 남북 청년학생회담 성원하여 통일의 길로 함께 가자! -

분단 조국 44년, 통일염원 44년에 맞이하는 8·15 민족 해방절이 긴장과 설레임이 교차하는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 온 도민의 통일염원을 모아 지역의 민주운동단체 및 인사들이 결성한 국민운동 본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8·15 남북 청년학생회담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천명한다.

애국 청년학생의 통일논의는 역대 독재정권의 비현실적이며 정권유지를 위한 허구적 통일 논의의 무분별성을 뚫고 진정 통일을 열망하는 절절한 동포애와 나라사랑의 현명한 판단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하며 서울올림픽은 민족화

해와 대단결의 계기가 되기 위해 공동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과, 남북간의 민간 교류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며, 분단을 고착화하는 제반 악법과 제도교육은 개폐되어야 한다는 것이 애국 학생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우리는 지난 해 6월, 민주화 투쟁의 주역으로 온 국민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으며, 지난 번에는 6·0 학생회담 추진 등을 통하여 분단의 극복과 통일의 지평을 엄청나게 넓혀 놓았던 애국 청년학도들의 이번 순례대행진과 학생회담을 전폭 지지한다.

한편, 이러한 청년학생들의 애국 총정이 최루탄과 몽둥이 세례로, 철통같은 검문검색과 원천봉쇄로, 수백의 검거의 연속으로 처절히 짓밟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지역에서도 총북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과 핵심 간부 십여 명이 불법, 폭력적인 연행으로 구금되어 있고, 모든 평화적 집회는 원천 봉쇄되었으며, 폭력 전경은 학내 캠퍼스에까지 진입해 자유의 광장을 취루가스와 군화발로 더럽히고 있다.

북한은 이미 전 국민의 호응 속에 대표단이 판문점을 향하고 있으며, 각계 인사들도 참관인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간의 상봉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는 아직도 교섭창구의 단일화라는 독재논리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계속 조장하며 민족 분열을 꾀하는 현 노태우 독재정권의 반통일적 작태와 이를 교사, 조종하는 미국이라고 규정하며, 이 반통일 세력을 철저히 규탄한다.

8·15 학생회담에 대한 범국민적 성원의 박수갈채가 분단으로 얼어붙은 반도의 지축을 흔들고, 범국민적 참여의 발소리가 맹목적 반공이데올로기에 잠자고 있는 민족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을 때 통일의 신새벽은 열릴 것이다.

우리는 학생회담에 대한 애국도민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원 및 반통일 세력에 대한 단호한 거부운동을 호소 드리며, 8·15학생회담성사와 평화협정체결, 공동올림픽 쟁위의 목표를 향하여 굽힘없이 정진할 것을 결의한다.

1988. 8. 11

민주쟁취국민운동총북본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자료 6 - <성명서>

- 서울올림픽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88올림픽은 종말로 치닫던 유신독재에 의해 계획되고, 학살·부패·원흉 전두환에 의해 준비되어 그 상속자 노태우에 의해 치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오류기에 가린 절박한 민족적 대사를 올바로 드러내고, 금메달에 열광하는 국민들의 박수갈채 속에 학살·부패 원흉들이 살 길을 찾으려는 음모를 폭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올림픽이 민족분단을 영구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

올림픽의 단독 개최는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 분단을 두 개의 국가로 공식화하기 위한 음모에서 비롯되었다. 동서상의 공산권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88올림픽에 오히려 혈육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6·10, 8·15 학생회담을 성사시키려는 남북청년학도들의 상봉은 노태우 독재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특히 우리는 현 정권이 올림픽 이후에 남한만의 UN단독 가입 운운하는 것에 경악하며, 이야말로 올림픽이 분단을 공고화하기 위한 사전 각본에 의해 설정되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 단정한다.

- 올림픽이 독재연장의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다 -

이 순간에도 전남지사 공관의 전두환 사용 호화집기를 빼돌리고, 연세대 학생회장을 대낮에 캠퍼스에서 연행하며, 우익의 총궐기를 호소하며 모든 국민을 좌경으로 매도하는 책자가 내무부 이름으로 배포되는 상황에서 평화구역법에서의 평화란 권력 비호와 경찰을 위한 것일 뿐,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폭력과 계엄의 실시에 다름 아니다.

광주학살 진상규명, 5공비리 척결, 양심수 석방이라는 국민의 소리를 올림픽의 열광으로 바꿔보려는 독재의 흥계와 올림픽 성공개최를 빙자하여 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미국과 노태우의 술수를 우리는 결단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 올림픽이 민중의 생존권탄압을 더해가고 있다 -

누구를 위한 누구의 올림픽인가? 이렇게 치러지는 올림픽이 노동자에게는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농민에게는 농축산물 수입중지와 농사지을 의욕을, 도시 서민들에게는 안정된 물가를 보장해줄 것인가?

빛을 내어 외국인들에게 잔치 자리를 만들어 주고, 온 국민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데 불과한 올림픽은 국민에게 엄청난 불편, 생활고와 경제적 불안을 안겨줄 뿐이다.

- 올림픽을 빙자한 미국과 노태우의 흥계를 분쇄하고 자주·민주의 길로 나아가자 -

우리는 서울 올림픽이 분단을 영구화하고 독재를 안정화하며, 국민의 생활고를 증폭시키는 사치올림픽, 부채올림픽에 불과한 이상,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온 국민의 민주화·자주화 열망을 짓밟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저 암흑의 5공화국 시대로 되돌리려는 미국과 노태우정권의 어떠한 술수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988. 9. 16

7. 단체명 : 충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약칭: 충북민가협

소속 단체:

존속 기간: 1987년 5월 11일 -

주요 활동지역: 충북

법적 상태: 반합

조직 체계:

강령:

결성 과정:

주요 활동:

주요 활동가: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창립선언문>

작금의 한반도 정세는 도도히 흐르는 민족해방투쟁사를 역행하고 있는 전두환 군부독재의 장기집권 음모로 인해 그 비극은 점점 더 심화되어가고 있다. 지난 80년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열망하는 수천의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또한 민주인사들을 대량 구속시킨 뒤 국가권력을 탈취한 현 정권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에 예속되어 그들의 이익에나 봉사하고 대내적으로는 사상 유례없는 폭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말할 권리와 생존권을 압살해왔다.

못 배웠다는 것 한 가지 이유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고통받는 노동자, 저곡가와 외국농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농민들의 경제파탄, 삶의 보금자리를 도시미화라는 미명아래 길거리로 내쫓기는 도시빈민들의 생존권박탈을 통해 권력을 가지 자들의 뱃속을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외국으로 빼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전두환 독재정권이다. 그러나 4·19혁명 27돌을 맞는 오늘, 철저히 소외당하고 수탈당하며 살아왔던 민중들의 귀와 입은 열리고 장기집권을 노리는 군부독재를 종식시키는 투쟁의 대열로 모아지고 있다.

이제 군부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지리한 폭정과 탄압을 물리치고 구속된

자식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함께하고자 뜻을 모았다. 진정한 민족사의 발전은 온 국민의 끊임없는 저항의식과 변혁의지가 민주화 대열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싸워나갈 때만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굳게 믿으며 '충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이후 충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충북지역 내의 모든 운동단체와 협력하여 민주화실현의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 우리는 한반도의 자주적인 통일을 위하여 반민족적인 어떠한 세력도 배격할 것이며, 이 민족이 열망하는 민주적인 민족통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지향하며,
민중에 의한 민주사회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노동자·농민·도시빈민 등 기층민중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고문·폭력·살인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현장을 수없이 목격하며
구속된 양심수와 제반인권운동을 위해 노력한다.

1987. 5. 11

충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8. 단체명 : 충북문화운동연합

약칭: 충문연

소속 단체:

존속 기간: 1987. 12. 4 ~ 1994. 3. 2

주요 활동지역: 충북

법적 상태:

조직 체계:

강령:

결성 과정(「충북 문화운동 20년, 충북민예총 10년」):

1. 총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열강의 침략을 거친 근대사를 지니고 있으며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닥쳐온 분단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민주화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족예술이라는 이름은 질곡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민족의 현재적 문제를 깊게 고민하고 그를 통해 민족의 미래를 열기 위한 진보적 예술을 총칭하는 말이다. 또한 지역문화운동은 서울중심의 문화구조를 해체하여 서울과 지역의 격차가 없는 문화적 균점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문화민주주의 실천적 활동을 의미한다. 문화운동¹이라는 의미는 운동에 비중을 두는 문화활동을 의미한다. 지역문화라는 용어는 지방문화라는 의미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선택된 용어로 서울과 지역을 문화적으로 대등하게 보는 개념이며 한 시대의 문화가 그 시대의 다양한 지역문화의 집약에 다름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충청북도의 문화터전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적인 힘과 인구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진보적 민족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제반조건은 열악하다. 그런데 충북민족예술계는 현재 충북민예총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의 민족문화, 문화운동에 비해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북민족문화의 현황은 민족문학, 민족미술, 마당극, 무대극, 풍물, 민요, 노래, 영상, 무예 등 모든 예술장르를 포괄하는 (사)충북민예총을 건설하여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정된 문화 터전을 지키고 있는 지역 민족예술’²로 충북을 평하기에 충분한 활동이다. 현재 충북민예총 회원은 충북 전역에 700여 명의 정회원 예술가를 비롯하여 준회원, 강습회원, 후원회원 등을 합하여 3,000여 명의 예술인 인적자원으로 (사)제천단양민예총, (사)청주민예총, (사)충주민예총, (사)옥천민예총, (사)보은민예총의 5개 지역지부와 (사)영동민예총준비위원회를 지역민예총으로 건설하였다. 또한 (사)충북작가회의, (사)충북민미협, 충북민예총풍물위원회, 충북민예총연극위원회, 충북민예총음악위원회, 충북민예총춤위원회, 충북민예총영화위원회, 충북민예총무예위원회, 충북민예총사진영상위원회, 충북민예총서예위원회의 10개 예술분야 위원회와 충북민예총전통음악 준비위원회를 지닌 방대한 조직을 바탕으로 일년에 충북 전역을 무대로 대략 200개가 넘는 예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현황의 화려함을 지니고 있는 이유에 대해 타 지역의 활동가들이 내리고 있는 평가는 조직화와 저력이다. 충북은 진보예술계가 충북민예총을 중심으로 집약된 조직체계를 만드는데 성공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만한 힘을 지니고 있는 이유 중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분단과 질곡의 역사가 만들어낸 해방공간 전후로 나타나는 역사적인 터전에서 찾을 수 있다. 충북은 타 지역 어디도 흉내 내기 어려운 깊은 민족예술의 뿌리를 지니고 있다.

충북 민족문화의 중요한 시발점은 단재 신채호다. 그리고 조선어의 보고라 불리는 위대한 소설 <임꺽정>의 작가 홍명희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1894년 진천에서는 소

설 <낙동강>의 저자 포석 조명희가 태어났고, 1898년 영동에서는 우리나라 아나키즘 문학의 선구자 흑성 권구현³이 출생하고, 1902년 옥천에서는 한국인의 영원한 민족시인 정지용이 태어났다. 중원문화의 주춧돌 충주에서는 <모밀꽃>의 시인 정호승⁴이 1916년 태어났으며, 1918년 보은에서는 ‘문단의 왕’으로 불리던 시인 오장환이, 같은 해 충주시 칠금동 옷갓마을 에서는 <감자꽃>의 천재 동요시인 권태응이 태어났다. 이 외에도 1923년 충주에서 태어난 소설가 홍구범도 빼놓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근대조각의 아버지라 불리는 김복진⁵이 1901년 청원에서 태어났으며, 《조선연극사》를 쓰고 근대연극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연극인 김재철⁶이 1907년 괴산에서 태어났다. 1908년 충주시 신니면에서 시인 이흠⁷이 태어났으며, 이런 전통은 1927년 청주에서 출생한 신동문, 1928년 생 민병산을 지나, 마침내 ‘전후 민중문학의 전범을 구축했다’는 평을 받은 <남한강>의 시인 신경림으로 이어지게 된다. 동시대 유종호·홍기삼을 비롯한 이루 헤아리기도 어려운 선배 예술가들이 충북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문화의 자산에 견주어 본다면 현재의 활동은 초라하다. 아무리 이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충북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입장으로 관대하게 보아준다 하더라도 현재의 문화운동은 과거의 활동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라하다. 해방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충북지역의 선배 예술가의 큰 기개와 큰 활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 시대 새로운 민족문화의 저력으로 견인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북민족예술의 당면한 과제중 하나가 그때만큼의 왕성한 정신과 활동을 되찾고 문화를 통해 민족의 미래를 올곧게 열어가는 데 있다 할 것이다.

2. 충북문화운동의 큰 흐름

충북지역 문예운동사의 큰 줄기는 충북문화운동연합에서 지금의 충북민예총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흐름 속에 들어있다. 1987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6월 항쟁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의 역사가 있었던 해이다. 6월 항쟁은 각 부분과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사건이다. 특히 문화예술계에는 진보적 문화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충북지역에서는 1987년 12월 4일, 그때까지 각 부문에 흩어져 활동하던 문예운동조직이 ‘충북문화운동연합’ (약칭 ; 충문연) 이라는 하나의 전선체 조직운동으로 결집되었다. 충북문화운동연합은 1994년 3월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 (약칭 : 충북민예총) 로 조직 확대를 하기 위해 발전적 해체를 하기까지 문화운동의 전국적 수범사례로 존재했으며 지금의 충북민예총을 이루는 골격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다.

충북문화운동연합과 충북민예총을 골격으로 충북문화운동의 역사를 세분하면 1984년 이전까지를 맹아기로 보고, 1984년부터 1987년까지를 시발기로 보며, 1987년부터 1992년까지를 성립기로, 1992년부터 1994년까지를 분화 발전기로, 1994년부터 1998년

을 도약기로, 1998년부터 2000년을 안정기로, 2000년 이후 2003년 까지는 제2도약기로 구분할 수 있다.

3. 맹아기, 시발기의 몇 가지 큰 사건들

충북지역 문예운동의 초창기의 중요한 사건은 1980년 5월에 공연된 마당극 <검은산 검은물>이다. 당시 청주대학교 신축도서관 옆에서 5월 16일에 공연된 <검은산 검은물>은 잠들어 있던 지역문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문예운동사의 사건이다. 5·18 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나기 몇 일전의 일이며 당시의 사회상황은 1979년 10·26 사태로 비상계엄이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전 지역에 내려져 있었고 ‘서울의 봄’으로 불리던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변혁기였고, 모든 대학의 문은 휴교령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3인 이상의 모임을 가질 때는 계엄사령부의 허가를 얻어야 했던 시절임을 생각해 볼 때 이 한 편의 마당극이 지니는 의미는 크다. 마당극 <검은산 검은물>은 우리나라 마당극 운동사에서 초기에 속하는 공연이다.⁸ 공연의 줄거리는 1980년에 발생하여 사회적인 큰 반향을 가져온 ‘동원탄좌 소요사태’를 노동운동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대본 구성은 공동창작으로 작품은 김석은이 연출하였다. 박종희, 이현구, 박종관, 김재수, 김성구, 박만호, 조광재, 차명미, 정진선, 이정주, 윤동연 등이 참여하였다. 이 공연을 주도한 사람들은 공연 이후 ‘이바지’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인 활동을 모색 하였으나, 지속적인 문화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지니고 있다. 그로부터 4년 뒤, 1984년 이른 봄에는 <무심굿>이라는 마당극이 청주문화관에서 공연되었다. <무심굿>은 이미 공연된 <판놀이 아리랑고개>와 <남한강> 등의 마당극 대본을 재구성하여 박만호가 주도 하였고 충북대 극예술연구회 졸업생 및 재학생, 청주대 무용과 졸업생 및 재학생 등에 의해 공연되었다. 형식은 풍물 반주로 진행되며 춤과 노래, 극이 혼합된 마당극 양식이었으며 관객동원과 작품성 모두 상당한 수준의 공연이었다. 이 공연은 마당극운동으로 많은 가능성을 가진 공연이었으나 전문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발전하지 못하여 아쉽게도 단발적인 공연으로 끝나고 말았다.

4. ‘분단시대’ 와 ‘우리춤연구회’ - 충북민족문화의 큰 뿌리

1980년부터 시작된 문화운동의 움직임은 1984년에 이르러 향후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기점을 만들어 낸다. 1984년은 충북문화운동의 중요한 한해였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84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⁹

1984년, 향후 충북과 대구 양쪽 모두를 포함하여 문학운동의 주춧돌이 되는 ‘분단시대’ 10라는 동인지가 발간된다. 그때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지들이 폐간되어 전국적으로 동인지와

무크지 운동을 통해 문학에 대한 탄압에 맞서고자 고심하던 때였다. 1983년부터 대구와 청주를 오가며 동인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86년까지 4권의 동인지와 한 권의 판화시집을 내면서 문학운동을 하게 된다. ‘분단시대’는 훗날 충북작가회의와 대구경북작가회의의 모태가 되는 초석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1980년에 청주대학교에 강혜숙 교수가 부임해 오고 청주대 무용과 대학원 과정에 있던 오세란 허연희 이미영 등이 ‘우리춤연구회’를 결성한다. 이때가 1984년 11월이었으며 우리춤연구회는 활동공간으로 우암동에 ‘열림터’라는 연습실 겸 공연장을 마련하면서 정기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청주농업고등학교 앞 4거리에 위치한 신희 건물지하에 개관된 ‘열림터’에서는 개관기념공연으로 극단 연우무대의 <칠수와 만수>11가 초청 공연되기도 하였다.

노래운동의 경우 1984년에 ‘맥박’이라는 노래모임이 결성된다. 제일장로교회 내 노래소모임 형태로 만들어진 모임으로 최지호, 김효숙, 곽한일, 이종문 등이 주축이 되었다. ‘맥박’은 향후 전개되는 충북지역 노래운동의 맹아 역할을 한다. ‘맥박’은 정기발표회 및 노래집 발간 등의 활동을 하면서 미약하나마 문화운동 차원의 노래운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뒤이어 1987년에 결성되어 1994년까지 왕성한 노래운동을 전개하는 노래모임 ‘녹두패’ 구성원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 이런 대부분의 활동들이 1984년에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은 서로 깊은 유대 없이 독자적인 활동 영역에서 제각기 활동하며 87년 6월 항쟁을 맞이한다.

이 무렵 전국적인 미술운동의 상황은 향후 전개되는 미술운동사에 가장 중요한 단체인 민족미술인협의회를 1985년에 결성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던 미술운동 단체와 인자들이 서울 아랍미술관에서 <한국미술 20대의 힘 전>을 개최하고 그 여세를 몰아 그때까지 고립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현실과 발언’, ‘임술년’, 미술패 ‘두령’, ‘미술공동체’ 등 4개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의 민중미술인들을 한 단체로 결집하여 ‘전국민족미술인협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때 충북에서는 <20대 힘 전>에 참여한 김기현·이홍원이 민미협 회원이 되었다. 그로부터 일년 뒤 86년에 제천 백운면으로 판화가 이철수가 이주해 활동영역을 충북으로 옮기면서 초기 충북지역 미술운동을 형성한다.¹² 특히 판화가 이철수는 충북지역에서 지역문화를 일관되게 실천하여 충북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충북문화운동연합 초기 활동에는 의장으로 지도력을 제공하였고, 충북민예총이 창립되던 무렵에는 제천민예총의 창립에 깊게 관여하여 초대 지부장으로 활동하여 제천민예총 창립 이후 한국민예총지부활동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는데 큰 지도력을 제공한다. 그가 그린 그림 제목 <아래로 아래로 내리는 아름다움>과 같은 지역문화의 저반을 다지는 꾸준한 활동을 하였다.

충북지역의 미술운동은 1987년 문화운동연합 구성 당시는 미술분과로 몇 명의 화가들이 활동하면서 형식상 분과의 모습을 갖추었다. 충북민족미술이 그들의 활동 토대인 ‘충북민족미술인협회’를 만드는 시기는 몇 년 뒤인 1989년에 이뤄진다. 89년

4월 창립을 기념하여 전시회를 청주문화관에서 개최하면서 초대 회장으로 김기현을 선출하고 ‘충북민족미술인협의회’를 구성하여 왕성한 활동에 들어간다. 충북민미협 창립전에는 곽은숙·김기현·김학성·류근덕·연상숙·이용택·이유중·이은모·박인홍·박흥순·박희찬·양현조·이은영·이철수·이혜옥·이홍원·전민숙·황제성이 창립전에 참여한다. 그 이후 충북의 민족미술은 민중미술 초기 작가군으로 이철수·이홍원·김준권 비롯하여 지역민족미술의 젊은 작가군으로 김기현, 김이동, 이종관, 이유중, 김만수, 민병길, 연상숙, 윤철상, 임종길, 정다미, 손순옥, 허진호, 박노현, 고경일, 신상웅, 정천영, 조송주, 오정균, 송일상, 임은수, 김성심, 최희석, 박미향, 박상은, 김윤, 손영익 등의 회원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1986년에는 충북민주화운동협의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연합체에 문화분과가 구성되었다. 향후 펼쳐지는 지역전선체 조직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연합체 활동에 문화가 분과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이 총문협 문화분과에는 도종환, 김창규, 박종관, 오세란, 김희식, 오맥균 등이 참여하여 분과를 이뤘으며 대학생 조직의 참여도 있었다. 충북민주화운동협의회 이후 충북민주화운동연합, 충북연대회의 등의 단체로 소멸되고, 다시 재구성되는 지역 전선체연대운동의 부문운동으로써의 문화운동은 충북문화운동연합이 결성된 1987년 이후로는 당연히 총문연의 일이 된다.

5. 충북민족예술의 전환점, 충북문화운동연합의 탄생

1987년 6월 항쟁은 문화운동의 전국적 확산의 계기가 된다. 이 시기에 지역별로 문화운동 단체가 결성되는데 충북에서는 12월 4일에 이르러 ‘충북문화운동연합’을 결성한다. 바로 이 시기가 종교인, 재야명망가, 종교단체에서 출발한 사람들과 학생운동의 활동가들이 재야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부분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시기였고 변혁운동의 전 지역으로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¹³ 창립 당시 충북문화운동연합의 구성원들은 그때까지 문화운동의 위상을 가진 인사들이 총동원 되었다. 이미 ‘우리춤연구회’를 결성하여 탄탄한 활동을 해오던 춤꾼들과 ‘분단시대’ 동인들을 포함하는 지역문인과 초기 미술운동을 이루던 지역화가들, 사진작가, 충청북도 소재 대학에 이미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던 대학동아리 형태의 예술관련 소모임 (객토·외등 등 대학문화회, 어울소리·맥놀이·도깨비·소리마당 등 대학노래패, 민속연구회·와우탈놀이패·청운가면극회 등 탈패) 등 학생조직이 대거 참여하였고 심지어는 제도권에서 활동하던 극단에 적을 두고 활동하던 연극인들까지도 참여하여 문학·민속·미술·노래·연극·영화·출판·지역분과를 구성하여 전 장르에 걸쳐 분과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 ‘충북문화운동연합’은 그때까지의 충북 내 문화운동을 총결집하여 만들어진 단체로 전선체 조직운동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민족의 문화, 민중의 문화는 사회구성원 모두와 사회적 제 세력의 주체

적이고 자율적이면 민주적인 자기전개와 공동체적 응집에 의해 민족이 처한 당면의 질곡을 단호히 척결하고 진정한 민족주체, 민중주체의 삶의 문화를 창조하여 이를 발전시켜나가고, 그 발전의 토양은 민중적 삶의 현장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여기에 충북문화운동연합 결성의 필요성이 제1차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충북문화운동연합은 반도의 질곡 속에서 피동화 되고 왜곡되어지고 독살되어 가고 있는 민중의 삶을 건강한 삶과 주체적인 삶, 생명력 있는 삶으로 재생하고 이러한 토양 속에서 참다운 민족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저해하는 모든 악의 요인과는 과감히 맞서 싸우고 운동성을 같이하는 제 세력과는 연대하여 이 운동 목적을 온몸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중략) 그러나 각 부문의 이러한 문화운동의 표출이 현재 이전까지는 하나의 문화연합 형태로 조직화 되지는 못했다. 이에 충북이라는 지역을 설정하고 이제까지 각 부문에서 이루어진 성과와 문화운동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충북문화운동연합이라는 총체적 문화운동단체를 조직하고 이 구조를 통하여 민중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민중적 문화 형식의 개발과 그 표현매체 및 통로의 개발 그리고 민중문화운동 이론의 정립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충북문화운동 연합은 앞으로 운동참여자들의 공동 활동의 장의 확충, 자제훈련과정의 상설화, 공동체적 생활기반의 마련을 추진함으로써 자체생산구조를 다져나갈 것이다. (1987. 12. 4. - 충북문화운동연합 창립선언문 <높낮이 없는 세상에서 참사랑을 노래하리니> 중에서)

충북문화운동의 창립초기 조직구성은 공동대표 체제였으며 <통일춤>으로 잘 알려진 강혜숙 청주대 교수와, 영원한 연인 시인 도종환, <새벽이 온다 북을 쳐라>로 잘 알려진 판화가 이철수가 초대 공동 대표로 선출된다. 이 세 사람의 대표는 이후 90년대 초반까지 단일대표를 번갈아 가며 역임하여 충북문화운동의 지도구심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중심활동은 문학, 미술 등 기간 장르에 의해 주도되지 못하고 춤 풍물 마당극 노래 등 연행예술이 중심이 되는 특징¹⁴을 지니고 있었다.

주요 활동(‘충북 문화운동 20년, 충북민예총 10년’):

충북문화운동연합은 창립하던 해 겨울 매포수양관에서 전회원이 참여하는 총문연 겨울수련회¹⁵를 개최하고 조직을 다진다. 그러나 충북문화운동연합은 창립 이듬해 88년 단기적으로 침체현상을 겪게 된다. 창립이후 개인 기획사 사무실에 간판을 함께 걸고 사무실을 유지하던 열악한 사무국은 그나마 오래 견디지 못하였다.¹⁶ 총문연 사무국은 다시 청주시 수곡동 청주교육대학 정문 앞에 연습실을 갖고 있던 충북문화운동연합의 산하단체인 노래모임 ‘녹두패’의 연습실을 반으로 나눠 정착한다. 그러나 상근 구조는 여전히 불안하였고 1988년 12월이 되어서는 어렵게 상근해오던 상근직원¹⁷이 모두 상근을 정리하고 이직하면서 창립 이후 활동정지 상태가 된다. 이 시기의 활동 위축은 1노 3김 이후의 침체적인 사회분위기와 창립 당시의 거품이 빠지는 현상, 더불어 3인

공동대표 체제가 가지는 지도력 부재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충북내의 문화운동진영이 조직 활동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당시 충북문화운동연합은 단기적 조직침체에 대응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의장체제를 도종환·이철수 2인 체제로 대응한다. 다시 일년 뒤에는 이철수 단독체제로, 그 다음에는 도종환 단독체제를 거치면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발전한다. 당시의 의장의 임기는 1년이었으며 1992년 이후로는 김시천·박종관으로 총문연 의장이 이어진다.

1989년을 기점으로 충북문화운동연합은 왕성한 활동에 들어간다. 이때가 신공안정국이라 불리던 탄압 시기였다. 1989년 초부터 1991년 말 까지 3년간, 충북문화운동연합은 사무실을 청주시내 중심가라 할 수 있는 남문로에 두었는데 충북문화운동연합은 연합사무국과 객석 200석 규모의 예술마당 ‘열림터’ 18라는 공연장을 함께 가진 구조였다. 문화공간 ‘열림터’ 라는 다목적 공연장에서 충북문화운동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랑으로 매긴 성적표>, 민족춤패 ‘너울’ 의 <황소울음>, 노래모임 ‘녹두패’ 의 정기 공연 등 수많은 작품이 공연된다. 총문연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89년 4월 8일에서 13일까지 청주문화관에서 <창립 2주년 기념 기금마련 전시회>를 가졌다. 기금마련 전시회에는 작고하신 민병산 선생의 글씨를 비롯하여 장일순·김지하·이형만¹⁹·이철수·김기현 등의 그림을 걸었다. 전시회는 판화가 이철수에 의해 기획되었고 이를 통해 총문연 사무국과 연습장을 개소하는데 필요한 돈이 마련된다. 그렇게 마련된 사무실 기금은 현재까지도 두레공장의 자산 일부로 남아 있다. 공연장 ‘열림터’ 는 발표 장소가 귀하던 시절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공연예술 단체를 한곳으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공연장 하나를 공유하면서 여러 단체가 속해있는 구조를 가짐으로 공연단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의 충북문화운동연합의 활동은 충북의 거의 모든 진보적인 연행예술단체를 회원단체로 보유하고 있음으로 연행예술이 중심이 되는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를 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연대운동의 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연행예술이 그 역할을 일선에서 담당했으므로 연행에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였으나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연행예술이 발전하고 연행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이들 춤, 풍물, 마당극 등 공연예술 활동은 88년부터 92년에 이르는 거의 모든 사안에 공연역량으로 참여하여 지역문화운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마당극과 춤·풍물 (열림터, 씨알누리, 춤패 ‘너울’ 의 3단체) 은 서로 비롯한 활동가 숫자와 예술구성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고 ‘열림터(두레마을)’ 라는 한 개의 공연장을 함께 유지하는 형태로 완전히 재정을 통합 운영하였다. 마치 한 단체가 예산운명을 하듯 많을 때는 20명이 넘는 전업활동가를 보유하며 서로가 서로를 예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완해 주는 완벽한 연합적 활동을 1994년까지 유지하게 된다. ‘남의 밥그릇에 자기 밥을 덜어주는 소중한 경험’ 이라

불리는 이와 같은 공동체 조직운영의 경험은 현재까지도 충북민예총 단단한 조직운영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민족예술진영은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일정기간 우리나라의 민민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던 전교조 교육운동과 빈번히 교류하였다. 1989년 충북문화운동연합이 청주시 남문로 가구점 골목 입구에 위치할 때의 일이다. 충북문화운동연합의 사무국은 속칭 궁전가구 지하에 위치하였고 지하의 일부를 나눠 공연단체의 연습과 공연이 가능한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전교조는 3층에 사무실이 있었다. 일년 뒤 총문연이 세를 확장하여 3층을 반으로 나눠 전교조와 총문연의 사무국이 사용하고 지하 공간을 소극장 열림터로 만들게 되었다. 원래 다방이었던 이 건물의 지하에는 다방으로 사용하던 때의 실내장식이 시설되어 있었는데 이곳을 공연장으로 만들면서 실내장식을 훼손하고 소극장을 만들게 되었다. 이것이 1991년 10월, 우암동으로 극장과 사무국을 옮기면서 집주인으로부터 변상문제가 제기된다. 집주인과 교섭 끝에 수백만원에 이르는 시설손괴에 따른 변상을 부담하고 우암동 시대를 열게 된다. 충북문화운동연합까지를 포함하여 사무실이 위치하던 곳으로 구분할 경우, 청사기획실 시대와 녹두패 연습실을 거쳐 남문로 궁전가구 지하 시대, 우암동 참교육 빌딩 시절을 거쳐 지금의 구 여성회관 시대로 사무실의 위치가 바뀌었다. 각기 연도는 각기 1987년, 1998년, 1989년, 1991년, 2001년이 된다.

충북문화운동연합이 창립되며 충북의 영상운동도 함께 시작된다. 먼저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영화운동이다. 당시 청주권에는 대학에 영화동아리가 만들어져 활동하던 시기였다. 이들이 사회운동의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활동을 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대학생 동력으로 충북문화운동연합 창립에 합류하여 영화분과를 이룬다. 이들은 충북문화운동 창립 문화 한마당 <높낮이 없는 세상에서 참사랑을 노래하리니> 행사에 영화 상영 ‘다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를 제시한다. 이들은 한국영화의 탄생을 “일제통치하에서 어프로치 하는 저항의 정신” 으로 그 기원을 보고 당시의 한국의 영화 예술 상황을 “비제도적 관제문화와 상업주의의 정치아래 불균형적으로 발전해온 시대적인 아픔을 거치면서 작가들의 인식과 저항성은 부재된 영화” 로 보며 비합법 영상물의 보급과 진정한 가치가 있는 영화의 보급, 8mm, 16mm 등의 대안영화를 고민하는 활동을 중심활동으로 표명한다. 이들은 언로가 철저히 막혀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을 담은 비합법 영상물 등을 지역에 보급하는 등의 부정기적인 문화운동을 전개한다. 이재훈 박상욱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대학의 영화동아리와 소수의 각인된 인자로 구성된 영화운동은 세력을 크게 확장하지는 못하였다. 충북의 영화영상운동은 그 후로 <오 꿈의 나라>로 시작되는 일련의 16mm로 제작된 비합법 영화의 전국 배급사업의 지역보급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충북문화운동연합 영화모임 파랑새’ 라는 이름으로 미약한 활동이 존재하였다. 보급의 실제적인 역할은 충

북문화운동연합의 사무국 차원에서 직접 감당하게 된다. 충북지역의 영화운동이 지역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만드는 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했다.

1992년부터 1994년에 이르는 기간은 전국의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침체기였으며, 충북의 경우 이 침체기를 잘 견디어낸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타 지역과는 달리 침체기를 잘 버텨낸 구체적인 이유는 어려울수록 발휘되는 공동체 정신으로 제반 여건을 타개하는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운영의 경험이 충북문화운동연합의 발전적 해체 이후 민예총 창립이라는 형태로 충북민예총으로 견인되어 있다. 충북문화운동연합은 참여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다양한 예술장르가 결합되어 한 단체로 활동함으로 장르구분을 넘어서는 공동체 의식이 활발히 공유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마당극 공연을 하게 되면 노래패가 앞풀이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노래패의 공연 때는 조명등 부대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연극패의 당연한 일거리였으며, 문학의 시 낭송 행사를 하게 될 경우 풍물이나 노래공연이 시 낭송 행사를 보완하여 보다 볼만한 공연거리가 되도록 하였다. 이런 의미를 확대해서 볼 때, 이 시대의 공연물은 충북문화운동연합이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충북문화운동연합은 왕성한 공연예술 활동과 더불어 《문화충북》이라는 지역 문예전문지를 발간하였다. 문화충북은 처음에는 충북문화운동연합의 소식지로 출발하여 나중에는 대중문예잡지를 꾀하며 격월간으로 발간되어 문화운동연합이 해체되는 1994년까지 통권 14호를 발행하였다. 《문화충북》은 40쪽 분량의 크기였으며 충북문화운동연합에 편집실을 두어 주관하도록 하였다. 매년 50만원 정도의 인쇄비가 소요되었으며 2년 이상을 충북문화운동연합이 재정부담을 하며 발행되었다. 《문화충북》은 1992년 이후 충북지역의 문예전문지로 탈바꿈 할 계획을 갖고 독립하여 ‘문화지평’이란 이름으로 제호를 개칭하고 2권의 준비호를 냈지만 끝내 독립대중잡지로는 발행되지 못하였다. 충북민족예술진영의 발간 사업은 민예총이 창립되고 난 뒤에는 ‘충북민족예술’이라는 제호를 달고 2003년까지 통권 26호를 발행한다.

《문화충북》은 충북지역 문화기행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문화기행은 충북전역을 대상으로 단양에서부터 영동에 이르기까지 전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10여 차례 기행을 하였고 참가비를 받고 일반인과 함께 하는 대중사업이었다. 충북문화의 현장을 주제별, 지역별로 나눠 시·군 단위로 진행하였고 매회 많은 참가자가 참여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 기행을 통해 보재 이상설, 정지용, 홍명희, 신채호, 김복진, 정호승, 권구현, 신경림, 신동문 등의 예술인의 족적을 직접 찾아보고 농다리, 삼년산성, 옥천 고인돌 고분군, 괴산도요, 청주성 옛길과 성터, 한봉수 의병장의 전적지 등 충북의 역사문화자산을 두루 둘러보았다. 발간사업은 문화운동연합소식지 시절에는 오맥균, 정충환에 의해 편집되었으며, 문화충북 시절에는 정다미에 의해 편집되었다. 이후로 민예총의 《충북민족예술》은 김달수, 김민형, 박혜영, 신현 등에 의해 차례로 편집실무가 진행

되었다.

90년을 전후한 지역문화운동의 실상은 서울 중심의 문화구도 속에서 지역문화가 자리를 잡는 구도에 있었으며 솔직히 말하면 현재까지도 이런 상황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이르는 일반적인 지역문화 상황은 대략 다음의 일례와 같다. 외국에서 뮤지컬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 <신의 아그네스>같은 작품을 공연을 하고 나면 다시 지방무대에서 똑같은 작품을 서울에서 얻어다가 공연하는 형태가 존재했다. 그렇게 되면 지방신문은 그 연극에 출연한 배우를 ‘우리 고장을 지키는 훌륭한 예술인’이란 토를 달아 실릴 것이 마땅치 않았던 지방신문의 문화면에 대문짝만 하게 실어주던 시절이었다.

그 시기에 84년 도종환, 김창규, 김희식 등에 의해 태동된 ‘분단시대’로 시작된 충북문학운동은 3집에 이르러 충북에서 김시천, 김성장 등이 시를 발표하며 동인이 되고, 이후로 4집에 이르러 평론으로 김승환이 가세한다. 충북의 문학운동은 충북문화운동연합 창립에 앞서 <충북문학운동협의회(충북민족문학회)>란 문학단체가 결성되고 박운식, 김시천, 김성장, 김춘호, 배병무, 기완석, 김노수, 오맥균, 신정규, 김덕근 등이 가세하여 제법 많은 회원을 지녔다. 이들은 문화운동연합 창립 다음해 1988년 4월 30일부터 5월 21일, YMCA 강당에서 ‘제1회 민족문학교실’을 열고, 1988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동 물한계곡에서 ‘제1회 여름문학교실’ 개최하면서 문학의 대중화와 세 불리기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강의내용을 보면 ‘80년대 문학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 아래 신경림, 김사인, 홍정선, 김성동, 이창동 등 주로 서울에 거주하거나 전국적인 명망성을 얻은 작가를 초대하여 문학교양강좌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고은, 김남주, 송기숙, 천승세, 김명인 등 명망가 위주의 문학강연 중심이었다. 이런 활동의 특성은 어떤 목적과 주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문화운동 차원이라기보다는 문화운동의 저반을 다지는 사업에 가깝다. 1989년 제2회 여름문학교실은 충주 송계계곡에 위치한 충북대 임학과 실습지에서 개최되었다. 그해 여름은 전국교사협의회가 전국교직원노조를 구성하는 시기이며 수천명에 이르는 대량 해직사태를 불러일으키기 직전의 시기였다. 이 문학교실에 학생 문학동아리와 대학 문학동아리를 비롯한 많은 수강생이 참여하였고 충문연의 회원들이 전분과 차원으로 결합하였다.

1987년에 이르러 전문적인 노래모임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맥박’이라는 노래모임이 더 이상 교회 내에 머물고 있는 수준에서 발전하지 못하였고 대학에서는 1984년 이후 각 대학에 노래동아리가 결성되어 졸업생을 배출하던 시기가 바로 87년이였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충북지역에서는 노래모임 ‘녹두패’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 모임을 결성한 주체는 맥박에 뿌리를 둔 노래운동 인자와 대학에서 노래운동을 하다가 졸업한 사람들이다. ‘녹두패’에는 곽한일, 이종문, 이종서, 김달수, 이재하 최정희 등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창립공연으로 88년 <불러서 그리우면 사

랑이라 하마>라는 노래공연을 기획하고 공연연습을 진행하면서 노래패의 기능적인 면을 보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회원 영입에 나선다. 대학동아리 활동을 하던 김대훈·김창기(고려대 서창캠퍼스 소리마당)와 충북대 소용돌이 출신인 김홍정, 박병태 등을 끌어들이어 전문 노래패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초기 ‘녹두패’의 활동을 살펴보면 지역에 신선한 민중가요를 소개하고 당시로서는 감동적인 공연을 했지만, 장점과 단점을 골고루 갖춘 활동이었다. ‘보다 대중적으로 보다 일상적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래운동을 전개했지만 공연에 선택된 노래들은 <찔레꽃>, <대결>, <선언2>, <직녀에게>, <맹인부부가수>, <누가 저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구할까>, <무명전사>, <죽창가>, <술아 푸르른 술아>를 비롯, 심지어 김민기의 <백구>, <아침이슬>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노래를 붙렸다. 정작 지역문화다운, 문화운동다운 스스로의 노래를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필요했다.

이런 활동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당시의 문화운동은 반독재 투쟁을 근간으로 하는 전선체 조직운동을 최우선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문화운동 다운 스스로의 성격과 방향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같은 시기 ‘우리춤 연구회’의 활동은 전개양상이 다른 부문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문화운동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창립 이후 1985년 <땅의 소리>를 시작으로 1986년 <춤으로 본 세상>, 1987년 <이 가슴 똥똥 북이 되어>, 1988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에 이르기까지 우리춤연구회의 창작활동은 광주 5월의 문제, 노동현실, 교육문제 등 사회전반적인 문제를 작품의 주제로 다루면서도 대부분 대학 무용과 전공자로 구성된 전문 춤 공연단체로 상당한 예술적인 성과를 함께 지니고 있었다. 특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의 경우는 시대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전국교사협의회 결성을 등에 업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전국순회공연을 하게 되는 등 그 시기에 가장 빛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창작춤판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1988년 12월부터 1989년 8월까지 20개 도시에서 80회 이상, 순회공연을 하는 성과를 남기게 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공연 이후, 강혜숙은 독립적으로 왕성한 문화운동을 전개한다. 1989년 <통일춤>이라는 작품으로 전국 40개 대학을 순회공연 하는 성과를 남기고, 1990년에는 광주 민중항쟁 10주년에 전야제 주제공연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작품을 광주 실내체육관에서 공연하였다. 제3회 범민족대회에 초청되어 <통일의 언덕>이라는 작품을 공연하고, 통일운동의 열기가 높던 시대를 배경으로 <내사랑 한반도>(90년 3월) 외에도 수많은 예술적 성과를 남기게 된다. 김영아, 강영애, 김미경, 정미화, 육영림, 남기균20 등 청주대 무용과 출신이 이 단체의 골격을 이뤘다. 강혜숙은 한국민예총춤위원장을 역임한다.

‘우리춤연구회’는 이후 ‘열림터’라는 이름으로 단체 명칭을 바꾸고 통합 ‘열림터’는 다시, 마당극 전문단체 ‘극단 놀이패 열림터’와 춤 전문단체 ‘청주

민족춤패 너울’로 분화되면서 발전한다.

오세란이 주축이 된 우리춤 연구회는 1987년 <작업장 타령>이라는 노동운동을 소재로 한 한편의 마당극을 공연하는데 당시 대학생으로 청주로 교생실습을 내려온 유순웅(한신대 탈패)이 공연에 가세하게 되고, 또한 백상진, 원종문 등(청주대 와우탈놀이패) 대학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한다. 이 시기가 대학 내 동아리에서 마당극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운동으로서의 전문마당극 운동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들이 다시 같은 해 8월 <막걸리 총각>이라는 마당극을 공연하면서 유선요 등이 이 작품에 가세한다. 특히 한달에 한번씩 마지막 목요일에 개최 되는 정기 발표회 ‘목요마당’을 꾸준히 전개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제작 하였다. 이들은 근거지인 문화공간 열림터를 내덕동에서 사창사거리 부근으로 옮기고 ‘열림터’라는 이름을 공연단체의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춤이라는 전문장르에서 마당극, 풍물강습, 탈춤강습, 창작춤 활동 등 다양한 문화운동을 전개하며 발전한다. 열림터는 1988년 이후에는 전문 마당극 창작단체의 위상을 갖추고 마당극을 주된 창작 작업으로 <청남대 공화국>(89년 2회 전국민족극한마당참가작)을 공연한다. 그들이 가장 공을 들여 개소한 사창동 열림터 시절을 마감하고 충북문화운동연합이 위치하던 궁전가구 지하로 근거지를 옮긴 뒤로, 전교조 문제를 다룬 <사랑으로 매긴 성적표>(89년), <빈주머니 힘찬 주먹>(90년 충북대 사과대 합동강의실) 등의 마당극을 공연하여 많은 관객을 모은다. 특히 <청남대 공화국>은 전두환 대통령의 별장이던 청남대 문제를 문의지역 주민 중심으로 풀어보는,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여 만든 창작 마당극 작업으로는 충북 최초의 사례이다. 대본은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토론을 통해 집단창작 하였다. ‘열림터’에는 오세란, 박종관, 진철, 유순웅, 이승희, 박명구, 김성길, 박미숙, 이상희, 엄진나 등이 참여하여 이 무렵의 지역 마당극 운동을 주도한다.

이 무렵의 단체 활동 중 중요한 하나는 대중사업이었다. ‘열림터’는 대중사업으로 전통문화강습과 전통혼례마당을 주요한 사업으로 진행하였고 특별히 강습생 조직을 ‘추임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하여 열림터의 문화운동, 전통문화 동호인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여 수백명이 넘는 회원들이 조직되었다. ‘녹두패’의 경우는 노래라는 강한 흡인력을 토대로 동호인 및 강습생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노래 이야기’라는 대중조직이 건설된다. 특히 ‘노래 이야기’는 녹두패와는 별도로 한동안 활동하기도 하였다. 노래모임의 대중활동은 유호찬, 김경수(충북대 ‘맥놀이’ 출신) 등과 청주과학대 노래패 출신들이 중심이 된 ‘소리나누기’라는 동호인 단체로 발전하여 90년대 중반 독자적으로 악기를 갖추고 별도의 연습실을 청주시 사창동 창신초등학교 근처에 열기도 하였으나 전문 노래패로 나아가지 못했다.

89년 6월 도종환 시인이 전교조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된다. 충북문화운동연합은 8월 10일 충북문학운동협의회 주관으로 교사 시인 문학의 밤 <지금 비록 너희 곁

을 떠나지만>이라는 시 낭송과 노래로 구성된 공연을 청주 YMCA 강당에서 개최하고 시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90년 2월 17일, 충북대 인문대 합동강의실에서는 전교조 문제를 배경으로 하는 ‘참교육을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도종환 시인이 전교조 문제로 해직,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직후였다. 이 공연은 녹두패·씨알누리·열림터를 비롯한 많은 충북문화운동연합의 공연 역량이 도종환, 김시천, 김성장, 이광웅, 김진경, 조재도, 박종렬, 김종인, 신용길, 배창환, 이봉환, 이강산, 안도현, 김영춘 등 교육시인들과 함께 만든 공연이었다. 이 공연에는 당시 풍물 대중조직으로 폭넓은 활동을 하던 ‘울림’이라는 단체에 적을 두었던 전문풍물패 ‘씨알누리’ 21가 참여하게 되는데 씨알누리는 이때 울림에서 독립하여 활동중이었고 이 공연이 계기가 되어 충북문화운동연합에 정식 가입하여 단체 활동을 하게 된다. 1990년 씨알누리는 충북을 순회하는 <참교육비나리>라는 공연물을 만들어 전교조의 후원으로 충북지역 순회공연을 기획하였다. 이들의 활동이 충북지역 전문 풍물운동의 시작이었다. 씨알누리의 전업적인 활동은 타 단체와 비교하여 시기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어 전국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1990년에 되어서는 다시 우리춤연구회에 뿌리를 둔 전문춤꾼들이 ‘청주민족춤패 너울’이라는 이름으로 창작춤 활동을 시작하면서 <황소울음>이라는 농민춤판을 공연하며 다시 이전과 같은 왕성한 춤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오세란, 박미숙, 이상희, 조광묵, 박남여, 이명숙, 이선미 등이 이때 활동의 주축이 된다. 바로 1990년 이때가 극단 ‘놀이패 열림터’와 민족춤패 ‘너울’이라는 두 단체가 각기 마당극과 춤으로 전문 분야를 나눠 분화하는 시기이며 이 이후 ‘열림터’는 전문 마당극 창작 작업을 통해 <월급도둑>(92년), <대돈무문>(93년), <북실진달래>(94년) 등의 작품을 공연하게 되고 ‘너울’의 경우는 앞서 열거한 <황소울음>(90년)과 <희망은 작업대 위에>(92년) 등의 공연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황소울음>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한국농업의 참담함을 소재로 완성도 있는 마당춤 공연을 만들고 전농의 전국적인 결성을 배경으로 여러 지역에서 초청 공연하는 큰 성과를 남긴다.

충북문화운동의 문화운동체로서의 역할과 역량은 90년대 초반 3당 야합 이후 분신정국으로 이어지는 싸움판에서 모든 공연예술의 역량이 결집된 공연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바로 1991년 6월에 공연된 ‘오월에서 유월 죽음에서 부활’ 22이라는 총체극 공연이다. 이 공연은 충북문화운동연합의 모든 역량이 투입되어 제작되었다. 이것은 문화운동이 단순히 문화선동의 역할을 하는 것뿐 아니라 한 시대를 문화로서 정리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담당했던 일례로 볼 수 있다.

충북지역내의 대규모 공연은 89년 충북대 우리마당에서 공연된 가수 정태춘의 <송아지 송아지 누렁 송아지> 공연 이후 90년 충북문화운동연합은 대형공연으로 충북

대에서 공연된 노동자 한마당 <우리이야기>, <새날을 향하여>를 비롯 93년 서원대 야외공연장에서 공연된 <사람 사는 세상 만드세> 등이 매년 공연되었고 그때마다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 무렵의 총문연의 대규모 공연은 문화운동이 대규모 관객을 만나면서 나타난 것으로,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문화운동의 대형 공연매체였던 노문연의 집체극, 민중문화운동연합의 총체극 공연과 그 맥을 같이한다.

위에 열거한 사업 외에도 전국적인 사업의 충북 지역 내 보급 주체로 활동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사업이 있다. 특히 독립영화 사업은 89년 <오 꿈의 나라>(장산곶 매 제작)와 90년 <파업전야>와 그 이후 <어머니 당신의 아들>, <달힌 교문을 열며> 등 전국적인 영화 사업의 지역 보급 주체로의 활동하였다. 이 때문에 충북문화운동연합은 영화상영의 지역보급 주체로써 상영을 둘러싼 경찰과의 공방전과 법적인 싸움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충북문화운동연합 노래분과 녹두패의 이름으로 <가진 것 없어 이 노래 드리오>, <우리 이야기>, <새날을 향하여> 등 자체적으로 제작한 몇 개의 노래 테이프를 제작·보급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판화가 이철수의 목판화를 티셔츠에 나염하여 보급하는 일을 진행하여 대중사업으로 성과를 남기기도 하였다.

충북문화운동연합 활성화의 중심에는 역량 있는 사무국장과 상근자가 있었다. 특히 사무국장으로서는 초대 유선요에 이어 2기에는 시를 쓰는 김희식이 사무국장을 역임한다. 자유실천문인협회 회원의 이력을 가진 김희식은 충북국민운동본부의 총무국장을 역임하였고 사업성이 뛰어난 실무자였다. 3기로 김희식의 뒤를 잇는 유순웅은 조직의 원칙을 잘 견지하는 합리적인 사무국장이었으며 충북문화운동연합의 최강 전성기를 지켜낸다. 4기부터 총문연을 마감하는 시기까지 사무국장을 지켜준 노창호는 행정 실무집행과 기획력이 남달리 뛰어난 장점을 가졌다. 특히 노창호는 충북문화운동연합에서 충북민예총으로 조직 전이 되는 중요한 시기에 사무국장을 맡아 제도적인 실무를 책임지고 절차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법인화 과정의 갖은 실무일을 혼자 책임지다시피 진행하였다. 총문연의 활성화와 충북민예총 탄생의 배경에는 이렇듯 역량있는 실무책임자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부장급 실무자 중에도 시를 쓰는 정충환과 오맥균을 비롯하여 능력 있는 상근자가 많았다. 정충환은 고교시절부터 시를 써서 유명해진 재원으로, PT 당파성에 기초한 민중문화운동의 이론가이기도 하였다. 그는 총문연에 미학 강좌나 활동가 연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지역문화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대학 문학 동아리 회장 출신이던 오맥균은 이미 대학생 시절부터 사회운동과 빈번히 교류하며 자신의 역할이 분명하던 공학도 출신이다. 이 밖에 그림을 그리는 정다미는 《문화충북》을 편집하는데 남다른 편집 감각과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부장급 실무자의 능력 발휘로 총문연은 문화행정과 문화운동, 발간, 문화기행 등 기획력이 필요한 다양한 문화운동을 전개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빠뜨리지 않아야 할 자생적 대중문화활동으로 ‘청주놀이마당올림’이 있다. 올림은 풍물대중운동 단체로 초기에는 이형식이 주도 하였다. 그 밖에 기독교 학생회(EYC)의 문화운동과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활동, YMCA ‘청울’을 비롯한 종교단체의 문화활동, 85년 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대학 내 문화운동, 87년 이후 노동자 문화활동 등 특히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 문예활동이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이 6·29 기만선언으로 휴지기에 들어갈 즈음에 청주시내 중앙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집회를 경찰이 원천봉쇄 하면서 청주시내 전역이 시위장으로 변모된다. 이 과정에서 시위진압 차량이 조환동 어린이(충주 출생)를 치어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른바 ‘조환동 사망 사건’이다. 망자를 안치한 남궁병원을 시위대가 점거하고 장례를 충북지역민주시민장으로 치르게 된다. 이 장례식에는 우리 춤 연구회의 진혼춤과 노제 등 문화역량이 결합된다. 이 시위와 관련되어 시인 오우열과 유양우(당시 충북대학생)등이 함께 구속되고 이후 충북대는 유양우 석방투쟁을 석달 이상 계속한다. 지역의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수많은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와중에 국내외 정세는 변화되고 있었으며 민민운동권 전반이 침체일로로 겪어야만 했다. 이것은 92년에서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그러했으며 그나마 충북문화운동의 경우는 조금 둔탁하게 이런 현상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충북문화운동연합과 비슷한 입장에 놓였던 대부분의 전선운동체, 지역문화운동단체가 해체되거나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 충북의 경우도 92년이 되어서는 조직을 어떻게 새롭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 조심스러운 조직전망이 있게 되었고, 문화운동 영속의 문제와 지역문화에 대한 고민이 발간사업과 문화기행등을 통해 나타나며 고민의 폭이 깊어지기 시작하였다.

90년대 초반은 충북 뿐 아니라 전국의 민족민주운동 진영은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시기이다. 나라 안의 사정은 1992년 대통령 선거를 독자후보론과 범 민주후보론으로 갈려 대선을 치루고 난 뒤, 미처 봉합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고 이런 혼돈을 강타한 나라 밖의 사정은 동구권을 비롯한 사회주의의 몰락이었다. 그때까지 세계 정세를 나눠 지배하던 사상의 토대들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시기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민예총 창립 직전의 시기가 된다.

92년 대선을 앞두고 민민운동진영은 독자후보론과 범민주 단일후보론 둘로 나뉘어져 대선에 임하는 방식이 구분되었다. 이런 와중에 전국연합은 민민진영의 단일대응을 통해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전국연합차원의 대선 방침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같은 해 서울 경희대학교 크라운 관에서는 전 지역과 부문의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전국연합대의원대회를 개최되어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전국연합의 입장을 범민주후보론으로 결정한다. 이 회의에 박종관·오세란·노창호가 충북문화운

동연합 대의원으로 참가한다. 이 결정으로 충북문화운동연합은 전 분과 차원으로 대응하여 충북 전지역을 5일장의 장터를 따라 순회하는 <민주골에 경사 났네>라는 순회공연을 기획하여 충북전역을 한 달여 순회 공연한다.

우리춤연구회로부터 출발하여 통합열림터23를 거쳐 ‘민족춤패 너울’ 24에 이르는 충북지역 춤 운동은 1992년 <희망은 작업대 위에>를 공연한 뒤로는 급격히 침체에 접어든다. 춤운동의 단기적 침체는 오랫동안 충북의 춤 운동을 지켜오던 오세란이 고향인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고 난 뒤, 오세란을 제외한 ‘너울’의 자생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로 보인다. 한편 마당극공연을 전문영역으로 활동하던 ‘극단놀이패 열림터’의 경우는 1992년 <월급도둑>공연을 성공시키면서 단기적으로 활성화되기도 한다. <월급도둑>은 부산에서 열린 제5회 전국민족극한마당에 출품되어 문제작(우수작품상)을 수상한다. 열림터에는 초기 활동 회원들과 노창호, 이상철, 김성길, 김태운, 이남희, 권미선 등이 가세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창작극 <월급도둑> 공연에는 시를 쓰는 오우열이 함께 참여하고 충북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출신인유행렬이 가세하였다. 이 이후로 열림터는 93년 5월 다단계 판매사업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를 조명한 <대돈무문>이라는 창작 마당극을 공연하지만 <월급도둑>과 같은 성과에는 미치지 못한다.

주요 활동가: 강혜숙, 도종환, 이철수, 박종관, 오세란, 노창호, 유선요, 김희식, 유순웅, 정충환, 오맥균

관계 단체: 충북민예총

관계 자료:

자료 1 - <충북문화운동연합 창립 선언문>

- 높낮이 없는 세상에서 참세상을 노래하리니 -

오늘 우리 사회는 독재와 외세와 분단의 질곡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 일본이 이 땅을 침탈하여 심어놓은 식민지 반봉건적 구조와 그 문화가 해방이후에도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온존되고 강화 된데서 오는 역사의 필연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의 귀결 속에서 민족의 주체적인 삶과 민중의 인간다운 삶은 갈갈이 찢기고 발기어 찢고 얽히고설킨 고통으로 점철되어 온 이 참담한 민족의 현 단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족이 처한 시대적 상황의 질곡 속에서 횡행하고 있는 문화는 소비적이고 향락적이고 파괴적인 제국주의 문화와 독재에 기생하여 민족과 민중의 질곡을 방관내지 왜곡 표현하여 반민족적, 반민중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관제 어용 문화뿐이다.

그러나 민족의 문화, 민중의 문화는 사회구성원 모두와 사회적 제 세력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면 민주적인 자기전개와 공동체적 응집에 의해 민족이 처한 당면의 질곡을 단호히 척결하고 진정한 민족주체, 민중주체의 삶의 문화를 창조하여 이를 발전시켜나가고, 그 발전의 토양은 민중적 삶의 현장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여기에 충북문화운동연합 결성의 필요성이 제 1차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충북문화운동연합은 반도의 질곡 속에서 피동화 되고 왜곡되어지고 독살되어 가고 있는 민중의 삶을 건강한 삶과 주체적인 삶, 생명력 있는 삶으로 재생하고 이러한 토양 속에서 참다운 민족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저해하는 모든 악의 요인과는 과감히 맞서 싸우고 운동성을 같이하는 제 세력과는 연대하여 이 운동 목적을 온몸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충북문화운동 연합의 제2차적 필요성은 지역적 차원에서 제기된다. 지금까지 충북에서는 위와 같은 운동위상을 가지고 각 문화부문에서 기존 활동을 하고 있는 부문도 있었다. ‘분단시대’ 동인을 위시한 문학운동,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마당극 탈춤 풍물 등의 운동, 일단의 연극 노래 만화운동, 그리고 ‘우리춤연구회’ 등의 활동이 그것이다. 특히 지난 84년에 창립하여 놀이마당 ‘열림터’를 중심으로 한 ‘우리춤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은 현재의 ‘충북문화운동연합’ 결성의 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각 부문의 이러한 문화운동의 표출이 현재 이전까지는 하나의 문화연합 형태로 조직화 되지는 못했다. 이에 충북이라는 지역을 설정하고 이제까지 각 부문에서 이루어진 성과와 문화운동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충북문화운동연합이라는 총체적 문화운동단체를 조직하고 이 구조를 통하여 민중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민중적 문화 형식의 개발과 그 표현매체 및 통로의 개발 그리고 민중문화운동 이론의 정립의 필요성이 울에게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충북문화운동 연합은 앞으로 운동 참여자들의 공동 활동의 장의 확충, 자제훈련과정의 상설화, 공동체적 생활기반의 마련을 추진함으로써 자체생산구조를 다져나갈 것이다.

1987. 12. 4
충북문화운동연합

자료 2 - <기획좌담>

- 충북민족예술, 대항예술에서 대안예술로 -

▶ 일시 : 2003년 12월 22일 오후 7시

- ▶ 장소 : 흥덕문화의집€ 문화창작실
- ▶ 참석자 : 김강곤 (음악위원회 위원장)
- 김기현 (국제교류위원장)
- 김희식 (청주민예총 부회장, 흥덕문화의 집 관장)
- 배병무 (충북작가회의 사무국장)
- 오정균 (충북민미협 사무국장)
- 유순웅 (예술사업위원장, 예술공장 두레 대표)
- 이동원 (서예위원회 사무국장)
- 이희영 (서예위원회 회원)
- 이영광 (청주민예총 부회장, 풍물굿패 물개 대표)
- 이윤로 (풍물위원회 사무국장)
- 장철기 (연극위원회 사무국장)
- 조동언 (전통음악위원회 준비위원장)
- 홍사성 (무예위원회 위원장)
- 박종관 (충북민예총 사무처장·사회)
- ▶ 녹취·정리€ : 신현

박종관_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모여주신 동지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이렇게 모이기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과 같이 오는 2004년 3월 5일이 충북민예총이 창립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창립 만 10년 되는 날입니다. 창립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충북민족예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기에 참 적절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북 문화운동20년, 충북민예총10년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담주제는 충북민족예술의 현황과 전망, 충북민족예술, 대항문화에서 대안문화로 라는 조금 긴 제목을 달아 봤습니다. 현황과 전망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안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먼저 흥덕문화의 집 관장이신 김희식 선생과 예술공장두레 대표, 유순웅 선생께서 84년 초기문학운동과 우리 춤 연구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김희식_ 1982년도 말인가 부터 저하고 김창규 선배하고 도종환 선배하고 몇명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도종환 김창규 두분은 따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만남이 분단시대 라는 동인으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공간이라는 카페에서 첫 만남을 했던 것으로 기억되고요. 공간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의 시낭송작업이라든지 시 공부를 하고 서로가 써 온 작품들을 토론하는 모임이 있었지요. 대구는 대구대로 모임 을하고 있었는데 이게 83년도 겨울에 대구하고 연결되면서 대구에 있는 정만진, 배창환, 김용락 같은 분들과 연결되면서 분단

시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를 서로 오고 가면서 84년도 4월에 처음 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오월시, 시와 경제, 우리 분단시대 같은 동인지가 초기 동인지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의 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인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동인지라는 것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80년대 초반에 모든 출판물과 모든 잡지들이 폐간을 당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활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크지라든지 동인지의 형태로 표출된거죠.

박종관_ 84년 유화국면이었죠. 충북의 문화운동이 이때 시작 된 것도 전체 우리나라의 정세와 무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춤 연구회는 어떤 가요 ?

유순웅_ 우리춤연구회는 문화운동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대학 탈반 출신들이 지역의 문화운동이라든가 사회운동을 주도했던 반면에 충북지역에서는 대학의 무용과에서 연행예술운동을 주도했거든요. 이런 전례는 지금도 전무한 형편이거든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무용과 출신이 지역운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연행예술운동을 했다는 전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20년 전에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대단히 가치가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84년도에 우리춤연구회가 만들어진 초창기 초심은 지역운동, 지역문화운동으로 출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청주대학교 강혜숙교수님의 정신적 영향을 받았던 학생들이 우리춤연구회를 만들면서 그 조직이 자연스럽게 문화운동조직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84년도에 창립이 되었고 87년도에 문화운동연합이 결성되는 시절에 제가 결합을 했지요.

김희식_ 80년대 초반에 대학선생님들 중에 참으로 멋들어진 교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동순 전채린 윤구병 선생님, 유초하 교수님…… 강혜숙 교수님도 빼놓을 수 없고요. 채희완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81년도, 82년도에 충북으로 오시면서 자연스럽게 특정한 모임이 생겨난 것 같아요. 김지하 선생도 자주 내려왔었지요.

김기현_ 그때 당시 윤구병, 채희완 선생이 함께 이 자취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김민기 씨도 자주 놀러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84년 정도 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몇 년전에 박한진 교수님이 강요배 권순철 이라는 걸출한 화가들을 제가 다니던 대학에 강사로 끌어들이면서 제가 문화운동에 눈을 뜨게 됐지요. 20년 동안 헤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때 받았던 충격들, 82년도에 체게바라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독일의 케테콜비츠의 그림을 보여주었지요. 한참 모더니즘이 유행할 당시에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표현방식도 있구나 하는 충격을 받았지요.

이영광_ 충북문화운동연합이라고 명칭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청주지역 외에 다른 문화패들의 연합이 있었나요?

박종관_ 일단 이철수 선배님 같이 개인적인 인자들이 있었고요. 영동의 박운식 선생이라든가 이런 좋은 선배님들이 계셨지요. 그런데 이게 말이 충북문화운동연합이기는 한데, 충북 지역 내 에서도 다시 지역화의 문제, 그러니까 충북전역이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로 문화가 활성화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게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게 제가 평가하기로는 지역의 민예총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1994년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주지역의 초기 문화운동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광 선생께서 말씀해주시죠

이영광_ 87년도에서 94년도까지의 민예총이 창립되기 전까지 충주지역 에서는 87년도의 민청이나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웃다리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문학이 중심이 되는데, 충주지역에서는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이 바로 놀이패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풍물굿패 물개의 전신이고 충주 민예총의 발판인 것인데 볼 수 있습니다. 충주지역문화운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박종관_ 지금 충주지역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거나 성문화시킨 전례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충청북도의 지역 내 지역운동에서 충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특히 역사적인 비중은 상당한데 이런 것을 잘 정리하고 자랑 하는 데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웃다리가 참 중요한 단체고요. 물개도 중요하고 충북문화운동사의 큰 줄기에 포함될 만큼 적립된 바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영광_ 충주의 문화운동은 웃다리 창립이 시발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웃다리는 창립할 때 문화운동적 지향지점을 가지고 출발한 단체예요. 거기 회원이었던 분들이 지금의 충주민예총 지부장님이시고 전 지부장님이시고 그렇잖아요.

김희식_ 웃다리에는 문학하는 사람들도 많이 끼었어요. 왜냐하면 웃다리는 충주의 문화운동의 총화였었고 그것이 민청 하고도 깊이 관련된 단체였고요. 충주 민청 사람들이 대부분이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웃다리로 전이되었고 그 후에는 전교조 운동이후에 충주의 문화책방을 만들기 시작하죠. 책을 대여해주기도 하고 책을 모아서 책사랑 방 형식으로 이현주목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죠. 책 사랑방의 문제와 웃다리의 문제는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책사랑방 같은 경우는 빠지기 쉽거든요. 거기 실무자들도 능력이 있었고 이현주목사가 관여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 냈지요. 나중에 충북전교조 지부장을 하신 권영국 선생은 제대로 점검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_ 문화운동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84년부터 87년에 이르는 긴 여정 속에서 분단시대, 우리춤연구회, 또 충주의 지금 말씀하신 웃다리, 이런 부분의 열거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합의지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쟁점을 조금 바꿔서 문학이나, 미술이나, 혹은 풍물이나 이런 장르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충북은 풍

물운동이 참 잘되는 곳이잖아요. 역사도 길고요. 충북풍물운동은 그 기원을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올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적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올림의 이운로 선생이 계시니까 풍물운동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봅시다. 물론 YMCA의 청률도 점검 합시다.

이운로_ 풍물운동의 시작은 민속회부터 모임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4년도부터 대중운동과 노동운동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약 86년도, 87년도에 조직화하거나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 하였습니다.

홍사성_ 청률은 84년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순수한 민속단체였고 대학의 민연 출신들이 유입이 되면서 하다못해 84년도, 85년도에는 순수한 민요만 부르다가 86년도부터는 그야말로 노동가부터 시작해서 문화운동과 관련된 활동이 생겨났지요. 그 때문에 그 이전회원들과의 대립관계가 형성이 되고, EYC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우리 회원으로 들어오고 흥사단 쪽도 있었고, 이렇게 묶여지면서도 문화운동 전면으로 나선적은 없었고 대중적 문화를 한다는 의미가 좀더 강했죠.

유순웅_ 올림과 청률활동은 대중운동으로서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풍물운동이 조직적이고 운동적으로 발현이 된 것은 사실은 씨알누리의 창립과 더불어 나오는 참교육비나리로부터 기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광_ 저도 씨알누리의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대학3학년 때 씨알누리가 참교육비나리 순회공연을 할 때 저희학교에 와서 공연한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참 대단했어요. 저는 탈패에 있으면서 풍물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때였는데, 그때 이미 씨알누리는 풍물만을 가지고 이미 극을 만드는 수준이었거든요.

박종관_ 미술운동 이야기를 해 볼까요? 충북지역 문화운동에서는 우선 일단 초창기 출발지점에서 미술이 몇 년 째 늦거든요. 편차가 있어요. 김기현 선생 같이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지역에서 미술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민미협이라는 구체적 구심점을 만든 것이 다른 장르 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만들어 집니다. 1987년을 정점으로 3, 4년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초창기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해요.

김기현_ 8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당시 제가 학생시절이었고 학생시절에 이미 지역운동이 아니라 서울과 결합된 장소에서 이미 미술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미술공동체라는 모임에 슬쩍 발을 들여놓았다가 폭 빠져버렸죠. 이인철 같은 분들을 그때 만났고요. 서울미술공동체에는 노동미술위원회라고 하는 운동조직이 있었는데 이것이 자생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미술패들에 의해 만들어졌죠. 그때당시 지역미술운동은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전국민미협이 탄생될 시기에는 제가 충주에 있었습니다. 충주에 있으면서 권재은, 고찬재, 권영국 등과 술을 마시러 다니면서(웃음) 문화에 대해 많은 말을 나눴는데 솔직히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고 그러던 중에 87년에 제가 다시 청주로 와서 주변사람들과 미술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꾸리기 시

작한 것이고 그때 드나들던 곳이 농고근처에 있던 열림터였죠. 가서 기웃거리면서 ‘ 뭐 도와 줄거 없냐?’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문화동력이 비춰지고 주변에서 충북대 서원대에서 활동하던 몇 분의 후배들과 만나게 된 것이 시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충북의 미술관이 너무 보수적인데다가 사람도 많지 않아서 저 혼자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지요. 창립하고 전시를 만들 때까지 6개월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박종관_ 문학과 연행의 10년전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미술운동의 10년 전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현재이야기를 해 볼까요 ?

오정균_ 미술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라면 10년전에 선배님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 민미협은 사상성이나 내용성을 담보로 하는 이슈를 가지고 모였고 이슈화 된 것을 가지고 운동을 만들어내고 구체화 하고 단체적으로 활동하는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와서 느끼는 것은 미술운동의 침체는 아닌데 많이 활성화되고 무엇인가 할 일은 많은데 문제는 개인적인, 흔히 말하는 밥벌어먹는 일 때문에 어쩔 수없이 개인화되고 개인작업을 하고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새로 들어오는 회원들은 조직의 생각이나 내용을 담아 낼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교육하거나 체계나 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구요. 조직은 크게 달라진 것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디다.

홍사성_ 근데 그런 문제는 미술뿐 만아니라 민예총 전체적으로 예술인이라는 자체가 조직이라는 것과 거리가 있고 예전에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과는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단체라면 회원 교육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무예분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교육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방향성도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민예총 전체적인 부분에 핵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종관_ 교육만 가지고는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황이 많이 변해 있거든요. 새로운 문화 코드라고 말하는 것이 다소 막연하기도 하고요. 과거와 비교하면 반독재 투쟁같이 접점이 분명하던 시대의 교육과는 폭이 더 넓어지고 다양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회원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느끼면서도 교육만 가지고는 왠지 부족한 듯 싶습니다. 이이야기는 앞으로도 할 기회가 있으니, 그때 가서 몰아서 하도록 하고요. 풍물운동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충북지역의 풍물운동은 뜬패와 두레패가 잘 어울려 있는 구조이고요. 이것이 가지는 나름대로의 의미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대중문화영역이 넓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최근 활동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요.

이영광_ 저희 얼마 전에 아시아페스티벌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외교통상부에서 기획한 유럽 순회공연을 나가야 되고요. 9월에는 일본 다녀왔고요. 최근의 물개 활동은 전문공

연단으로 국제 교류를 하면서 우리 문화를 알려내는 작업하고, 또 하나는 대중사업인데, 저희 물개의 대중조직을 설명 드리면요 소모임이 6팀이 있어요. 60명이 넘어요. 후원회가 120명이구요. 이게 사실 대중 다 대중조직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민예총 행사나 우리 행사를 할 때에 인력동원을 해주는 사람이예요. 해맞이 산행이라든가 정월 대보름제, 단오제, 이런 사업들을 그 분들이 직접 준비하죠. 이런 부분은 성과라고 보고요. 그들이 주인이기에, 돌려준 것으로 보고 이런 작업이 사실 대중작업인거죠. 그리고 돌려주는 작업이 어찌 보면 우리 문화를 이끌어서 돌려주는 작업들이니까 그런 작업들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풍물운동은 대중과 전문성이 함께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민예총에서는 그것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 할 것이고 씨알누리의 경우는 전문 공여활동만을 하고 계시는데, 자체적인 대중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유순웅_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문패로서의 물개가 대중조직이 필요한가? 이 부분은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요. 지역조직으로서는 필요한데 뜬패로서의 물개를 생각할 때 필요한가? 나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역운동으로서는 물개는 대중조직이 필요하고 반드시 건사되어야 하지만 순수하게 뜬패로서의 물개는 충주에서 활동하기보다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죠. 물개 입장에서는 지역조직보다는 뜬패로서의 활동, 공연이 더 중요하고요.

이영광_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연 횟수가 많은 것뿐이고, 생활기반은 충주예요. 충주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내는 건데 중심은 충주에 있는 거지요. 단지 그냥 공연을 다닌 것 뿐 이고요.

유순웅_ 그런 면에서 나는 점점, 지역에 오래 있으면서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충북에 근거하고 산다는 것이, 내가 여기서 작품을 연습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지역운동이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목적자체가 지역운동이었는데 지금은 소위 말하면 세계가 1일 생활권에 들어간 거란 말이죠. 지역적 가치라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 가요? 오히려...

이영광_ 저는 충주 지역에서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유순웅_ 아, 그게 있으면 다르지요. 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골에 자리 잡은 것은 그곳을 근거지로 지역문화운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개념보다는 뜬패로서의 역할에 생활기반을 거기에 삼겠다는 거지요. 이런 예를 들면 설명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울림이 1년에 활동을 볼때 공연을 50회를 한다, 그리고 대중조직을 활발히 한다. 씨알누리는 보니까 1년에 30회 공연을 한다. 대중조직이 별로 활발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야기할 때 서로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울림의 지향점은 현재로서는 풍물공연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라는 거지요. 씨알누리는 아무리 활동이 섞여있어도 거기는 공연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바라보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다른 거지요.

박종관_ 간단하게 시작된 이야기 인데 상당히 주용하고도 쟁점이 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뜬패 중심인 예술단체 활동의 지향지점은 전문활동인데 앞으로 대중운동의 영역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놀이패열림터가 지난 시절 중심사업으로 해왔던 대중사업을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놀이패열림터는 과거에 ‘추입새’ 라는 광범위한 강습생의 대중조직을 가지고 있었지요. 또 울림은 대중조직으로 뜬패지향에 있고요. 지금까지는 두레패활동이 결국은 뜬패 활동을 하기위해서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 가치가 따로 존재하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윤로_ 두레패의 개인의 성향중 90%는 뜬패로 가기 위한 작업이지요. 울림의 경우는요. 조직내에서 저희는 2가지를 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중적인 사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대중사업에 붙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이 분들이 하시는 활동자체도 자기가 뜬패로서, 혹은 전문연희꾼으로서 승부를 걸고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울림이라는 단체 자체는 두 가지로 갈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순웅_ 아무튼 열림터의 대중조직은 정확하게 실패한 거구요. 물개의 대중조직은 현재로서 성공한 것으로 보여져요. 열림터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두레조직을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게 해 주어야 하는데 뜬패가 두레패를 지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하려다보니 조직이 확대되고, 그것을 지도하다보니까 뜬패로서의 활동이 등안시 될 수 있었고요. 울림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공이죠. 두레패는 두레패로서의 자생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울림의 경우는 두레패활동이 아니라 뜬두레패 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하면, 두레패를 조직하는 활동이 뜬두레패의 역할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뜬두레패의 역할을 하다가 한계에 정착하니까 자꾸만 뜬패로 가려고 하는 관성이 생기는 아닌가 생각 합니다.

박종관_ 최근의 문화운동 진영의 고민은 운동의 속성 변화에 따른 적응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민예총이 그냥 예술단체냐, 문화운동 단체냐의 문제지요. 요즘의 문제는 쟁점이 없는 문화운동을 이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역 민예총이 변혁에 기초한 다양한 사안을 만들어 내면서 다양한 문화운동의 쟁점을 틀어쥐는 데는 실패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도 “너희의 본질적 속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의 본질적 속성은 문화운동 일수밖에 없다 !” 하는 당위론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유순웅_ 지금이 분권시대인데요. 그 분권의 시대라는 것이 서울에서 지역으로 권리를 이양한다고 하는 소리 아닌가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권력을 찢을 것을 찢고 나눠줄 것은 나눠주고, 단순히 나누어주는 배분과 강제로 얻어오는 것 쟁취, 획득. 이렇게 분권과 분산이 다 있는 것이죠. 분권과 분산 이 두 가지는 결과적으로 권력이 이동되는 것인데, 지역문화운동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역을 뛰어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문화운동연합이나 민예총의 역사에서 열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고 한다면 향후 10년, 20년의 활동은 오히려 열림터 보다는 물개 같은 곳이 역사적 가치가 평가받아야 하고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받고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푸대접받던 시대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이기 때문에 더 평가받지는 못하더라도 지역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서울을 잡아먹고 세계를 잡아먹는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단체가 물개인 것 같아요. 물개 뿐 만이 아니라 열림터도 곧 이제 서울을 잡아먹고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발톱을 갈고 있어요. (웃음) 충북민예총도 이제 국제 교류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이런 국제 교류들을 이제는 서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 지역, 지역에서 외국으로 뻗어나가서 한국의 문화를 저쪽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충북의 문화더라.. 하는 이런 시대를 이제는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종관_ 저희가 알고 있는 지역문화의 실천론, 방법론으로 제시된 구호 ‘전지구적으로 사고하되 전지역적으로 실천하자’ 라는 부분과도 맥이 닿는 말씀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것도 한 4, 5년 전까지는 유효하던 구호였는데 지금은 이것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영광_ 제가 옛날부터 충북문화운동연합에 가더라도 옛날에 거기 참교육빌딩 3층인가 거기 가면 문턱이 높아서 제가 잘 들어가질 못했어요. 씨알누리가 너무 부러웠고. 그 쟁쟁한 선배님들 밑에서 보호받으면서 공연도 막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이야 너무 부럽다 그렇게 생각 했는데.....

박종관_ 근데 지금은 물개가 더 잘나가는 것 아닌가요? (모두들 웃음)

이영광_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서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지금 그렇구요.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충주는 늘 따로 놀잖아요. 충주도 이제 많이 컸어요. (또 웃음) 그런데도 이게 잘 극복이 안 되네요. 충북민예총이 그래도 중앙탑이 위치한 충주가 중심인데, 너무 청주 중심이 아니냐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서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충주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솔직히 그런 섭섭한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습니다.

박종관_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민예총 대의원총회에 가서 느낀 것이 “야! 이

거 서울민예총도 지역사람들 때문에 맘대로 못해먹는 시대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청주중심의 일을 청주민예총에서 다 받아 간다면, 충북민예총 차원에서는 지역지부 간에 균형 있는 사업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지역 입장에서의 청주중심의 구도에 대하여서는 물론 충주뿐 아니라 제천 단양이나 남부지역의 보은 옥천 민예총에서도 이런 형식의 소외감이 존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겠지요.

유순웅_ 사실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충북민예총은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행정구역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고 돈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박종관_ 도 단위 민예총에 관한 것은 행정구역상 광역 시도가 생존하는 논리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지요. 이 경우에는 해체 이후 분화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그 조직도 생존을 위해 대응 가면서 상당기간 생존을 하게 될 확률이 높지요. 충북민예총의 경우는 연대사업이나 지부간의 의견 조율 등의 기능은 최후까지 남을 거구요.

유순웅_ 청주와 충주가 대등하게 또는 다른 지역도 그렇게 문화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청주가 충북의 뒤통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지역에서 조차도 분권이 안 되고 청주중심이 되는 거죠. 이것은 사실 냉정하게 도가 없어 져야 되요.

박종관_ 지역간에 편차가 있다는 점도 살펴볼 지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라는 것이 무용하다. 이런 개념도 있지요. 충북민예총 입장에서는 94년도 충북민예총 이 창립 할 때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충북민예총은 지부건설만 완벽하게 된다면 할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 표현했던 말이 ‘책상하나의 지도력’이었지요. 책상 하나를 놓고 그 책상하나가 모든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책상하나의 지도력만 행사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 그런말을 했었는데, 이게 충북민예총 중심의 시대가 너무 오래가고 있는 거죠. 회원과 사업, 지도력 등을 장르와 지역으로 다 찢어주고 나면 지회장과 몇 명의 상근자만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것이 권력이 되어가지고 “모여, 헤쳐, 얼마 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웃음) 앞으로 근데 이것은 분화를 전제로 부분 해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순웅_ 근데 충북민예총이 정말 마인드를 조금 넓혀 가지구요.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국제교류 같은 것 아닐까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하면서도 먼저 시작한 단체가 다 느끼고 있겠지만 우리 단체 실력들이 다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 있거든요. 미술, 문학, 등 타 장르들을 보더라도 실력은 충분해요, 근데 뭐가 안되나 하면 교류가 안 되는 거죠. 발이 없는 거예요. 모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충북민예총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탈지역화 하여 우리의 가치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현_ 물론 집단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분들이야 그런 국제교류처럼 쉬운

부분이 없지요, 솔직히. 초대하고, 초대받고 그러면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우리나라를 빼고 아시아권 제3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민미협이라는 단체와 교류를 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다른 나라 미술협회라는 단체는 전문가집단이 아니 예요. 아마추어예요. 우리나라 실정으로 말하자면, 사회교육원 출신이나 평생교육원에서 배운 수준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림을 잘 그리는 실제적인 작가는 조직이 필요 없어요. 혼자 생존해도 충분히 살아남으니까요. 특히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실력이 있는 작가는 이미 국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설립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미협과 우리나라가 교류를 해서 전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들여온 그림들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요. 수준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느냐 하면은 국제교류사업을 해야 엄청난 돈을 따낼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잘못된 관행이에요. 미술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국제교류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교류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에이전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유순웅_ 예전에는 지역문화운동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제는 지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밖이 세계가 되든, 아니면 전국적이 되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미술도 지역에서만 머물면 지역작가라는 소리를 듣는것 아닌가요 ?

김기현_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향토작가라는 말을 듣지요. (모두들 웃음)

박종관_ 그러나 “지역의 뿌리를 내린다. 혹은 근거를 둔다” 라는 의미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깊은 의미가 있지요. 지역 문화적 특징에 근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향토작가든 지역작가이든 앞에 타이틀을 떼기 위한 작업을 향후 민예총이 해야 할일인 것 같습니다.

유순웅_ 탈지역화가 역으로 청주에서 전시를 하면 전국에 관객들이 모여든다. 이것도 탈지역화거든요. 그러니까 충북의 어떤 대형 이름 있는 축제에 전국의, 세계적인 관객이 모여든다. 이것도 탈지역화라는 거죠. 탈지역화라는 것은 결국 향후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는 것도 과제이지만은 우리의 어떤 것을 보기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도 탈지역화가 아닐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과 실천이 향후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_ 충북민예총의 조직화에 대한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지역은 경계 없이 잘 모인다는 장점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직화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실천을 잘 담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참 대단한 장점인데요.

김희식_ 충북민예총은 선배들부터 아래 후배들까지 전체적으로 조직적 사고와 의견을 모으는데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통은 뒤이어 시작된 무예나 서예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여 집니다. 타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인데 우리는 당연한 일이라서 이 장점을 못 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조직력 이란 것도 우리가 지역적 실천을 담보하고 있지 않을 때 지역문화론 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방향을 잃고 헤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종관_ 지금 무예위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무예위원회는 저희 충북지역에서 전국민 예총 중에서 유일하게 조직화에 성공했어요. 충북이 태견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요. 그런데 조직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한 양질의 활동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예위원장 홍사성 선생은 오랫동안 문화운동에 꾸준히 관여해 오셨는데, 그 때문에 거는 기대도 많고요. 실제로 저희가 아주 특별하게 가진 장르이면서도 특별하게 만족하지 못한 장르가 아닌가 하는 자평을 하게 됩니다. 현상점검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싶습니다. 무예위원회의 고민은 아마 다른 위원회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사성_ 저희 무예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무예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예술성이라는 개념, 운동성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무예가 예술로서의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또 무예를 가지고 얼마나 문화운동적인 요소들을 갖추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무예는 넓은 의미로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론적으로는 무예는 예술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다만 무예가 가지고 있는 전수되는 동작들은 예술품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예술품으로 형상화를 주고 공연화 하니까 예술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무예가 문화운동적 활동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예술적인 활동도 검비를 해야겠지만 더 많은 의미로는 무예가 가진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문화운동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에 대한 고민, 사회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인데 무예가 무슨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또는 그것이 그 의식에 표출되는 동작들에 대한 관심이 사실 무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결국 교육문화운동쪽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요. 무예를 통해 가치를 전달한다고 할까. 가치가 높고 예술 쪽 개념으로 치면 춤이나 이런 것처럼 구별이 사실은 없어진다고 봐요. 춤의 개념과의 상징성은 분화가 안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레와 탈춤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기능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가치는 같겠지만 보여 지는 양식이 다른 것처럼 무예도 그냥 예술적 활동의 표현 만이라고 치면 그런 형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김기현_ 무예를 흔히 곡선이 있는 퍼포먼스라고 본다면 상당히 절도 있는 예술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미술의 장르로 들어와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플래쉬 몹’ 이라고 하는 퍼포먼스는 집단으로 움직여주는 것이거든요. 태권도나 태견에서 수백명이 한

동작으로 보여주는 것에 격찬을 보낸단 말이죠.

김희식_ 민족무예 택견이나 경당은 크게 볼 때 문화재의 영역 속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문화재가 전수되거나 이런 것들이 일단 아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같은 부 소속이고 문화재는 예술관장하는 부서에서 같이 관장하거든요. 그리고 택견과 경당이 공히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하죠. 그리고 공연하잖아요. 탈춤처럼 원형은 문화재 인데 응용은 예술이 되는 개념에 같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술적 속성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이 안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_ 너무 장르를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과 주변의 기대 때문에 무예가 너무 부담을 갖는 것 아닌가요 ?

이영광_ 지금 무예가 예술이냐 아니냐는 문제 인가요 ? 저는 무예라는 관점 자체를 우리식으로 봅니다. 예술의 갈래를 꼭 서양식에 의해서 맞출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말 붙이기 나름이고 정신적 예술세계로 볼 수 있는 거죠.

유순웅_ 제가 콜롬비아 갔을 때, 브라질의 카포엘라 라는 거리공연을 봤거든요. 이게 충주무술축제에도 오고, 안동 탈춤 축제에도 오고 그랬거든요. 그게 분명히 무술인데 콜롬비아 거리극 축제에서 거리극으로 공연을 했고요. 이걸 무술이지만 무예로 인정을 받고 세계적으로 공연을 하러 다니는 거죠. 물론 제가 본 것은 콜롬비아 아주 시골 촌에서 태권도를 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하나는 공연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국제화에 성공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인식의 차이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홍사성_ 저는 그게 무예를 공연화 한다는 의미 보다는 무예를 사용하여 무용화를 했다고 는 보는 거예요. 춤 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문제는 그 이상의 본질적으로 무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무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예운동의 방식을 앞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박종관_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무예위원회에서 대안을 내는 것만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장르를 새로 만들고 표현방식을 새롭게 창작해야 하는 문제이니 만큼,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는 노래운동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북지역은 노래운동사도 할 얘기가 많은 곳인데요.

조동연_ 음악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확실히 분리를 해 주세요. 문화운동시절하고 충북 민예총10년하고 분리를 해줘요. (모두들 웃음)

박종관_ 녹두패라든가 노래세상이라든가, 민들레의 노래……, 두루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지역의 노래운동을 간략하게 점검하여 주시고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것인지 충북민족예술 속에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에 대한 간략하게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강곤_ 충북지역의 어떤 노래운동사를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제가 몸담았고 이렇게 같이 해왔던 시기는 얼마 안되거든요. 저는 대략 3분의 1정도의 지점인 것 같고요. 그전에 황익주, 김달수, 박상신 선배님과 김대훈 형님, 그다음에 저. 이렇게 계보가 그렇게 흘러 온 것 같은데요. 저희 충북민예총음악위원회가 이번에 정기총회를 하면서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위원회 분리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음악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에 대해서 총회때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음악의 미학까지 이야기 하면서 거창하게 했는데요. 지금현재 음악위원회가 본래 가지고 있던 역할들이 전통음악과 서양음악……, 뭐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도 있고 아니면 대중음악이나, 아니면 메시지 송이나, 정치적인 음악이나 이런 식의 분류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 풍물위원회와 전통음악위원회는 아직 준비위원회인데 전통음악과 음악위원회와 이렇게 3가지 위원회가 총칭해서 음악이라고 하는 커다란 범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녹두패 라든지 사회운동과 같이 결부되어서 음악이 했던 역할들을 보았을 때, 하나에 세 가지 장르들이 자연스럽게 음악이라는 형태로 표출 될 수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래를 만들더라고 물론 내용적으로는 사회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아주 열려있는 풍물과 우리 악기와 서양악기에 대한 개념자체가 혼재되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마 그것이 90년 중반부터 풍물자체가 자기 영역을 가지고 전수를 통해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 시스템구조를 가지고 밥벌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장르로서 정착이 된 것 같고요.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음악자체가 음악을 해왔던 사람들이 실려이라든지 연주기량들이 대부분 대학 노래패를 했던지 합창단을 했던지 아마 추어 정규적인 수업을 받고 음악위원회의, 음악을 하는 사람보다도 대학동아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사장되어서 그런 기능들이 많이 퇴화되었고 그런 결과로 몇몇 사람들만 남아서 노래를 이끌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민예총에 있어 음악이 가져야 할 어떤 지향점이 있다면 민족예술인총연합이라는 민예총의 모티브처럼 음악자체가, 어떤 형식과 서양적이고 동양적이고 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고 같이 가야하는 것들이 각자 떨어져있는 음악들을, 전문화 되어있는 기량들을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해서 흐지부지 한 것 같아요. 음악위원회에서는 풍물과 전통음악과 여러 가지 음악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진정한 민족음악에 관한, 혹은 민중음악에 관한 토론들을 통해 음악위원회의 결과물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막막합니다.

박종관_ 민들레의 노래를 주도했던 김대훈의 가치는 노래운동을 통해서 밥을 먹어보겠다고 생각한 데에 있다고 봐요. 충북지역에서 노래로 전업적 활동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전의 노래운동과 다른 지점에 있었지요. 이것이 김대훈이 가진 충북지역 노래운동사의 중요한 위치이고요. 다만 지금의 충북지역 노래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향후로 어떤 전망을 갖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저는 지금 조금의 조연도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 답답해요. 이게 어디 천착해서 어떤 가능성을 내야 할 것인가 근본적인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 문제인데, 지금 당장의 현실로 닥쳐진 것이 음악위원회의 조직분화잖아요. 오늘 분화 이야기를 좀 합시다. 아마 이 부분은 전 음악위원장이셨던 조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할 텐데 향후로 그래도 우리 충북민예총 차원에서는 전통음악분과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거든요. 사실 잘될 것도 같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점검을 좀 해주시죠.

조동연_ 수많은 고민이 존재하겠지만 지금 현재 음악위원장님이 고민하는 것. 저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무대에서 평가받고 무대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보다 나름대로의 음악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조금 더 높고 다양하게 가지고 대중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평가 받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민예총이나, 우리 연희단체로 가정 했을 때는 대중성확보에서 일단 실패하면 아무리 수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도 나는 연희패 로서의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지난 20년 간의 팸플릿이 많아도 우리한테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보다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듣는 귀가 전문화 되어 있고 또 보는 눈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뭐라 그럴까, 이제는 지역이 아니 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다 전국화 되어있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이.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귀와 눈을 우리가 맞추어줄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없다고 봐요. 이게 문제예요. 관객은 가슴을 확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쫓아갈 수 있는 상품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있구요. 그래서 상품개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충북민예총은 조직의 대중성의 힘을 일단 일차적으로 가져야 하지 않냐. 인물 중심으로 간다면 명망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야기는 몰라도, 전통음악위원회가 앞으로 충북민예총을 책임지면서요. 반드시 지역을 연고로 하지만 지역의 기반을 배경으로 사람을 만들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진 스타를 길러내서 그 힘을 가지고 전통음악위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영광_ 관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다 따라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없다는 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하나는 음악위원회가 굉장히 부러워요. 작업하는 것이. 씨알누리하고 작업하면서 같이 하시는 모습이 와 나도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 청주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자원

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누군가 연출력과 기획력만 가지고 펼치기만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는 충북민예총 사무처에 대한 이룰테면 소망이 장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르가 대중적인 힘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고 장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무처가 관할해서 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장르는 각각의 공연을 하지만 민예총만이 갖고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 잘 활용해서 민예총이 하는 소극장공연, 이런 것들이 거의 분기별로 발표회를 여는 거예요. 열면서 평가를 받고 다음에 또 할 때는 그 평가를 가지고 또 한층 더 다양한 작품을 가지고 나올 수 있고 이런 상호 우리 내부에서 장르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하면서 사심 없이 장르를 넘나들면서 비판할 것은 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예술적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관_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많이 말씀해 주신 조직과 개인과, 개인과 조직 간의 문제들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 앞으로도 큰 숙제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음악운동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지나온 과거보다는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부분, 이 부분들을 좀 강하게 열어나가는 선상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어떨까 합니다. 그것은 여기 모인 민예총 장르지역이 공히 다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예 위원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술발전사에서 많은 이력을 가진 장르이기도 한데, 민족성이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나중에 장르로 구성된 서예위원회이기도 하고요. 2002년 충북민예총은 서울도 만들 수 없었던 한국민예총의 한 장르인 서예 조직을 가장 단시간에 가장 왕성하게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괄목하고 보거든요. 서예가 있음으로 해서 충북민예총이 빛나기도 합니다. 충북민예총 전체가 전통음악과 같이 정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서예 그러면 굉장히 고리타분할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힘도 느껴지고요.

이동원_ 글썄요. 서예가 일단은 민예총에 서예가 창립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입니다. 서예가 일제시대, 선전 때부터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를 거치면서 곡절도 많았지요. 충북민예총의 서예위원회의 결성에는 서예협회 청주지회가 발족되면서 단재문화예술제전 공모전을 열게 되었어요. 그걸 하면서 김승환지회장님이나 박종관처장님 등등을 보면서 어찌 보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봐야지요. 지금현재 민예총회원들은 서예협회 회원의 반 이상은 차지한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될 텐데요.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 중에는 현재 서예협회 회원, 서가협회에 계신 회원도 많이 계시구요 또 미협 내에 활동했던 여러분들도 계

십니다. 서예 하면 아주 지극히 보수적 이어서 진보적인 예술인들의 모임인 민예총하고 서예하고도 안 맞을 거라고 생각 했었는데, 막상 참여해서 보니까 별로 과격한 것 같지도 않더라구요. (웃음) 그리고 사회참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포용하고 이해해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저희가 거기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틀에 박힌 전시장에서 보여주는 서예가 아닌 민예총에 들어와서 천글씨전을 전개 하면서 행사장 분위기를 띄워 준다든가 혹은 직접 현장에서 휘호 행사, 휘호 퍼포먼스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민예총 서예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_ 고맙습니다. 이거 박수감인데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야 하겠습니다. (모두들 박수) 이희영 님께서도 한말씀 해 주셔야죠.

이희영_ 저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서예사적인 의미에서 볼때 지금까지 너무 정적인 일만 해 왔다는 것, 정중동을 서예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정적인 측면에만 매진해서 종이나 동에 대해 교차점이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다는 것. 그런 면에서 서예가 정이 아닌 정, 중, 동을 결합할 수 있는 하나의 복합문화매체로서 새로이 탄생되게끔 노력하고 싶습니다. 어떤 예술장르와도 항상 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술로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_ 충북지역에 아주 특별하게는 민족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르, 사실 춤패 너울이 그런데 전공자들의 춤패가 아닌 민중무라고 할 수 있는 춤패로 전국적으로 서너개 단체가 있고 그중에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춤패 너울이 전국에서 유일하데 눈부신 활동을 했던 것도 사실이구요. 올해도 성과물을 보면 경의선, 경인선을 따라 통일춤판을 연 것이 양질이고 우량한 사례이지요. 충북지역 춤 운동에 관해서도 사실 너무 선배들의 역할이 너무 찬란해서 그런 건지 지금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두루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철기_ 제가 알기로는 희망은 작업대위에 그 이후에 침체기였었지요. 그러다가 이렇다할 활동은 없고 열림터 공연에 같이 배우로 들어간다는가, 춤으로 들어간다는가 그 씨알누리와 물개와 같이 하던 <오등은 자>에 이후에 <젯빛생명의 춤>이라고 하는 환경춤을 공연할 때 쯤 제가 왔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꾸준히 1년에 하나의 정기공연 형태로 순회공연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왔고요 지금은 춤 공연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술공장두레로 통합조직이 되면서 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어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쓰는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요 얼마전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갔는데 춤패 열림터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모두 웃음) 정체불명의 단체가 되어가고 있질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저희단체나 타 단체도 고령화 현상이 문제인데, 저희는 단원 한 명 빼고 다 30대에 접어들거나 넘었거든요. 그래서

좀 후진양성이나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열림터나 춤패도 중간, 8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90년에 넘어오는 그 중간이 확 비어 있거든요. 선배 배우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지금 도약을 할 시기인데 가장 큰 문제는 거기인 것 같아요. 다 자기 먹고살려고 하고 작품 간간히 하고 있고 저희도 어린 후배들, 저도 후배지만 거의 다 나가고 예전에 있던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있던 사람에서 이층하라는 단원 이외에 바뀐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연희 패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씨알누리도 지금 제가 왔을 때 봤던 사람 중에서 3명 남았거든요. 그래서 후진양성, 또 작품으로 승부해야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박종관_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 민예총 차원에서 저희도 후배들이 안 들어온 것이 꽤 되거든요.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이거든요. 더구나 민예총이 말입니다. 그런데 건데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순웅_ 연극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94년도에 극단새벽이 민예총으로 들어왔는데, 제도권에서 탈퇴를 하고 민예총에 들어온 이후에 극단새벽의 활동은 상당히 평가받아야 되는 활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창작극을 한다는 것은 무대극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10년 동안 즐기치게 그런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지역에 있으면서 손해보는 것이 지역작가들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력이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극단새벽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새벽의 작품들을 살펴보면요 서울에서도 통할 수 있는 작품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지역이기 때문에 평가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극시인의 경우는 지역의 지역문화운동조직에 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우니까 문화운동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 발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새벽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지역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림터의 경우는 전국으로 직접 찾아가는 공연이다 보니까 충북에서는 좀 덜 알려지더라도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인정받는 부분이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새벽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관_ 좋은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새벽의 경우 작품을 만드는 실력은 출중한데 유통시키는 힘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총주연극시인의 경우는 연극위원회의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고 동료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극시인이 총주지역에서는 가장 건실한 활동을 하는 극단인 것은 틀림없는 일이니깐요. 민예총의 새로운 호흡, 새로운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조동연_ 민예총의 새로운 회원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요. 민예총이 회원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과거의 문화운동연합 시절, 그분들의 감각과 지금 우리가 가

지고 있는 감각하고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좀 가벼우면서도 현대적으로 후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들이 저는 훨씬 더 장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그 민예총의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조금 더 재미를 줄 수 있는 감각적인 것에도가 뭔가 다른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원_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작게 이야기하면 각 장르별로 열려있는 젊은 회원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야 하고 가입하고 싶은 단체가 될 수 있게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노력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배병무_ 우리 작가회의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회원이 굉장히 적어요. 그 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충북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 문학 동아리 20대 사람들을 모아 한달에 한번씩 세미나를 갖든지 젊은 청년 문학도들을 좋은 글을 쓰게 하고 심사를 해서 등단을 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관_ 작가회의는 아주 훌륭한 대안을 갖고 있는 셈인데,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동아리에 미리미리 투자 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이제는 과연 우리가 우리조직의 연속성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중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십시오.

김기현_ 저는 신입회원은 안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무지 많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꼬셔가지고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생각을 제대로 이야기 할 수 있는 통로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은가. 특히 대학에서 생산되는 구조에 작가들이, 모두가 다 전부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모더니즘계열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와 맞게 작품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은 생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아까 이영광 선생이 공간 대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활동공간을 매개 하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관이 소유한 건물을 오픈 스튜디오의 형식으로 활용하려고 기획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과 공유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갖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미 서울에서, 외국에서 이미 다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까지의 미술교육이 작가를 교육해내는 방식으로 왔는데 오픈 스튜디오 오는 작가들을 교육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온 시민들을 교육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을 취하면 방법상 우리가 초기에 하던 교본처럼 되는데, 그런 공간이 형성된다면 개인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들에게는 쉽게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회원 화 시켜 미술운동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_ 공간이 사람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적 영역의 많은 부분을 기대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연 쪽에서도 말씀해주시죠.

유순웅_ 사실은 목숨 걸고 해야 되요. 재 생산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학 연극반, 탈반 혹은 전공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맞춰서 만들어내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 그런 장기적,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코앞에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이걸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기간 투자하는 것이아니라 1년, 2년, 3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로 보입니다. 그런게 잘 안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일은 되는데 안보이는 일은 참 안되는 것 같아요.

박종관_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일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이윤로_ 풍물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직업으로 자기가 계속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자기가 어떤 먹거리나 살아갈 수 있는 방식 대안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현재까지 90년대 이후, 풍물패들은 개인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고요. 앞으로 후배조직이 안들어 오는 이유는 후배들이 들어 와서 활동할 만한 경제적인 근거를 단체가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새로운 대안을 내면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작품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실험 장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그것이 상품화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공연을 충분히 만들 여건과 활로, 그를 기획 해 낼 수 있는 단체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후배가 우리랑 같이 일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죠. 고용 시스템을 확장해야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문화운동에서 앞으로 가장 가야할 방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김희식_ 초창기 문화운동 시절에 우리가 가졌던 심성과 그것이 민예총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개별화 되고,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어떻게 대중성을 확보할 것인가를 보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80년대에 우리가 해냈던 민중적 의식의 우선순위는 선도적인 문화운동의 개념이 있고요. 민예총이 결성된 이후로는 전문가로서 전문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천착하던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하부구조가 불안해 지니까 우리 스스로도 퇴화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전에야 우리 스스로 젊었기 때문에 상관 없었지만 우리가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퇴화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다가는 우리가 극복하고자 했던 대상과 비슷해 질 확률도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 불행해지는 것이고요. 이런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은 분명한 것 같아요. 초기에 문

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한 축을 이루면서 골격이 되고,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와서 문화운동의 연속을 이뤄내야 하고요. 결코 기성화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김기현_ 이노베이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레지던스 프로젝트 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둔감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수용해내는 방법도 우리에게 자원을 끌어들이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서울을 자주 드나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수없이 발 빠르게 변하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안에서 지역화를 고집하고 있지 않은가 색깔도 없는 지역성을 고집하면서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쩌면 정저지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박종관_ 저희가 과거에 지역에 천착한다고 하는 것이 적어도 아무 성과를 못 만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충분히 그 시대에는 유효했고 앞으로 전개되는 시대에는 새로운 코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일세대가 이것까지 방법을 내고 또 4, 5년 현재처럼 이어가고 이런 것도 사실 불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세대의 역할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북민예총의 조직 10년은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던 것도 사실이지만 명망성 중심의 한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런 구조를 넘어서서 조직이 시스템을 통하여 성과를 내는 구조 변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충북민예총이 현재의 구조보다 더 중요한, 지역다운, 세상에 유익한 단체가 될 수 있냐 하는 건데 문제가 여기에 바로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깊게 해 봅니다.

김강곤_ 제가 활동하는 국악실내악단을 계속하면서 민예총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대부분 구성원들이 시 도립 단체의 단원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어디 가입한다고 색깔을 가지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때는 하지 않았는데 2, 3년 지나면서 지금 되돌아 보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만났으면 지금 민예총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었고 회원으로도 많이 확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섭외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현재도 그런 민예총이 식구개념으로 과감하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끌어안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홍사성_ 우리 무예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 세미나 했을 때 들어오고 싶다고 몇 명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2002년도 21세기에 무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사실 청주지역에 최초의 무예세미나였는데 초청을 하고 보니까 모인 분들이 무예와 문화운동에 관해서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문제에 대해 많이들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그때 좀더 설득하고 좀 더 건강성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 부담스러워하니깐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그이후로는 안 만나고 그냥 떨어져 나가게 된 것

같아요. 결국 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앞으로 갖추어 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무예위원회에서 ‘공연 예술로서’ 라고 했을 때, 그냥 택견 시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과연 문화운동으로서의 민예총 위상으로서의 예술 운동을 얼마만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희식_ 제가 보기에는 민예총이 이제는 주류형성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성 예술단체와의 관계에서도 민예총이 주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점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민예총다운, 본래 목적에 충실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종관_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 민예총이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보입니다. 김 선생님 말씀은 지금 우리운동이 주류운동이 됐다, 안 됐다 의 문제로 축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분명하게 하나의 기득권 세력이 되어가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되고요. 나아가 이걸 경계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장철기_ 저는 공연패 다보니까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기존 예술단체와 뭐가 다른가 하는 의문이 최근 들어서 부쩍 들어요.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 공연을 위한 공연, 그냥 문예진흥기금 받았으니까 해야 되고 때 되면 공연해야 되고 하는 관성이 문제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후진양성을 좀 다음에 하더라도 지금 있는 사람들이 진짜 프로,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런 식이 아니고 좀더 프로다운 철저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조직은 망해도 개인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 제가 만약 살아 남으면 다른데 가서 춤도 추고 연극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조직이 망하면 개인도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개인이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연극단체는 같이 작품을 짜서 만들어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김희식_ 조직이라 할 때는 꼭 해야 할 덕목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바쁘고 해서, 생각 못한 부분이 있어요. 개개인에 대한 복지의 부분이에요. 개개인에 대한 복지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배려를 해 줘야 하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방향은 그 부분에 주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조직력, 조직은 이미 자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직이 가져야 할 덕목은 뭔가. 사람들, 전문가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역할을 나눌 것인가 하는 조정과 회원들의 복지의 부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기획력, 조직 전망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유순웅_ 조직과 개인이 따로 떨어져있지 않은 게 조직을 근거로 하는 공연 예술단체이거든요. 개인의 것과 조직의 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의 역할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시계속의 하나의 부속품처럼 돌아가는 답답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직을 떠나서 개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맞기도 하지요. 공연단체의 작품은 결국 단체가 소유하게 되지요. 성과물도 대부분 다 조직의 것이고요. 조직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개인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곤궁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부분은 자기 자신의 몫이 될 겁니다. 결국은 개인이 준비하는 것 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도 조직이 잘 대응하는 일 속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개인적인 창작활동과 조직을 근간으로 하는 예술적 속성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할때도 있습니다. 시를 쓰던 그림을 그릴 걸 골치 아프게 왜 마당극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요. (웃음)

김기현_ 지금의 미술관이 와해되어져 있는 분위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것에는 조직이 작가를 배출하고 난 뒤에 조직을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생겨난 일이거든요. 조직을 적절히 이용해서 아니면 조직안에서 무지하게 연마를 통해서 개개인의 모습을 보인다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예총도 창립한지 10년 넘었어요. 해마다 비슷한 것을 하면 2년이나 3년만 지나면 스스로가 권태를 느껴요.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버려요. 과감하게.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치기는 하지만 새로운 것에대한 희망을 갖거든요. 그 일이 더 재밌어요. 근데 물론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장철기_ 저는 민예총이라는 큰 틀의 하나의 조직이 각 단체를 개인이라고 보고 그걸 잘 관리하고 때로는 이용도 하고, 서로가 잘 보살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간다거나 상대방과 합의 없이 “그냥 따라와 전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_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민예총은 내부 비판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기성화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어하는 비판의 힘을 내부로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걸어야 하겠지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텐데 한 말씀씩 정리를 겸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동원 선생부터 돌아가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영_ 서예위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민예총이라는 데가 참 좋은데다 단체가 모여서 활동할 수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폭넓은 예술분야들을 아우를 수 있다는 거죠. 올해는 타 분야에 대해서 서로가 공부 좀 하자. 거기서 배운 장점들을 자기화 시키자! 제 목표가 그렇습니다.

이윤로_ 풍물은 우선 다양합니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민예총에서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전 장르와 지역이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와 역량이 생긴 것 같아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낙관적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홍사성_ 저도 10년사를 축하하며 저희도 내년 7월 달에 택견 개관 10주년 행사를 합

니다. 전국의 택견인들을 다 모아서 택견의 성과가 이런 것이다. 이런걸 보여주고 싶은데, 얼마나 모일까 걱정도 되고요. 민예총 창립 10주년을 이런 기쁨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원_ 민예총 10년을 맞이해서 각 장르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충북민예총이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국제적인 교류도 앞으로 한다니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충북민예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연_ 저는요, 국악원도 내년이 10년 맞이하거든요. 청주 온 지 10년, 민예총10년이 되었습니다. 민예총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조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지한 토론도 너무 좋습니다. 끝까지 생산적으로 이야기가 굴러간다는 것. 그 중심에 문화운동시절에 계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 충북민예총 10년이 문화운동 10년에 박수한번 보내죠!

박종관_ 예. 물론입니다. 축하의 박수를 쳐야죠. 타 지역에서 보는 충북민예총의 가장 큰 장점이 조직화입니다. 그 조직화를 통해서 우러나는 저력이에요. 해방공간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훌륭한 선배들의 땅에 우리가 그들의 후배예술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배 예술가들에게 이 터전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고요. 시종 진지한 토론으로 임해주신 참석하신 분들께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예총 10년을 맞이하는 이 토론회에 가장 높은 접대를 받아야 할 분들은 이름 없이, 존재와 위치에 상관없이 묵묵히 활동해 주시는 700명의 정회원 모두와 민예총을 기억하고 사랑해주는 모든 분들께 골고루 나눠져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전폭적인 노력과 지지 없이는 오늘날의 충북민예총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긴 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박수를 보내면서 좌담회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수)

9. 단체명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약칭: 전교조 충북지부

소속 단체:

존속 기간: 1987. 11. 21 ~ 현재

주요 활동지역: 충북

법적 상태: 합법

조직 체계:

강령:

결성 과정:

주요 활동:

<1987>

- 11.21 민주교육추진 충북교사협의회 창립 (청원군 매포수양관)
- 12.15 충북교사신문 창간호 발행

<1988>

- 1.30 사립학교 정상화 촉구 농성 (교협사무실)
- 3.25~28 초청공연 <행복은 성책순이 아니잖아요>
- 4.21 교생실습 대책 토론회 (교원대)
- 6.2 양심수 석방 및 수배자 해제 애국시민대회(후원)-청주
- 6.18 제천·제원·단양 교사협의회 창립 (제천 서부동 성당)
- 7.19 충북지역 특성화고교 설립 계획 반대 성명서 발표 (1차)
- 8.8 교육악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시작
- 10. 인문계 특성화고교 설립에 대한 반대 성명서 발표 (2차)
- 10.16 충주 중원교사협의회 창립 (교현동 성당)
- 10.30 음성교사협의회 창립 (음성 천주교회)
- 11.4 <충북교사의 소리> 창간호 발행
- 11.12 영동교사협의회 (영동 향교회관)
- 11.19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민주교육 추진 결의대회 (서원대 강당-시가행진)
전·이 구속을 위한 제1차 청주시민대회 (후원)
- 11.22 충북 도교위 교육감 방문 면담
 - 도학력고사에 따른 교협의 반대 입장 전달 (강행 취소)
- 11.29~30 민주교육법 마련을 위한 공화당사 (오용운, 이종근) 방문 농성
- 12.3 괴산교사협의회 창립 (증평교회 교육관)
 - 초청강연 “민주교육의 길” (이오덕)
- 12.3 광주학살, 5공비리 전이구속을 위한 제2차 시민권기대회 공동주최(상당공원)
- 12.2~10 교육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서명운동 (약 5천여명)
- 12.5~7 교육법 쟁취를 위한 단식 및 농성
- 12.8 교육법 개정을 위한 야3당 지구당 방문 및 시가 행진 (청주, 충주)
 - 겨울방학중 보충수업 거부 성명서
- 12.10 옥천교사협의회 창립 (옥천 신협회관) - 녹두패 노래공연
- 12.12 겨울방학중 보충수업 거부에 대한 교장단 대표 면담
 - 청주중 정인영 교장과 도종환, 양현조, 황연길
- 12.17 보은 참교육 실천회 창립
- 12.20 교육법 개정 토론 (청주 MBC-TV, 권영국, 이홍배 출연)

<1989>

2.7 확대 운영위 기자회견 (진천여중 교감 명퇴 인정하라)

2.18 충북 대의원대회 (푸른교회) (30/40 참석)

- 교직원노조 건설 만장 일치 의결
- 의장단 (의장 황연길, 부의장 임헌창) 선출
- 전국대의원 선출

3.5 충북 유치원교사회 창립 (푸른교회) 발기인 150 참석 70

3.13 교련 탈퇴운동 시작

3.14 <충북교사신문> 발간

4.27 충주 음성 노조 발기인 대회

4.28 제천 제원 노조 발기인 대회

5.24 강성호 구속 (북침설, 고무 찬양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5.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한양대→연세대)

전교조 건설 보고 및 탄압 규탄대회 (건국대)

각 시도 준비위원장단 민주당 중앙당사 단식 농성 돌입

~6.5 각 시도 동조 농성 (각 사무실)

5.30 민족민주운동 탄압 규탄대회(청주대)

6.1 전교조 결성 보고 및 지지대회 (충북대)

6.3 전교조 결성 보고 및 탄압 규탄대회 (YMCA)

6.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결성대회(가톨릭대학생회관)

6.14 - 제천제원지회 결성 (지회장 김병태)

- 충주중원지회 결성 (지회장 김광택 - 교육장이 고발)

6.15 단양지회 결성 (지회장 김수열)

6.17 전교조탄압저지와합법성쟁취를위한 충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공동의장 노영우, 유초하)

- 지부장 권영국 충주경찰서 자진 출두 구속

6.21 괴산지회 결성 (괴산)

6.24 청주청원지회 (지회장 도종환) 결성 (봉명교회)

6.23~24 공안정국 및 민민운동 탄압에 대한 철야 농성 (명암교회)

6.24 지부장 도종환 연행 및 구속 (25일자←교육장 양공연이 고발)

6.24 공대위 시민대회 (YMCA)

6.26 도교위 항의방문 : 부당징계 항의 교사 30여명, 대학생시민단체 30여명 등 70여명 서부서 연행 - 정태옥 대행 집시법 입건

- 7.6 교조 관련 최초 징계 의결 (권영국 파면, 유병귀 해임)
- 7.7 사무실 압수 수색
 - 88국감자료 등 압수
 - 국어과 사무실 불법 수색 자료 탈취
 - 최환규 등 4명 불법 연행 (신공식, 김병우, 오형균 등 불구속 입건 후 9일 석방)
- 7.9 전교조탄압저지및합법성쟁취를위한제1차국민대회(여의도교수부지)
 - 충북 47명 연행
- 7.10 지부, 비상확대운영위 : 7.9대회 연행자 파악, 조직 점검
- 7.11~15 단식수업 : 단양지회 운재화, 최정숙 등 70여명 참가
- 7.14 제1차 사수결의자 명단 발표 (교사 134, 교수23) 기자회견
 - 충북공대위 공동투쟁 선언 기자회견
 - 교원대 1정 연수자 80명 전교조지지 성명 기자회견
- 7.21~24 탄압 규탄 철야농성 (지부사무실) 30여명 참석
- 7.24 탈퇴무효화 1차 선언 (31명)
- 7.25 강성호 2차 공판
 충북민주교수협, 전교조탄압규탄및합법성인정촉구 기자회견 (서원대27, 청주대 29, 충북대26, 교원대3,)
- 7.26 전국 600여명 교사, 명당성당 단식농성 돌입 (충북 20여명)
- 8.1 2차 탈퇴무효화 선언 (충북 29명)
- 8.2 충북교사가족회 창립 (회장 : 도해술)
- 8.7 참교육 강연회 YMCA 시민강연 (연사:문병란)
- 8.14~15 범민족 통일 축전 (중앙공원) 서명, 홍보, 강연(정태욱)
- 8.24 초등 2명 해임 : 최정숙, 운재화, 최윤희
 출근투쟁 시작
- 8.24~25 청풍종교 수업거부 안수정 교사 해임 항의
- 9.4 전교조 설명회 (충북대 인문대 - 김병우)
 전교조탄압저지및합법성쟁취를위한충북지역대학생연합공대위(공대위원장 홍성삼)
 발족(청주대 민주광장)
- 9.5 청대 공대위(공대위원장 : 강철) 발족식 (강연-김수열)
 대학위 대책회의 (전교조 적극 참여, 대학분회 결성 천명)
 김병우 해임
- 9.6 참교육 강연회 (서원대 - 도해술, 유병귀)
 충북대 총학 진군대회 - 도종환
 공대위 토론회 (지부사무실) 전교조, 공대위 합동

- 9.8 참교육 강연회 (총대 사회대-정태옥)
- 9.9 제1차 중앙위원회(선교교육원) 비공개조합원제, 조직복원 돌입
제천공대위 결성
충주건대 고교생 한마당 행사(제2회)
- 9.19 대학위원회(분회) 결성(23명) 회장 : 김정기(서원대)
- 9.21 충북대-8,000여명 관람 (즉석 성금 100여 만원)
- 11.16 백운국 폭력교감 이영준, 여교사 3명 폭력행사
- 10.18~19 공화당지구당사 방문 농성(오용운) : 교육악법 개정 촉구
<전교조충북지부소식>(제12호) 발간
<농성속보>2종 발간 (공대위)
학교 방문 증평여중 등 괴산군 중등 2개교
충북대 단대별 전교조 지지 후원회 조직
여교사 간담회 (사무실)

<1990년>

- 5.29 충북 민주교육추진협의회(가칭)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
(전교조 충북지부, 충북대 사대,교원대, 청주교대, 청주사대)
서원대 학보사 주관 좌담회 '전교조 결성 1주년에 즈음한 전교조의 현황과 전망'
- 6.9 6.10 대회 전야제 및 사수 결의대회 참가 (전체 1000여명, 충북대 우리 마당)
충북지부 초등위원회 결성 (교사, 예비교사 100여명, 청주교대 음악관)
- 6.10 6월 민주항쟁 계승 및 민자당 해체 노태우 퇴진을 위한 충북도민 전진대회
- 7.8 노동자 농민 학생 교사 민중연대 한마당 (주최:제원군 농민회,후원:제천지회)
(전체 300여명 교사 35명)
- 9.7 농민대회. 충주고 심광보군 분신 자살 (고 심광보 군 민주학생장)
 - 지현성당 영결식
 - 도보로 충주고로 향함 (200여명)
 - 투신장소에서 노제
- 10.12 민자당 교육독점음모 분쇄 및 보안사 사찰 규탄 철야농성 (지부사무실)
- 10.17 보안사 사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 10.18 교육 독점 음모 종대안 철폐를 위한 제1차 충북지역 교육주체 결의대회
(전교조, 총대 사범대, 교원대, 청주교대, 충미협 2000여명, 충북대 우리 마당)
- 11.9 교육독점음모 종합 대책안 철회와 교육운동탄압 분쇄를 위한 충북지역 교육주체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 및 제2차 교육주체 결의대회 (충북대 우리 마당, 500여명)
보은지회 교사학교

12.21 임용고시 실력 저지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 및 송년의 밤 행사 (충북대 사
대 강당, 지부 120여명 참석)

12.27 임용고시 요강 발표에 따른 교육주체 도교위 항의집회 (70여명 참가)

<1991년>

2.19 미원중 교감 백남선 내신 조작 (내신서 전원 내게 해 선별 처리)

2.20 유명미 등 미원중 교사 도교육청 항의 방문 - 지부, 보도안 제공

2.21 미원중 교사들 도교육청으로 출근 학무과장 면담 - 도내 각 언론 보도

2.22 김병우, 권영국(기획실장) 도교위 항의 방문 학무국장 면담

4.20 4월 공동수업을 위한 강연 및 시범수업 (열린터 16:00 -)

- 1부 : 지자제와 민주주의 (배영목 교수)

- 2부 : 학생자치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김명희)

5.3 '민자당 해체와 폭력 정권 퇴진 촉구 성명서' 발표

5.3-8 농성

5.9 국연주최 '1차 국민대회' (상당공원, 6천명 집회)

5.12 교육자치선언선포대회 (11시 충대총학 세미나실, 60명)

- 1부 : 폭력 살인정권 규탄대회

- 2부 : 교육자치 선언 선포대회

5.14 교사 시국선언 (66명)

- 국연, 공안통치 분쇄 집회 (1,200여 집회 후 가두 시위)

6.8 '6월항쟁 계승과 민생파탄 폭력살인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제5차 국민대회'(상당
공원)

6.10-15 노태우퇴진 총력투쟁기간

11.23- "충북도교위의 교육감 선출을 눈앞에 둔 우리의 입장" 성명

- '전시지원협정 및 미국쌀 수입 저지와 노동법 개정을 위한 91민중대회' 참가
(14:00-17:30, 청주 무심천변 공지 760명 시민 참가)

- 지역 상설연합 건설 준비위 1차 중앙위

<1992년>

3.12 지부, 보충수업 전면 부활에 대한 반대 성명

(91년 7월의 폐지방침과 전면 배치, 92년말 시행의 '학습능력평가' 방향과도 상
충

5.14 제천지회 재현판식 각계 민주인사 40여명 참석 (방해 없음)

6.11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결성

- 6.13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총북교사 추진위원회' 결성식
(충주 교현동성당 16:00-18:30)
- 9.15 박종순 총북추진위원장 징계저지 도교육청 농성
- 9.16 박종순 해임
- 9.15-18 청주,충주,제천,단양 4일간 농성 계속
- 9.21 전추위 위원장단 국회 농성 돌입
총북 서명 현황 (일반 28,051, 가계인사 322 포함 총30,373)
- 10.17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 걷기대회 (청주)
(상당공원-총북대, 15:00-17:00 ; ILO기본조약비준, 노동법 개정, 해직교사 원상복직)
충주(200), 단양은 거리 선전전으로
- 11.10 당면교육현안에 대한 교사선언 (대표 청주 중앙여중 오황균)
- 79개교 156명
- 광고투쟁 '교사일동' 명의 한겨레 광고 31개
- 12.5 국민회의 총북공감단 발대식 (제일교회), 공정선거 캠페인
대선투쟁

주요 활동가:
 관계 단체:
 관계 자료:

<민주교육추진 총북교사협의회 창립선언문>

오늘 우리는 맹목적 순응과 자조적 방관주의에 길들여온 총북교육의 오랜 꺼풀을 벗고, 민족과 역사 앞에,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사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 분연히 이 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부당한 지배 권력은 교육을 권력의 도구로 악용 통제하면서, 신성한 교육현장을 정권 연장을 위한 지배이념의 전파장으로 전락시켰으며, 우리 교사를 교육자이기 전에 말단 관료화하여 부도덕한 정권의 충실한 전달자가 될 것을 강요해왔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총북교사들은, 거짓을 거짓이다 용기 있게 가르치지 못하고 침묵으로 타협하고 방관과 굴종으로 동조해 왔음을 뼈아프게 자백하며, 이러한 패배주의적 자세야말로 교육주체인 우리들이 민족과 역사와 제자들 앞에 몸을 사리고 우리의 책무를 포기한 일이었음을 통렬히 반성하면서, 참담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오늘도 입시경쟁의 승리자가 되는 길과 이기적 입신출세주의가 교육의 지상과제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 이 땅의 교실에서는, 강요된 보충수업과 강제 자율학습, 살인적인 경

쟁교육으로 학생들은 과로와 정신적 압박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권위주의적 지시와 통제, 무분별하고 향락적인 외래문화의 세뇌 속에 꿈도 가치관도 잃은 채 노예적 순응주의에 길들여지고 있다.

양심과 진리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어떠한 것이어야 함을 아는 우리로서는, 더 이상 현실의 방관자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어찌 더 이상 소심과 주저로 오로지 우리만을 바로보고 커가는 아직 때 묻지 않은 제자들의 눈망울을 저버리고, 교육자로서의 책무에 무책임할 수 있겠는가?

교육의 민주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은 시대적 소명이다.

또한 그것은 관료적 구조 속에서 주어지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며, 비민주적인 교육 구조의 개혁과 민주적인 교육제도의 수립은 마땅히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 또한 그것은 개인적인 탄식과 분노와 같은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인식의 한계 내에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교사들의 단결된 힘과 실천적 몸담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공통된 의지를 바탕으로, 오늘 민주교육 추진 총북교사협의회를 창립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꼭 이루어져야만 할 이 지역 교육운동의 첫발을 겹쳐한 마음으로, 그러나 강고한 신념과 단호한 의지로 디더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허울을 쓰고 횡행하는 그 어떤 비교육적 억압에도 당당히 맞서나갈 것이다. 기회주의적 현실 순응의 자세를 벗어버리고, 교사·학생·학부모의 올바른 교육적 요구를 수렴하여 참교육의 실현에 실천적으로 몸 바쳐 나갈 것이다.

1만여 총북교사여, 교육동지여 단결하자!

우리의 신념과 고민이 진실의 편에 있고, 정의로운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굳게 믿으며 총북교협의 깃발아래 하나로 뭉쳐 땀땀이 나아가자.

이 땅의 교육은 우리의 손으로 가꾸어 나가야만 한다는 소명을 안고 거듭 거듭 새로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길을 함께 열어가자.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만세!

1만여 총북교사, 35만 총북학생 만세!

민주교육 추진 총북교사협의회 만만세!!

1987. 11. 21.

민주교육추진 총북교사협의회

10. 단체명 : 사람사랑

약칭:

소속 단체:

존속 기간: 1987. 7 ~

주요 활동지역: 충북

법적 상태: 합법

조직 체계:

강령:

결성 과정:

주요 활동:

‘이 땅에 참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충주·중원지역 중고등학생 모임’ 결성/‘참교육을 위한 고등학생 모임’ 결성/명동 성당에서 전개된 전교조 단식 농성 격려 방문 성명서 발표/청주대에서 개최된 ‘전교조 탄압저지와 합법성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에 고교생 대표로 전원 참가/교련 사열 철폐 및 군대식 학교 운영 정상화 대투쟁/강경대군 사건에 관련 시민 대책 회의 가입 및 시국선언/故 심광보 열사 추모제 개최

주요활동가:

관계 단체:

관련 자료:

11. 단체명 : 청주노동문제상담소

약칭:

소속 단체:

존속 기간: 1989. 2 ~ 1993

주요 활동지역: 청주

법적 상태:

조직 체계:

강령:

결성 과정:

주요 활동: 1989년 2월 푸른교회 내에 설립되어 1991년까지 지역 노조운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노동법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다 1993년 해체됨. 대표적으로는 90년 AMK 노민추 활동을 지원하였다.

주요 활동가:

관계 단체:

관계 자료:

12. 단체명 :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약칭: 충북민연

소속 단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농민운동연합준비위원회, 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카톨릭대학생청주교구연합회, 충북기독교청년협의회, 충북문화운동연합, 충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충북여성민회회준비위원회, 충부교사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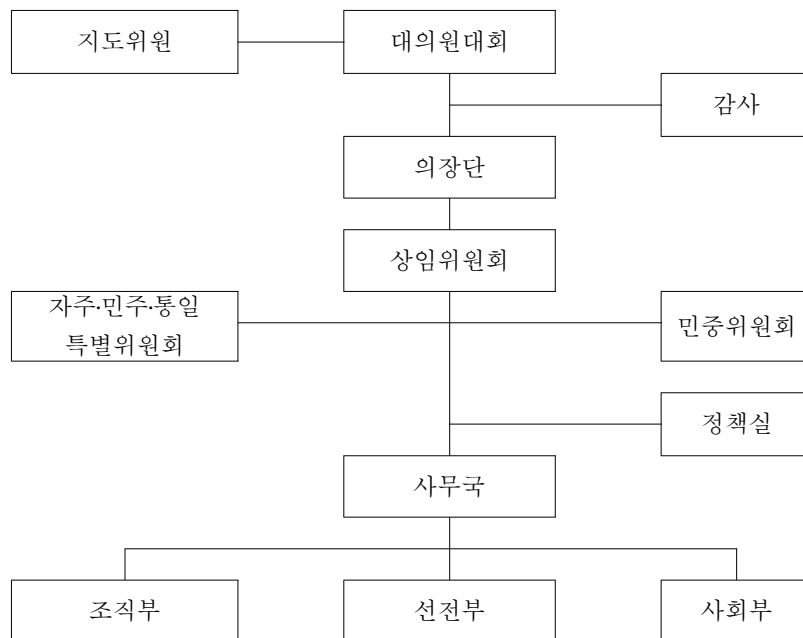
충북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존속기간: 1989년 3월 19일 - 1991. 12. 10

주요 활동지역: 충북

법적 상태: 반합

조직체계:



1) 조직소위원회

1989년 2월 9일 충북민연 제4차 준비위에서 구성한 조직소위의 제1차 모임이 2월 25

일 10개 단체의 대표 10명이 참여하여 개최함으로써 충북민련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준비 작업 시작. 조직소위 1차 회의에서는 조직소위의 과제로서 총민련의 조직체계 설정 및 인선, 규약 기초, 참여단체 확정 등의 활동이 제시되었고 보다 중요한 것으로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간의 지역운동 평가, 총민련의 사업방향과 임무 등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조직소위의 임무수행에 대한 결의를 다짐. 2월 19일의 제2차 회의에서는 총민련 건설의 전망 속에서 그간 지역운동에 대해 연대운동을 중심으로 총괄 평가함. 곧 현재 지역에서 부문운동과 연대운동의 결합관계는 어떠한가, 그간의 지역 사안별 공투체 활동은 어떠한 성과와 문제가 있었는가, 지역운동의 구심체였던 충북민주운동협의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교환함.

2월 22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수행되었던 지역운동평가를 기초로 총민련의 사업방향과 임무를 합의하기에 이름으로써 비로소 총민련의 기본 골격이 완성됨. 향후 우리 운동의 전망 속에서 기층 민중운동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인식, 지역운동체로서 지역의 특수한 조건에 기초하여 지역운동의 토대를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는 합의, 이상의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민족민주운동의 통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결론 도출. 이어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개최된 4차~6차 회의에서는 조직체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됨. 조직구성의 원칙으로서 민중운동 지향성의 구현, 하층연대 실현을 위한 조직대안의 마련, 내용성 있는 지도부 창출 등의 내용이 합의됨. 3월 7일의 7차 회의에서는 규약이 완성됨. 총민련의 목적과 사업방향을 담고, 조직의 운영원리를 명문화했으며, 준수해야할 규율을 합의한 규약의 제정. 3월 11일의 8차 회의는 일꾼들에 대한 인선 문제를 논의하여 준비위원회에 상정하고 조직소위의 모든 활동을 마무리.

2)투쟁소위원회

총민련 준비위 4차 회의에서 투쟁 소위장에 민청 조직부장 이광희 동지를 선임하고, 투쟁소위는 정책위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투쟁활동계획 및 방향, 방법, 준비, 실무까지 담당한다는 결정을 내림과 함께 청남대 문의주민 투쟁과 18~27 투쟁에 대한 일정 및 계획을 발제하기로 함.

-통일염원45년 2월 15일. 제1차 투쟁소위회의(구성단체: 청년, 민협, 노동, 진보련)

투쟁소위의 방향성과 1.27~28 전국적 노태우규탄 국민대회의 투쟁계획 설정. 정세인식으로는 25일을 기점으로 한 노태우 정권의 정면 돌파에 맞서 이후 벌어질 임금인상투쟁 및 각종 민생투쟁의 입지 강화를 위해 민민권의 전면적 투쟁방향 설정, 청주는 지역내 각종 투쟁들을 결합하려했으며 문의주민 투쟁, 해고자 복직투쟁, 농민 생존권투쟁

등을 광범위하게 결합할 것.

-통일염원45. 2. 18. 제2차 투쟁소위 회의

이전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구체적 세부 계획 및 확인 작업에 들어가 23일은 문익환 선생 초청 강연으로, 청주지역내의 투쟁기간에 대한 선전전으로 하고, 25일은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2. 21. 계속적 논의를 통하여 투쟁의 실무 책임 담당

-통일염원45. 3. 1. 투쟁소위회의

18~27 투쟁의 평가의 통하여 투쟁을 통한 총민련의 건설과 연대운동으로서의 투쟁에 대한 관점과 그간의 투쟁들에 대한 계승과 발전의 관점에서 노태우 규탄대회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해 보고, 올바른 지역운동의 과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투쟁소위 자체의 자기비판서와 일괄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다시 한번 총민련 준비위의 강화를 촉구.

-통일염원45. 3. 5. 투쟁소위 회의

준비위에서 반려된 사퇴에 대한 견과 소위원들의 사퇴 확인을 하고 이후 과제에 대한 논의, 현대 중공업 식칼테러 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속에서 총민련 준비위에 현대노동자 상황보고와 각종 홍보, 모금 등에 대한 토의.

-통일염원45. 3. 13.

전민련 정책회의 보고 및 중간 평가 문제와 현대 테러 대응방안의 논의. 이후의 조직적 과제로 총민련의 건설과 함께 노태우의 불신임 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시켜나갈 것과 각종 민생, 조통 투쟁에 대한 사전문건, 자료정리사업들의 전개. 이후에는 정책실에서 역할 대체하여 총민련의 위상에 맞는 사업방향으로 전개해야 할 것임.

3)실무소위원회

1989년 3월 13일 총민련 준비위 10차 회의에서 19일 창립대회를 앞두고 실무소위원회를 구성. 소위원회는 진보련, 민청, EYC로 구성되어 대내외 연락, 선전, 자료집 발간 등 결성대회 준비를 진행.

강령:

결성과정: 1989년 1월초 충북기독교청년협의회 사무실에서 지역운동단체 대표자들과 실

무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통해 총북민족민주운동연합 준비위를 결성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에는 노동부문 2인, 청년부문 1인, 문화부문 1인, 종교부문 1인, 총북민주운동협의회 1인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준비위원장에는 차운재 목사님을 추대함.

1월 19일 제1차 준비위원회를 열어 준비위원회의 운영원칙을 합의, 1월 26일 제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지역운동의 평가 및 방향설정, 총민련의 성격, 수준, 임무에 대하여 논의함. 이 논의과정 속에서 지역 내 새로운 연대운동의 틀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기층 민중을 중심에 두어야한다는 원칙이 가시화됨.

1989년 2월 9일 제4차 준비위에서는 준비위 실무를 위해 투쟁소위와 조직소위를 구성하고 각 소위가 논의 및 실무를 담당하도록 함. 2월 16일 제5차 회의에서는 농민부문의 단일한 대오를 요구하기로 함. 2월 28일 제7차 회의에서는 진보련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시작 함. 3월 6일 제9차 회의에서 진보련의 입장 발표를 통해 진보련의 해소와 총북민련으로의 흡수 통합이 진보련 해소의 그 내용성을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총북민족민주운동연합에 함께하게 됨.

1989년 3월 13일 제10차 회의에서 대회일정을 확정하고 규약 및 대의원수, 임원 인선,, 조직구성에 관한 안을 결성대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대회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3월 17일 제1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준비위를 마치게 됨.

주요 활동(김재수·유수남, '지역전선운동의 발전과정', 총북지역 사회운동: 1985-1999, pp. 5-8) :

- 제1기(1989.3.19-1990.4.13)

창립 직후인 이 시기에 총북민연은 지도, 집행력을 구축하며 정비된 체계로 업무의 분화와 연합 지향성에 접근하였고, 단일한 지역투쟁의 구심체요,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기반을 만들어냄으로써 전선운동에 대한기대와 참여수준을 높여내는데 진전을 이루어냈다. 이 시기에 총북민연은 이철규 열사 고문살인 진상규명투쟁, 10일간에 걸친 5월 투쟁, 전교조공대위의 건설과 주도적 참여, 8·15 범민족축전, 9·24 국민대회 등 지역의 투쟁을 주도하게 된다. 투쟁의 영역에서 특히 8·15 범민족축전은 대중적 실천운동으로서 통일운동의 모범을 창출하였으며, 공안정국에서 위축되었던 통일운동에 일정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9·24 국민대회는 하반기 전열정비와 교사들의 조직력 회복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선전사업에서는 총북민연의 대내 소식지를 발행하여 지역운동 내 정치적 역할을 매개하였고, 지역운동단체 선전 책임자 회의를 준비하여 과제별 영역에서의 지역 연대들을 구성하게 된다. 지역 활동가 정치학교를 성황리에 치러 간부교육사업을 담보하고, 정치적 통일성을 높여냈으며, 교사, 학생, 구속자 가족 등 참관 및 비산하 단체들을 총북민연 영역에 조직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 구심, 추동한 것도 이 시기 중요한 사업 성과의 하나였다. 한편,

광부 5공 청산이 기만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점과 중심적 투쟁고리라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주체와 투쟁내용을 조직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점,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 조사의 부재와 청주 중심의 투쟁조직은 명실상부한 충북지역 대표체로서의 활동에 못 미치는 주요 한계점이었다.

- 제2기(1990.4.14-1991.2.22)

이 시기에 충북민연은 정책, 선전, 조직, 투쟁 등 각 방면에 걸쳐 계획성 있는 활발한 사업으로 조직의 위상을 높여냈으며, 조직 위상문제에 대한 이견 속에서도 국민연합과 성실한 연대를 하면서 국민연합의 정책 근거 제시에 기여했고, 동시에 충북민연의 고유의 지위와 역할을 실현하였다. 충북민연은 민자당 출현 직후인 90년 2월 3당 야합 분쇄 국민대회를 개최한 것을 필두로 평화협정체결과 군축촉구 걷기대회를 비롯한 범민족대회 관련 지역 집회의 수차 개최와 범민족대회 참가, 문익환 목사 방북보고 및 통일강연회,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민의 밤, 국민연합의 대규모 집회 연대, 이문옥 감사관 석방 촉구, 방송법 및 군 조직법 개악 저지 서명운동 등 대·소규모의 투쟁사업에 나서게 된다. 가맹조직 대중들의 참여가 점차적으로 보장되는 가운데, 자주, 민주, 통일투쟁을 총체적으로 배치, 조화시키며 수행했던 것이 이 시기 최대의 성과이며,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운동론과 지자체 대응방안에 대한 계획적 연구, 지역에서 통일운동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통일대화의 모임의 진행 역시 의미 있는 정책사업이었다.

충북민연의 조직전망을 분명히 하기 위한 고민의 소산으로 부문, 지역(시·군 단위) 결합사업이 적극적으로 기획된 것도 진전된 움직임이었다. 대중의 역동성과 주체의 준비정도를 과도하게 평가한 소산이었던 하반기 국회해산-조기총선투쟁의 설정과 기층운동에 대한 실제적 지지, 지원 방침과 역량이 준비되지 못함으로 해서 민중기본권쟁취위원회가 허구화된 것, 시·군 단위 조직 건설을 위한 실천의 결여 등은 이 시기 충북민연의 중요한 오류와 한계였다. 한편, 이 시기에 있었던 일부 가맹단체들의 탈퇴는 국민연합과 관련한 충북민연의 위상문제와 충북민연의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나 충북민연은 당시 대중조직의 총체적 역량 평가 위에서 국민연합과 양립할 수밖에 없는 충북민연의 위상을 분명히 하였으며, 충북민연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오해가 존재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조직의 존립은 같이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한 성실한 복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을 그 자체보다도 충분한 논의과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진정한 민주집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 시기는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과 이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들은 정파문제와 함께 기층대중운동의 분화와 발전 및 지역운동 상부구조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가지고 있었다.

- 3기(1991.2.23~1991.12.10)

이 시기는 객관적으로 충북민연의 가맹단체가 축소되며, 미가맹단체 대중조직의 정치적 진출(노, 농, 청, 학 등 소위 7전의 형성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내부적으로는 가맹단체들의 조직 불안정성(7전 외 기타 부문의 상대적 주변화/종교부문의 역할 축소와 상대적 약화)이 노정되는 조직정황과 정세의 특성상 국민연합 주도의 대규모 연대투쟁이 중심을 이루는 상황이었다. 하반기를 맞아 전선재편 논의에 있어 정치적 구심조직의 강화를 위한 충북민연의 정치조직연합론이 전국적 일반성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충북민연은 국민연합을 거쳐 충북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충북민연은 강경대 열사 타살 사건 이후 지역 최초의 대응이었던 5·2 공안통치 분쇄 침묵시위를 주도하였고, 광역의회 선거 시 후보전술의 구사 모색, 문익환 목사 재수감 규탄 철야농성, 7차례에 걸친 통일일꾼 수련회부터 충북도민 통일 한마당을 거쳐 범민족대회 참여에 이르기까지의 수차례에 걸친 집회, 선전, 사회주의 변화와 민주정부 수립의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지역 활동가 교양강좌를 개최하였고, 국민연합은 5·6월 시기의 대규모 투쟁을 전개하였다.

충북민연은 5·6월 투쟁 시에는 순발력 있는 투쟁평가서의 제작과 배포로 투쟁의 침로를 제기하였고, 다양한 매체와 전술로서 선전, 선동에 결합하였으며,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이 발생한 이후 끈질긴 대응을 지역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민민운동 탄압 대응투쟁의 한 정형을 창출하였다. 광역의회 선거 시 후보출마 방침은 비록, 후보단일화의 결렬로 사퇴하긴 하였으나, 당시 지역에서 유일한 선거투쟁 방침이었다는 점과 민민운동이 야당에 대한 제도 정치세력의 일 주체로 설 수 있음을 확인케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연합은 대중조직의 발전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쟁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층 대중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각인하고 기층의 이해와 민생문제를 지역운동의 전면으로 끌어올리면서 충북연합의 위상과 조직적 기초를 형성하였다.

주요 활동가: 차운재(준비위원장), 박영호(서기), 김형근(조직소위원회),
이광희(투쟁소위원회), 김재수(실무소위원회), 정진동, 박기식, 김정웅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자료 1 - <창립선언문>

유구한 역사 속에 불굴의 자주의식으로 민족혼을 지켜온 우리 민족은 완전한 주권회복과 민주화·통일조국의 건설을 민족 현대사의 최대과업으로 삼아 힘찬 대장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의 결성을 통해 지역운동의 새 지평

을 열고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힘 있는 역량으로 성장하여 민족사 최대 과업에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온 국민의 투쟁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암담한 현실을 밝혀 온 민족민주운동은 희망찬 조국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80년 광주학살의 비극은 외세의 지배를 벗어나 민족 자주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민주화도 통일운동도 단 한걸음의 전진을 할 수 없다는 확고하고도 새로운 일깨움을 가져오는 큰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으며 87년 군사독대의 장기집권 음모를 무산시킨 6월 민주항쟁과 이후의 노동자, 농민들의 대투쟁은 민족사 변혁의 주체가 근로민중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도 농락한 채 정권을 찬탈한 노태우 정권의 등장으로 타협과 개량을 통한 민중승리에 대한 환상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확산되고 심화된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은 '88년 들어 범국민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을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세와 군부독재의 억압을 거부하고 자주·민주·통일의 새 조국을 건설하려는 노동자, 농민 등 근로민중의 역동적 진출과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힘찬 발걸음은 이제 이 운동역량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새로운 단일 대오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결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의 출범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역운동의 발전과 지역대중의 진출에 발맞추어 노동·농민 등 2개 부문과 청년, 문화 등 7개 단체의 연합으로 결성된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은 충북지역 민족민주운동 대열을 하나로 정비하고, 그간의 지역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민족민주역량의 총집결체로 나아갈 것입니다.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은 민족의 사활적 당면과제인 반외세자주화·반독재민주화·조국통일로 매진해 갈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민족의 분단과 고통을 강요하고 생존과 번영을 가로막는 미국의 부당한 지배와 수탈,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싸워나갈 것입니다.

조국의 진정한 민주화는 민중의 생존권과 시민 각자의 민주적 제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 땅의 주인인 노동자, 농민, 빈민이 생산과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분배받아야 하며 진정한 사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은 근로민중의 생존권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반민중적, 반민주적 악법의 개폐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며 8시간 노동제, 생활보장 임금제, 정당한 농축산물 가격보장 등의 관철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일 외세는 분단 고착화정책과 신식민지적 지배를 집요하게 지속하고 있으며 군부독재는 6월 항쟁으로 버랑에 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만적인 민주화 조치를 취했지만 또다시 민주주의를 압살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족으로서,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정당히 가져야 할 권리를 탈환하기 위해 충북민족민주

운동연합의 깃발을 높이 들고 떨쳐 일어났습니다.

총북민족민주운동연합이 걸어야 할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약속된 필연적 승리의 조국 미래를 향해 중단 없는 정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자주·민주·통일의 그날까지 애국선열의 숭고한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힘차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조국의 자주통일 만세!
민중해방 만세!
총북민족민주운동연합 만세!

통일염원 45년 3월 19일
총북민족민주운동연합

자료 2 - <성명서>

광주, 5공 기만처리 반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1.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한 종결방침은 원천적 무효이다.

노정권은 출범 후 2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5공 청산을 통한 민주화 추진을 약속해 왔다. 그러나 90년대를 새롭게 맞이해야 할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전두환이 백담사에서 국민을 헐박하고 있다. 또한 장세동은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양 큰소리를 치고 있다. 그뿐인가. 광주 학살의 현장책임자 중의 한사람인 정호용이 명예퇴진 운운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이러한 과장된 조작 선전에도 불구하고 진정 청산되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고 믿고 있다. 아니 5공 때보다도 더 흑독한 공안통치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빼앗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단호한 과거의 청산을 통해 새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으며, 해방 후 반민특위의 쓰라린 역사를 도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노정권은 노동자, 농민, 학생 천여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가두어졌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 교사들 천오백명이 교단에서 쫓겨났고 전노협을 건설하려는 노동자들에게는 치밀한 탄압이 예비되고 있다.

이는 친미보수대연합과 두개의 한국정부를 통해 외세와 독재권력의 지배를 이 땅에서 장기화하려는 음모이다. 5공청산 연내종결은 바로 이 음모의 구체적 출발로서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기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2. 무엇이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는가?

첫째, 광주학살 및 5공비리의 진상규명이다. 국회청문회는 이를 부분적으로 추진하다가 노정권의 일방적인 불참결정으로 중단되었다. 삼청교육, 언론통폐합,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 등 온갖 비리의 진상규명이 선차적이다. 더욱이 최근 정호용의 발언에서 광주학살 당시 군대의 작전 지휘권이 노태우에게 있었다 하니 이 점이 조사되어야 하며, 워컴, 글라이스틴 등 관계자의 소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가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책임자의 구속처벌이다. 전두환, 정호용, 이원조 등 핵심인물은 이미 그 범죄행위가 명백해진 이상 즉시 구속·처벌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수많은 하수인은 관대히 처리될 수 있다.

셋째, 법적 제도적 독재기구의 철폐이다.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의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은 선결과제이며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찰력을 제외한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대공 분실, 백골단은 해체되어야 한다.

3. 종결방침은 어떤 검증과정이 필요한가?

첫째, 국회 특위의 생중계 청문회가 당장 재개되어야 한다.

둘째, 국회를 통한 5공청산은 그동안 분명하게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정당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각계 인사들이 생중계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5공 청산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찬반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5공 청산의 최종적인 종결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최근의 언론기관 여론조사에서조차 약 7할의 국민이 5공 청산은 안됐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국민투표는 피할 수 없는 절차이며, 또한 부결될 경우 노정권은 당연히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4. 평민,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87년 대통령 선거의 패배를 딛고 4·26 총선에서 부분적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와 민주화 열망 덕분이었다. 그것은 지난 청문회 때 다시 입증되었다. 물론 우리는 정치협상을 인정한다. 그러나 국민대중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정치협상은 단연코 반대한다. 지금의 5공 청산 종결이 바로 그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지 않는가! 패배주의, 타협주의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국민대중의 실망과 분노,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평민당, 민주당이 무책임하고 패배적인 협상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외면할 때 뒤따를 국민의 심판을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

통일염원 45년 12월 15일
총북민족민주운동연합

자료 3 - <성명서>》

청주공단에 뺨치는 권력과 자본의 음모

지금, 우리 청주공단 안에서는 건전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또 용납될 수 없는 만행과 음모가 독재정권과 탐욕스러운 자본가 및 그 하수인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40여일이 넘는 A.M.K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임금인상 요구와 노조 민주화의 염원을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구타와 흑색선전을 해대는가 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4명의 노동자를 부당해고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2명을 구속시켰습니다. 또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건설한 한국도자기 노동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납치, 감금하는가 하면 8명을 부당 해고시키고 10명을 경찰서로 연행하였으나 전혀 꼬투리를 잡지 못하자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구타·폭력·납치·감금 등 자본가와 관리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명백한 불법범죄 행위에 대해서 방관하던 경찰이 아무 죄도 없는 우리 노동자를 연행하고 구속시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건설과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코리언 마이트와 지난 1월 노조를 결성하고 5월에 임금협상까지 마친 상태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노조간부 2명을 해고시킨 현대정밀.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난 자본가들의 음모를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연행·해고·납치...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 이 야만적 탄압은 바로 민주적인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를 파괴함으로써 우리 노동자들을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예를 만들기 위한 음모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밍크코트를 입고, 수억 원짜리 여름별장을 사고, 수천억 원의 땅 투기를 하기 위해 저들은 우리에게 노예가 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노예로 살 것인가! 인간으로 살 것인가!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저들의 탄압으로부터 지켜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힘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뜨거운 열망과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입니다. 그 힘은 또한 가장 위대합니다. 그러기에 자본가들은 독재 권력은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분열 책동에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노동자 단결하여 노동운동 탄압 분쇄하자'

1990. 6. 8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와 민중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민연합 총북본부

자료 4 - <성명서>

7·20 민족대교류 선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노태우의 7·20 민족대교류 발표에 대하여 온 국민은 당혹과 충격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먼저 우리는 통일운동의 주체인 국민이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배제되어 피동적으로 당혹감을 느껴야 하는 현상이 올바른 것인지를 반문한다. 이번 발표는 정부주도의 일방적이고도 음모적인 충격요법으로서, 조국통일은 민중의 의사수렴과 참여 속에 전개되어야 한다는 대명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금번 발표가 노정권의 위기의 탈출구로 이용됨을 단호히 배격한다!

집권 민자당은 출범 이래 민생문제의 외면과 민주세력 탄압, 민주개혁 후퇴, 내각제 개헌음모 등 실정을 거듭해 왔으며, 급기야 임시국회에서는 다수당으로서의 일방독주로 군조직법, 방송법, 각종 악법을 양산시켰다. 이러한 작태에 대한 민중의 저항은 필연적이었고, 노태우 정권은 그 때마다 북방외교, 통일정책을 이용하여 위기를 모면해 왔다. 전 국민적인 5월 민자당 해체투쟁 직후의 한소정상회담, 7·18 김대중-이기택 총재회담 당일의 고르바초프 친서공개를 보라. 또한 오늘은 야권통합을 위한 평민-민주-통추위 3자회담이 예정되어 있던 시기였다. 민주질서를 스스로 훼손하고 민생을 억압하며, 일당독재로서의 파행을 일삼는 현정권이 과연 민족문제를 운위할 자격이 있는가.

2. 노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회하라!

남북교류에 있어서 획기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금번 발표에서 그 법적 장치로서의 국가보안법 철폐가 제외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성국”인 북한의 동포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잠입탈출, 회합통신죄”에 해당되는 국가보안법과 오늘의 전면개방 조치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민중의 자주적 통일운동과 민주화 탄압의 도구인 국가보안법은 지체없이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3. 통일의 대전제로서 평화군축조치가 실행되어야 한다!

전쟁을 잠시 쉬는 의미로서의 휴전협정이 살아 있고, 핵무기와 엄청난 군사력으로 긴장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남북교류란 불완전하고, 통일의 여정에서 지극히

제한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껏 노정권이 군사문제 해결을 계속 외면해왔고, 금번 발표에서도 제외되었다는 것은 발표 동기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사이다.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남북한 상호감군과 주한미군의 철수 및 핵무기철거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모든 통일인사에 대한 석방조치가 즉각 단행되어야 한다!

노태우정권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한 통일인사를 중형으로 가둬놓고, 똑같은 입으로 오늘에는 남북전면개방을 주장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오늘의 발표가 진실한 것이라면, 그 후속조치로서 남북교류와 통일운동을 위해 투쟁하다 감옥에 갇혀있는 문익환목사, 임수경양, 문규현신부 등 모든 통일인사에 대한 석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7·20 민족대교류 선포는 그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배제되었고, 온 국민의 반민자당 의식이 총천해 있는 시점에서 이를 희석화하려는 배경을 담고 있으며, 남북교류의 기본전제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평화군축 조치가 제외되어 있고, 사후조치로서의 통일인사 석방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교류 자체에 대한 진전은 될 수 있어도 주국통일의 진솔한 의지가 담겨있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은 명백히 아님을 밝힌다. 남북교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통일을 위한 것일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금번의 조치가 오히려 민주화탄압과 통일의 장애로 작용할 것에 대한 경계 속에서 예의주시할 것이며, 위 주장의 실현과 관철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통일염원 46. 7. 20

총북민족민주운동연합

자료 5 - <성명서>

-노태우정권의 전쟁선포 이후 민족민주운동세력 탄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13일 노태우정권은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발표한 이후 인권을 유린하며 민민운동에 대한 탄압을 가중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부도덕한 현 정권의 폭력적 탄압이 예외 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보안사의 해명을 듣기 위한 보안대장 면담

을 요구하는 단순한 항의 방문에서 서부경찰서는 항의방문자를 불법적으로 연행하였고, 불법연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행자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며 잡아두었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충북민련 유수남 사무국장을 18일에는 이광희 민청간부 등을 아등의 이유 없이 연행, 수 시간을 불법적으로 감금하였던 일과 20일에 있었던 절도범에 대한 총기난사 검거는 인권 유린과 이명 경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23일 '민간인 사찰 진상규명 및 보안사 해체를 위한 가두서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주서 정보과정 등의 폭언과 폭행 속에 5명이 불법적으로 연행되었으며, 현재도 하등의 이유조차 없이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바라보며, 이는 단순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노태우정권의 전쟁 선포 이후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탄압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노태우 정권의 '전쟁선포'는 민민운동에 대한 탄압의 수단이다.

'전쟁 선포' 이후 경찰과 노동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시위와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가주요시설과 경찰관서의 피습, 화염병 투척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총기를 사용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전 노협에 가입된 노조에 대한 업무조사, 노동상담소의 3자 개입 처벌과 폐쇄조치를 경찰과 노동부가 각각 발표하였다. 이는 곧 민생치안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속에서 민민운동 세력을 탄압하여 현 정권의 음모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2. '전쟁 선포'는 인명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작태이다

일선 경찰 총기 지급 등 전쟁선포가 가지는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 남발과 불법적 연행, 감금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또한 현 정권은 애초의 경찰중립화의 방안으로서가 아닌 경찰력의 무분별한 강화, 확대로 경찰청 설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방도는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인명을 경시하고 인권유린의 풍토를 더욱 만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장기집권을 관철시키기 위한 내각제 개헌음모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선포

노태우 정권은 자신들의 안정적 장기집권을 위해 내각제 개헌을 관철시키려는 음모에 혈안이 되어있다. 허나 내각제 개헌 음모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지껏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왔고, 내각제 개헌 분쇄투쟁의 선봉에 서있는 민민운동세력에 대해 탄압을 가하며 그 활동을 위축시켜 내각제 개헌 음모를 무사히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바로 전쟁선포에 숨어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도덕성조차 상실한 채 문재해결의 근본적 방안이나, 대책 없이 오로지 힘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노태우정권의 전쟁선포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려는 의도가 깊숙이 숨겨져 있음을 명심하고 향후 전쟁선포로 예견되는 반인권적 처사와 민민운동에 대한 탄압에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힌다.

우리의 주장

노태우는 전쟁선포 즉각 철회하고, 민주개혁 실시하라!
도경국장, 청주서부서장은 최근 집회 탄압, 불법연행, 감금 책임지고 공개 사과하라!

1990. 10. 24

총북민족민주운동연합

자료 6 - <성명서>

- 범민련 탄압 및 구속 규탄 철야농성을 단행하며 -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총북민족민주운동연합은 지난 1월 24일의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간부들에 대한 전격적인 구속 수배 조치에 경악하며, 그에 대한 즉각적인 규탄 농성을 단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미국과 노정권의 사주를 받은 검찰, 경찰은 지난 1월 24일,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 이창복 의장과 김희택 정책실장을 구속하고, 역시 핵심지도부인 김희선 집행위원장 대행과 권형택 국장을 수배하였다. 이들은 전민련의 지도인사임과 동시에 구속되기 하루전날 결성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남한본부 준비위의 간부들이란 점에서 우리는 이들의 구속 수배를 범민련과 통일운동에 대한 폭거로 규정한다. 정권의 하수인들은 구속 사유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 통일운동 기구인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작년 11월 베를린 범민련 결성 합의 3자 회담을 국가보안법 상의 회합통신죄로 뒤집어 씌우는 반통일적 작태를 보였다. 그렇다면, 정주영, 박철언의 방북을 보장하는 국가보안법 이외의 상위법이 존재한단 말인가.

금번의 구속 수배조치는 또한 지자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과 존립기반을 다지고, 다시금 내각제 개헌을 시도하여 장기집권 음모를 꿈꾸고 있는 미국과 현 정권이 그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민주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기 위한 서곡임을 우리는 직시한다. 불법선거 단속을 빌미로 자행되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제약, 한자리수 임금

인상 방침, UR협상에 굴복하여 농민생존권을 압살하는 등 현 정권에 의한 공안정국의 연속 음모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현 정권은 민간 차원의 자주적 통일운동을 보장 지원하라.

현정권은 반통일적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의 어떠한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이기에 성과없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증명되듯 정부차원의 통일정책은 진전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의 자발적인 통일염원에서 추진되는 자주적 교류운동과 남북 해외동포의 민중이 통일을 앞당기고자 추진하는 범민련의 결성은 조국통일의 전도를 밝게 하는 역사적 소명이요, 현 정권이 이를 저지할 아무런 권리도, 자격도 없는 것이다. 동시에 민중의 통일운동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현 정권은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대신에 지자체 관련 법규를 민주적으로 개정하고 내각제개헌 포기 공약을 국민들에게 선언하며, 임금통제정책 및 굴욕적인 UR협상과 수입개방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3. 우리는 금법의 구속, 수배 사태를 계기로 통일운동에 대한 순교자적 소명으로 더욱 힘차게 전지할 것을 선언한다. 민중이 주체가 되는 자주교류, 평화군축 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할 것이며, 이의 조직적 결정체인 범민련의 사수와 건설, 강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이를 가로막는 미-노정권의 어떠한 방해책동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중의 힘으로 분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감행할 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통일열사의 정기를 이어받아 철야농성을 시작하며 이상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는 바이다.

통일염원 47년 1월 28일

총북민족민주운동연합

13. 단체명 : 총북민주화교수협의회

약칭: 총북민교협

소속단체:

존속기간: 1989년 6월 13일 ~ 현재

주요 활동지역: 청주

법적 상태: 합법

조직체계: 역대 회장단(유초하 충북대 철학과 교수 1989. 6 ~ 1990. 2, 유진채 충북대 농경제학과 교수 1990. 3 ~ 1991. 2, 민경희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1991. 3 ~ 1991. 8, 김정기 서원대 역사교육과 1992. 9 ~ 1993. 2)

강령:

결성과정: 1985년부터 청주 YMCA에서는 민주 시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민사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시민사업 위원회는 각종 강연회를 개최하고 시민 상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전두환 정권 하의 폭압적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민주화 의식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시민 사업 위원회의 활동은 그 후 청주 YMCA 내부의 문제에 봉착하여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때 시민사업 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그 후 충북 민교협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민사업 위원회에는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3개 대학 교수가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 3개 대학 연계를 통해 충북 민교협을 창립하는 데도 이 위원회가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었다.

1986년 전두환 정권의 영구집권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청주지역 3개 대학 교수들도 적극 참여하였고 이때의 서명교수들이 6·10 항쟁 이후의 소강국면에서 민교협에 참여하였고 그 중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 그 후 각 지역별로 민교협 조직이 만들어지자 충북지역에서도 1989년 6월 창립대회를 거쳐 충북 민교협이 출범하였다.(참여대학: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교원대, 충청실업전문대).

충북 민교협은 창립 시 정치, 사회적 민주화와 대학 민주화, 그리고 제 민주 운동 단체와의 연대 원칙을 천명하였다.

주요활동: 충북민교협은 창립 당일 “교직원 노조를 즉각 인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사회적 발언의 첫발을 내딛었다. 그 후 충북 민교협은 다른 민주운동 단체들과 함께 “충북지역 사회민주단체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중요한 정치, 사회적 쟁점이 있을 때마다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틀을 갖추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 대학 민주화의 요구는 높아졌지만 실제 대학 민주화의 성과는 미미하였다. 국립대학의 경우 전체 교수들의 대표체인 교수협의회 또는 교수회가 법적인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이 개악됨으로써 사학 재단의 비리와 전횡을 견제하기가 전보다 오히려 더 어렵게 되었다. 특히 도내의 우수한 사립대학인 청주대와 서원대는 사학재단과 민주적 대학운영 사이의 모순이 더욱 심화되었다. 충북 민교협은 이들 사학재단과 학원의 교

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벌여왔다. 우리나라 교육의 인간화, 민주화를 지향하는 전교조에 대해서는 공청회의 공동개최, 민교협 회원의 전교조 가입, 후원활동 등을 해왔다. 충북 지역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충북지역의 민주노동 운동을 주도해온 “노동자의 집”에 대한 후원활동을 해왔다. 노동자의 집은 충북지역에서 민주노동 운동의 맥을 이었고, 민주노총의 결성과 함께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사무국으로 개편되었다. 실제 충북 민교협은 민주노동에 대해 재정적 지원 이상의 연대를 원하였고 민주노동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였지만 성과있는 실질적 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이다.

충북지역의 언론운동에 대해서 충북민교협은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언론 노동자의 처지나 지역언론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좋아보다 훨씬 심각하다. 1996년 충청일보는 안기부 간부 출신 인사들을 사장으로 선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 결정에 항의하는 많은 기자들을 해고시켰다. 충북 민교협은 “안기부 출신의 충청일보 사장 취임을 거부하는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충청일보 사장 퇴진과 해직기자 복직운동을 벌였다.

최근 시민운동의 전개는 민교협이 사회민주화의 모든 쟁점에 개입할 필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다. 중앙차원에서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지역에서도 역시 적용된다. 그러나 교육과 학원의 민주화와 자율화, 교육개혁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책무는 여전히 충북 민교협의 몫으로 남아있다. 현재도 청주대와 서원대의 재단비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충북 민교협은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두 대학 평교수들의 투쟁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다음은 충북 민교협의 주요 활동사항이다.

1989. 8. ‘전교조 탄압저지와 합법성 쟁취를 위한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충북 지회 내에 전교조 특위를 설치함.

1989. 10. 28. ‘참교육을 위한 국민걷기 대회’ 공동 주최

1990. 10. 22. 충북 전교조 학습교재 세미나 ‘우루과이 라운드와 한국민중’에서 주제발표(충북대

유진채 교수)

1991. 3. 충북지회 월보 제1호 발행

1991. 3. 7. ‘수서비리 해명없는 지자체 선거는 무의미하다’는 성명서를 한겨레 신문에 발표

1991. 3. 24 ~ 4. 5. 해직 및 재임용 탈락 교수 복직촉구 광고(한겨레 신문에 3개 대학이 번갈아 발표)

1991. 5. 3. 명지대생 강경대 군 타살 사건과 관련, 항의 농성. ‘공권력에 의한 강경대

군 타살을

규탄하는 농성에 들어가며'라는 성명서 발표

1991. 5. 5. '백골단, 전경해체 및 공안내각 총사퇴 범국민 촉구대회' 참가.

1991. 5. 8. 강경대군 타살에 항의하는 침묵가두행진(23명 참가).

주요활동가:

관계 단체:

관련 자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1997. 『민교협 10년사』, pp. 178-183

<충북민주화교수 협의회 창립 선언문>

80년대 민중운동의 질적 고양을 기반으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창립된지도 두 해가 지났다. '민주교수협'을 통하여 우리 교수들은 사회의 교육과 민주화를 위해 일정한 노력을 경주해 왔고 그것이 국민대중에 의해 적극적인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지역의 회원들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였는가? 집행부의 활동이 헌신적인 임원들에 의해 전개되는 동안 우리 회원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지지, 추동해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취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전국적인 차원의 사업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중앙의 일로 치부하고 방치해 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더욱이 지역에서도 회원들이 대학별로 개별분산의 상태에 머무름으로써 지역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응당 맡아 왔어야 할 일들을 우리의 일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방치해 온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반성 위에 우리는 '충북민주화교수협의회'를 결성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앞으로 전국차원의 활동을 강화해 나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에 대하여 방관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체가 되고자 한다. 지역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충청북도는 보수반동의 낡은 틀이 그 구차한 존속을 가장 완고하게 고집하는 곳이다. 우리는 그 책임의 중대한 부분이 우리들 자신에게 있음을 자인한다. 우리는 지역회원 상호간의 조직적 유대를 기반으로 사회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지역단위의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민주화는 총체적인 내용을 지녀야 하며, 따라서 모든 운동이 서로 고립, 분리되어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충북지역의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지역 및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충북민주화교수협의회'를 창립하면서 우리의 활동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현단계 한국사회의 당면과제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성취임을 확
인하고 이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단위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 우리는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 그리고 민주교육의 실천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 우리는 현재 교육민주화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점하는 교직원노동조합
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교육악법 개정투쟁 등 기타 제도개선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4. 우리는 지역 및 전체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지역 내 모든 민주세력과 긴밀히
연대해 나갈
 것이다.

1989년 6월 13일
충북민주화교수협의회

14. 단체명 : 충북시민회

약칭:

소속 단체:

존속 기간 1989년 6월 24일 ~

주요 활동지역:

법적 상태: 합법

조직 체계: 정상길(회장, 치과병원장), 민봉규(부회장, 남양에너지), 김동인(부회장, 백학소
주 공장장), 정영수(기획연구실장, 변호사), 최병준(상임위원, 국제로타리 374지구 사무총
장), 이승원(사무국장)

강령:

결성 과정: 충북시민회는 1989년 6월 24일 약 6개월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창립하였다. 창

립준비 당시의 시대상황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성장하기 시작한 우리사회의 민주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차원에서 민주주의 내용을 심화시키는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특히 우리지역은 상대적인 보수성과 낙후성으로 지역 소외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 국가적 민주화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재야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지역적 문제에 눈 돌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권익신장에 기여하는 지역밀착형 단체의 창립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뜻있는 지역의 젊은이들이 주도가 되어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출발하는 시민단체 창립을 발의(정지성, 김희식, 민봉규, 노영민 등)하여 지역의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들(김병준, 정상길, 정영수, 장병순 등)과 결합하여 충북시민회 창립이라는 우리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단체를 창립하게 되었다. 발기인 및 회원 80명으로 출발한 충북시민회는 회원확대와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주요 활동:

주요 활동가: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송재봉, 「충북지역 시민운동을 돌아보며」, 『충북지역 사회운동』, pp. 86-88.

<창립선언문> 요약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이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나라 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우리들이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현실에 안주하려 했던 탓이다. 이제 위와 같은 자세를 탓하거나 지역적 불균형을 원망할 때가 아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극복하고 이 고장의 시민으로서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를 찾아 나설 때이다. 더욱이 현대 산업문명의 발전으로 인류의 삶이 풍요로와 졌지만 한편으로 생활환경의 오염과 공해, 물질만능주의 등은 인간성의 상실, 윤리의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인간의 가치있는 삶과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6대과제: 1. 건전한 민주의식을 고취한다. 2.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3. 주민의 생활권과 생존권을 보호한다. 3. 건전한 향토문화와 민족문화를 가꾼다. 4. 나라와 민족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6. 회원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

15. 단체명 : 충북여성민우회

약칭: 충북여성

소속 단체:

존속 기간 1989년 ~ 현재

주요 활동지역:

법적 상태:

조직 체계:

강령:

결성 과정:

주요 활동: 1989년 창립된 충북여성민우회는 변지숙, 정진경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내부 조직체계로는 학생반, 기혼 여성반, 일하는 생산직반, 남성 회우반 등 주로 계급, 계층별 단위로 구성되어 각계각층을 조직대상으로 설정하고자 애쓴 흔적이 있다. 초창기에는 주로 회원 내부간의 결속과 친목을 다지는 일이 주 활동이었고 민족민주운동과의 연대관계에 대한 부분이 큰 몫을 차지하게 된다. 초창기 지역적 분위기, 인적·물적 자원부족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장 큰 난제는 역시 조직위상, 역할설정 상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80년대 후반, 자주 민주 통일을 기치로 한 사회민주화 분위기는 여성운동이라는 부문운동의 독자성 보다는 총민협이나 총민연과 같은 연합운동체를 중심으로 한 전선운동에 우선적인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즉, 변혁운동의 이념실현을 위한 당염 정치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과, 성평등 질서 확립이라는 여성단체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대중성 획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상존하면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직 대상도 단체역량에 맞지 않게 전 계층을 포괄적으로 설정하거나 노동자 계층 여성 조직에 대한 관념적 당위성에 얽매어 구체적인 조직화의 성과로 귀결되지 못했는데 이와 같은 혼란은 충북여성민우회를 포함해 타지역 지역여성단체들도 공히 겪는 어려움이였다.

91년 2월, 충북여성민우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정식으로 가맹하게 됨으로써, 이전의 참관단체보다 더욱 긴밀하게 전국적 여성운동의 내용과 흐름을 공유하게 된다. 이 시기는 당시의 중심 지도력이자 상근자였던 변지숙 대표의 결혼으로 사무실 운영이 일시 정지되자, 주모임장소가 변지숙 대표가 결혼 후 운영하는 카페가 되고 소모임은 각자 회원들의 집에서 자유롭게 모였다. 민경희, 정진경, 변지숙이 공동대표로, 남정현, 신유숙이 사무국 실무자로 일하게 된다. 그간의 계급, 계층별 소모임이 교육 소모임, 문화 비평반 등의 과제별 소모임으로 변화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 시기이기도 했다. 10여명의 주부 회원들로 구성되어 동화비평, 시험지 비평, 불량만화 분석 등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활동으로 인해 언론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교육 소모임은 91년 충북여성민우회의 가장 왕성한 활동단위라고 할 수 있다. 11월에 열린 대화마당에는 연인원 11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는가 하면 연이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가두선전과 서명운동이 실시되어 여성운동의 구체적인 과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개시하였다. 92년과 93년의 3, 4차 정기총회에서는 중점

사업을 ‘성폭력 추방의 해’로 잡고 주부와 직장여성을 주 대상으로 설정하게 된다. 92년에는 김수정, 정진경이 공동대표로, 93년에는 민경자, 정진경, 최미애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남정현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상근자체계가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12년간 자신을 짐승처럼 성폭행해온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보은, 진관의 무죄석방과 성폭력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지역 내 여학생회, 여성단체와 함께 공동 주최하는가 하면, 70세가 넘은 복지시설장이 10세 이하의 어린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사실이 봉사 씨클에 의해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성화원 어린이 성폭력 사건 대책위 활동을 주도적으로 꾸리면서 충북여성민우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성화원 사건대응활동은 1년 이상을 가해자 재판 감시 및 복지시설 운영진 민주화 운동을 마을 주민, 사회복지 운동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했던 운동이었다.

이후, 지역의 문화운동 단체인 녹두패의 노래공연을 통해 성폭력의 사회적 근절을 위한 여론화 활동을 적극 펼쳤다가는 등 주민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소식지 발행 및 영상마당 개최 등의 회원관리 사업도 체계화되고 안정화 되어갔다. 92년 하반기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홍보했으며 ‘여성의 한 표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하에 여성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오숙희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시기의 활동 특징을 정리해보면, 이 시기는 충북여성민우회가 초창기의 어려움을 딛고 지역사회 속에서 본격적인 여성운동단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시기였다. 이는 주부 지도력과 안정화된 상근 실무력을 중심으로 생활 속에 뿌리박은 주부들과 직장여성들에게 적극 다가가고자 노력한 땀의 결과였으며 특히 지역 내 사회단체 및 주민들과 연대하여 전개한 성폭력 사건 대책위 활동은 실천하는 여성단체로서의 충북민우회를 지역 사회 속에 알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남정현, ‘충북의 진보적 여성운동 10년과 방향-충북여성민우회와 청주여성 의전화를 중심으로-, 충북지역 사회운동: 1085-1999, p. 52-55).

주요 활동가: 변지숙, 민경희, 정진경, 남정현, 신유숙, 민경자, 최미애

관계 단체:

관계 자료:

<1990년대>

16. 단체명 : 국민연합 임투대책반

약칭:

소속 단체:

존속 기간: 1990년

주요 활동지역: 청주

법적 상태: 합법

조직 체계:

강령:

결성 과정:

주요활동: 1990년 한시적으로 활동한 조직. 학생운동 출신가들로 구성되어 국민연합 산하기고는 하였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코리안마트 노조결성투쟁, 현대정밀, 뉴맥스 투쟁을 지원.

주요 활동가:

관계 단체:

관계 자료:

17. 단체명 : 국민연합 임투공동대책위원회

약칭:

소속 단체:

존속 기간 1990년

주요 활동지역:

법적 상태:

조직 체계:

강령:

결성 과정:

주요활동: 1991년 한시적으로 활동한 조직. 충북전자노조건설 및 사수 투쟁을 지원하였으며, 노동자여름캠프를 처음으로 개최함

주요 활동가:
관계 단체:
관계 자료:

18. 단체명 :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약칭:
소속 단체:
존속 기간: 1991. 1. 17 ~ 1992. 2. 12
주요 활동지역: 청주
법적 상태: 합법
조직 체계:
강령:
결성 과정:

주요 활동: 청주시민회 상임위에서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후보가 선출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바른 선거를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창립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였다. 1991년 2월 2일 진보적인 재야단체, 시민단체, 직능단체 및 보수적인 관변단체를 포함한 총 99개 단체로 구성된 '바른선거를 위한 충북지역시민단체 협의회'가 창립되었고, 전국적인 연대활동 강화와 공신력 제고를 위해 이 단체는 1992년 2월 12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충북협의회'로 전환한다.

주요 활동가: 공동대표(최병준, 박학래, 김숙희, 김정웅, 이도영, 박인준) 사무총장(정영수)
관계 단체:
관계 자료:

19. 단체명 : 민주주의 민족통일 충북연합

약칭: 충북연합
소속 단체: 부문(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충북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충북민주교수협의회, 충북문화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충북목회자정의실천협의회,
충북기독교청년협의회/지역(민주주의 민족통일 총주·중원연합(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총주·중원지회, 건국대학교총학생회, 중원민중사랑청
년회,
중원·총주 농민회, 중원민우회, 놀이패 물개)
참관단체(민주연합청년동지회 총주·중원지회)

존속기간: 1991년 12월 14일 - 1992년 12월 30일

주요 활동지역: 충북

법적 상태: 반합

조직 체계: 대의원대회, 감사,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의장단, 중앙집행위원회(의장단),
상임집행위원회, 자문위원, 특별위원회, 자주통일위원회/제도정치위원회,
정책협의회, 정책실, 사무처(총무국, 선전국, 조직국, 투쟁기획국)

강령: 우리는 민중생존권을 수호하고, 사회 전 영역의 민주개혁을 실현한다.
우리는 반독재 민주역량을 총집결시켜, 진정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우리는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자주권을 쟁취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민족통일을 이룩한다.
우리는 충북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운동의 토대를 강화한다.
우리는 민족민주세력의 통일단결과 국내외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추구한다.

결성과정:

충북연합은 충북민연과 국민연합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1년 12월 14일 전농충북도연맹,
교직원노조, 충북대협, 청민청, 충문연, 민교협, 충목협, 총주중원연합을 중심으로 충북대학
교 학생회관에서 창립되었다. 충북연합의 결성과정은 강경대 열사의 죽음 이후, 연이은 분
신항거와 연인원 200만을 상회하는 대중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섰던 5·6월 투쟁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90년초 이후 한국 사회의 진정한 변혁을 바라고 있
는 수많은 국민대중의 바람을 따르지 못하고 실질적 정치대안과 함께 투쟁하지 못한 그간의
과정에 대한 엄중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극복해내고 나아가서는 다가오는 92, 3년
의 정치적 격변기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해내기 위한 모색의 소산이었다.

우리 지역에서 지난 5월 9일 상당공원에서의 반민자당 집회에서 사상 초유로 8천 시
민, 학생, 노동자가 참여하였고 연이은 10여 차례에 걸친 대중집회와 가두투쟁은, 민중이 중
심이 되어 준비된 투쟁, 청주시민, 충북도민과 함께 하는 투쟁, 생산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투쟁, 그리고 향후 민중의 희망으로 자리잡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실질적 대안과 함께 하는 투쟁만이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적 제권리를 획득할 수 있고 민족자주권 획득 및 민족통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다 현실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 5·6월 투쟁의 구심이었던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와 민중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민연합 총북본부’(이하 국민연합 총북본부)에서는 지난 9월부터 새로운 상설연합체 건설에 대한 문제를 적극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총북민연과 국민연합을 비롯한 그간의 지역 연대운동의 경험과 힘을 계승하여 새로운 연합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총북연대(이하 총북연합)을 건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87년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정치적 진출을 강화하여온 기층대중조직의 연대와 정치적 진출은 전선체의 일상 운영체계를 여전히 재야인사와 상부구조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에도 불구하고 민중 주도성이 확연히 강화된 새로운 전선질서와 전선조직을 출범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총북연합은 92,3년의 권력재편기를 통일 단결된 모습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족민주운동의 조직적인 준비였다. 이러한 과정과 내용은 총북연합이 창립하면서 밝힌 결의에 잘 나타나 있다.(김재수·유수남, ‘지역전선운동의 발전과정’, 총북지역 사회운동: 1985-1999, pp. 11-13)

- 1991. 7. 20. 제39차 국연대표자 회의: 국연 총북본부에서는 상연건설 논의를 진행 하되 추진소위가 아닌 정책회의가 역할을 수행한다.
- 7. 25. 상연건설을 위한 지역 설명회: 국연 전국본부의 정책위원의 설명으로 총북대학교에서 진행, 100여명 참가
- 8. 7~9.23. ①지역 5, 6월 투쟁평가 ②상연의 위상, 역할, 과제, 조직체계에 관한 논의 ③지역준비위 건설 방안에 관한 논의 ④전국 합의시안에 관한 토론
- 10. 4. 제40차 국연대표자 회의: ①전국연합 합의시안의 처리 및 준비위 건설에 관한 논의 ②기타 운용에 관한 논의
- 10. 15. 제41차 국연대표자 회의: ①상연준비위 구성체계 최종 점검 ②상연 비위 인선 내정안 확정 ③국연 해소 문제 처리
- 10. 24. 제42차 국연대표자 회의: ①준비위 인선 내정안 확정 ②준비위 상임위원회 확정
- 10. 28. 상연준비위 제1차 상임위원회의: ①상연준비위 공식 결정(상임위로 대체) ②준비위 임무, 역할, 조직체계 공식확정 ③상임위 활동계획 논의
- 11. 5. 제2차 상임위원회: ①정책 및 조직소위 구성 ②국별 활동계획 논의 ③1차 중앙위 개최 논의
- 11. 12. 제3차 상임위원회: ①지역상연 명칭 확정 ②민중대회 개최 결정
- 11. 19. 제14차 상임위원회: ①사무처 국원 배치 ②1차 중앙위 안건 및 민중대

회에 관한 논의

- 11. 23. 충북연합 준비위 제1차 중앙위원회: ①민주주의민족통일 총주, 중원연합 준비위 충북연합준비위에 가입 ③기간활동 보고 ③2차 중앙위원회 및 충북연합 창립대회 일정 결정
- 11. 23. '91민중대회: 무심천 고수부지에서 전시접수국지원협정체결 및 미국 쌀수입 반대, 노동법개정의 내용으로 740여명 참석, 집회 후 가두행진
- 11. 26. '91 민중대회 평가, 전국연합 창립대회평가 및 지역대의원, 중앙위원 확정
상연건설 전국추진위 및 준비위 회의 참석(총9회): ①상연건설의 전국적 통일을 위해 전국회의에 참여하며 지역준비위의 전국준비위에 공식 가입 ②전국연합 준비위 산하 각종 위원회에 참석
- 12. 1. 전국연합 창립대의원 대회: ①연세대와 건국대 대회에 지역대의원 15명 참석 ②지역대의원 외 150여명 참관인 참석
- 12. 2. 제6차 상임위원회: ①92, 93년도 정치방침에 관한 논의 ②조직체계 및 규약에 관한 논의 ③사무실 구입에 관한 건 ③제2차 중앙위원회의 일정 결정
- 12. 5. 제7차 상임위원회: ①인선소위 구성 ②재정원칙에 관한 논의
- 12. 9. 제8차 상임위원회: ①정치방침에 관한 특별결의문 채택 결정 ②대의원, 중앙위원 배정 논의 ③인선에 관한 1차 논의 ④창립대회에 관한 토의
- 12. 11. 제2차 중앙위원회: ①창립대회 일정 및 안건 확정 ②창립대의원대회 안건별 동의안 심의 결정 ③창립대의원대회 채택문안 심의, 결정

주요 활동:

주요 활동가: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자료 1 - <창립선언문>

충북 민중의 의지모아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새날을 앞당기자!!

우리는 오늘 투쟁 속에서 성장한 지역의 각 부문과 시·군 단위의 모든 민족민주운동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충북연합의 결성을 선포한다.

우리 민중은 근세 백여 년에 걸쳐 외세와 독재에 빼앗긴 자유와 권리를 되찾고,

근로민중이 참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사회,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투쟁을 계속해 왔다. 또한 지역적인 낙후성과 소외에 근거한 착취의 중복 속에서도 충북 민중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하였다. 갑오농민전쟁과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해방 후 통일된 민주정부 수립투쟁, 4·19혁명, 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91년 5월 대투쟁에 이르기까지 충북민중의 투쟁은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 우리는 역사 속에 면면히 이어져 온 민중투쟁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특히 그간의 우리 지역 민족민주운동의 통일단결을 도모해 왔던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과 “민자당 일당독재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충북본부”의 성과를 모아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의 기치를 더욱 힘차게 들고, 우리 지역 민중운동의 역량을 도모하고자 “민주주의민족통일충북연합”을 결성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의 처지를 보면서 너무도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 날마다 들려오는 핵무기와 전쟁위험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이 미국의 일개 이간지의 뉴스거리로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자주권을 지닌 민족으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농락당하는 현실에 무감각해진 무리를 질타한다. 우리 민중의 생존권이, 자국의 이익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수입개방 압력에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투쟁의 의지를 가다듬게 된다. 민족의 운명이 이러한데, 민중의 생존권이 이러한데 외세에 편승한 독재정권과 독점재벌, 우리 지역의 사대주의자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일신의 안일을 위해 역사의 주체, 민족의 주체인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하여, 민중의 고통과 민족의 고통을 하루 속히 청산하기 위하여, 민족의 자주와 민중의 평등을 위하여, 민주정부 수립과 민족통일의 한길로 충북 민중의 의지를 모아 한길로 나아갈 것을 역사의 임무로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지역의 민중들이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외세와 독재, 지역의 봉건적 잔재들에 의해서 농락당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영세상공인, 교사, 지식인 등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전진할 것임을 확신한다. 이는 그간의 투쟁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온 우리의 결과물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모아, 그간의 투쟁의 오류를 반성하면서 민주주의민족통일충북연합을 중심으로 투쟁의 깃발을 새로이 올리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민족민주운동역량을 모을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대오는 그간 어떠한 형태보다도 강고할 것이며,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투쟁해 온 우리 지역의 지도적 인사들과, 비록 그 연륜은 짧을지언정 파쇼정권의 폭압을 뚫고 성장해온 민중운동역량이 주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지역의 애국적 모든 역량을 포괄할 것이며, 반독재 민주적 역량과 함께 할 것이다. 민주주의민족통일충북연합은 온 힘을 다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민중의 생존권, 그리고 우리 지역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민족

통일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민족통일총북연합은 전국연합과 함께 노골화되는 민자당의 장기집권 기도를 분쇄하고 우리 지역 민중들의 힘을 모아 민주정부수립의 한길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타협하고 절충하는 모든 세력들까지도 민족민주투쟁전선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우리는 우리 지역 민중들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민중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리라 확신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민족통일총북연합의 깃발아래 총북 민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 민주주의민족통일총북연합의 깃발로 나아갈 것이며, 민주주의 민족통일의 그날이 올 때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승리의 한길에서 민족해방, 민중해방의 내일을 맞이하자!

민주주의 만세!
민족통일 만세!
민주주의민족통일총북연합 만세!

1991년 12월 14일
민주주의민족통일총북연합

자료 2 - <150만 총북도민에게 드리는 글>

조국의 자주통일과 민주화를 염원하시는 150만 총북도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총북지역의 모든 민족민주운동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민주주의 민족통일총북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족자주를 위한 민족민주운동의 도도한 흐름은 이제 각 계급 계층의 조직된 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운동으로, 반민중적 지배세력에 저항하는 민주변혁운동으로, 외세의 간섭과 강요된 분단에 반대하는 자주·통일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지난 90년부터 전민련을 비롯한 전노협, 전농, 전빈련, 전교조, 전대협 등의 기층 대중조직을 포괄하여 '민자당일당독재 분쇄와 민중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민연합'을 건설하고 민자당 일당독재의 폭압과 장기집권 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한 투쟁이 바로 90년의 5·9투쟁이었고, 공안통치 분쇄를 위해 떨쳐 일어섰던 올해의 5, 6월 대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계각층 민중운동의 연대로 이루어 낸 5, 6월 투쟁은 국민재중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동참에도 불구하고 민자당 정권의 공안

통치를 분쇄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민자당 정권은 광역의회 선거를 이용하여 투쟁의 불길을 잠재우는데 성공하였으며 민중의 생존권적 요구는 무참히 짓밟히고 오히려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좌절과 패배감이 만연되는 속에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더 이상 협소한 계급, 계층적 이해와 요구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정부수립과 민주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보다 책임있게 나서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기층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민주운동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민중연대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150만 충북도민 여러분!

지금 조국의 현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면적 시장 개방 등의 형태로 신식민지적 경제수탈을 강제하고 정치·군사적 지배를 지속하고 있는 외세와 내외 독점재벌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민자당 정권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배세력은 겨레의 소망인 통일을 가로막고 북방외교를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등의 제반악법을 존속시켜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남북대결을 강요하는 외세와 이에 편승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지배세력을 제외한다면 우리 7천만 겨레의 하나같은 염원이 바로 분단의 침략과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적인 민족통일을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경제는 외세의 자본침탈, 시장개방 압력에 의해 파탄지경에 이르러 있으며 민중은 외세에 의한 수탈과 이중적 착취아래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재벌위주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어 경제의 건전성이 침해되고 이의 당연한 귀결로써 부동산 투기, 심각한 환경오염, 향락문화의 번창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노동자, 농민들을 중심으로 수입개방, 산업구조조정, 임금억제 등에 반대하는 투쟁이 불붙고 있으며 우리는 전 민중적 연대로서 이러한 투쟁에 동참할 것입니다.

150만 충북도민 여러분!

우리 충북은 독점자본과 현 정권, 그리고 외세에 의해 3중 수탈의 생존권 몰락이 집중되는 대표적 지역입니다. 청주공업단지를 비롯한 각 군의 농공단지는 자본의 규모를 막론하고 세계경제질서 속에 조정된 경제구조에 의해 종속의 심화를 강요당하고 국내의 독점재벌에 의해 도태의 생산력과 잉여가치가 수탈되고 있습니다. 그 예는 이미 영태전자의 부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도민과 절대적 공간 점유를 차지하는 농업은 이미 특수작물에 의한 관지배와 독점재벌 및 미국의 농업정책에 의해 빈사상태의 상황입니다. 더구나 청주를 둘러싼 1차 산업지역인 농촌의 몰락으로 인한 도시 영세민의 급증을 이미 주택란, 물가고로 그 심각성이 점점 심화되며

골프장 건설, 핵원료 생산공장의 건설 등으로 충북의 전지역은 매우 황폐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은 이제 단호히 끝장내야 합니다. 우리는 92~93년의 일련의 선거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민중이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 민주개혁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을 때, 민중생활의 총체적 위기상황이 비로소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92~93년의 정권교체기를 반드시 민주정부수립, 민중승리의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탄압과 회유, 분열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책임있게 나서는 정치적 주체로서, 민주정부수립의 정권적 대안이 될 '민중주도의 민주대연합'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민주변혁과 자주통일을 염원하는 150만 충북도민 여러분!

민주변혁과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민주운동의 흐름은 그 누가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와같은 역사적 흐름의 주체는 바로 민중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의 주인인 민중과 함께, 7천만 겨레와 함께 '민주주의 민족통일 충북연합'을 결성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역사의 흐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충북연합의 깃발아래 다함께 참여하여 민중승리의 새날을 맞이합시다.

1991년 12월 14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충북연합

자료 3 - <1992년 대선에 대한 충북연합의 평가>

(김재수·유수남, 「지역전선운동의 발전과정」, 『충북지역 사회운동: 1985-1999』, pp. 12-13)

(1) 충북연합이 범민주후보 단일화 전술에 입각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조직했음은 지역에서 민주당 등 범민주 역량을 결집하게 되면서 민주 연합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대선시기 민주세력의 통일된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구심의 역할을 한 것으로 큰 성과이다.

(2) 또한 충북연합이 지역 대선 대응 조직으로서 범민주세력의 결집체인 국민회의 충북본부를 제안, 추동, 결성하고, 주요지도, 집행력을 담보하였으며, 실천력의 주요 조직 토대를 제공하였음은 민중주도 민주대연합 원칙에 입각하고 이의 실현에 헌신적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포함될 수 있다.

(3) 충북연합 선대본 산하 후보지지 지원단과 거리 문선대가 큰 헌신성과 열정으로 복무하

면서 청주에서 충북 전역으로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였고, 대중 접촉면을 넓히면서 대중과의 결합력을 제고했음은 그 자체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 범민주 후보의 득표율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

(4) 단일한 후보전술에 입각하여 이를 기초로 맹렬히 활동한 단체의 경우 충북연합의 사업 과정을 통하여 조직의 단결력과 통일성이 강해지고, 대중 활동력이 확장되는 성과를 남겼으나, 동시에 이 측면이 단체와 단체간, 또는 충북연합 전체 차원에서의 정치적 통일성과 결합력으로 나타나지 않음은 한계적 측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5) 후보전술의 의의와 내용에 대하여 광범한 선전과 대중적 공유를 확장해 내는데 한계가 노정됨으로 해서 충북연합을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부각시키고, 독자적 정치세력으로서의 대중적 인지도를 넓혀내는데 부족하였다. 이는 당시 충북연합이 국민회의와 구분되는 선거 대책 체계와 집행력을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었음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충북연합의 주체적 관점이 축소되어 국민회의와 차별 있는 독자적 사업의 질을 담보하지 못했음이 핵심적 원이니라 판단된다.

(6) 이번 대선투쟁은 충북연합이 평상시의 공투제 수준에서 통일적인 정치방침과 지도지침 하에 수행한 높은 차원의 연합활동이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충북연합은 연합적 질을 획기적으로 드높일 수 있는 계기였음에도 그 성과가 분산되어 나타나거나 한정되었고, 전 조직차원으로 묶이지 못했음은 충북연합의 연합운동의 수준을 드러내주는 아쉬운 한계였다. 충북연합은 '92대격돌기'로 표현된 대선시기까지 치열한 투쟁으로 충북지역 전선운동의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회의를 출범시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단결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주대연합전선을 만들어 냈지만 소위 문민정부 출범에 대한 혼선과 운동의 급속한 침체라는 전국적 상황과 대선 시기 견해차이(정파간 갈등과 분화) 및 투쟁의 침체(기층의 투쟁에 대한 결합력 부재) 속에서 급속히 약화되기에 이르렀다.

자료 4 - <성명서>

- 14대 국회에 대한 우리의 요구 -

1. 이번 총선에서 명백히 드러난 공작정치 '안기부' '기무사' 등 폭압기구에는 즉각 해체되어야 하고 군부정투표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2. 민자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추곡수매안' '제주도 특별법' 등은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교육악법'과 같이 정권안보를 위한 '반민주악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3. 민자당이 "관권선거"를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연기한 '자치단체장 선거'는 대통령 선거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4. 전노협, 전교조, 업종연맹의 합법화 및 민주적인 교육대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총

책임금제 철폐 및 무차별적인 강제철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5. “남북합의서”의 기본 취지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통일인사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6. 소비자물가가 5%이하로 안정될 때까지 공공요금을 동결시키고 통화량을 억제하여 물가를 잡아야 하며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을 즉각 실시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을 육성 민족자립경제의 기틀을 다져야 합니다.

1992. 4. 20

새날을 여는 충북도민의 힘
민주주의 민족통일 충북연합

20. 단체명 : 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약칭: 청주민청

소속 단체:

존속 기간: 1988년 4월 - ?

주요 활동지역: 청주

법적 상태: 반합법

조직 체계:

강령:

결성 과정:

주요활동: 1988년 탄생되어 10여 년 동안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충주와 제천 등의 지역에도 청년단체를 만드는 산파역을 자임하면서 활동. 청주민청은 창립 때부터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당시 노선상 NL계를 중심으로 한 자신의 노선을 표명하며 지역 내 청년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투쟁을 만들어가게 되었다. 청주민청은 지역 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되면서 활동의 내용들이 주로 통일운동의 대중적 활동과 정치운동의 대중화에 대한 내용을 전개되었다. 크게는 대중교육과 조직사업, 홍보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전선운동에 대한 지원과 지역 내 민민단체들의 보조활동을 위주로 사업하였는데 시민통일강좌와 더불어 ‘민주청년’ 등의 기관지 배포 등을 토대로 당시 한국사회의 부조리를 알려내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시의 이러한 개별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역시 초기 청주민청의 활동은

전선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이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청년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지는 못한 상태로 활동가조직으로서의 위상을 통해 실무자 중심의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청주민청의 활동방식은 청년운동의 정체성 문제에 부딪히면서 굳이 활동가들이 청주민청이라는 조직에서가 아니라 현장투신에 대한 고민까지 포함해 개별적 활동의 방향을 찾기에 이르러 활동력 자체가 저조해지는 상황을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정치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한 지역 내 대중청년들이 청주민청에 안착하기 시작하면서 청주민청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외양을 넓혀 충주와 제천에도 청년조직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는 6월 항쟁 이후 정치참여의 열망을 갖는 청년세대의 단체참여 열기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후 청년운동이 기득권 정당이나 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년들 스스로에 의해 자생적으로 조직됨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광희, '지역청년운동사', 충북지역사회운동: 1985-1999, p. 47)

조국통일, 반미자주화, 민중생존권 투쟁 조직. 보안사 해체와 노태우 퇴진 단식 농성, 청년교실 운영(철학, 노동, 농민, 정치, 놀이, 문화, 통일 교실), 소식지 '항소울음', '청민청', '청년교실' 발간

주요활동가: 박영호, 이광희, 최만규, 신성창, 이근순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성명서>

단체장선거 불법연기 민자당을 규탄한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참으로 참담함과 분노를 안고 이 자리에 모였다. 그토록 법치주의를 외치며 민중들의 사소한 잘못조차도 엄벌하던 자들이, 이제 권력의 이름으로 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노태우씨는 통일지사 문익환 선생님의 방북과 정주영씨의 방북에 대한 문제가 세간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정주영씨의 경우는 통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연기가 이러한 통치권 차원의 문제로 논리적 비약이 나오지 않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렇듯 이번 단체장선거 연기가 논리적 비약으로부터 나온 행위가 아니라면 이는 분명 법을 어기는 행위일 것이다. 여기서 그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금, 죽어가는 아들

의 식어가는 손을 만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해당 법조항을 인용한다.

‘이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 군주 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한다(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2항) 그리고 대통령은 선거일 18일전에 이를 공고한다’ 이것이다!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 민자당의 총재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4대 대통령 후보로 민자당을 대표해서 출마한 김영삼씨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불법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노태우씨는 여두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단체장 선거를 95년 이후로 연기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14대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고 했다. 그 결과 민자당은 전체 299석 가운데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149석을 얻었다. 그리고 득표율에 있어서도 단지 38%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분명 노태우씨의 제안을 국민들이 거부한 것이며, 법률이 정한 바대로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라는 국민적 명령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노태우씨의 제안이 국민적으로 거부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노태우씨는 지체 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태우씨는 이를 지키기는커녕, 민자당을 동원하여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을 믿고 계속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더니 급기야는 탈법행위를 자임하고 나섰다.

오호 통제라! 나약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이러한 행위가 혹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까 두려하고 있지 않는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대들은 이미 국민들의 저항을 의식하여 폭력적 다수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대들의 알팍한 수작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대들의 폭력에 대항해 투쟁으로 승리할 힘을! 하여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즉시 그대들의 알팍한, 그리고 그 가소로운 폭력적 다수결의 논리를 포기할 것을!

민자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속히 뉘우치고 국민의 편에서 노태우에 반기를 들라! 불법을 자임하고 나선 노태우씨로부터 결별을 선언하라!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을 저주한다.

우리는 탈법행위에 앞장서는 민자당을 엄중 규탄한다.

우리는 모든 민주세력의 단결을 도모하여 이런 무례한 민자당집단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1992. 6. 18.

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21. 단체명 : 민중의당

약칭: 민중의당

존속기간: 87년 11월 - 88년 6월

주요 활동지역: 충북

법적 상태: 합법

조직체계

위원장 : 김재수

정책국장 : 이용일

총무 : 박은경

선전국장 : 유정희

조직국장 : 신동명

강령: 민중주체민주주의

- 정치적으로는 선거와 의회를 중요시하면서도 다른 한편 직접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를 강조했다.

-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 강화와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당시는 아직 지방자치가 재도입되기 이전이었다)

- 직접민주주의의 기관으로는 '생산현장 대중조직들'과 '지역현장 대중조직들'을 명시했다. - 정당연기명 비례대표 투표 방식의 도입과 민중 발안권·소환권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 경제 대안으로는 경제민주주의가 철저히 관철되는 민중주도경제. 민중주도경제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소유와 사적 소유가 공존하지만, 주요 기간산업, 금융기관, 천연자원, 일정규모의 비농지 국유화. 사회적 소유 기업에서는 노동자공동체자주관리.

사적 기업에서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이윤균점을 보장. (공동결정제 추진). 경제 운영 방식으로는 시장과 계획의 유기적 결합으로서 계획적 시장경제체제.

-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남북 군축과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미군의 철수. 그 중에는 미군 보유 핵무기의 철거와 비동맹운동 참여.

- 통일 방안으로는 '평화정착-낮은 수준의 연방제-높은 수준의 연방제'라는 3단계 방안.

결성과정

87년

11월 민중후보백기완선생총청지역대학생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 도희운)

11월말 청원군, 보은군 농민회선거대책본부 구성 (정율동, 신언관, 이승원, 이용희)

민중후보백기완선생 선거운동 주요활동가 : 유정희, 김상통, 채선병,

김영석, 김덕기, 강철, 김용규, 박미순

87년 12월 민중의당흥덕구지구당 준비위원회 발족

88년

2월 민중의당흥덕구지구당 창당

위원장 : 김재수

정책국장 : 이용일

총무 : 박은경

선전국장 : 유정희

조직국장 : 신동명

3월 국회의원선거 청주흥덕구 후보 김재수 선거대책본부

주요활동가 : 이용일, 박은경, 김미환, 이경옥, 홍청숙, 전진유

6월 해산

주요 활동:

주요 활동가: 김재수, 이용일, 박은경

관계 단체:

관계 자료:

22. 단체명 : 민중당

약칭: 민중당

존속기간 : 1992년 2월 - 6월

주요 활동지역: 충북

법적 상태: 합법

조직 체계:

강령: 1.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수립

2.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보안법, 안기부법폐지, 집회, 결사, 시위자유보장, 사상, 학문, 예술, 종교자유보장, 언론, 출판자유보장, 정당 및 선거제도에서 불공정 제거)

3. 자주, 평화, 호혜평등의 국제질서

4. 평화통일

5. 민중주도의 개방적·자립적 경제구조의 건설

6. 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세계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7. 농업·농민문제의 올바른 해결
 - 농산물 수입 최대한 억제
 - 농산물 수매제 확대, 농산물 가격 한계생산비 보장
 -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제도 확립
 - 생산자 협동조직 지원·강화
 - 유통, 저장, 가공, 생산자재 산업등에 농민참여 보장
 - 농지기반, 경지확대, 생산기반확충에 대한 투자 증대
 - 농업협동조합 등 각종 농민조직을 민주화하고 자주적 농민조직의 활동지원
 - 연금제도 실시, 의료보장
8. 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연대
9. 사회복지 실현
10. 민중문화의 창조
11. 인간해방을 위한 교육
12. 자연과 인간의 공생으로서의 환경보전

결성과정:

1991. 12월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 결성
1992. 1. 16.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발기인 모집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 청주임시연락사무소 개설
1. 한국노동당발기인대회
 2. 한국노동당창당준비위와 민중당과 통합
 2. 29 민중당청주시을지구당 창당
 3. 10 신문1호 '새벽을 연다' 발행 - 민중진영독자정당지지와 민중후보
 추대를 위한 충북지역학생선거투쟁연합 건설준비위원회
 3. 12. 노동자의집 준비위원회 사무실 총선의 적극적참여와 노동정책 관철을
 위한 청주노동자 총선대책위원회를 제안하는 모임
 3. 14대 총선 참여
 이효식 속리택시 노조위원장 민중당 후보로 출마
 - 3.10-12 노동자후보지원을 위한 택시노동자 주막 충북대학 사범대앞 광장
 3.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전단 -총선의
 적극적 참여와 노동정책 관철을 위한 청주노동자 총선대책위원회
 3. 18 정당연설회 체육관앞
 4. 5. 충북대 소운동장 민중당 총선뒷풀이 놀이마당
 5. 9. 민중당청주시을지구당 2차 총회

참석범위 : 한국노동당 발기인 및 민중당 당원

안건 : 14대 총선 평가, 민중당 청주시을지구당의 진로

6. 19 3차총회 - 대의원 간담회

결의사항

임시사무소 체계승인

임시사무소 위원장 이효식 선출

대의원대회 안건 토론

대의원 선출 당연직대의원 사무국장, 선출직 노성호, 이경식 권영애

6. 해산

주요 활동:

주요 활동가: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자료 1 - <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정주영도 「통일국민당」을 만들고, 노동자들도 「한국노동당」을 만들려고 한다는데...

14대총선을 앞두고 있는 요즘 무슨 무슨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지 임투를 앞둔 노동형제들은 도통 어지럽기만 합니다. 5공화국 시절에 안기부장으로 있으면서 전두환의 독재정권에 충성을 다했던 장세동은 이제 6공화국 노태우대통령의 배신에 대한 분노를 새로운 정당 결성으로 풀어보려하고 있고 지난번 주식변칙 상속문제로 1천 3백억원의 세금을 한꺼번에 물게 된 노태우정권과 틀어진 정주영씨는 이번 기회에 예전에 정치자금으로 권력에 바치던 돈을 직접 정당을 만드는데 쓰겠다고 호언하면서 「통일국민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콧수염과 나비넥타이를 메고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게 뭘니까?’를 연발하던 김동길또한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하고... 모두가 총선에서 무엇인가 건져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수백여명의 노동자가 권력의 탄압으로 감옥에 있으며 노동자의 사상을 이야기 했다는 죄만으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나라!

일주일에 50여시간의 노동도 모자라 하루 30분 더 일하기 운동을 강요하고 기어이 어린 노동자를 자살케 하는 노동자 탄압의 천국인 한국에서도 노동자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나아가 민중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노동자 정당이 창당한다는 소식을 들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듣고는 누가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지? 하는 적극적인 관심에서부터, 당을 만들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과연 될 수 있는 지? 민주당이 통합되어 있는데 노동자 정당을 만들면 야권이 분열되지는 않을 것인지? 당운영의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과연 운영은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수많은 의문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수많은 의문은 우리가 건설하려는 노동자 정당이 가야 할 길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 **노동자정당은 87년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노동운동의 대중적 성과에 기초하여**

노동자 자신에의해 건설되는 진정한 노동자, 민중의 당입니다.

노동자정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정주영과 같은 사람도, 권력의 중앙에 있으면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 대던 장세동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지난 70년대 이후 노동운동에 종사해 온 민주노조간부, 노동운동가, 농민, 빈민, 그리고 학생 등 진보적 지식인, 그리고 긴 세월을 민주화운동에 종사해 온 재야 인사들이 만들고 있으며 이 속에서 단연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추진하는 노동자 정당이 70년대 이후, 그리고 가깝게는 87년 이후의 노동운동의 대중적 성과에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 선거때만을 위하여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고 외쳐대는 기존 정당과의 차별성이 명확한 것입니다. 이 속에서 노동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노동자의 단결권 쟁취를 위해 싸우는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노동법 개정등의 정치투쟁을 벌이며 토지, 금융, 공장등 이 사회의 모든 부를 독점하고 부패와 민중 빈곤의 원인이 되는 독점재벌을 해체하여 민중복지를 위한 새로운 경제건설 및 사회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 **청주 임시연락사무소는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19일 서울에서 있을 전국 발기인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추진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종합전시장 3층에서 열릴 전국 발기인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기인 대회를 거치면서 노동자 정당 추진위원회는 민중당 등 기존의 진보적 정당조직들과의 대통합을 모색하면서 총선에 노동자후보를 내고,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청주 임시연락사무소는 이러한 전국적 일정속에서 청주지역의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건설되는 노동자정당의 발기인으로 노동자 정당 건설에 동참하실 분은 청주 임시연락사무소에 연락을 주십시오. 또한 노동자정당 건설 사업에 대해 알고 싶으신 노동형제들 또한 청주임시연락사무소에 연락을 주시면, 노동

자 정당건설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을것입니다.

1992.1.16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 청주임시연락사무소

자료 2 - <창당 결의문>

조국의 자주통일과 민주화를 염원하시는 150만 충북도민 여러분!
부패와 불신의 보수정치를 청산하고
노동자 서민의 힘으로 새로운 진보정치를 열어나가자

1992.2.29일 드디어 우리는 청주에서도 이 시대 정치혁신의 주역이 될 진보적 대중정당의 역사적 깃발을 들어올렸다. 우리는 민중당청주를 지구당의 창당이 다른 보수정당의 창당과는 다르게 어느 일 개인의 정치적 야심이나 지역적 파벌의 형성과도 관계없으며 오직 이 땅의 민중들이 오랜 기간 싸워온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노동과 삶이 하나가 되는 인간해방의 사회에 대한 열망의 표현임을 믿는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의 창당대회가 아직도 재벌과 권력의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불평등 아래에 놓여 있는 이 땅의 민중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진보적 정치운동이 걸어온 암흑과도 같은 세월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 땅의 노동자 서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주적으로 실현시킬 권리를 박탈당한 오랜 독재의 세월과도 일치한다. 이제 이 땅의 민중은 오랜 독재의 세월을 스스로의 투쟁으로 깨어 버렸다. 87년 이후 터져 나온 노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자주적요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화는 민주사회로 가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민중들의 이해를 하나의 정치적 요구로 집약시켜내고 이를 정치 공간속에서 대변해 냄으로서 민주화를 앞당기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갈 진보정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민중당 이야말로 이러한 새로운 시대, 새롭게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학생 및 지식인등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라고 믿으며 자랑스럽게 민중당 청주을 지구당을 창당한다. 이미오래전부터 부패와 무능한 보수정당, 정치인들은 이 땅의 민중들에게 일말의 희망도 남겨놓지 않았다.

이제 무능과 부패의 정치가 낳은 불신과 냉소주의는 우리 민중들에게 정치 자체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의 정치판에는 민중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요구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정치가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싸우는 모습, 재벌과 결탁해서

재벌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만이 보여 지고 있다. 이 모든 불합리한 정치풍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바로 보수정당과 이들 정치인들을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서 떡 주무르듯 하는 재벌에게 있음을 우리는 명백하게 선언한다. 그리고 이 모든 현실을 뒤엎고 민중이 주인 되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갈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 민중당은 모든 일상 활동 속에서 이를 구현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민중당 청주을지구당의 창당과 때를 같이하여 4년 동안의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총선이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새로이 창당되는 우리 지구당에게 있어서는 진보적 정치운동의 현주소를 올바르게 파악해 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총선은 모든 보수정당들이 뿌려대는 엄청난 자금과 반짝선심, 행정조직의 개입으로 어지럽혀지고 있다. 이제 선거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돈을 뿌릴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관권과 행정조직들을 동원할 수 있는가 하는 시합에 불과하게 되어 버렸다.

그러나 우리 민중당청주을지구당은 이번 총선에서 오직 지역민중들의 삶속에서 함께 보고 함께 들으며 함께 느끼고 함께 말하며 온 힘을 모아 함께 행동해 나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속에서 노동자 서민의 정치혁신과 경제구조의 전면적 개편에 대한 바람이 정확하게 그리고 위력적으로 발휘된다면 이는 민중당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 노동자 서민의 승리임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우리 민중당은 이번 총선에서 노동자후보를 추대하여 변화를 갈망하는 노동자 서민의 의지가 진정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다. 선거 시기에 들어가면 유세장에서 이 지역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지는 노동자후보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푸른 하늘에 깃발처럼 휘날릴 노동자 후보의 다짐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노동자 서민의 가슴에 담겨져 있는 변화에 대한 갈망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음을 결의한다.

1. 민중당청주시을지구당은 언제나 지역 노동자 서민과 함께하는 실천의 모범을 창조한다
2. 민중당청주시을지구당은 이번 총선에서 노동자후보의 승리를 통해 전국적인 민중승리의 견인차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3. 이번 총선이 민중의 정치혁신과 경제구조의 개혁을 위한 바람이 전국적으로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기울인다.

자료 3 -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 우리의 적극적인 총선참여는 '92년 임금인상 투쟁을 결정합니다.-

경제위기의 주범은 자본가와 현 정권! 책임은 노동자가....

자본과 정권은 현재 노동자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신문과 TV에 나오더니 어느날 느닷없이 하루 30분 더 일하기 운동이 공장에서 신문에서, TV에서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장의 노동을 하고 있으며 하루에 7명씩 죽고 443명이 평생 불구자가 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해고될지 몰라 가슴 두근거리며 일하고 있는 것이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기 싫다고 한다니...

일하기 싫어하는 풍토를 조장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골프장을 만들고 사치향락산업을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본가들 아닙니까? 골프장이나 무분별하게 허가하고 새우젓에다가 김치까지 수입하도록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일 더하기 운동은 자본과 정권에게 필요한 것이지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총액임금제와 임금5% 동결 기도를 철회하고

물가 - 임금 연동제와 동일노동 - 동일임금 실시하라!

“고임금을 5%로 줄이고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총액임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가와 정권이 합작으로 만들어 낸 92년 신종상품입니다. 자본가들은 91년에 기본급은 한자릿수 억제 정책이 실패하였다고 보고 총액임금제를 실시하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5% 이내로 강력하게 억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임금은 겨우 한자릿수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정부의 발표대로 하여도 9.8%인상되었고 실제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20%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 요금만 하여도 170원에서 21원으로 23%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어떻습니까? 나아지기는커녕 더 이상 물가 때문에 살 수 없을 지경으로 악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임금제도를 물가가 오르면 노동자의 임금도 오르는 물가 - 임금연동제를 실시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임금만을 억제하고자하는 총액임금제는 실시되어서는 안됩니다.

대책 없는 해고 감원 반대

고용안정법 제정하고 실업보험제 실시하라!!

산업자동화다 기업합리화다 하여 해고 감원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88년에서 90년

까지 3년 사이에 16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청주공단내 55개 업체 중 AMK 500명 감원을 비롯하여 36개 업체에서 감원하고 있으며 단지 19개 회사에서만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현정권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난해 말 4만 2천명 외국 노동자가 불법체류하고있음) 외국 노동자를 수입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안정법을 제정하고 실업중에도 노동자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 개발할 수 있도록 실업보험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즉각적으로 국유화하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라!!

재벌의 부동산투기는 단지 주택가격을 올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는 생산시설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빼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되면 될 수록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국제 경쟁력은 하락합니다.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토지가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는 한 부동산투기는 근절될 수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국유화만이 부동산 투자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법인기업이 토지매입에 쏟아 부은 돈만 해도 10조원을 넘어 섭니다. 또한 주택문제 역시 재벌들에 의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한 전월세값 폭등 등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와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토지를 국유화하고 정부가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합시다!

선거에 꼭 참여합시다

노동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반노동자적 행위를 일삼아 온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 투표에 기권하지 마시고 꼭 투표하도록 합시다

각당의 노동정책을 비교하고 이 속에서 후보자를 결정, 투표합시다!

현재까지 각 후보들은 노동자에 대한 갖가지 공약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려나 지금까지 국회활동에서 보듯 이 대부분의 후보들의 노동자에 대한 공약은 빛바랜 거짓 공약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선이나 되고 보자며 남발하는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노동자에 대한 각 당의 행동을 보고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돈선거는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 먹는것! 부정선거 감시하자!

후보자들의 노동정책에 대하여 동료들과 토론합시다

현재 청주을 선거구에서는

기호 ① 자본가 - 임광수

기호 ② 변호사 - 정기호

기호 ③ 정치인 - 류병두

기호 ④ 노동자 - 이효식 등 4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각 후보들의 노동정책에 대하여 주위의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고 누가 노동자의 이해를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같이 판단합시다.

반노동자적 행위를 일삼아 온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지 맙시다!

현재 대다수의 후보들은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에서 풀린 돈은 물가를 상승시키고 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고발하고, 낙선운동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총선의 적극적 참여와 노동정책 관철을 위한 청주노동자 총선 대책위원회 -

자료4 - <새벽을 연다>

- 새벽을 여는 노동자 후보 이효식
- 신입생 여러분께 드립니다.
- 당들의 정책 -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재벌해체와 사회개혁을 단행하자!
- 성폭력, 매매음은 진보정당만이 제거할 수 있다
- 대대적으로 민중후보지원단을 조직하자
- 총북연합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지역민주운동단체연합인 총북연합은 이번 14대 총선에서 현 민자당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를 분쇄하고 나아가 민중의 정치적 진출과 민주정부수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써 투쟁의 초점을 맞추고 활동 방향을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14대 총선은 정치판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총북도민은 자못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총북연합 기자회견문을 검토해 보고총북대가 소재하고 있는 청주을 지구의 총선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1. 총분연합 총선방침에 대하여

선거 때마다 여당총북, 여당의 아성으로 불리던 총북지역은 지난 87. 88년 선거에서

JP 바람으로 일정한 변화를 보였으나 91년 광역의회 선거에서 '역시 충북은 여당의 아성이야'라는 말로 귀결되었다. 그러면 보름도 채 안남은 이번 14대 총선에서 충북지역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물음에 대하여 충북연합은 '충북연합 총선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전국연합 선거강령에 동의하거나, 공약화하는 후보를 심의, 선정, 지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충주, 중원의 민주당 정기영후보를 지지·지원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지원단을 구성하여 적극지지·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한 견해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단지 민주적 후보를 지지·지원하자는 원칙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전국적 상황을 보아도 전국연합은 진보적 진영간의 연합보다는 교섭의 1차 대상으로 민주당으로 설정함으로써 민주당의 보수화경향을 무시하고 선거전술을 내오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공동후보의 자격요인을 '지역에서 투쟁을 활발히 벌여 왔으며 지역활동을 통해 대중과의 결합도가 높아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연합은 민주당내 재야입당파의 많은 지분 확보를 위해 민주인사로 공동후보의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면서 민중당에 대해서는 민중당 후보중 일부를 '선별'하여 지지·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러한 전국연합의 선거방침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민주당의 보수화 경향과 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진출 과제에 대한 선거연합의 구체적 상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둘째는 현재의 (총선, 대선) 정세속에서 전국연합의 전선배치에 대해서 재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두 물음에 대하여 민주당이 공공연히 민주대연합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세력이 전국연합내에 존재한다면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식의 구시대적 발상에 불과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공공연하게 민주당을 지지를 표명하자는 입장을 보이는 전국연합 일부세력들은 민주당에 대한 환상속에서 스스로를 환각상태에 몰아 넣음으로 인해 민중으로부터 멀어져 가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전국연합의 흐름은 충북연합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의 기자회견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충주 중원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한 정기영후보를 지지, 지원하기로 하면서도 청주, 청원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충북연합의 태도는 지역운동의 중심인 청주지역에 대하여 반민자당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식의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충북연합의 애매모호한 총선방침은 충북의 많은 유권자와 함께 민중진영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충북연합은 충주, 중원지역외에도 총선전술을 제시해 들어감과 함께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청주을 지구에 대하여

청주갑이 충북정치 1번지라면 청주을은 충북정치 2번지라 할 수 있다. 청주을지구의 후보자 상황을 보면 수서비리 사건으로 지난 13대 오용운씨의 공천탈락으로 인해 임광토건 회장 임광수씨가 민자당 공천을 받아출마하고 민주당은 민주계인 변호사 정기호씨가 출마하고 민중당은 노동자후보로 택시기사 이효식씨가 출마한다. 기존과 다른 것은 민자-민주의 대결속에 민중당이 가세하여 지역 민중운동세력의 현주소와 민중의 정치적 진출의 판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과거 민자 - 민주의 대립구도가 아닌 민자 - 민중의 대립구도를 암시하는 것이다. 즉, 지역적 보수성의 변화와 민주당의 변화 속에서 보수와 혁신의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청주의 지역적 낙후성에 기인하여 기존 정당에 대한 물갈이의 형태로 나타나며 정치적 개혁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과 함께 청주을 에서는 오용운씨의 수서비리로 인해 정치적 도덕성에 심한 반감으로 나타나 보수와 혁신의 구도를 가속화 시켜내고 있다.

3. 충북연합에 제안한다.

충북연합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제자리를 잃고 있다. 충북연합은 이제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한걸음 한걸음에 대하여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지역운동의 발전에 복무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주을 지구를 비롯한 여타의 지역에 대한 구체적 총선전술에 입각하여 투쟁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물건나간 민주대연합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민중후보를 지지·지원해 들어가기 위하여 선거지원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선거투쟁에 결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환상과 미련을 버리고 민중당에 대하여 올바른 관점을 견지하고 청주, 청원지역의 민중당후보에 지지·지원해야함을 강조한다.

1992.3.10

민중진영독자정당지지와민중후보추대를위한충북지역학생선거투쟁연합건설준비위원회

23. 단체명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약칭: 진정추

존속기간 : 1992년 7월 - 1995년 9월

주요 활동지역 : 충북

법적 상태 : 합법

조직 체계 : 회원총회, 위원장, 운영위원회, 분회, 사무국

강령 : - 진보대연합의 기치 아래 노동자계급에 깊게 뿌리 내리면서 도시빈민, 농민, 진보적학생과 지식인 등 다양한 계급-계층을 포괄하는 노동자 중심의 진보적 대중정당.
-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사회주의

1992

- 7. 4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모임 결성
진보정치위원회대전충청광역본부준비위원회 구성
준비위원장 선재규(대전대덕지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충환(청주지부 사무국장)
- 7. 7 산재추방선전 ‘노동자가 앞장서서 산업재해 추방하자’ 선전물 배포
주관 :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모임
- 7. 8 14대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정책선전물 배포
- 7. 11 진보정당추진위원회청주지부 결성식
- 11. 9 민중대통령후보 청주발대식 및 백기완 후보 초청강연회
대통령선거 청주선거운동본부 조직체계 및 인선
청주선거대책회의장 : 이효식
공동본부장 : 진차형, 이효식
상임본부장 : 이효식
집행위원장 : 조근형
상황실장 : 권도익
조직국장 : 고재권 조직국차장 : 전진우
총무국장 : 이신용 총무국 차장 : 이주희
선전국장 : 양광일
사추위와 합의된 사항
양단체의 분회를 선거시기 통합하여운영한다
조직형태는 노동, 농민, 시민으로 구성한다
각 부문대표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활동:

주요 활동가: 이효식,오맥균,강철,정충환,오덕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자료 1 - <새벽을 연다>

자료 2

결의문

청주지역에서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의 첫 깃발을 든 ‘한국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임시사무소에서부터 오늘의 역사적인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청주지부 결성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뒤돌아 볼 여유도 없이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동안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의 정치적 진출과 조직적 단결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왔고 현재와 같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한다. 또한 우리는 ‘한노당창준위’ 출범이후 온르에 이르기까지 과정상의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가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

그것은 조직력의 취약으로부터 비롯된 바 크지만 그보다는 제반의 크고 작은 사업작품상의 문제가 이를 더욱 증폭시켜왔다는데 혐의를 두고 그간의 오류와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조직의 모든 사업을 당원 자신이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당내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직의 결정에 모든 성원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기풍을 확립하고 조직의 결정을 당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민주주의의 모범을 확립할 것이다.

둘째, 낡은 관습과 구태의연한 활동방식을 타파하고 대중과 밀착하는 새로운 활동방식을 창출하는 것으로부터 ‘노동자계급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대중적 기반을 넓혀갈 것이다.

위 두가지의 문제가 진보정당운동을 지지하는 지역의 많은 동지들이 우리에게 제기해 온 애정어린 충고의 핵심이었다고 판단하고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진정추 청주지부가 지역 진보세력의 조직적 구심으로 우뚝 서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진보정당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1차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여타의 진보세력들과 힘을 모아 대변 할 후보를 출마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곧 우리 진정추 청주지부 전회원의 결의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결의를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창당과 대선을 위한 크고 작은 지부의 사업을 지역진보세력과 더불어 실천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대중정치사업을 통하여 대중적인 지지를 모아 나갈 것이다

온르 지부 결성식을 맞아 다짐하는 우리으 결의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분명히 하고 한 발 내어딛는 출발점에 부로가하다 앞으로 우리의 앞길에는 지금까지 겪어온 어려움보다 큰 난관들이 산적해 있음을 우리는 직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실패도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24. 단체명 : 사회당추진위원회

약칭: 사추위

존속기간: 92.10 - 93.5

주요 활동지역: 충북

법적 상태: 반합법

조직체계

강령:

결성과정

92.2 민중진영단일정당 추진위원회구성

92.10 사회당추진위원회로 전화

92.12 14대 대통령 선거 시 민중대통령 선거운동

주요 활동가 : 우희정, 권도익, 이이숙,

V. 충북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단체 일지

날짜	관련단체	사건명	부문	출처
1950. 7. 25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영동군 주민 500여 명 항간을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터널에서 미군의 공습과 기총사격으로 학살당함		조선일보 1960. 2. 10
1957. 12. 4		대한노총 충북선 토건 노동조합 충북선 연장 공사장의 여러 문제로 노동쟁의 진입	노동	충북신보
1958. 5. 15		충북여객 노자(勞資)분규 재연	노동	충북신보
1960. 3. 10		충주시내에서 300여명의 충주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원의 자유와 민주주의 만세를 부르며 데모 행진을 하다가 경찰의 제지로 해산, 20여명이 경찰에 연행됨	학생	조선일보 1960. 3. 10
1960. 4		청주대 교수단 3·15부정선거와 학생 사살·고문한 책임자 엄벌하고, 부정부패 공무원들 중형에 처하라는 6개 조항의 성명서 발표	연합	『충북연표』
1960. 4. 18		청주상고, 청주공고, 청주고 학생 천여 명이 ‘마산사건에 경찰은 책임져라’며 시위	학생	충북신보 1960. 4. 19
1960. 4. 19		청주농고, 청대, 세광고 학생들, ‘구속된 고교생을 석방하라’, ‘마산사건의 고문경찰관을 즉시 처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 경찰과 충돌	학생	충북신보 1960. 4. 20
1960. 4. 26		제천고 학생 3·15부정선거 규탄 데모 및 4·19희생자에 대한 모금운동 전개	학생	충북신보 1960. 4. 27
1960. 4. 27		청주고 학생 100여 명 시내 중앙공원에서 부정부패 공무원 숙청과 한희석, 최인규 처단을 외치며 데모, 도청 앞에서 도지사 사퇴 요구	학생	충북신보 1960. 4. 28
1960. 5. 1		4·19 희생자 故 지영현(충대 2년) 씨 위령제 모교 단양 국민 학교에서 거행	학생	『충북연표』
1960. 5. 3		음성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900여 명이 3·15부정선거와 4·19희생자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을 외치며 시위함	학생	『충북연표』
1960. 5. 17		한국운수청주지사 종업원 47명 지점장 사퇴를 요구하며 파업	노동	『충북연표』
1960. 5. 19		충청북도학생연합회 주최 4·19의거 학생희생자 위령제 공고에서 거행	학생	『충북연표』
1960.		민주혁신당은 29일 충주비료공장의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담화를	정치	『충북연표』

5. 29		발표하여 '총주비료에서 생산되는 비료가 적절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농민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영으로 할 것을 주장함		
1960. 5. 30		청주시 초등교원 노동조합 결성(위원장 박종복), 진천수리조합원 100여 명 시위, 수세인하 약속 받고 해산	노동 농민	『충북연표』
1960. 6. 15		총주비료 노동자들은 앞서 사면된 4명의 종업원의 복직과 현 사장 이하 상무 등 5인의 간부퇴진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오장관은 장하승사장과 정상무등 5인의 사표를 이미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종업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통고함	노동	조선일보 1960. 6. 16
1960. 9. 13		보은연초경작조합원 연초배상금 4할로 인상 요구하며 시위	농민	『충북연표』
1960. 10. 13		충북수리조합은 '결원중인 조합장의 즉시 임명' '조합직원의 전원해임' '조합평의원의 재선'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청원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함	농민	조선일보 60. 10. 18
1960. 10. 23		총주비료공장 직장 노동조합원 7백 여 명이 단체협약 체결과 임금 인상, 그리고 부정불법인사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쟁의에 돌입함	노동	충북신보 1960. 10. 23
1961. 2. 19		반민족행위자 충북조사위원회에서는 18일까지 조사된 340명의 반민족행위자 중 제 1차로 25명을 우선 심사청구 했으며, 심사대상 범위는 1. 자유당충북도·시당과 2. 반공청년당충북도·시당 3. 대한노총 등 간부급으로 알려짐	정치	조선일보 1961. 2. 22
1961. 5. 1		청주대 학생들이 현 등록금에서 15000환을 삭감하고 9명의 무능교수를 사퇴케 하라고 학교 당국에 건의하고 요구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휴학하기로 결의함	학생	『충북연표』
1964. 3. 27		한일회담반대 시위, 청주시내 고교대학생 6천여 명, 충주 1,200여 명, 옥천 300여 명	학생	『충북연표』
1964. 4. 20		청주공업고등학교 학생 1100여명이 '5월 혁명의 자랑스런 4월 혁명의 모독이다' '한·일 회담을 백지화하라' '형식적인 위정치는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거리로 나와 시위함	학생	조선일보 1964. 4. 21
1964. 6. 1		청주대학교 학생 150명이 '부정부패를 철저히 규명하여 원흉을 총살시켜라', '현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면 정부는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는 선언문을 낭독하며 시국 성토대회를 열었다	학생	조선일보 1964.6.2
1964. 6. 3		청주상고생 1,600여 명 난국타개학생궐기성토회 개최, 연행학생 석방 외치며 가두시위	학생	『충북연표』
1964. 6. 4		청주대생 600여 명, 청주농고생 1천여 명, 청주고생 1,200여 명 비상계엄 해제, 구속학생 석방, 휴교조치 철회 등을 외치며 시가 시위	학생	『충북연표』

1964. 8. 22		위헌적이며 반민주적인 언론윤리위법철폐를 위한충북언론인대회가 청주문화원회의실에서 30여명의 중앙일간지특파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됨	언론	조선일보 1964. 8. 22
1965. 4. 2		오후 1시 제천읍 남샘동 하천변에서 군중 1500명이 모인 가운데 대일굴욕외교반대투쟁대회가 열림	정치	조선일보 1964. 4. 3
1965. 4. 4		대일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의 제 1단계 유세 마지막 집회가 4일 청주시 무심천변에서 약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림	정치	조선일보 1964. 4. 6
1965. 11. 24		청원군 농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충북농민회 결성(회장 안동준)	농민	『충북연표』
1967. 6. 14		청주상업고등학교 등 청주시내 각 중·고등학교에 6.8국회의원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제목의 유인물 수 천 장이 뿌려짐	학생	조선일보 1967. 6. 15
1967. 6. 15		청주시 중고교생 6·8 탄압 시위	학생	『충북연표』
1967. 7. 3		충북대 청주대생 6·8총선 규탄 데모, 경찰의 제지로 해산, 무기휴강에 돌입	학생	『충북연표』
1967. 11. 7		7일 낮부터 약 1시간 동안 제천군 송학면 입석리 충북시멘트공장 인입선 레일 주변에서 8일째 계속 파업중인 대한통운 측 노조원과 공장 측 종업원들 간에 투석전이 벌어져 40여명의 노조원과 20여명의 공장직원이 중경상을 입음	노동	조선일보 1967. 11. 8
1969. 9. 8		청주대학생 약 300여명이 3선 개헌 반대 집회를 한 후, 교문 밖 약 500m까지 진출했다가 경찰의 제지로 해산됨. 충북대학생 약 300명이 3선 개헌 반대 집회를 벌이다 교수들의 만류로 해산함	학생	조선일보 1969. 9. 9
1969. 9. 11		충북대학, 3선 개헌 반대 시위로 11일부터 무기휴강	학생	『충북연표』
1970. 6. 27		전국 섬유노조 옥천제사공장 분회 임금 30% 인상과 단체협약을 내걸고 쟁의 신고	노동	『충북연표』
1970. 8. 24		제천군 한일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 1백50여 명 낙진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하며 시위	주민	『충북연표』
1973. 8. 8 ~ 1974. 2. 23	청주산선	청주시 소속 청소부(임시고용원)들이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며 이의 시정할 것과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해고된 청소부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 전개	노동	
1974. 9. 1	청주산선	충북 괴산군 용강 지구 농지공사장 인부 31명은 1974년 9월 1일 청주 도시산업선교회관에 모여 회의를 가진 후, 9월 5일 체불 임금과 식대, 기타의 비용으로 1백93만3천4백20원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관계요로에 제출하며 체불임금 지급 청구운동을 벌임	노동	『충북연표』

1975. 3. 28 ~ 1977. 4		청주 신흥제분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 '부당하고 종업원 복직'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시위	노동	동아일보 1975. 4. 3.
1975. 10. 23		보은군 마로면 보은광업소 장기휴업, 광부 1백20명 해고	노동	『충북연표』
1975. 12.	청주산선	예정(통합) 충북노회 교역자 46명이 1974년 12월 유린된 근로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 청주연체제조장에서 20여 년간 일하다 두 눈이 실명된 박석화양을 위해 ①박 양이 살아갈 경제적 보상을 전매청에서 책임지고 해줄 것과 ②위의사항이 어려울 경우 박 양이 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처를 마련해 줄 것 등을 요구함	노동	크리스찬 신문 1975. 3. 15
1976. 7.	청주산선	청원군 주민들(최영길, 김교영)이 국가에 의해 몰수되고 보상받지 못한 토지를 반환할 것을 청구함	주민	크리스찬 신문
1976. 7. 18 ~ 1977. 4	청주산선	1974년 4월에 신흥제분주식회사(사장 민현석, 회장 민철기)에 하청도급인 신흥기업에서 120여명의 노동자들과 전국화학노조 신흥기업직할분회로 노조를 조직하고, 노동자들의 복지 및 권익을 위함과 동시에 산업개발을 위하여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이완우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할빈교 및 산업선교 교우일동이 진정서 제출	노동	기독교공보 1977. 8. 20
1977. 8. 8	청주산선	청주시 소속 청소부들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을 조직함	노동	크리스찬 신문 1974.1.19
1978. 1. 27		원풍산업 옥천공장 적자누적으로 1백72명 집단 해고	노동	『충북연표』
1978. 7. 처 23	청주산선	1978년 8월 4일 한일합작 삼화물산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상하차반 노동자 강성용씨를 비롯한 25명의 노동자가 근로조건개선(유급휴일제도, 월차휴가제도, 연차휴가제도, 잔업수당, 산재보상제도 실시), 향토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시 임금을 지불할 것과 체불임금 청구, 임금인상, 임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내용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1978년 11월 23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됨	노동	『충북연표』

1979. 7. 27	청주산선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일대 주민 20여명은 당국이 배수시설 잘못 으로 농지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3억 여 원의 배상을 요구하 는 투쟁을 벌임	농민	『충북연표』
1982. 3. 10		충북 음성 무극성당에서 농민 1,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농지 세제 시정 농민대회 개최됨	농민	『충북연표』
1982. 05. 15		청주 시위 기도사건 여대생 등 추가 검거	학생	『충북연표』
1982. 7. 19	청주산선	삼립식품 주식회사 청주공장 노동자 집단 해고. 당시 김경자 씨를 비롯한 몇 명의 노동자는 노동교회에서 신앙생활과 노동법을 학습 하고 있었는데 회사는 노동교회를 불순단체로 규정하고 교회에 나 가지 말 것을 종용하고 해고위협까지 가했다. 결국 회사는 1982년 7월 4일부터 18일까지 휴가를 주고 19일 복귀하는 날을 기점으로 14명의 노동교회에 다니고 있던 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함	노동	『충북연표』
1983. 4. 21		한국 기독교청년 협의회 청주지구, '민족통일정신과 몸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백기완 선생을 초빙하여 강연회 개최	종교	『충북지역 민 주화운동 자료 집』, p. 235
1983. 6. 25	청주산선	운천동 강제철거 및 성추행 사건. 1983년 6월 25일 청주시 운천동 3동이 건설부 고지에 의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주민들 은 시청과 토지개발공사에 항의와 건의를 수차례 하였지만, 토지개 발공사는 협박, 회유 등으로 일관해 오다가 생활대책 및 보상금을 해결하지도 않은 채 폭력을 행사하고 성추행을 자행함	주민	
1983. 6. ~ 1984. 10. 18	청주산선	1984년, 청주시 내덕동 90세대의 토지 21만평이 청주대학의 시설 부지로 설정됨에 따른 송정동, 운천동 토지의 강제매입에 반대와 생존권 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투쟁	주민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1983. 9. 30	청주산선	한음파 임금투쟁. 주식회사 한음파에 근무하던 노동자 3명이 근로 기준법에 정해진 기본 노동시간인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음 에도 그 어떠한 명목의 수당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노동	『충북연표』
1985. 4. 19		청주 대학교 학생 300여명이 4·19 기념행사를 갖고 '민주회복'을 외치며 교내 시위를 벌임	학생	『충북지역 민 주화운동 자료 집』
1985. 4. 21		청주 사범대학 학생 600여명이 교내 시위 후 교원대 폐지, 관선이 사 퇴진, 문교정책 반대 등을 외치며 시내 가두시위를 벌임	학생	『충북지역 민 주화운동 자료 집』

1985. 4. 21		농민 서형석씨 소값 폭락 비관자살. 소값이 계속 떨어지자 이를 비관한 농부가 극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다. 21일 오후 5시경 충북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2구 서형석씨(35·농업) 집 농기구 창고에서 서씨가 극약을 마시고 신음중인 것을 서씨의 형수 이충희씨(40)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날인 22일 오후 4시경 숨짐	농민	동아일보 1985. 4. 25
1985. 4. 22 - 23		청주 사범대학 학생 300여명이 '군부독재 정권 타도와 연행 학생 석방'을 요구하며 교내 시위	학생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1985. 4. 23		충북 기독교 농민회 회원들이 1985년 4월 23일 외국 농산물 수입 중단을 요구하며 미 대사관에 들어가 구호와 농민가를 부르며 시위함	농민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41
1985. 4. 30		충북대학교 총학생회가 10년만에 부활됨. 총학생회장단은 총 투표 8,000표 중 3,500표로 선출되었으며, 총학생회는 1975년 학도호국단으로 사실상 폐지되었다가 이번 선거로 다시 부활함	학생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1985. 5. 13		청주 대학교 학생 1500여명이 '재벌독재 김준철 이사장 퇴진'과 '어용총장 김명희 사퇴'를 요구하며 교내 시위	학생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1985. 5. 18		충북대생 1500여명이 5·18 광주민중항쟁 5주년 추모 및 진상규명 대회를 개최하고 교내 시위. 시내 청주극장 앞에서 충북대생 50여명이 '광주학살 책임자는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	학생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1985. 5. 18		광주민중항쟁 영령추모예배 및 사진전 개최. 충북기독교청년협의회는 충북민주운동협의회 후원으로 5월 18일 오전 11시 청주노동교회에서 5·18 광주민중항쟁 5주기를 맞아 추모 사진전을 갖고 2부 행사로 민주열사 고 최종철 묘비까지 행진을 하였다.한편 위 행사의 포스터를 붙이는 과정에서 이기섭(기청총무)외 3명이 청주시내 북관에서 구타를 당하고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가택 연금됨	연합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41
1985. 5. 18		청주 사범대학 학생 100여명이 광주 민중 봉기 영령 진혼굿을 갖고 교내 시위	학생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1985. 7. 17	충북민협	고 서형석씨 추도식 및 외국농산물 수입 규탄대회. 정부의 반농민적 농업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실에서 충북기독교농민회 주최의 '고 서형석씨 추도식 및 외국 농축산물 수입 규탄대회'가 개최되었다. 추도식에서는 고 서형석씨의 죽음은 반농민적 농정이 간접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이 제반 원인에 대한	연합	

		시정을 주장하였다.		
1985. 7. 19	충북민협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총무 오상근씨 집단구타 사건. 한국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총무 오상근씨가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해 오던 중 무자비한 구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함. 오상근 총무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통해 이유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구타를 당하고 쓰러진 채 짓밟혀서 한때 실신하기도 하였다	연합	
1985. 9. 9		충북 민정당 제1지구당사에 4명의 청년들이 진입하여 '민중생존권 보장하라' '민주제 개헌 실시하고 현정권은 물러가라' '학원안정법을 즉각 철회하라'는 요구를 외치며 농성 시작. 이와 동시에 50여명의 학생들이 구회를 외치며 시위를 벌임. 김희식(충민협), 정세영(청주산업선교회), 장원덕(카톨릭 대학생회), 최승영(청주대), 유수남(청주대) 등이 구속됨(충북민주운동협의회 발간 '함성' 제1호)	연합	『함성』 1호
1985. 9. 11		충북지역 인권협의회가 당시의 정국과 교회의 현안문제인 학원안정법 제정문제, 단군신전건립문제, 그리고 교회타종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성명서로 밝힘	연합	
1985. 12. 19		충북 고문·용공조작 저지대책위원회는 85년 10월 청주시내 일원에 '민중생존권 보장하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스티커를 제작, 부착한 EYC 청년에 대한 연행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심한 구타, 충북대 학생의 날 시위 관련자 폭력 수사, 청주대 교내 시위 관련자 폭력 수사, 민정당사 점거농성 구속자 가족 강제연행 집단 폭행을 비난하는 성명서 발표	연합	
1986. 3. 28		청주 대화운수 운전기사 김태웅씨가 회사 측의 부당한 노동조합활동 탄압과 억울한 사표 강요에 항의하여 온 몸에 신나를 끼얹고 분신을 시도함	노동	『민중의 소리』 16호
1986. 4. 25		충북대교수 32명이 '오늘의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함, 교수들은 '대학의 위기는 단순히 대학 안에서 극복 될 수 있는 학내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 돼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와 거기에서 파생된 불신과 반목 및 전도된 가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어 '국가의 장래는 국민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최근의 개헌논의는 어떠한 이유로도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5개항의 견해를 밝혔다	교육	조선일보 1986. 4. 26
1986. 4. 27		4.27 군사독재타도 및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충북도민 실천대회가 청주시내를 중심으로 개최됨. 이날 약5천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은	연합	『함성』 제5호

		스크럼하고 '독재타도', '전두환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의 최루탄 발사로 파편을 맞은 시민 3명이 부상하였고 총 연행자 42명 중 30명은 훈방되고 12명은 조사 후 구속 또는 구류, 다수가 수배됨		
1986. 4. ~ 1987. 4		청주지역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하고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다. 신신택시는 단체협약에 상벌위원을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구성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예고도 없이 노조위원장 최만수에 대해 해고조치 시키고, 중원택시는 단체협약체결을 4회나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응하지 않고 노조를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조합원과 조합원장을 부당하게 해고 시킴	노동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1986. 6. 23	청주산선	신신택시, 중원택시 조합장 부당 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공개 건의	노동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1986. 8. 10		재야단체 1백79명 고문폭력추방 농성	연합	『충북연표』
1986. 8. 13		충북민주화운동 탄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충북민주운동협의회, 충북기독교청년협의회, 충북도시산업선교회, 한국가톨릭농민회 충북연합회, 대한 가톨릭 대학생 청주교구연합회)는 8월 13일 경찰 폭력 및 민중, 민주화운동 탄압 저지대회를 개최함		
1986. 8. 31		1986년 8월 31일 청주출신으로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다가 80년 5.17조치로 구속된 후 조사과정에서, 그리고 교도소 수감생활중에서 당한 고문과 폭행의 후유증으로 인해 운명한 고 최종철의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소속회원들이 청주경찰서 내에서 집단 폭행을 당함	연합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1986. 9. 10 ~ 1986. 12. 31		교도소 폭력의 후유증으로 인한 유윤식 군의 정신분열 증세 발생. 1986년 9월 10일 공주사대 역사교육과 3학년 유윤식군은 학내 민주화 투쟁의 일환으로 어용교수의 자성을 촉구하다가 공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교도소 폭력의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분열 증세 발생	학생	
1986. 9. 12		8.13 경찰 폭력 및 민중, 민주화운동 탄압 저지대회	연합	『충북연표』
1986. 9. 30		내덕 파출소에서 청주대 황규훈 군 고문폭력 사건. 1986년 9월 30일 18시경 청주대학교의 황규훈군이 충북기독교청년협의회 월요성서연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충북기독교청년협의회 회관으로 가던 중 청주경찰서 정보과 소속 김모, 최모 형사에게 강제연행 되어 내덕동 파출소로 끌려가 고문폭력을 당한 사건 발생	학생	

1986. 12. 29 ~	청주산선	성신양회 주식회사 경비원 노동조건개선 및 원청복직 요구 투쟁. 1986년 12월 29일 성신양회 단양공장은 하도급업체 변경과 더불어 모든 노동조건 및 처우를 원청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약속하고 하도급 용역업체로 전직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소속변경절차를 마친 회사측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과 원청으로의 복직을 요구 하며 투쟁을 전개함	노동	
1986. 12. 30		농가부채에 대한 충북농민의 주장 성명서 발표	농민	
1987. 1. 27	청주산선	민중교통 노조는 1987년 1월 27일, 회사의 노조결성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 및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함	노동	
1987. 3. 10~ 1988. 4. 25		청원군 옥산면 호죽지 해평들 80여 농민들 '농지정리 불실 공사 완전보수'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함	농민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87
1987. 5. 11.		충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장기집권을 위한 군부독재의 4·13 호헌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천주교 청주교구 사제단 '조국을 위한 1일 단식기도회(4차)를 시작하며'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우리는 먼저 자성합니다', '인간의 복음화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은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고 주장함	연합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42, 237)
1987. 5. 12		충북대 교수 36명이 국민의 자유, 권리 및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민주헌법, 민주정부 탄생을 요구하는 '현시국의 불안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견해' 발표	교수	『충북지역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 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1987. 5. 13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4·13 호헌철폐와 군부독재 퇴진을 위한 단식기도를 드리면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국민여망 저버리는 4·13 호헌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장기집권 획책하는 현 군부독재정권은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함	종교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238
1987. 5. 19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노회, 충북노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단식기도회 참석자들, '현시국에 대한 충북예장 목회자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모두는 정직한 회개를 하자', '4·13호헌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화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종교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244
1987. 5. 27	청주산선	청주택시주식회사 노동조합 총무부장 박노영 해고	노동	

1987. 6. 10		‘호헌철폐·민주헌법쟁취’ 국민대회가 청주 시내에서 열림. 시위 참가자들은 ‘장기집권 발판되는 호헌책동 분쇄하자’ ‘군부독재 타도하여 민주헌법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침	연합	『충북지역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 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1987. 6. 19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시위가 청주 시내에서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벌어짐	연합	『충북지역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 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1987. 6. 26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충북지역본부 주최의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도민평화대행진’이 청주시 서교동 육거리에서 열렸으며, 집회 후 도청 앞까지 행진함	연합	『충북지역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 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1987. 7. 6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충북지역본부,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전두환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연합	『충북지역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 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1987. 7. 14		금성계전(주) 청주공장 노동자 1천여명이 7월 8일 사내 식당에 모여 강제잔업·철야·특근폐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전원 잔업거부, 승차 거부 등의 투쟁을 전개하여 7월 14일 이들 요구조건을 관철시킴	노동	『일하는 사람의 해방선언』 제3호
1987. 7. 17		청주MBC 기자 일동, 보도 편집의 독립 등 언론민주화 견해 발표	노동	『충북연표』
1987. 8. 10	청주산선	제일관광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철회 투쟁. 제일관광 주식회사에 소속된 운송노동자들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함	노동	
1987. 8. 12	청주산선	동원교통주식회사 어용노동조합 조합장이 노동감독관 및 회사에 결탁해 조합원의 진정서를 위·변조 사건	노동	
1987. 8. 14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제천·단양지부 결성대회’가 카톨릭 회관 3층에서 개최됨	연합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44
1987. 8. 17		충청지역 대학생대표자 협의회, ‘백만학도 통일대행진을 떠나며 청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군부정권에 의한	학생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용공조작으로 모든 민주인사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80년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지휘자에 대한 즉각적인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모든 국민의 집회시위결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군부독재정권의 반민중성, 반민족성에 기인한 민중들의 압박과 굴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자료집』, p. 213
1987. 8. 18		청주 동남택시(대표 원두제) 노동자 55명이 8월 17일 오전 2시부터 회사 노조사무실에서 임금 33%인상, 상여금 400%지급, 근로조건 개선 등 11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택시 운영을 중단하고 농성을 시작함	노동	조선일보 1987. 8. 18
1987. 8. 18		공군헌병대에 의한 충북민주운동협의회 회원 납치, 감금, 폭행사건	연합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46
1987. 8. 20		청주시 우암동 택시조합 사무실 앞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농성을 벌이던 삼우, 원일, 영진교통 등 청주시내 7개 택시회사 운전기사 3백 여 명이 이 날 오후 9시 쯤 경찰에 의해 해산 된 후 시내 곳곳에 흩어져 밤늦게까지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했다	노동	조선일보 1987. 8. 21
1987. 8. 21		청주공단 농성 근로자 최루탄파편 맞아 부상 / 청주력기-금성사 농성. 9백명 임금인상 요구	노동	『충북연표』
1987. 9. 23	청주산선	청주 평화택시는 임금체불, 배차문제의 불평등, 근무시간 중 식사미제공, 출퇴근시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엄청난 교통비를 지출해야 했으며 타회사와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는 약속도 불이행하며 노동조합해산을 종용하고 탄압하였다. 이에 노조는 임금체불과 노동조합 탄압 중지를 위한 농성에 돌입함	노동	『충북연표』
1987. 11. 21		민주교육추진 충북교사 협의회가 청원군 매포 수양관에서 100명의 교사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대회를 가짐, 참석자들은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만세', '1만여 충북교사, 35만 충북학생 만세', '민주교육 추진 충북교사협의회 만만세' 등을 외침	교육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231
1987. 7	청주산선	원일교통 노동조합 조합원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탄압중지 요구 탄원서	노동	
1987. 11		민중후보 백기완선생 충청지역 대학생 선거대책위원회 발족	학생	
1987. 12	민중의당	민중의당 흥덕구지구당 준비위원회 발족	연합	
1988. 1. 29	청주산선	청주 동원교통의 1987년 임금협정 기간이 1988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8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88년 4월 18일 1차	노동	

		협의를 회사측에 요구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청주시 택시업체 공동으로 임금교섭하기를 내세워 결렬되었다.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충북도지부에서 청주시내 16개 택시 사업 조합장들이 비인가 단체를 만들어 택시사업 조합측과 88임금협정을 시도하려고 시도했으나 당 노조 및 조합장은 회사측과 단독협상을 요구하였다. 5월 24일 충북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내고 당일 14:00부터 파업에 돌입과 함께 노조위원장 해고 및 구속되었다		
1988. 2. 25		충북민주운동협의회, '광주학살·부정선거의 원흉 노태우의 취임은 전면 무효임을 선언'하는 성명서 발표, 충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군부독재의 재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서 발표	연합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57, 241
1988. 2.	민중의당	민중의당흥덕구 지구당 창당		
1988. 3	민중의당	민중의당 국회의원선거 청주 흥덕구 후보 김재수 선거대책본부 결성		
1988. 3	청주산선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2구 50여 가구, 2백여 주민들은 청주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청주개발이 학교림인 이 마을 뒷산을 연고권자인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임대해 묘지로 사용함에 따라 20여년 동안 활용해오던 생활터전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책을 각계에 호소하고 구속된 농민문제와 밤나무 보상대책 협의를 요구함	농민	경향신문 1988. 3. 14
1988. 4. 19		청주대학교 사범대학 학생 20여명이 교생 실습비를 돌려 달라며 사범대학장실과 교학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함	학생	조선일보 1988. 4. 21
1988. 4. 29	청주산선	청원군 농지정리 보수공사 및 수세 거부 투쟁.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궁들 농민들은 1984년도에 기관에서 부실하게 실시한 농지정리 보수와 4년간 부당하게 징수된 수세를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함	농민	
1988. 6. 2	청주산선	청주법인택시 노동자 파업 및 단식 농성 시작, 240일 이상의 파업과 120명의 해고사태 발생. 청주지역 20여개의 택시회사에서 1,700여명의 운전기사가 참여한 총파업. 88년 임금협정안에 대한 항의로부터 출발한 파업, 이후 노조위원장 등의 불법 구속과 청주 도시산업선교회 정진동 목사 자택에 대한 사용자 측의 습격으로 사태 확산.	노동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1988.		충북 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 주최의 '양심수 석방 및 수배자	연합	『충북지역 민

6. 2		해제 애국시민 결의대회'가 충북대학교 우리마당에서 열림		주화운동 자료 집』, p. 254
1988. 6. 8		신신택시 등 청주지방 11개 택시회사 노조조합장들이 8일 오후 4시부터 청주시 사직동 전국택시노조충북지부 사무실에서 지난 1일 체계될 올 임금협정을 파기,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감	노동	동아일보 1988. 6. 9
1988. 6. 11-12		청주시내 회사택시 운전자 200여명이 11일과 12일 연이틀간 시내 곳곳을 돌며 '기만적인 임금교섭 즉각철폐' '88임금협정 완전무효화' '구속노동자 석방'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가두시위를 벌임	노동	충청일보 1988. 6. 13
1988. 6. 15		'청주지역 택시총파업 승리를 위한 애국시민 지지대회'가 청주도시 산업선교회, 민중의당 재건 충북추진위원회, 청주 민주노동자 연합, 충청지역 학생총연합건설 추진위원회 주최로 충북대학교에서 열림	노동	
1988. 6. 17		민주쟁취 국민운동 충북본부 주최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성대회 및 통일문제 강연회'가 민통련 부의장 지선 스님을 초빙하여 청주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열림('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215)	연합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215
1988. 6. 18	청주산선	영진, 원일, 삼보 등 14개 청주지역 파업택시 회사 중 3개 회사 운수 노동자 40여명이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단식농성에 돌입. 이들은 '임금인상', '구속노동자 석방', '직장폐쇄 철폐'등을 요구함	노동	
1988. 7. 2		민주통일 민주운동연합 주최의 '통일문제 강연회 및 문화공연'이 민통련 문익환 목사를 초빙하여 청주대학교 청암로에서 개최됨	연합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217
1988. 7. 7		60여명의 부녀자와 단식농성지지 운수노동자들이 청주시청에서 산업선교회까지 평화적 가두행진을 벌임	노동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1988. 7. 13		청주지역 운수노동자 파업과 관련한 '운동단체 및 재야 진상조사단'의 청주방문	연합	『충북연표』
1988. 7. 18-19		'88임금협정 철폐와 시청의 부녀자 폭행 규탄대회'가 청주 상당공원에서 약 400여명의 운수노동자와 가족들, 그리고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노동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1988. 7. 26		'청주지역 택시파업 시민지지 및 구사대의 정진동 목사 자택 습격 만행 규탄대회'가 청주지역 법인택시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위한 공동대책위 주최로 청주대학교 정문에서 열림	노동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63
1988.		충북지역 대학생대표자 협의회 주최의 '공동올림픽 쟁취와 평화협	연합	『충북지역 민

8. 11		정 체결을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 국토종단 순례대행진 및 8·15학생회담 성사를 위한 시민대회'가 청주 상당공원에서 개최됨. 민주쟁취국민운동총북본부, '8'15학생회담 성사와 평화협정 체결, 공동올림픽 쟁취' 성명서 발표		주화운동 자료집』, p. 151, 214
1988. 8. 23		충청일보 노조 결성(위원장 양희택)	노동	『충북연표』
1988. 9. 3		충주MBC 노조설립 총회	노동	『충북연표』
1988. 9. 7		옥천 성모병원 노동자들의 병원 측의 폐업조치 철회 투쟁	노동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74
1988. 9. 16		민주쟁취국민운동총북본부, 서울올림픽이 '분단을 영구화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독재연장의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민중의 생존권을 탄압을 더해가고 있다'며 '올림픽을 빙자한 미국과 노태우의 흥계를 분쇄하고 자주·민주의 길로 나아가자'는 성명서 발표	연합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52
1988. 10. 6		청주MBC 노조결성대회	노동	『충북연표』
1988. 10. 10		'고추·담배 생산비 보장 제천지역 농민대회'가 1천여명의 농민이 참가한 가운데 군청 앞에서 열림	농민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89
1988. 10. 28		괴산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괴산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단식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농축산물 제값받기 괴산군농민대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이 성명서에서 '실천협의회'는 '노동의 댓가에 대한 정당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라',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일원화하고 보험료를 인하하라', '부당한 수세는 즉각 감면 폐지하고, 농지개량조합은 농민이 운영하도록 민주화하라', '800만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지하고, 사료부가세를 철폐하라', '부정축재 환수하여 농가부채 탕감하라', '농민이 주인되는 민주화 실현하라', '농촌 자녀교육 보장하라' 등을 요구함	농민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245
1988. 12. 2		서원대 직원노조 태업 돌입	노동	『충북연표』
1988.		民協회원 30여 명 청주교도소에서 양심수 석방 요구 농성	연합	『충북연표』

12. 7				
1989. 1. 10		청주청원 농민, 대학생 3백여 명 수세거부 결의대회	연합	『충북연표』
1989. 1. 11		영동 고추재배 농민 군청 앞에서 농성	농민	『충북연표』
1989. 2. 2		사회안전법 폐지 요구하며 1백여 명 교도소 정문서 시위	연합	『충북연표』
1989. 2. 17		한국은행 청주지점 노조 철야농성	노동	『충북연표』
1989. 2. 27		민정당 도지부사무실에 화염병 투척, 28일 대학생 2명 구속	학생	『충북연표』
1989. 3. 13		청원군 북이 주민 1백여 명 청원군농협 앞에서 농성	농민	『충북연표』
1989. 3. 15		충북지역 대학생 7백여 명 충북대서 집회	학생	『충북연표』
1989. 3. 19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창립대회	연합	『충북연표』
1989. 3. 25		전국 교육대생 1천여 명 청주교대서 시위	학생	『충북연표』
1989. 3. 30		청주대 충북대생 7백여 명 반정부 시위 격렬	학생	『충북연표』
1989. 3. 31		현대 충주영업소에 20대 4명 화염병 투척	연합	『충북연표』
1989. 4. 3		서원대생 5백여 명 학원자주화 부정비리 폭로 규탄 대회	학생	『충북연표』
1989. 4. 6		청주대 총학생회 김준철 총장 취임 반대하며 1백29일간 농성	학생	『충북연표』
1989. 4. 14		서원대총학생회 학원자주화 위한 32개항 요구하며 수업 거부	학생	『충북연표』
1989. 4. 19		청주대 직원노동조합 파업	노동	『충북연표』
1989. 4. 28		충북대 총학생회장 박철용 전대협 공식 탈퇴 선언, 충북대학생 2천여 명 전대협 탈퇴 철회공식사과배후세력 규명 요구 시위	학생	『충북연표』
1989. 5. 2		충북대학생 전대협탈퇴 관련 총학생회장 탄핵 및 동맹휴학 결정	학생	『충북연표』

1989. 5. 6		충북여성민우회 창립	여성	『충북연표』
1989. 5. 25		관제 학부모조직을 동원한 좌경의식화 조작 규탄 성명	교육	『충북연표』
1989. 5. 25		제원고 강성호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교육	『충북연표』
1989. 6. 3		제천서 강성호 교사 구속 항의 규탄 대회	교육	『충북연표』
1989. 6. 10		전교조 충북지부 결성, 지부장에 권영국 교사 선출	교육	『충북연표』
1989. 6. 23		도종환 윤구병 김정웅씨등 충북지역 각계 인사 현시국에 대한 충북지역 1백10인 선언 발표. △충북시민회 창립→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로 명칭 변경(2001 2. 8)	연합	『충북연표』
1989. 6. 29		국가보안법위반혐의 논문 게재 관련 충북대학교 교지 <개신>29호 2천5백 부 압수	학생	『충북연표』
1989. 7. 13		전교조 가입 교사 16명 단식 수업	교육	『충북연표』
1989. 7. 24		전교조 탈퇴교사 31명 탈퇴무효화 양심선언문 발표	교육	『충북연표』
1989. 9. 5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 결성	여성	『충북연표』
1989. 10. 28		전교조 충북지부와 전교조 탄압저지와 합법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의 '참교육을 위한 국민걷기대회'가 충북체육관 앞에서 출발하여 수아사를 거쳐 상당공원에 이르기까지 진행됨	교육	『충북지역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 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1989. 11. 26		청주 지역 대학생시민 4백여 명 89민중대회개최 후 시위	연합	『충북연표』
1989. 12. 19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충북공동위원회 주최의 '국가보안법 철폐와 5공 청산을 위한 시국강연회'가 한상렬 전민련 공동의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개최됨	연합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66
1990. 1. 14		청주지역 대학생 2백여 명 시위, 전두환 전대통령 구속, 노태우정권 퇴진 요구	학생	『충북연표』
1990. 1. 31		충북지역 총학생회 연합회 결성	학생	『충북연표』

1990. 2. 20		청주 중앙로 노점상인 1백여 명 중앙로 점거 농성	빈민	『충북연표』
1990. 2. 25		'반민주 3당 야합 분쇄 및 민중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가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림,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주권 유린하는 반민주야합 분쇄하자', '민중운동 탄압하는 민자당 독재 물리치자', '국회해산', '즉각 총선실시' 등을 외쳤다	연합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67
1990. 3. 1		충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와 충북기독교청년협의회 주최의 '민주화 실현을 위한 비상사국 기도회 및 걷기대회'가 장을병 성균관대학교수를 초빙하여 청주제일교회에서 열림	종교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246
1990. 3. 16		밤 10시 이후 새벽 사이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회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 거울·시계 등을 부수고 사진기·녹음기를 훔쳐 달아난 사건 발생. 이에 대해 총민련은 이 사건은 '3당 야합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행된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폭력테러'라고 규정하고 '수범으로 보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그동안 벌어진 민주세력 조직테러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함	연합	한겨레 1990. 3. 18
1990. 3. 20		청주교도소 재소자 10명, 동료재소자 사인규명 요구 단식 농성	인권	『충북연표』
1990. 3. 21		충북대 4백여 명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연합	『충북연표』
1990. 4. 13		국민연합 충북본부 발대식	연합	『충북연표』
1990. 5. 1		청주MBC노조 KBS 공권력 투입 항의 제작거부 결정	노동	『충북연표』
1990. 5. 9		민자당 분쇄궐기대회서 1천여 명 도심 격력 시위 △전교조 걷기대회 청주 시내 시가행진	연합	『충북연표』
1990. 5. 23		밤 9시경 충북대 총학생회 사무실에 괴청년들이 쇠파이프 각목 등을 들고 난입, 캐비닛과 유리창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뒤 달아나는 사건 발생	학생	『충북지역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 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1990. 5. 25		청주대서 개최된 한대련1기 출범식에 반대해 전대협 지지학생 1천여 명이 '한대련 해체' 등을 주장하며 시위	학생	충청일보 1990. 5. 26
1990. 6. 2		충북대신문사 기자 10명 총장실 점거 농성	학생	『충북연표』
1990.		한주전자(株) 노사분규 관련 직장폐쇄	노동	『충북연표』

6. 8				
1990. 6. 10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와 민중 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민연합 충북 지부 주최의 '청주지역노동운동탄압규탄대회'가 충북대학교 우리마당에서 개최됨, 참석자들은 AMK와 현대정밀의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함	연합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80
1990. 7. 18		코리안마이트사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노동부 청주지방사무소 관내서 첫 구속, 10월 11일 징역 8월 선고	노동	『충북연표』
1990. 7. 20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7·20 민족대교류 선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금번발표가 노정권의 위기의 탈출구로 이용됨을 단호히 배격한다', '노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통일의 대전제로서 평화군축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통일인사에 대한 석방조치가 즉각 단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연합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218
1990. 7. 27		충북기독교 교회협의회, '현시국에 대한 충북 NCC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장기집권의 도구인 각종 악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파행적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의 뜻을 묻는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노태우 정권은 더 이상 분단을 독재유지에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대연합의 실현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적극 매진할 것을 천명한다'고 주장함	종교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247
1990. 8. 6		충북대협 국보법 철폐 요구 기자회견	학생	『충북연표』
1990. 8. 11		전대협 통일선봉대 청주시내 평화대행진	학생	『충북연표』
1990. 8. 13		충주시내버스 5차례 협상 결렬로 전면 파업 단행, 14일 협의 정상 운행	노동	『충북연표』
1990. 9. 7		고속도로시설공단(사장 문인갑)은 공단산하 옥산휴게소(소장 박찬홍) 노조(위원장 라영화)의 단체행동을 이유로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임, 정직, 감봉 등 중징계하였다. 옥산휴게소 노동자들은 '해고자 전원복직과 징계노동자 원상회복', '회사측은 단체협약에 성실히 임할 것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함	노동	『충북연표』
1990. 9. 22		'민자당일당 국회해산과 민중생존권 쟁취대회'가 청주대 민주광장에서 개최됨, 참석자들은 '독재들러리 일당국회 즉각 해산'과 '우리 농민 갇아먹는 UR협상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침	연합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168
1990. 9. 28		청주 YMCA UR협상 대비 시민결의대회 개최	연합	『충북연표』
1990.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충북 기독교청년협의회, 카톨릭 대학생 청주	연합	『충북지역

10. 27		교구 연합회 주최의 '보안사 해체를 위한 청년 결의대회'가 청주 중앙여고 앞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개최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 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1990. 11. 12		청원군 농민회 소속 농민 150여 명 충북대 우리마당서 UR협상 철회, 추곡 전량 수매 요구 시위	농민	『충북연표』
1990. 11. 17		음성 UR극복 농민대회, 농민 등 3천여 명 참가 △충북대 우리마당서 문익환 목사 통일강연회	농민·연합	『충북연표』
1991. 1. 28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준비위원 30여명, 정부의 범민련 탄압에 항의하여 '범민련 탄압 및 통일인사 구속 규탄' 철야 농성에 들어감	연합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p. 219
1991. 3. 3		청주지검에 대학생 4·5명 화염병 투척	학생	『충북연표』
1991. 3. 26		학생운동 관련 서원대생 분신	학생	『충북연표』
1991. 4. 15		충북전자 노조원 50여 명 근무조건 변경 철회 요구 농성	노동	『충북연표』
1991. 4. 26		AMK 노동자들이 어용 집행부의 임금교섭 결과에 반대하여 기존 위원장 불신임을 의결하고 민주노조 결성. 그러나 회사는 새로운 노동조합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4명의 노조원들을 해고시킴. 그 중 2명은 경찰에 구속 됨. 이에 노동조합은 50여 일이 넘게 부당 해고·구속 철회 투쟁을 전개함	노동	『충북연표』
1991. 4. 28		충북대 우리마당서 강경대 군 치사사건 경찰폭력 규탄대회, 학생근로자 3백여 명 참가	연합	『충북연표』
1991. 5. 11		언론노련 충청지역협의회 결성	언론	『충북연표』
1991. 5. 2		충북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소속 80여 명 강경대 군 폭행치사 규탄 침묵시위	종교	『충북연표』
1991. 5. 4		불량 종묘로 인한 폐농에 대한 보상 요구 투쟁. 청주시 및 청원군 농민들은 대기업에서 선택해 놓은 흥농 종묘사에서 알타리 무씨를 구입하여 적기에 파종을 하여 농사를 지었으나 추대가 발생하여 꽃이 피자 모두 농사를 폐농함에 따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1차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흥농에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피해 농민들은 불량종묘를 공급한 흥농종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	농민	『충북연표』
1991. 5. 8		충북 민주화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0여 명 시국 관련 가두 침묵시위, 건국대 충주캠퍼스 대학생 1천여 명 강경대 군 추모 평화	교육	『충북연표』

		시위		
1991. 5. 14		도내 초중고 현직 교사 66명 시국성명 발표	교육	『충북연표』
1991. 5. 16		살인 정권 규탄 위한 충주·중원대책위 시국성명 발표	연합	『충북연표』
1991. 5. 18		광주항쟁 계승과 살인정권 규탄을 위한 2차 국민대회 1천여 명 가 두시위	연합	『충북연표』
1991. 6. 8		'6월항쟁 계승 제5차 국민대회'가 청주 사직동 체육관 앞 광장에서 개최됨	연합	『충북연표』
1991. 6. 11		청주대 재학생·졸업생이 관련된 이른바 '자주대오' 사건 발생.		『충북지역 5·6공 시국관 련 의혹·조작 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1991. 6. 3		AMK 노동조합 부당해고 철회 투쟁	노동	『충북지역 5·6공 시국관 련 의혹·조작 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1991. 8. 11		전대협 통일선봉대 통일인사 석방 요구 청주교도소 앞 농성	학생	『충북연표』
1991. 11. 23		쌀수입 저지 노동법개정 91충북민중대회	연합	『충북연표』
1992. 1.16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발기인 모집 노동자정당건설 추진위원회 청주임시연락사무소 개설		
1992. 2.29	민중당	민중당청주시을지구당 창당		
1992. 3. 2		한국야금 92년 임금투쟁. 한국야금은 92년 3월 2일부터 5월 24일 까지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에 들어가 약 10.6%의 인상안에 합 의하고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노동	『충북연표』
1992. 3. 18	민중당	민중당 정당연설회		
1992. 3. 24		14대총선 민중당 후보 이효식 속리택시노조위원장 출마		
1992. 4. 20		'고 강경대 열사 1주기 추도식 및 5월 투쟁 선포식'이 민주주의 민 족통일 충북연합 주최로 청주대학교에서 열림	연합	『충북지역 5·6공 시국관

				련 의혹·조작 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p. 170
1992. 6. 23	청주산선	평곡 산업 노동자들은 6회나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성공을 못하고 1991년 10월 1일자로 노조 설립신고를 하고 노조가 민주적으로 발전을 해오면서 민주적 방법으로 단체협상도 26차나 거치면서 평화적으로 타협을 보려고 하였으나 회사측의 무성의로 6월 23일 총파업에 돌입함	노동	『충북연표』
1992. 7. 4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모임 결성	노동	
1992. 7. 4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대전충청광역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연합	『진보정당추진위원회결성식자료집』 P. 5
1992. 7. 7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모임	노동자가 앞장서서 산업재해 추방하자 선전물 배포	노동	
1992. 7. 11		진보정당추진위원회청주지부 결성식	연합	
1992. 11. 9		민중대통령후보 청주발대식 및 백기완후보 초청강연회	연합	

VI. 참고 자료

-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정진동목사 소장자료(1972~현재).
- 청주도시산업선교회. 2002. 『청주도시산업선교 뿌리 III-1991~2002 언론에 보도되었던 자료』
- 청주도시산업선교회 노동교회. 1992. 『민중선교 20년』
-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관계된 사건을 언론은 이렇게 동원했다 -1973~1982까지』
- 청주도시산업선교회. 1986. 『청주도시산업선교회 뿌리-1973~1986 언론에 동원되었던 자료』
- 청주여자기독교청년회. 1995. 『청주YWCA 30년의 발자취』 ,
- 충북연대. 2001. 『충북지역 민주화운동 자료집』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1997. 『민교협10년사』, pp. 178-183. 「충북민주화교수협의회」
- 충북지역사회연구회. 1999. 『충북지역 사회운동: 1985-1999』
- 충북지역의혹·조작 시국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000. 『충북지역 5·6공 시국관련 의혹·조작사건
진상조사 자료집』
- 충북학연구소. 2004. 『충북 100년 연표: 1896~2002』
- 기독교농촌개발원. 1982. 『1981년 농촌관계신문기사모음집』 , 「자료82-1」 1982.
- 한국기독교교회문제연구원. 1982. 『82년 농촌사회 사정-82년 농촌관계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
「자료82-03」 1982.
-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1989.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 민주주의민족통일충북연합. 『회의자료』
- 국민회의충북본부. 『회의자료』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함성』
- 청주대학교총학생회. 『청대소식』
- 농산물 제값받기 제천지역 대책위원회. 『농민의 함성』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노동위원회. 『일하는 사람의 해방선언』
- 청원군 농민회. 『땀흘리는 농민』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민중의 소리』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청년교실』
- 충북민주화운동협의회. 『민주충북』

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황소울음』

故 심광보열사 추모사업회. '광보를 기억하는 사람들', <http://cafe.daum.net/kwangbo>

진보정당추진위원회청주지부 『결성식자료집』

진보정당추진위원회청주지부 『3,4차총회자료집』

민중당청주시을지구당 『2차총회자료집』

민중진영독자정당지지와민중후보추대를 위한 충북지역학생선거투쟁연합건설준비위원회

신문 1호 『새벽을 연다』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청주임시연락사무소 선전물 『노동자 정당건설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합니다.』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충북

발행일: 2005년 12월 28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T: 02-3709-7500 E-mail: edit@kdemo.or.kr F: 02-3709-752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 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